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5 권

제 1 장 무당산(武當山)에 부는 회오리

뒷산의 소원과 앞에 있는 삼청전 거리는 이 리(里)정도 되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의 말소리는 똑똑히 전해 왔다. 필시 적들이 자기네 무공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

유대암은 이처럼 사존을 모욕하는 언사를 듣자 화가 치밀어서, 눈에서는 마치 불을 뿜어나오는 것 같았다.

"대암아, 내가 너에게 단단히 일러둔 말을 벌써 잊었느냐? 모욕을 참아내지 못하면 어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네, 사부님의 교훈을 받들겠습니다."

"너는 온몸이 불구라 적들이 널 경계하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고심하여 창작해 낸 절예(絶藝)를 후세에 전하지 못하면, 넌 바로 무당파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윽고 장삼봉은 몸에 지니고 있는 쇠로 주조된 한 쌍의 나한(羅漢)을 꺼내어 유대암에게 주며 말했다.

"이 공상의 말을 견주어 보면 소림파가 이미 섬멸되었다는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이 자는 소림파의 고수인데 그 자마저 적에게 투항하여 나를 암살하려 온 걸 보면 소림파는 필시 큰 화를 당한 게 분명하다. 이 한 쌍의 철나한은 백 년 전 곽양(郭襄) 곽여협께서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네가 나중에 소림의 전인(傳人)에게 돌려주어라. 이 철나한의 몸에서 소림파의 일항절예(一項絶藝)를 유전(流轉)하기 바랄 뿐이다."

말을 하면서 큰 소맷자락을 한 번 흔들더니 문 밖으로 나갔다.

네 사람이 삼청전에 와보니, 삼청전 안에는 앉아 있거나 서 있

는 사람이 족히 삼, 사 백 명은 되는 것 같았다.

장삼봉은 가운데 서더니 포권하여 인사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대암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분이 바로 저의 사존인 장진인이오. 여러분들이 무당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삼봉의 대명(大名)은 무림을 위진(威震)하였기에 모든 사람의 눈빛은 일시에 그의 몸에 집중되었다. 그는 더러운 회색도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은백색이었고, 체격이 몹시 클 뿐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장무기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반수는 명교 교도들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앞에 서 있는 십여 명은 각각 다른 복장을 입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신분을 높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다. 고왜승속(高矮僧俗) 수 백명이 진중에 모여 있어서 일시에 각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 있는 자가 소리쳤다.

"교주가 오셨습니다."

삼청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즉시 정숙해졌다. 앞에 있던 십여 명은 얼른 나가서 영접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곧 뒤따라서 나갔다. 눈깜짝할 사이에 삼청전 안에 있던 수백 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나갔다.

이윽고 십여 명의 발자국소리가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워지더니 삼청전 밖에서 멈추었다. 장무기는 전문(殿門)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깜짝 놀랐다. 여덟 사람이 황단대교(黃緞大轎)를 들고 있고 칠, 팔 명이 앞뒤로 호위하며 문 밖에 서 있었다. 그 가마를 들고 있는 여덟 명의 가마꾼은 바로 녹류장(綠柳莊)의 <신전팔웅(神箭八雄)>이었다.

장무기는 얼른 두 손으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더니 얼굴에다 칠하였다. 명월은 그가 적들을 보게 되자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줄만 알았다. 그러자 자기도 따라서 얼굴을 칠하였다. 두 소도동은 금방 조군보살(조君普薩)처럼 변해서 본래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었다.

이윽고 가마문이 열리자 소년 공자 하나가 걸어나왔다. 몸에는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도포 위에는 시뻘겋게 불길이 수 놓아져 있었다. 부채를 살며시 흔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장한 조민이었다.

'모든 게 전부 그녀가 부린 재주였구나. 그러니 소림파가 전혀 수습하지 못한 것이다.'

이윽고 그녀가 삼청전 안으로 들어가자 십여 명이 따라서 들어갔다. 그러자 체격이 우람한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더니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교주께 아뢰오. 이 자가 바로 무당파의 장삼봉 노도이고, 이 불구자는 아마 그의 제 삼제자인 유대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민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앞으로 몇 걸음 다가가서 부채를 접으며 장삼봉에게 읍을 하고 다시 말했다.

"만생(晩生)은 명교를 장악하고 있는 장무기입니다. 오늘 무림의 북두(北斗)를 뵙게 된 것은 실로 영광입니다."

장무기는 몹시 화가 났다.

장삼봉은 <장무기> 세 자를 듣자 매우 이상하게 느꼈다.

'어찌 마교의 교주가 이처럼 젊고 아름다운 소녀일까? 이름도 하필이면 무기와 같단 말인가?'

이윽고 합장을 하며 답례하고 나서 말했다.

"교주께서 광림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영접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기 바라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지객도인 영허가 화공도동(火工道憧)을 이끌고 차를 가지고 왔다. 조민 한 사람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수하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바른 자세를 취한 채 뒤에 서 있었다. 감히 그녀의 곁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불순하게 보일까 봐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장삼봉은 송원교 등의 생사안위가 몹시 걱정되었다.

"노도의 제자들이 주제를 모르고 귀교에 갔는데,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았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장교주께서 알려 주기 바라오."

그러자 조민은 히히! 하고 웃더니 말했다.

"송대협, 유이협, 장사협, 막칠협 네 분은 지금 본교의 수중에 있습니다. 각자 약간씩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상처를 입었다구? 아마 독에 중독되었을 것이오."

"장진인께서는 무학의 절학을 매우 자부하고 계시군요. 그들이 중독되었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하는 게 좋겠군요."

장삼봉은 제자들이 모두 일류 고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설사 적이 많아서 역부족이라 해도 몇 사람은 피신하여 회보(回報)할 것이라 믿었다. 만약에 정말 모두 잡혔다면 필시 적의 독약에 중독된 것이다. 조민은 그가 알아맞추자 자기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장삼봉은 다시 물었다.

"나의 그 은(殷) 제자는 어떻게 되었소?"

"은육협은 소림파의 매복에 당해서 이분 유삼협과 똑같이 사지가 대력금강지(大力金剛指)에 의해서 절단되었소. 죽지는 않겠지만 움직일 수는 없겠지요."

장삼봉은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자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 같았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파 오더니 왁! 하고 소리를 내며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내었다.

조민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기뻐했다. 그들

은 공상의 기습이 성공되었다는 걸 알았다. 이본 무당의 고인은 이미 중상을 입고 있어서 이제는 두려운 게 없었다.

조민이 말했다.

"만생에게 좋은 충고의 말이 한 마디 있는데, 장진인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말해 보시오."

"우리 몽고의 황제께서는 위력이 사해(四海)에 미치고 있습니다. 장진인께서 만약에 순종하실 수 있다면 황제께서는 즉시 수봉(수封)을 하사하실 겁니다. 무당파는 자연히 큰 영총을 받게 될 것이고, 송대협 등도 자연히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자 장삼봉은 고개를 들어 옥량(屋樑)을 바라보더니 냉랭히 말했다.

"비록 명교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나 항상 몽고인과는 적대 관계였소. 그런데 언제 조정에 투항하였소? 노도는 금시 초문이오."

"기암투명(棄暗透明), 항상 사무에 밝은 자가 준걸이오. 소림파의 공문, 공지 신승 이하 사람들은 모두 투항하여 조정에 진충하기로 했소."

그러자 장삼봉의 두 눈은 똑바로 조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원인(元人)들은 잔인무도해서 많은 백성들을 가해했소. 지금 천하의 군웅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호로(胡虜)를 몰아내고 우리의 산하를 되찾으려 하는 것이오. 모든 황제(黃帝) 손은 한결같이 달자를 몰아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소. 비록 노도는 출가의 몸이지만 어느 것이 대의인 줄은 알고 있소. 공문, 공지는 당세의 신승인데 어찌 세력이 굴복할 수 있겠소? 낭자는 어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오?"

그러자 조민의 뒤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섬출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늙은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무당파는 눈깜짝할 사이에 전멸될 것이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산에 있는 백여 명의 도인 제자들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을 줄 아느냐?"

그러자 장삼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읊어 댔다.

"인생자고수무사, 류취단심조한청(人生自古誰無死 留取丹心照汗靑)."

이건 문천상(文天祥)의 두 귀절 시(詩)였다. 문천상이 의거를 일으켰으나 뜻을 얻지 못하여 한탄하고 있을 때, 장삼봉의 나이는 아직 젊었다. 그는 이분을 몹시 흠모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그 때 무공을 왜 연성하지 못했었나 하고 자주 한탄하였다. 지금 생사가 눈앞에 다가왔으나 자기도 모르게 읊어낸 것이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다.

"문승상께서는 뭔가 꺼리고 있었지만 나는 오직 일편단심이다. 훗날 사서(史書)에 어떻게 적어놓든 상관하지 않겠다."

조민이 백옥처럼 흰 왼손을 살짝 한 번 흔들자 그 남자는 허리를 굽히면서 물러갔다. 이윽고 그녀는 살짝 웃어 보이면서 말했다.

"장진인께서 정히 이처럼 완고하시다면 잠시 그 얘기는 접어 둡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갑시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일어났다. 그러자 그녀의 등 뒤에 있는 네 사람이 재빨리 장삼봉을 포위했다.

이 네 사람 중 하나는 체격이 우람한 남자고, 하나는 누덕누덕 기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는 몸이 마른 화상이고, 다른 하나는 털이 많고 파란눈을 가진 서역의 호인(胡人)이었다.

장무기는 이 네 사람의 신법을 보고 내심 놀랬다.

'저 조 낭자의 수하에 어떻게 저런 많은 고수들이 있을까?'

장삼봉이 만약에 그녀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네 사람은 즉시 출

수할 눈치였다. 그러자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적방(敵方)의 고수가 너무나 많다. 이 자들은 어떠한 비열한 짓도 능히 하는 무리라서 광명정을 위공한 육대파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태사부님과 삼사백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실로 어렵다. 설사 그 중의 몇 사람을 격패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꺼번에 달려들 것이다. 이왕 일이 이처럼 되었으니 오직 사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조 낭자를 잡아와서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구나!'

이윽고 그가 나서서 네 사람에게 호통치며 저지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 밖에 음산한 긴 웃음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청색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삼청전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의 신법은 마치 귀신이나 바람, 번개 같았다. 순간 그 체격이 우람한 남자의 등 뒤로 돌아가서 일장을 후려쳤다. 그 남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손을 되돌려서 일장을 받아쳤다. 그와 경공(勁功)으로 겨루자는 의도 같았다. 그 사람은 일장이 명중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왼손으로 그 서역 호인의 어깨를 후려쳤다. 그러자 그 호인은 번개처럼 피하면서 발을 날려 그의 하복부를 걷어찼다. 그 사람은 벌써 그 수화상을 공격하면서 바로 몸을 비스듬히 해서 뒷걸음치며 좌장으로 그 누더기옷을 입은 자에게 후려쳤다. 눈깜짝할 사이에 그는 사 장을 연거푸 출수하면서 네 명의 고수에게 공격했다.

비록 일장도 적중되지 않았지만 수법의 신속함은 실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자 그 네 사람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줄 알고 각자 몇 발씩 물러나더니, 다시 태세를 가다듬고 접전했다.

그 청의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장삼봉에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면서 말했다.

"명교 장교주의 좌하 위일소 후배가 장진인을 참견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위일소였다. 그는 도중의 적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다.

장삼봉은 그가 <명교 장교주의 좌하>를 자칭하는 걸 듣자 그도 역시 조민 일당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가 출수하여 네 사람을 격퇴한 건 필시 다른 음모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냉랭하게 말했다.

"위선생은 격식을 따질 필요없소. 청익복왕의 뛰어난 경공실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소. 오늘 직접 보게 되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구료."

위일소는 몹시 기뻐했다. 그는 자주 중원으로 나오지 않아서 평소에 명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삼봉이 자기의 경공 실력을 알고 있다고 하자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장진인께서는 무림의 북두(北斗)이신데, 후배가 지인에게서 칭찬의 말을 듣게 되니 실로 영광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서 조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 낭자, 당신은 명교로 위장하여 본교의 명성을 더럽히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오? 진짜 사내 대장부라면 어찌 이처럼 음흉악랄할 수 있단 말이오?"

"난 원래부터 사내 대장부가 아니오. 설사 음흉 악랄했더라도 당신이 어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림을 먼저 공격하고 다시 무당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데,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이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림, 무당과 원수진 일이 있다면 명교가 간섭할 일이 아니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명교의 이름을 도용하고 본교 교도들을 가장하고 있는데, 나 위일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료."

장삼봉은 백 년 동안 조정과 원수지간인 명교가 몽고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막상 위일소의 말을 듣자 그

제서야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여자는 가짜였구나. 비록 마교의 명성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큰일을 닥치게 되면 그들 역시 그냥 지나 칠 수 없겠지.'

조민이 그 체격이 우람한 남자에게 말했다.

"저 자의 당돌한 말투 좀 들어봐라.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네."

그 대한(大漢)은 허리를 굽혀 대답하고 나서 허리띠를 졸라 매더니 삼청전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위복왕, 당신의 한빙면장(寒氷綿掌) 무공을 구경하고 싶구료."

그러자 위일소는 깜짝 놀랐다.

'저 자가 어찌 한빙면장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걸 보면 보통내기는 아닐 것이다.'

그 대한은 손뼉을 한 번 치더니 말했다.

"각하(閣下)의 존함은 무엇이오?"

"우리가 명교로 위장하고 왔는데 어찌 남에게 진짜 이름을 밝히겠소? 복왕은 자신이 둔하다고 생각지 않소?"

그러자 조민의 뒤에 있던 십여 명은 일제히 큰 소리로 웃었다.

"그렇군. 물어본 내가 어리석었소. 각하는 이족(異族)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성명을 밝히지 않아야만 조상에게 욕되게 하지 않겠구료."

그러자 그 대한의 얼굴이 상기되면서 울화가 치밀었다. 순간 휴! 하고 위일소의 가슴에 일장을 후려쳤다.

위일소는 이미 예상을 했는지 옆으로 피하면서 손가락을 뻗어 그의 배심(背心)으로 공격했다. 그는 한빙면장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그 대한의 무공 허실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자 그 대한은 좌필을 뒤로 흔들었다. 초수가 지나자 대한의 장세(掌勢)가 점차

빨라지고 장력 또한 예리해졌다.

위일소는 장삼봉 같은 대종사(大宗師) 면전에서 출수하기 때문에 전혀 태만할 수 없어 즉시 한빙면장의 무공을 전개했다. 두 사람의 장세가 점점 느려지더니 서로 내력을 겨루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때 갑자기 획! 하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 안으로 시꺼먼 거대한 물건 하나가 날아와 대한에게 다가갔다. 이 물체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컸다. 세상에 이렇게 방대한 암기가 있단 말인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자 그 대한은 좌장에 운경(雲勁)하여 이 물체를 일장 밖으로 후려쳤다. 손 닫는 곳이 물렁물렁한 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곧이어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자루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자는 그 대한의 예리한 일장을 얻어 맞았으니 필시 근골이 절단되었을 것이었다.

순간 그 대한은 깜짝 놀라더니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위일소는 소리없이 그의 등 뒤로 가서 등에 있는 대추혈(大推穴)에다 한빙면장 일기(一記)를 후려쳤다. 순간, 그 대한은 경력이 엇갈렸다. 급히 몸을 돌리면서 위일소의 머리 위로 일장을 반격했다.

위일소는 하하.....! 하고 웃을 뿐 전혀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한의 장력은 상대방의 천령개(天靈蓋)에 적중되었으니, 전혀 경력이 없어서 마치 살짝 스치는 것 같았다. 위일소의 한빙면장이 몸에 적중된 순간부터 상대방의 경력이 즉시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고수끼리 대전하는데 어찌 뇌문(腦門)을 강적의 손에 마음대로 후려치게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 담력이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위일소가 일생 동안 행한 일들은 모두 괴상망칙했다.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할 가치가 없는 일일수록 그는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대한이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기습하는 건 광명정대한 일은 아닌줄 알았지만, 바로 뇌문으로 상대방의 일장을 태연하게 받아내는 것 또한 지나친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로 담력이 너무나 커서 생사를 장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누더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자루를 찢어서 사람 하나를 끌어냈다. 그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걸로 보아 그 대한의 일격에 벌써 죽은 것 같았다. 이 자의 흑의를 보니 바로 그들의 일행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루에 담긴 채 던져져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자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누가 감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얀 자루 하나가 머리 위로 다가왔다. 그러자 그는 얼른 기(氣)를 끌어올려 뒤로 튕기면서 이 일탁(一卓)을 패했다. 그러자 방대한 화상 하나가 웃으면서 앞에 서 있었다. 바로 포대화상(布袋和尙) 설불득이 도착한 것이다.

설불득의 건곤일기대(乾坤一氣袋)는 광명정에서 장무기에 의해 파손된 후, 진수의 병기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설불득은 하는 수 없이 아무렇게나 포대를 몇 개 만들어서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래 지니고 있던 그 도검불파(刀劍不破)의 건곤일기대만큼은 무력이 없다. 그의 경공은 비록 위일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예는 몹시 깊었다. 더구나 도중에서 장애물이 없었기에 바로 도착하게 된 것이다.

이윽고 설불득도 허리를 굽히고 장삼봉에게 인사하고 나서 말했다.

"명교 장교주의 좌하 포대화상 설불득이 무당 장진인을 참견합

니다."

그러자 장삼봉도 답례를 하면서 말했다.

"대사께서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소."

"폐교 교주의 좌하인 광명사자, 백미응왕, 그리고 사산인, 오기사 등도 각각 다른 길로 무당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진인께서는 수수방관만 하십시오. 명교의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놈들을 상대해 주겠습니다."

그의 이 말들은 모두 허세였다. 명교의 대부대는 이렇게 빨리 당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민은 그 말들을 듣자 그만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다.

'그들이 이같이 빨리 올 수 있는 건 필시 기밀이 누설된 것이다.'

"당신들의 장교주는 어디 있죠? 날 만나러 오라 하시오!"

그러면서 의문에 가득 찬 눈으로 위일소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위일소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 교주님으로 가장하지 않는구료."

말을 마친 위일소는 사방을 살피며 생각을 굴렸다.

'필시 교주는 벌써 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장무기는 명월의 뒤에 줄곧 은신해 있었다. 그런데 힘있는 방수(幇手) 두 사람이 당도하자 매우 고마우면서 위안이 되었다.

조민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독 있는 박쥐 한 마리와 냄새나는 화상 하나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동쪽의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이 길게 웃더니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불득 대사, 양좌사는 아직 당도하지 않았소?"

이 자는 바로 백미응왕 은천정이었다. 설불득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양소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서쪽 지붕 위에서 들려왔다.

"응왕, 한 발 먼저 당도한 걸 보면 역시 당신의 공력이 한 수 위이구료!"

그러자 은천정은 웃으며 말했다.

"양좌사, 겸손할 것 없소.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도착한 것이니 우열을 가릴 수 없소. 아마 당신은 장교주를 봐서 양보한 것 같소이다."

"어진 일을 하는데 어찌 양보하겠소? 이 몸은 전력 질주 하였는데도 여전히 응왕께서 한 발 앞서 온 것이오."

그들 두 사람은 도중에서 각력(脚力)을 겨루었다. 은천정은 내력이 비교적 심후했고 양소는 걸음이 가볍고 빨랐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출발하여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길게 웃더니 지붕 위에서 동시에 뛰어내렸다.

장삼봉은 은천정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더구나 그는 또 장취산의 장인이 아닌가! 양소도 강호에서 대단한 명성이 있었다. 장삼봉은 앞으로 세 걸음 다가가서 포권을 하며 말했다.

"은형, 양형의 대가(大駕)를 장삼봉이 공손히 영접하는 바이오."

그러면서 내심 의아한 것이 있었다.

'은천정은 분명히 천응교의 교주인데, 뭣 때문에 <장교주의 체면을 봐서>란 말을 하는 것일까?'

은, 양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인사했다. 은천정이 말했다.

"장진인의 청명(淸名)은 오래전부터 흠모해 왔으나, 인연이 없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안(芝顔)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분께서는 모두 일대 종사인데, 광림하신 것은 참으로 성회(成會)라 할 수 있소."

조민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목하 명교의 고수들이 점차 많이 오고 있는데, 장무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설불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확실히 몰래 뭔가 무서운 진세(陳勢)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계획한 계책은 아마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장삼봉은 중상을 입고 있었다. 이건 천 년에 한 번 맞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에 오늘 이 기회에 무당파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의 상처가 회복되게 되면 더욱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조민은 결단을 내린 듯 새까만 두 눈을 몇 번 돌리더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호의 소문에 의하면 무당파는 정대 문파라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소문과는 다르군요. 무당파는 몰래 마교와 내통하여 마교의 힘을 입고 있었군요. 그러니 본문의 무공을 내 세울 값어치도 없을 거구요."

설불득이 말했다.

"조 낭자 너무나 유치한 말을 하는구료. 장진인께서 무림을 위진(威震)할 때 아마 그대의 조부님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어린애가 뭘 알고 있겠소?"

그러자 조민의 등 뒤에 있던 십여 명은 일제히 한 발 다가서더니 무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설불득은 오히려 즐거운 듯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되느냐? 나의 이름은 설불득이지만 말하는 건 항상 멋대로 한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날 어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조민의 수하인 그 마른 화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주인나리, 소인이 저 말 많은 화상을 요리하겠소."

"좋다. 네가 야화상(野和尙)이면 나도 야화상이다. 우리가 겨루

고 있는 동안 무당 총사 장진인께서 미숙한 곳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가 고련(苦練) 십 년 한 것보다 더 능률적일 것이다."

말을 하면서 양손을 흔들더니 품에서 포대 한 개를 끄집어 냈다.

그러자 조민은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무당절학을 배우러 온 것이오. 무당파의 어떤 분께서 나오셔도 우리는 기꺼이 상대해 주겠소. 무당파에게 과연 진재실학(眞才實學)이 있는지, 아니면 허위적인 명성뿐인지 오늘 일전을 치루고 나면 천하가 모두 알게 될 것이오. 명교와 우리의 사소한 일들은 나중에 천천히 다시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장무기, 그 간사하고 교활한 귀신 같은 놈은, 내 그의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기지 않는다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지금 서두를 것 없소."

장삼봉은 그녀의 말을 듣자 내심 몹시 이상하다고 느꼈다.

"명교의 교주 이름이 정말 장무기란 말이냐? 그런데 뭣 때문에 또 귀신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이냐?"

설불득이 웃으며 말했다.

"본교의 장교주께서는 소년 영웅이오. 아마 조 낭자는 우리 장교주보다는 몇 살 아래일 것이오. 차라리 우리 교주에게 시집오는 게 어떠하겠소? 이 화상이 보기에는 아주 천생연분....."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조민의 등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뢰 같은 소리로 호통쳤다.

"허튼소리!"

"입 닥쳐라!"

"야화상, 개수작 하지 마라!"

조민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용모가 더욱 아름다왔다. 그녀의 눈치는 별로 싫은 것 같지는 않았다. 군호를 호령하는 대수령이 삽시간에 부끄러워하는 계집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잠시

였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얼굴에는 마치 차가운 서리가 한 겹 싸여 있는 것처럼 냉정한 모습으로 장삼봉에게 말했다.

"장진인, 만약 당신이 한 수를 보이기 싫어하시면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기 바라오. 단지 무당파는 세상을 기만하는 도적 무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물러가겠소. 설사 송원교, 유연주 그 녀석들을 당신에게 돌려 준다 해도 무슨 거리낄 게 있겠소?"

바로 이때 철관도인 장중과 은야왕이 도착했다. 얼마 후 주전과 팽영옥도 무당산에 당도했다. 명교 쪽에는 다시 네 명의 고수가 증가한 것이다.

조민은 형세를 재어보니, 쌍방이 결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리라는 승산이 없었다. 그녀가 제일 염려하는 건 역시 장무기가 몰래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길은 명교의 사람들 얼굴을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을 굴렸다.

'장삼봉이 조정의 근심거리가 된 것은, 그의 위명이 너무나 성해서 무림에 있는 사람들이 태산북두로 떠받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조정과 적대 관계가 된다면 중원의 무인들도 그를 멀리할 것이다. 그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데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구태여 그를 죽일 것까지는 없고, 단지 그에게 한바탕 모욕을 주어 무당파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번 걸음은 크게 성공한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한 조민은 냉랭하게 말했다.

"우리가 무당을 방문한 것은, 단지 장진인의 무공이 도대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오. 만약에 명교를 섬멸하려 했으면 우리가 뭣 때문에 광명정에 가지 않고 이리로 오겠소? 또 뭣 때문에 무당산에서 무예를 겨루겠소? 세상에서는 어찌 장진인만을 태산북두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에게 가인(家人)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돼지잡고 개잡는

검법을 배웠고, 하나는 거칠은 내공을 약간 배웠고, 또 하나는 다리 셋 달린 권각(拳脚)을 몇 초 배운 적이 있소. 아대(阿大), 아이(阿二), 아삼(阿三) 일어나거라. 장진인께서는 나의 이 쓸모없는 가인 세 명만 제압하신다면, 우리는 무당파의 무공에 대해서 나돌고 있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란 걸 인정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강호에서 자연히 비평받을 것이니 구태여 제가 말할 것까지는 없지 않소?"

그러자 그녀의 등 뒤에서 천천히 세 사람이 걸어나왔다.

아대는 비쩍 마른 노자였고 두 손에는 장검 한 자루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의천보검이었다. 이 자의 체격은 훤칠한 키에 비쩍 마르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것이 마치 금방 남에게 매를 맞은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이 그의 표정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 줄 지경이었다.

아이라는 자도 같은 체격이지만 키가 약간 작았다. 머리 위가 까졌는데 머리카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양쪽의 태양혈은 반촌(半寸)쯤 안으로 오목했다. 아삼은 몹시 우람하게 생겼고 얼굴, 손, 목덜미 등 보이는 근육마다 모두 울퉁불퉁해서 마치 온몸에 정력이 넘쳐서 폭발할 것 같았다. 그의 왼뺨에는 검은 점이 하나 있고, 검은 점에는 긴 털이 많이 있었다. 장삼봉, 은천정, 양소 등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자 내심 깜짝 놀랐다.

주전이 말했다.

"조 낭자, 이 세 분은 모두 무림에 있는 일류고수라서 나 주전은 그들의 상대가 못 되오. 그런데 어째서 머슴으로 가장하여 장진인을 희롱하려는 것이오?"

"그들이 무림의 일류고수라뇨? 전 금시초문이예요.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주전은 즉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즉시 농담으로 대답했다.

"이분은 일검진천하(一劍震天下)의 추미신군(皺眉神君)이고, 이분은 단기 팔방(丹己覇八方)의 독두천왕(禿頭天王)이오. 그리고 이분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히히...! 바로 ..... 저..... 신권개세(神拳蓋世)의 대력존자(大力尊者)이지요."

조민은 그가 엉터리로 지껄이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만 피!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나의 집에서 밥하고 차 끓이고 청소하는 머슴 세 사람을 무슨 신군, 천왕, 존자라 하고 있는 거요? 장진인, 저 아삼과 먼저 권각을 겨루어 보시지요?"

그러자 아삼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포권을 하며 말했다.

"장진인, 먼저 하십시오."

왼발을 한 번 내딛더니 부드득! 하고 소리가 나면서 땅에 놓여 있는 벽돌 세 장이 부서졌다. 발을 디딘 곳에 있는 파란 벽돌이 부서진 건 신기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벽돌 두장이 그의 각력에 울려서 가루가 되었다.

양소와 위일소는 서로 눈길을 주고 받으며 내심 감탄을 했다.

그 아대와 아이 두 사람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무당파의 지객도인 영허는 줄곧 태사부의 상세(傷勢)를 걱정했었다. 이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 태사부님께서 방금 피를 토해 낸 것을 당신들도 보았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어째서..... 어째서.....!"

그는 울음이 터지려 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은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진인이 부상을 입어서 피를 토했구나. 도대체 누구에게 부상을 당했단 말인가? 설사 그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해도 그 나이에 어찌 이 자들 하고 권각을 겨루겠는가? 저 자의 무공을 보니 모두 강맹한 것 같은데, 내가 그를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읏고 낭랑한 목청으로 말했다.

"장진인의 신분으로 어찌 이런 미천한 사람과 겨루겠소. 이거야말로 엄청난 웃음거리가 아니겠소? 장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나 자신도..... 이런 미천한 머슴은 나의 일천일각도 받을 자격이 없소!"

그는 아대, 아이, 아삼이 절대로 보통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러 그들에게 모욕을 줘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기를 바랬던 것이다.

조민이 말했다.

"아삼, 넌 최근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에게 얘기해 드려라. 그래야만 그들이 무당파와 겨뤄도 자격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시종일관 무당파를 물고 늘어졌다.

"소인은 최근에 별달리 한 일도 없습니다. 단지 서북도(西北道)에서 소림파의 공성이라는 화상과 겨뤘는데, 지력(指力)대 지력으로 그의 용조수를 격파하고 즉시 그의 수급을 잘랐습니다."

이 말을 하자 대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공성신승은 광명정에서 용조수로 장무기와 겨뤄 크게 우세했다는 건 명교 중 고수들은 모두 직접 목격했었다. 그런데 이 자가 죽였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가 소림신승을 격패한 신분이라면 충분히 장삼봉과 겨룰 수 있었다.

은천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좋다. 네가 소림파의 공성신승까지 타사했으니, 네가 한번 겨루어 보는 것도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말을 하면서 얼른 앞으로 두 걸음 다가서더니 자세를 취했다. 백미(白眉)를 위로 세우니 더욱 더 위풍이 당당하게 보였다.

그러자 아삼이 말했다.

"백미응왕, 당신은 사마외도인데 나 아삼은 외도사마이오. 우리

는 한 코로 숨쉬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자기 사람을 치는 격이 되오. 당신이 정히 싸우고 싶으면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겨룹시다. 오늘 주인나리의 명은 오직 소인에게 무당파 무공의 허실(虛飾)을 시험하라고 하셨소."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장삼봉에게 말했다.

"장진인, 당신이 진정 나오기 싫어한다면 한 마디 말이라도 하시오. 그래야만 상전에게 알리기라도 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을 써서 강압하지는 않겠소. 무당파가 패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자 장삼봉은 살며시 한 번 웃더니 속으로 생각했다.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만약에 새로 창작한 태극권 중에 있는 허로 실을 통제하는 상승무학 법문을 전개하면 반드시 그에게 패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힘든 건 아삼을 격패한 다음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내력을 겨루자고 할 것인데, 그건 전혀 꾀를 쓸 수 없어서 그 일만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하는 수 없이 아삼을 우선 제압해 놓고 다시 생각하자.'

이윽고 느린 걸음으로 삼청전 중심으로 걸어가서 은천정에게 말했다.

"은형의 아름다운 뜻을 빈도는 잊지 않겠소. 빈도가 근 몇 년 동안 권술 한 가지를 창작하였는데 이름은 태극권이라 하오. 제 생각으로는 일반의 무학과는 퍽 다른 것 같았소. 이분 시주께서 기어이 무당파의 무공을 인증(印證)하려는데, 만약 은형께서 그를 격패하면 그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을 것이오. 빈도는 바로 태극권 중의 초수로 그와 몇 수 겨룰 것이오. 그래야만 빈도가 다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것이 아닙니까?"

은천정은 그의 말을 듣자 몹시 기뻐했으나, 한편으로는 몹시 걱

정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태극권에 대해서 퍽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장삼봉이 어떠한 인물인가! 일단 그 말이 나온 이상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일세의 위명을 가볍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방금 그는 중상을 입어서 피를 토했기에 권기는 비록 정오해도 결국, 내력은 지탱하기 힘들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포권을 하면서 말했다.

"후배는 장진인의 신기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소."

아삼은 장삼봉이 바람처럼 가볍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속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서 내심 생각을 굴렸다.

'오늘 내가 이 노도하고 양패구상(兩敗俱傷)만 되더라도, 그 또한 무림을 놀라게 하는 큰 사건이다.'

이윽고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하더니, 두 눈은 장삼봉의 얼굴을 주시했다. 속으로 기를 몰래 돌리자 온몸의 뼈마디는 뿌드득! 하며 가벼운 폭발소리가 끊임없이 발출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다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놀랐다. 이건 불문정종(佛門正宗)의 최상승 무공으로 밖에서부터 안에까지는 전혀 사기(邪氣)가 없는 금강복마신통(金剛伏魔神通)이었다.

장삼봉은 그의 이같은 모습을 보자 두려움과 감탄이 일었다.

'이 자의 내력은 보통이 아니구나. 과연 나의 이 태극권이 쓸모 있으지 모르겠구나.'

이윽고 양손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면서 아삼에게 출수하라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 유대암의 등 뒤에서 헝클어진 머리에 더러운 얼굴의 소도동 한 명이 걸어 나오면서 말했다.

"태사부님, 이분 시주께서 우리 무당파의 권기(拳技)를 견식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뭣 때문에 태사부님이 대가를 수고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몇 초 행하여 그에게 보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먼지투성이의 소도동은 바로 장무기였다. 은천정, 양소 등은 그와 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았다. 비록 지금 그의 복장과 얼굴 모양이 전부 달라졌지만 음성을 듣자 즉시 알아차렸다. 명교의 군호(群豪)들은 교주가 여기에 벌써 와 있다는 것을 보자 모두 매우 기뻐했다.

장삼봉과 유대암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장삼봉은 그가 입고 있는 복장을 보자 청풍인 줄만 알고 말했다.

"이분 시주께서는 소림파 금강복마의 외문신통(外門神通)을 지니고 계시다. 필시 서역에 있는 소림의 고수일 것이다. 너처럼 어린애는 일초만 맞아도 즉시 근골이 파열될 것인데, 어찌 장난을 하려 하느냐?"

그러자 장무기는 왼손으로 장삼봉의 옷자락을 끌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맞잡고 살며시 흔들면서 말했다.

"태사부님, 그 태극권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성취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침 이분 시주는 외가고수(外家高手)라서 제자가 이유극강, 운허어실(以柔克剛 雲虛御實)의 법문을 시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장무기는 몹시 심후하고 매우 부드러운 한 줄기 구양신공을 손아귀에서 장삼봉의 체내로 전입했다.

그러자 장삼봉은 삽시간에 그 경력의 힘이 강맹무쌍하게 느껴졌다. 비록 자기 내력의 정순(精純)한 것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산뜻하면서 오랫 동안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았다. 순간 장삼봉은 깜짝 놀라면서 장무기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은은하게 한 겹의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주었다. 이미 내공이 절정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가 살아 생전 만났던 인물 중에는 오직 본사(本師) 각원대사(覺遠大師), 대협 곽정(郭靖) 등 몇몇 사람만이 이러한 수위(修爲)가 있었다. 당세의 고인들도 자기 외에는 다른 누구도 이

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실로 생각하지 못했다. 삽시간에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의문이 밀려왔다. 이윽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쇠약하고 우둔한데, 무슨 좋은 무공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네가 이분 시주의 절정 외가무공하고 겨루는 것도 무방하나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는 이 소도동이 어느 파의 소년 고수가 달려와서 구원해 주는 줄 알고 말했지만 몹시 겸손했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태사부님, 당신은 제게 산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태사부님과 사백숙님들의 대은을 갚지 못합니다. 우리 무당파의 무공이 비록 천하무적이라 할 수 없지만, 서역 소림의 수하에 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태사부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그의 이 몇 마디는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하였다. 몇 마디 <태사부>라고 부르는 건 너무도 자연스레 부른 것이다. 장삼봉마저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는 본문의 제자인데, 몰래 잠심수위(潛心修爲)하여 마치 옛날의 본사인 각원대사 같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장무기의 손을 놓아 주고 뒤로 물러갔다. 의자에 앉아서 곁눈질로 유대암을 쳐다보자 그 역시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삼은 장삼봉이 이 소도동을 출전시키는 걸 보자 자기를 극도로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내가 일권에 저 소도동을 타사하여 노도를 격분시킨 다음 다시 그와 겨루게 되면, 더욱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장무기에게 말했다.

"꼬마야, 발초하거라!"

"제가 새로 배운 이 권술은 우리 태사부님인 장진인께서 다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한 것인데, 이름은 태극권이라고 하오. 후배가 처음 배운 것이라 수련을 많이 하지 못해서 권법 중에 정오함을 미처 깨우치지 못했소. 그러니 삼 십초 이내에는 아마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그건 제가 무예를 잘못 배운 것이지 절대로 이 권술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란 걸 당신은 알아두어야 하오."

그러나 아삼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아대와 아이에게 말했다.

"큰 형님, 둘째 형님, 세상에 이처럼 광망한 녀석이 있구료."

그러자 아이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웃었다. 그러나 아대는 이 소도동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다.

"셋째 아우, 적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삼은 윽! 하고 일권을 장무기의 가슴에 후려쳤다. 이 일초는 번개처럼 다가갔지만 중도에서 왼손 주먹이 더욱 민첩하게 다가갔다. 후발선지하면서 장무기의 면문을 공격했다. 초수의 교묘함과 괴이함은 실로 보기 드문 것이었다.

장무기는 장삼봉이 태극권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부터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 권술의 권리(拳理)를 묵묵히 생각하고 있었다. 막상 아삼의 좌권이 공격해 오는 걸 보게 되자, 즉시 태극권의 일초인 람작미(攬作尾)를 전개했다. 그러자 아삼의 몸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돌진했다. 두 걸음 넘어서야 겨우 몸을 똑바로 할 수 있었다. 방관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자 일제히 비명과 탄식의 소리를 질렀다.

이 일초의 람작미는 천지간에서 오직 태극권이 처음으로 사람과 겨루는데 사용한 것이다. 장무기는 몸에 구양신공을 지니고 있고 건곤이위의 무술을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어서, 비록 갑자기 태극권 중위 <점(點)>법을 사용했으나 마치 평생동안 연습을 한 것 같았다. 아삼은 그에게 한 번 떠밀리게 되자 자기의 일권에

있는 천만 근의 힘이 마치 망망대해에 타입(打入)된 것처럼 아무 흔적도 없었고, 몸은 오히려 자기의 권력에 끌려서 옆으로 두 걸음을 내디디면서 넘어질 뻔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빠른 주먹으로 연거푸 공격했다. 비영(臂影)이 흔들거리며 마치 수십 개의 팔과 수십 개의 주먹이 동시에 격출(擊出)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광풍폭우 같은 공세를 보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러니까 공성대사 같은 무공이 고강한 고수도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모양이군.'

조민과 함께 온 사람들 외에는 모두 장무기를 위해서 걱정해 주었다.

장무기는 무당파의 위명을 과시하려는 심산으로 자기 본신의 무공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매 초식마다 전부 장삼봉이 창작해 낸 태극권의 권초였다. 그는 <수휘비파(手揮琵琶)> 일초를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태극권지(太極拳旨) 중에 있는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어, 이 일초를 마치 움직이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멋지게 전개했다.

아삼은 상반(上盤)의 각로(各路)가 이미 모든 곳이 그의 쌍장에 감싸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전혀 피할 수 없고 전혀 저항할 수도 없다. 하는 수 없이 등에다 운경(運勁)하여 억지로 그의 일장을 받아 내면서 동시에 우권을 맹렬히 휘둘렀다. 오로지 두 사람이 각각 일초씩 받아서 양패구상의 상황으로 만들 속셈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장무기는 양손으로 원을 그리자 마치 태극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한 줄기 대단한 역도(力道)가 하나의 회오리를 만들더니, 그의 몸을 칠, 팔 바퀴 급회전을 시켰다. 마치 팽이와 나사못처럼 돌려 버렸다. 어렵게 사용한 천근추(千斤墜)의 힘으

로 고정시킨 아삼은 이미 얼굴이 온통 팽창되어 빨개지면서 낭패의 꼴이 되었다.
 그러자 명교의 군호는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이윽고 양소가 소리치면서 말했다.
 "무당파의 태극권 무공이 이처럼 신묘할 줄이야.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료."
 주전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삼 노형, 난 당신에게 충고하고 싶소. 이름을 아전(阿轉)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구료."
 은야왕이 말했다.
 "많은 바퀴를 도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오? 옛날에도 있지 않소. 삼십 육 착(着), 전위상착(轉爲上着)!"
 설불득이 말했다.
 "왕년에 양산박의 호한 중에는 흑선풍(黑旋風)이라는 사람이 있었소. 그 선풍이란 본시 돌아야 하는 게 아니오?"
 아삼은 울화가 치밀어서 안색이 붉으락푸르락 변했다. 성난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몸을 위로 솟구치면서 덮쳐갔다. 왼손은 권 또는 장으로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오른손은 모두 손가락 무공으로 다섯 손가락은 마치 판관필이나 점혈궐(點穴獗)처럼, 또는 도검이나 창극(愴戟)처럼 공격해 오는 자세가 너무도 예리했다.
 장무기는 태극권의 권초가 미숙해서 금방 수족이 망란(忙亂)되어 막아내지 못했다. 갑자기 지익! 하고 소리가 나더니 옷자락이 찢기고 끊어졌다. 하는 수 없이 경공을 전개하여 급히 피해다녔다. 잠시 이 난생 처음 보는 오지무공(五指武功)을 피할 속셈이었다. 그러자 아삼은 호통치며 쫓아다녔지만 어찌 상대방의 경공을 따르겠는가? 연거푸 십여 초를 모두 헛치고 만 것이다.
 장무기는 피해다니면서 생각했다.

'내가 피해만 다니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이 태극권은 아직 미숙하니까 잠시 건곤이위의 무공으로 그와 겨루어야겠다.'

그는 몸을 한 번 회전하더니 양손으로 태극권의 일 초인 야마분종(野馬分縱) 자세를 취하면서 왼손은 건곤이위의 수법을 전개했다. 아삼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공격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기의 왼팔을 찌르게 되었다. 순간 아픔과 함께 눈앞에 별이 번뜩거리면서 왼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양소는 장무기의 권법이 태극권의 무공이 아닌 줄 알면서 급히 소리쳤다.

"태극권은 정말 대단하구료!"

그러자 아삼은 울화가 치미는지 버럭 소리쳤다.

"이건 요법사술이지 태극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연거푸 삼지(指)를 공격했다.장무기는 몸을 위로 솟구치면서 피했다. 아삼의 긴 팔이 다시 뻗어오고 쌍지(雙指)가 덮쳐 오자 그는 또다시 건곤이위심법으로 일견일인(一牽一引)했다. 순간 아삼의 두 손가락은 삼청전에 있는 나무 기둥에 똑바로 꽂혔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깜짝 놀라면서도 몹시 재미있어 했다.

사람들의 우뢰 같은 웃음소리에 유대암이 무서운 소리로 호통쳤다.

"잠깐, 이건 소림파의 금강지력(金剛指力)이 아니오?"

장무기는 몸을 위로 솟구치면서 피하다가 <소림파 금강지력>이란 말을 듣자 즉시 생각난 것이 있었다. 유대암은 소림파의 금강지력에 의해서 부상당한 것이다. 이 십년 동안 무당산의 상하 모두가 이 일 때문에 소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아마 진범은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자인 것 같았다.

아삼의 냉랭한 말소리가 들렸다.

"금강지력이면 어떠냐? 뭣 때문에 호한(好漢)인 것처럼 도룡도(屠龍刀)의 소재를 말해 주지 않았느냐? 이 이 십년 동안 불구가 된 맛이 어떠냐?"

그러자 유대암이 다시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이 오늘 진상을 밝혀 주어서 정말 감사하오. 내가 불구가 된 것은 당신네 서역의 소림파에서 감행한 독수구료. 그런 줄도 모르고 나의 다섯째 아우는....."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옛날에 장취산이 자살한 이유는 유대암이 은소소의 은침에 상했기 때문에 사형을 볼 면목이 없어서인 것이다. 사실은 유대암이 은침을 맞게 되자 은소소가 용문표국에 부탁해서 무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은침의 상처는 달포쯤 치료하자 완쾌되었다. 그의 사지가 남에게 절단된 것은 바로 대력금강지의 독수 때문이었다. 만약에 그 때 이 진범을 찾았다면 장취산 부부도 참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암은 사제의 무고한 죽임이 슬펐지만, 또 자기가 폐인이 된 것도 원통하였다. 가슴에 원한이 복받치자 눈은 마치 불을 뿜는 듯하였다.

장무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즉시 모든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 부친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 소림사의 화공두타(火工頭陀)가 몰래 무예를 배워서 소림사의 달마수좌(達摩首座)인 고지선사(苦智禪師)를 격사(擊死)시켰다. 그래서 소림파의 각 고수들은 크게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혜선사(苦慧禪師)는 멀리 서역으로 떠나서 서역 소림 일파를 창설했다. -----

아마도 이 자는 왕년의 고해의 의발전인인 것 같았다.

장삼봉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시주의 마음은 정말 악랄하구료. 우리는 왕년 고혜선사의 제자 중에 시주 같은 인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그러자 아삼은 사납게 웃으면서 말했다.

"고혜는 어떤 놈이죠?"

장삼봉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즉시 깨닫는 것이 있었다. 옛날 유대암이 대력금강지에 부상을 입은 후, 무당파는 사람을 보내서 소림에게 질문하였지만 소림파의 장문방장은 단호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역의 소림 일파를 의심하고 여러 해 동안 알아보았으나, 서역의 소림은 이미 무공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았었다. 제자들은 불학만 열심히 연구할 뿐 무공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지금 아삼이 <고혜는 어떤 놈이죠?>라는 말을 하는 순간, 만약에 그가 서역 소림의 전인이라면 절대로 개파조사(開派祖師)를 모욕하고 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윽고 장삼봉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랬었군. 시주는 화공두타의 전인이구료. 그의 무공만 배운 줄 알았더니, 그는 자기의 악랄한 성품까지 모두 전수해 주었구료. 그 공상인지 하는 자는 시주의 사형제요?"

"그렇소. 그는 나의 사제이오. 그의 이름은 공상이 아니라 강상이라고 하오. 장진인, 금강문의 반약금강장과 당신네 무당파의 장법을 비교해 보는 게 어떠하겠소?"

그러자 유대암이 단호하게 외쳤다.

"한참 뒤떨어졌지! 그의 머리는 우리 사부님의 일장을 맞고 벌써 뇌가 파열됐소."

그러자 아삼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덮쳐왔다. 장무기는 태극권의 일초인 여봉사봉(如封似封)으로 그를 막으면서 말했다.

"아삼, 흑옥단속고(黑玉斷續膏)를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는 즉시 우장을 내밀었다.

아삼은 깜짝 놀랐다.

'본문의 접골 묘약은 극비라서 본문의 웬만한 제자는 그 이름조차 모르는데, 이 소도동은 어디서 들은 것일까?'

그는 접곡의선 호청우의 <의경>에 묘약이 적혀 있다는 것을 모

르고 있었다. 그 의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서역에는 외가무공이 있는데 소림이 옆으로 뻗은 가지와 같다. 수법이 몹시 괴이해서 사람의 뼈를 절단시키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오로지 본문의 비약인 <흑옥단속고>만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약의 배합법은 전하지 않는다. -----

장무기는 이 귀절이 생각나서 그를 시험해 본 것인데, 그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걸 보니 그들은 화공두타의 제자들이 분명했다. 그러자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어서 다오!"

그는 부모의 죽음과 유, 은 두 분 사백숙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자 즉시 죽여 버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삼은 방금 그와의 교수(交手)를 통해 자기의 대력금강지를 전개하면 그는 이리저리로 피하기만 했지, 전혀 반격하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니 그의 괴상망측한 견인수법(牽引手法)에만 조심하면 시간을 끌수록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이 녀석아, 네가 무릎꿇고 세 번 절을 하면 널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가가 바로 표본이다!"

장무기의 속셈은 그의 <흑옥단속고>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금강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는 이렇다고 할 선책(善策)이 없었다. 건곤이위심법은 비록 그를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를 억압하여 약을 얻어 낼 수는 없었다.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장삼봉이 그를 불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네, 태사부님."

장무기는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장삼봉은 말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태극의

원전(圓轉)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마치 장강의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야 하느니라."

그는 방금 장무기가 적을 맞이하여 초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그는 지나칠 정도로 태극에만 너무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는 무공이 너무나 강했기에 권초의 능각(稜角)이 분명해서, 태극권이 그 원전불단(圓轉不斷)의 저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장무기는 무공이 고강해서 장삼봉의 이 몇 마디를 듣자 즉시 깨닫게 되었다. 즉시 마음 속으로 그 태극도(太極圖)의 원전불단과 음양 변화를 그려보고 있었다.

아삼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임진학무(臨陣學武)하다니, 늦은 감이 없느냐?"

"안성마춤이오. 마침 그대에게 초수를 시험할 수 있으니....."

말을 하면서 그는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을 앞으로 하더니, 아삼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바로 태극권 중의 일초인 고탐마(高探馬)였다. 그러자 아삼은 오른손의 다섯손가락을 합치더니 칼처럼 후려쳐 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쌍풍관월(雙風貫月)의 초식으로 양손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격출했다. 과연 태사부의 가르침인 <원전불단> 네 자의 정의를 깨닫게 된 것이다.

곧이어 좌원 우원하며 원마다 하나의 원이 따라갔다. 그러자 대원(大圓), 소원(小圓), 평원(平圓), 입원(立圓), 정원(正圓), 사원(斜圓) 등등이 만들어졌다. 그 태극원이 하나하나씩 발출되더니 즉시 아삼에게 씌워져서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이에 아삼이 다섯손가락으로 맹렬하게 찍어오자, 장무기는 운수(雲手) 일초를 전개하면서 왼손은 높게 오른손은 낮게 하더니, 원 하나가 이미 그의 수필을 씌우고 있었다. 여기에다 구양신공의 강경(剛勁)을 사용하니 뿌드득! 하고 소리가 나면서 아삼의 오른팔 상하의 뼈가 일제히 부러졌다.

구양신공의 강경은 몹시 예리해서 아삼의 한 쪽 팔뼈는 즉시 여

러 토막으로 부러졌다.

장무기는 죽이고 싶도록 아삼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수를 끊임없이 전개했다. 그것은 마치 공중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얼마 후, 뿌드득! 하고 소리가 나더니 아삼의 왼팔도 부러졌다. 뒤이어 툭! 툭.....! 몇 번 소리가 나면서 그의 좌퇴와 우퇴마저 하나하나 부러졌다.

장무기는 평생 이처럼 가혹한 수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자는 부모를 헤치고 삼사백을 헤쳐서 고생시키고 있고, 육사숙을 해친 범인이 아닌가! 만약에 그의 몸에서 <흑옥단속고>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의 생명을 끊어 버렸을 것이다.

아삼은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조민 수하의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그를 안고 물러섰다.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무기의 이러한 신공을 보게 되자 모두들 넋들이 빠져 버렸다. 명교의 고수들마저도 갈채를 보내는 걸 잊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대머리 아이가 번개처럼 나오더니 우장으로 장무기의 가슴을 맹렬하게 후려쳐 왔다. 장 끝이 미처 다가오지 않았는데 장무기는 이미 호흡이 약간 곤란한 것 같았다. 즉시 일초의 <사비세(斜飛勢)>로 그의 장을 기울게 인도하였다. 이 대머리 노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반(下盤)을 고정시켜서 마치 땅에다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열심히 일장씩 후려쳤다. 내력 또한 엄청나게 심후하였다.

장무기는 그의 장로(掌路)를 보게 되자, 아삼과 일파라는 걸 알았다. 나이를 따지면 아삼의 사형이지만 무공은 그에게 뒤졌다. 그러나 내력은 훨씬 심후했다. 장무기는 태극권 중의 점(點), 인(引), 제(濟), 안(按) 등의 초식을 전개하여 그의 몸을 비틀어지게 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이 자의 내력이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자기가 한 발자국 헛디디고 말았다. 장무기는 영웅심이 갑자기

일어나 내심 생각을 굴렸다.

'너의 서역 소림 내공이 예리한지, 아니면 나의 구양신공이 예리한지 너와 한번 겨뤄보겠다.'

이때 그의 일장이 공격해 오자 자기도 일장을 후려쳤다. 마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식으로 상대를 공격했다. 쌍장이 부딪치자 평!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의 몸이 한번씩 휘청거렸다.

장삼봉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내심 걱정했다.

'큰일이다. 이처럼 야만적으로 싸우면 힘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된다. 이는 태극권의 권리와는 전연 반대이다. 이 대머리 아이의 내력은 무림에서도 보기 드물게 매우 심후한데, 아마 이 일장에 저 애가 중상을 입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때, 두 사람의 두 번째 장력이 다시 부딪치며 평! 소리와 함께 그 아이의 몸이 휘청하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장무기는 여유있게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양신공과 소림파의 내공은, 최고 경지까지 연마하게 되면 고하를 분간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서역의 금강문을 창설한 사조인 화공두타는 소림사에서 몰래 배운 무예였다. 권각과 병기는 몰래 배울 수 있지만 내공이란 체내의 기를 운행하는 것이라 설사 남이 타좌정수(打座靜修)하는 걸 십 년쯤 본다 해도 어떻게 그가 내식(內息)을 조절하는 걸 알 수 있으며, 주천(周天)을 어떻게 반운(搬運)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외공은 몰래 배울 수 있어도 내공은 도학(盜學)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강문의 외공은 몹시 강해서 소림의 정종(正宗)에게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공은 한참 뒤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금강문 중의 이방인이었다. 천부적인 신력을 지니고 있어서 심후한 내공을 연서하게 되었다. 그것은 왕년의 조사인 화공두타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실로 천수(天授)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쌍장 삼초를 받아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장무기의 장력에 일보나 뒷걸음질 했으니, 내심 놀라면서도 울화가 치밀었다.

이윽고 그는 숨을 깊게 한 번 몰아쉬더니, 쌍장을 일제히 발출하면서 장무기에게로 후려쳐갔다.

장무기는 소리를 질렀다.

"은육숙, 제가 사백님의 원수를 갚아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때 은이정은 양불회와 소조 등과 두 명의 명교 교도들에게 들린 채 무당산에 당도했다.

장무기는 대갈일성을 지르더니 우권을 후려쳤다. 순간 펑! 하고 크게 소리나더니, 그 대머리 아이는 연거푸 세 걸음 뒤로 후퇴하면서 두 눈이 튀어나오고 흉구의 기혈이 번용(飜湧)하였다.

"은육숙님, 사백님을 포위해서 공격한 사람들 중에 이 대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렇다. 이 자가 바로 우두머리다!"

이때 그 대머리 아이가 온 몸의 뼈마디를 픽픽! 팍팍! 하며 소리를 발출하는 게 들렸다. 운경하고 있는 것이었다.

유대암은 이 아이의 내력이 강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운공을 하게 되면 더욱 강맹하여져 실로 막아내기가 함들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즉시 소리치며 말했다.

"도하미제(渡河未濟), 격기중류(擊基中流), 즉 강을 미처 건너기기 전에 허리를 끊어 버려라!"

"네."

장무기는 대답하고 나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으니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윽고 아이가 쌍비를 휘둘러 대자 한 줄기 어마어마한 힘이 미처 산을 일어내고 바다를 역류하게 하는 것처럼 밀려왔다. 그러자 장무기는 숨을 한 모금 들여마시고 체내의 진기를 유전(流轉)시키더니, 우장을 휘두르는 한편 상대방의 장력을 부딪

쳐가면서 되돌려 보냈다. 이 두 줄기의 거대한 힘이 함께 합쳐지자, 노자는 괴성을 지르더니 몸이 마치 발석기(發石機)로 돌을 쏜 것처럼 벽에 부딪치면서 뚫고 나가 버렸다.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벽의 구멍에서 한 사람이 번개처럼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의 몸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키가 작고 몹시 뚱뚱했는데, 마치 석고(石鼓)처럼 둥그랬다. 생김새는 몹시 우스웠으나 신법은 너무나 민첩했다. 그는 바로 명교의 후토기 장기사 안원(顔垣)이었다. 그 대머리 아이의 양팔, 가슴, 어깨뼈는 모두 무기의 강맹하고 후심한 장력에 진단(震斷)되었다.

안원은 아이를 내려놓고 나서 장무기에게 허리를 한 번 굽히더니 다시 벽에 있는 구멍으로 나갔다. 왔다갔다 하는 게 마치 살찐 들쥐 같았다.

조민은 이 소동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일류 고수 두 명을 연거푸 격패하는 걸 보며, 진작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안원이 그에게 인사하는 걸 보자 즉시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녀는 속으로 자기에게 욕을 퍼부었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 내가 선입위주(先入爲主)하자 저 녀석이 밖에서 수작을 부리는 줄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는 도동을 가장하여 여기서 수작을 부려 나의 큰 일을 그르치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이윽고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장교주, 소도동으로 가장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더구나 태사부, 태사부하고 쉴새없이 부르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못났구료."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를 알아보자 낭랑한 목청으로 말했다.

"선친인 취산옹은 바로 태사부님의 좌하 다섯 번째 제자이신데, 내가 태사부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런데 뭐가 창피하다는 것이냐?"

이윽고 몸을 돌려 장삼봉에게 무릎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소인 장무기, 태사부님과 삼사백님께 인사드립니다. 일이 너무나 다급하기에 알리지 못했으니 기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봉과 유대암은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렸다. 서역 소림의 양대 고수를 격패한 소년이 옛날에 병들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좀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윽고 은천정에게 말했다.

"은형, 이런 좋은 외손자를 얻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진인, 이처럼 훌륭한 도손을 가르쳐 낸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조민은 투덜거렸다.

"무슨 놈의 좋은 외손자, 훌륭한 도손이람! 두 늙은이는 간사하고 교활한 놈을 길러낸 것이다. 아대, 네가 가서 그의 검법을 시험해 보아라."

"네."

그 인상파 아대는 즉시 획! 소리를 내면서 의천검을 뽑아 냈다. 그러자 모두의 눈앞에 파란 빛이 번뜩거리며 은은하게 한기가 스며나오는 것이 명검임에 틀림없었다.

장무기가 아대에게 물었다.

"이 검은 아미파의 소유인데, 어찌 당신의 수중에 들어갔소?"

"이놈아, 네가 뭘 아느냐? 멸절 늙은이가 우리 집안에서 이 검을 훔친 것이다. 지금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 것뿐이다. 의천검이 아미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장무기는 의천검의 내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되물어오자 말문이 막힌 것이다. 장무기는 즉시 화제를 돌려서 조민에게 말했다.

"조 낭자, 흑옥단속고를 나에게 주시오. 우리 삼사백과 육사숙의 부러진 팔다리가 완치되기만 하면 지나간 허물은 탓하지 않겠

소."

"흥, 지나간 허물은 탓하지 않는다구? 말하기는 쉽겠지. 넌 소림파의 공문, 공지, 무당파의 송원교, 유연주 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난 모르고 있으니 낭자가 알려 주기 바라오."

"내가 뭣 때문에 네게 말해 주겠느냐?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지 않으면 옛날에 녹류장 철창에서 너에게 당한 치욕을 씻지 못한다!"

그녀는 치욕을 당했다는 말을 하자, 그날의 일들이 되살아나 그만 얼굴이 붉어지면서 울화가 치밀었다.

장무기도 그녀의 말에 덩달아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은 그날 명교 군호들이 독에 중독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런 치졸한 계책을 쓴 것이다.

그는 손으로 그녀의 발바닥을 간지럽히기는 했으나 절대로 경박한 저의는 없었다. 하지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지 않았는가! 비록다급해서 그런 짓을 하기는 했으나, 그런 일은 한 번도 남에게 얘기한 적은 없었다. 만약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소녀를 희롱했다고 알고 있다면 그건 낭패가 아닌가! 그는 난처했지만 조민에게 다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민은 예쁜 눈을 한 번 굴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네가 흑옥단속고를 얻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단 네가 나의 세 가지 조건만 들어 준다면 난 두 손으로 받치겠다."

"무슨 조건들이오?"

"지금은 아직 생각나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나거든 내가 한 가지씩 말할 것이니 넌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만약에 나보고 자살하라든가 개, 돼지가 되라 해도 당신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거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히히.....! 네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서 말해 보시오. 만약에 협의(挾義)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든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조민은 막 말을 받아 하려다가 소조의 귀밑 쪽에 한 송이 진주꽃이 꽂혀 있는 걸 보았다. 바로 자기가 장무기에게 선물한 그것이었다. 그러자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다시 소조의 밝은 눈동자며 하얀 이, 앵두 같은 입술을 보게 되었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마치 새벽 이슬을 맞은 연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이를 한 번 악물더니 아대에게 말했다.

"저 장가란 녀석의 양쪽 팔을 베어 버려라!"

아대는 의천검을 쳐들고 한 걸음 다가가면서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교주, 주인나리께서는 당신의 양쪽 팔을 베어 오라고 했소."

주전은 울화를 오래 참고 있었으나, 이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입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개수작하지 마라. 차라리 네 자신의 양팔을 잘라 버려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자 주전은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빨리 베어라."

"서두를 것 없다."

장무기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의천검의 검날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어떠한 병기도 부딪치기만 하면 부러지고 만다. 대책이라고는 건곤이위심법을 사용해서 맨손으로 그의 병기를 탈취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예리한 보검앞에 손을 내밀었다가 상대방의 검초가 약간 괴이하거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한 쪽 팔은 손가락 끝에서 부터 어깨까지 어느 곳이든 검날이 스치기만 하면 즉시 베이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적을 대적해야 좋을지 몰라 몹시 주저하고 있었다. 그 때 장삼봉

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무기야, 넌 이미 내가 창작한 태극권은 모두 배웠으나 태극검이란 게 또 있다. 괜찮다면 지금 너에게 전수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 시주하고 겨룰 때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

"태사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윽고 아대에게 말했다.

"선배님, 저의 검술이 정교하지 못해서, 필히 태사부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당신하고 겨룰 수가 있겠소."

그 아대는 처음부터 장무기를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록 자기에게는 보검이 있지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막상 그가 검초를 새로 배운다는 말을 듣자 몹시 좋아했다. 새로 배우는 검초가 제아무리 정묘하다 해도 생소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검술이란 경상영동(輕翔靈動)이 일체되어야 한다. 최소한 십 년이나 이십 년을 수련해야만 적을 맞이했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가서 초수를 배워라.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 두 시간이면 족하겠느냐?"

장삼봉이 말했다.

"다른 곳에 갈 것 없다.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면 된다. 즉석에서 볶아서 바로 팔아야만 신선하고 따뜻하고 매콤하다. 반 시간이면 태극검법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

그가 이처럼 말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면서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무당파의 태극검이 오묘하고 신기해도, 어떻게 여기서 공공연히 초수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상대방도 똑똑히 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장무기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대가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 해도 좋겠군요. 난 밖에서 기다리겠소."

장삼봉이말했다.

"그럴 필요없소. 나의 이 검법은 초창된 것이므로 쓸모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잘 모르고 있소. 마침 그대는 검술의 대가이니 이 검술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기 바라오."

이때 양소의 머리가 번뜩거리더니, 갑자기 무엇인가가 생각난 듯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각하는 팔비신검(八臂神劍) 방장로였었군요. 각하는 당당한 개방장로의 신분인데, 어찌 자청해서 남의 머슴을 하고 있는 거죠?"

명교의 군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주전이 말했다.

"당신은 죽었지 않소?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소? 이럴..... 이럴수가 있는 것이오?"

아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 몸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소. 지나간 일을 말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소. 난 벌써부터 개방의 장로가 아니오."

윗 선배들은 모두 팔비신검 방동백(方東白)은 개방의 사대 장로의 우두머리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검술이 정묘하여 강호에 명성을 날렸다. 그는 출검(出劍)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빨라 마치 칠, 팔 개의 팔이 달린 것 같아서 그러한 외호(外號)를 얻게 된 것이다. 십여 년 전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장삼봉이 말했다.

"노도의 이 태극검법이 팔비신검의 지적을 받게 되어 영광이오. 무기야 너에게 검이 있느냐?"

소조는 앞으로 몇 걸음 다가가서, 장무기가 조민으로부터 갖고 온 그 목재로 된 가짜 의천검을 받쳤다. 장삼봉은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건 목검이 아니냐? 노도는 부적을 날조하고 주문을 외워서 악마를 쫓으려 하는 게 아니다."

장삼봉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검을 쥐고 오른손으로 검결(劍訣)을 가리키더니, 양손으로 고리를 만들면서 천천히 들어올렸다. 이 기수식을 전개하자 따라서 환두월(環두月), 대괴성(大魁星), 연자초수(燕子抄水), 좌란소(左欄掃), 우란소(右欄掃)..... 일초 일초씩 전개해 보였다. 제 십 삼식인 지남침(指南針)을 전개할 때는 양손으로 동시에 원을 그리면서, 제 오십 사식인 지검귀원(指劍歸原)을 되풀이했다. 장무기는 초식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의 검초에 있는 신재검선, 면면불절(神在劍先,綿綿不絶)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장삼봉이 모두 검법을 전개했으나 한 사람도 갈채를 보내지 않았다.

'저렇게 느리고 힘없는 검법으로 어떻게 적을 상대해서 무공을 겨루겠는가? 아마 일부러 초수를 천천히 해서 그를 이해시키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장삼봉이 장무기에게 물었다.

"무기야, 유심히 보았느냐?"

"네."

"모두 기억할 수 있느냐?"

"아뇨, 조금 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고개를 숙여 생각해 보았다.

잠시 후 장삼봉이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떠냐?"

"이미 절반 이상은 잊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전이 소리쳤다.

"점점 더 잊어가니 큰일이구료. 장진인, 당신의 그 검법은 너무나 심오하기에 한 번 보아서는 기억할 수 없소. 수고스럽지만 우리 교주에게 한 번 더 해 보일 수 없겠습니까?"

장삼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소, 한 번 더 하겠소."

그러자 검을 쳐들고 출초하면서 다시 해보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초수를 보며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두 번째 해보이는 것은 첫 번째 것과 전혀 달랐다. 주전이 다시 소리쳤다.

"큰일이군, 큰일이야. 이렇게 되면 더욱 혼돈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이다."

장삼봉은 검으로 원을 그리며 말했다.

"무기야,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도 삼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삼봉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검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대전(大殿)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다시 천천히 반 바퀴를 돌고 나더니, 고개를 들어 얼굴에는 희색을 잔뜩 띄우면서 말했다.

"이제야 모두 잊게 되었습니다."

"기특하게 빨리도 잊어 버렸구나. 그렇다면 팔비신검의 가르침을 받아 보아라."

그러면서 수중에 있는 목검으로 그에게 주었다. 장무기는 허리를 굽혀 받아 들더니 몸을 방동백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방 선배님, 시작할까요?"

주전은 귀를 후비고 머리를 긁적거리며 몹시 걱정을 했다.

방동백은 기합을 내지르며 일검을 뻗었다. 그러자 파란 빛이 번쩍 하면서 칙칙 소리가 났다. 내력의 강맹함은 그 대머리 아이와

별차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관전했다.

'그의 수중에 있는 것이 설사 의천검이 아니고 쓸모없는 쇠붙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내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력을 막아내지 못한다. <신검>이란 말은 과연 뜬 소문은 아니구나.'

장무기는 왼손으로 검결(劍決)을 사인(斜引)하더니, 목검으로 반달을 그리면서 의천검의 검등에 눕혀서 걸쳐 놓았다. 경력을 전출하자 의천검은 즉시 밑으로 한 번 휘청거렸다. 그러자 방동백은 "좋은 검법이다."라고 소리치더니, 손목을 비스듬히 하고 검을 되돌려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검 끝을 찔러갔다.

장무기는 검을 빙글빙글 돌렸다. 순간 팍! 소리가 나면서 쌍검이 서로 부딪치더니 각각 몸이 위로 솟구쳤다. 방동백의 수중에 있는 의천검이 이처럼 한 번 울리게 되자 계속 떨면서 윙윙....! 하며 한참 동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두 개의 병기는 하나는 보검이고 하나는 목검이다. 그러나 정면으로 부딪쳤어도 보검과 목검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장무기의 이 일초는 자기의 둔기로 적의 예리한 칼날을 막아낸 것이다. 실로 태극권의 정오함을 터득한 것이다. 장삼봉은 그에게 검의(劍意)를 전수한 것이지 검초를 전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된 모든 검초를 깨끗이 잊어야만 검의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적을 맞이할 때 자기의 뜻대로 검을 무공무진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진위를 양소, 은천정 등의 고수들은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으나, 주전은 그들보다 한 수 아래라서 혼자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이때 삼청전 안에는 칙칙.....!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방동백의 검초는 더욱 예리하고 악랄해졌다. 심후한 내력으로 예리하기 짝이 없는 검을 사용하니, 파란 빛이 흔들거리면서 검기(劍氣)가 자욱했다. 그러자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큰 눈덩이가 몸 앞에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느끼면서 뼈를 좀 먹는 한기를 발출하였

다. 장무기는 목검으로 이 한 덩어리의 한광안에서 원을 하나 하나 그렸다. 매 초마다 모두 괄호형으로 공격하고 괄호형으로 거두어들였다. 마치 한 덩어리의 솜처럼 의천검을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백여 초를 넘기자 방동백의 검초는 점점 둔하게 보이면서, 수중의 보검의 무게가 점점 증가되는 것 같았다. 다섯 근, 여섯 근, 일곱 근..... 열 근, 스무 근,,,,, 어쩌다 일검씩 지를 때마다 진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목검에 끌려서 몇 바퀴씩 돌곤 하였다.

방동백은 초수가 지날수록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삼백여 초를 격무하였으나 검봉(劍鋒)은 한 번도 부딪치지 않았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검을 사용했지만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일이다.

상대방은 마치 큰 그물을 투망하여 빠른 속도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방동백은 연거푸 육, 칠 가지의 검술로 바꾸어가면서 공격했다. 관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오락가락했으나 장무기는 시종일관 검으로 원을 그렸다. 장삼봉 외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매 일초가 수비하는 것인지 공격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태극권 검법의 초수를 따지자면, 오직 일초뿐이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원을 그리는 초수는 영원히 끝이 없었다. 갑자기 방동백의 대갈일성이 들리더니 머리카락을 곤두세워서 의천검으로 중궁(中宮)을 공격했다. 이는 바로 건곤일격(乾坤一擊)이었다.

장무기는 그가 맹렬하게 다가오는 걸 보자 검을 돌려서 막으려 했다. 그러자 방동백은 손목을 약간 돌려서 의천검을 비스듬하게 옆으로 공격했다. 싹!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목검의 검끝이 여섯 치쯤 잘라졌고 의천검은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었다. 이윽고 장무기의 가슴으로 공격해 똑바로 찔러왔다.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왼손을 반대로 돌리더니 본래 검결을 하고 있던 식, 중 두 손가락을 벌려서 의천검의 검신(劍身)을 잡으

며 오른손의 반 토막 검으로 그의 오른팔을 후려쳤다. 비록 목검이었지만 그가 구양신공으로 사용하게 되니 마치 강도(剛刀)와 같았다. 이윽고 방동백은 오른손에 힘을 가하여 검을 빼앗으려 했지만, 의천검은 상대방의 두 손가락에 끼여져서 꼼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오직 검을 놓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손을 빨리 놓으시오!"

장무기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으나, 방동백은 오히려 이를 악물고 손을 놓지 않았다. 바로 이 전광석화의 눈깜짝할 순간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한쪽 팔이 목검에 의해 절단되었다. 마치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는 것 같았다. 방동백이 손을 놓지 않는 건 팔을 희생시켜서라도 검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왼손을 내밀어서 잘린 팔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걸 얼른 잡았다. 잘린 팔은 이미 몸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다섯 손가락은 여전히 의천검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가 이처럼 용감한 걸 보게 되자 놀라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의 검을 뺏고 싶지 않았다.

방동백은 조민의 몸 앞으로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주인나리, 소인의 무능함은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조민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 명교 장교주의 얼굴을 봐서 무당파를 놓아주겠소. 자, 가자!"

왼손을 한 번 흔들자, 그녀의 부하들은 방동백과 대머리 아이, 아삼의 몸을 안고 삼청전 밖으로 나갔다.

이때 장무기가 소리쳤다.

"잠깐! 흑옥단속고를 남겨 놓지 않고서는 무당산을 내려가지 못하오!"

그리고는 즉시 몸을 튕겨 앞으로 다가가서 조민의 어깨를 잡으

려 했다. 순간 손아귀가 그녀의 어깨에 미처 닫기도 전에 갑자기 두 줄기 무성무식의 장풍이 좌우에서 기습해 왔다. 사전에는 전혀 기미가 없었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면서 쌍장을 동시에 되받아쳤다. 오른손으로는 오른쪽에서 기습하는 일 장을 받았고, 왼손으로는 왼쪽에서 오는 일 장을 받았다.

사 장이 동시에 부딪치자 기습해 오는 장력은 괴이하면서도 강맹했다. 더구나 한 줄기 음냉하기 짝이 없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이 한기를 장무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어렸을 때 그가 죽을 뻔했던 현명패천장이었다.

장무기가 놀라는 순간 구양신공이 바로 생겨났으나, 갑자기 좌우 겨드랑이에는 동시에 양적(兩敵)의 장을 공격받았다. 그러자 장무기는 윽!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내동댕이쳐졌다. 자기를 기습한 자들은 몸이 마르고 키가 훤칠한 두 노자였다. 이 두 노자는 각각 일 장씩 출수하여 장무기의 쌍장과 겨루고, 나머지 일 장씩을 무영무종(無影無縱)하게 그의 몸으로 후려친 것이다.

양소와 위일소가 함께 화를 내며 호통치면서 앞으로 덮쳐갔다. 그 두 노자는 다시 일 장씩 후려쳤다. 펑펑! 두 번 소리가 나면서 양소와 위일소는 동시에 뒤로 몇 걸음씩 물러났다. 가슴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뼈를 뚫는 한기를 느꼈다. 두 노자의 몸도 모두 몇 번 휘청거렸다. 이윽고 오른쪽에 있던 자가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명교의 큰 명성도 별거 아니로군."

그들은 조민을 보호하며 서둘러 산 밑으로 걸음을 옮겼다.

제 2 장 반원항호(反元抗胡)의 결의(決議)

그들은 장무기가 다친 것이 염려되어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모두 장무기를 둘러쌌다. 장무기는 별일없다는 듯이 손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체내에 구양신공이 발동하여 현명패천장의 한기를 몰아내고 있었다. 장무기의 머리끝이 찜통과 같이 뜨거워지더니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장무기는 웃통을 벗어버리고 구양신공을 더욱 발동시켰다. 그러자 검게 멍든 장인(掌印)은 조금씩 자색으로 변하다가 회색으로 변하더니, 끝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두 시간도 채 못 되는 시간에 왕년엔 몇 년 걸려도 제거할 수 없었던 한독을 지금은 흔적도 없이 몰아낸 것이었다. 장무기는 옷을 입으며 말했다.

"이번 일은 위험 천만이었지만, 그래도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 큰 다행입니다."

양소와 위일소는 반나절이나 앉아서 운기를 해서야 겨우 음독을 제거할 수 있었다. 장무기는 태사부의 상세를 걱정하자 장삼봉이 말했다.

"화공두타(火工頭陀)의 내공은 아직 멀었다. 외공은 강맹하지만 현명패천장이 미치지 못해 내 상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때 예금기 장기사 오경초가 달려와 적들을 모두 격퇴하였다고 보고를 해 왔다. 유대암이 지객도인에게 소석(素席)을 차려 명교인들을 대접하라고 명령했다. 식사를 하면서 장무기는 장삼봉과 유대암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얘기해 드렸다. 그의 지금까지의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장삼봉이 입을 열었다.

"그 해에도 바로 이 삼청전에서 나와 그 노인이 일장을 겨뤘었지. 그런데 당시에는 그가 몽고 군관 차림을 하고 있어서 둘 중 어느 노인인지 알 수가 없구나.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야. 우린 지금까지도 상대의 신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양소가 입을 열었다.

"그 조소저의 내력이 얼마나 고강하기에 현명이로(玄冥二老) 같은 고수마저 그녀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일까요?"

모두 머리를 맞대로 의논을 했으나, 도무지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지금 두 가지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옥단속고를 빼앗아서 유삼백과 은육숙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송대사백님의 소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조소저에게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암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미 이십 년이나 이런 꼴로 살아 왔는데, 이제는 어떤 선단 신약이 있다 해도 고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큰 형님이나 육제(六弟)를 구해 내는 일이 더 급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양좌사, 위복왕, 설불득 대사, 세 분께서는 저와 같이 적을 쫓아갑시다. 그리고 오행기 각파 장기사들은 각기 아미, 화산, 곤륜, 공동 그리고 복건(複建)의 남소림으로 찾아가 무슨 소식이라도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철관도장, 주선생, 팽대사 그리고 오행기 부장기사들은, 여기 무당에 잠시 머무르며 나의 태사부인 장진인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임하고 계십시오."

은천정, 양소, 위일소 등 모든 군호들은 각기 이름을 부를때마다 공손히 일어나 명령을 받았다.

장삼봉은 장무기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군호들을 통솔할 것인가 하고 의심했으나, 지금 이 은천정 등 무림의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 공손히 그의 명령을 받는 장면을 보자 그는 내심 크게 기뻤다.

'이 녀석은 나한테 태극권과 태극검을 배웠지만, 내공 바탕이 좋고 깨우침이 빨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도 대견스럽지만, 그것보다도 명교와 천응교의 이 대마두들을 정의의 길로 가게 했으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이야. 음! 취산(翠山)에게 이

런 후계자가 있게 됐구나!'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수염을 만지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무기와 양소, 위일소, 설불득은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장삼봉에게 이별을 고한 뒤, 조민의 행방을 찾아 산을 내려갔다. 은천정 등은 그들을 산 밑까지 배웅을 하고 산으로 올라왔으나, 양불회는 아버지 양소를 따라 몇 리 길까지 배웅을 나갔다.

"불회야, 이제 그만 돌아가서 은육숙이나 잘 모셔라."

양불회는 양소의 말에 공손히 대답하면서 장무기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무기 오빠, 오빠에게 몇 마디 할 얘기가 있어요."

양소와 위일소 등은 무기와 양불회가 어렸을 때부터 남매나 다름없이 자라온 터라, 무슨 사랑의 얘기라도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먼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무기 오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장무기의 손을 잡고 바윗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가 앉았다. 장무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녀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남달리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지 그녀는 항상 자기를 본 척 만 척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장무기는 무척이나 궁금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간 채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말문을 열었다.

"무기 오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빠한테 나를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했었지요?"

"그랬었지."

"오빠는 천리 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괴하에서 서역까지 우리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 동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 은혜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마음 속에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내가 너를 서역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었다면, 난 지금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벌써 독이 퍼져 죽었을 거야."
"아니예요. 오빠는 인협하고 후덕한 분이라 어떤 난관도 스스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무기 오빠,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교주이시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나의 친오빠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광명정에서 당신이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만 쑥스러워 오빠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겠어요?"
"천만에!"
"제가 소조를 잔인하게 따르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에 거슬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께서 너무 잔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저는 악인들에겐 잔인하게 다루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예요."
장무기는 가볍게 웃었다.
"소조 그 계집아이가 어딘가 괴팍하고 이상한 데는 있지만, 내가 보기엔 무슨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구나."
이때 날은 이미 저물었고 가을 바람이 불어 약간 추운 기운이 느껴졌다.
양불회는 부드러운 눈초리로 장무기를 바라보며 다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무기 오빠께서는 저의 양친이 은육숙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인데,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오래 전의 일이라고 생각

할 거예요. 저도 벌써 열 일곱 살이나 됐으니까요. 그러나 은육숙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이면서도 항상 내 손을 잡고 "효부, 효부!"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효부! 난 이미 손 발이 모두 부러진 폐인이야.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 제발 빌겠어!"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척 격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혼수 상태에서 잠꼬대를 한 것이야.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

"아니예요. 당신은 모르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깨어나서 나를 볼 때도 그의 눈빛엔 여전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장무기는 긴 탄식을 터뜨렸다. 그 자신 은육숙이 무공은 고강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기효부의 죽음이 그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또 자신은 폐인이 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흑옥단속고를 뺏어와, 삼사백과 은육숙의 병을 고쳐 드리고 말 것이야."

양불회가 다시 말했다.

"은육숙이 나를 그렇게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분에게 죄를 지셨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기 오빠, 저는 이미 내 입으로 은육숙에게 승낙을 했어요. 그분이 폐인이든 정상인이든, 저는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고 평생 같이 있겠다고....."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굳은 결의와 부끄러움, 그리고 기쁨이 역력했다.

장무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불회가 은이정에게 평생을 약속했다니,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네가.....?"

"저는 이미 그분에게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폐인으로 산다고 해도, 저는 항상 그의 옆에 있으며 시중을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저는 갑작스레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승낙을 한 것이 아니예요. 그 동안 저는 무척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이번 상처로 죽게 된다면 저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 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어요. 무기 오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 좋아하던 물건 외에는 끝까지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만 좋아하는 고집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 그건 그랬지."

"은육숙은 제가 처음으로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예요.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무기 오빠가 몇 번이나 내 생명을 구해 줬으니 나는 응당 평생 오빠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빠를 항상 친오빠같이 생각하고 지냈어요. 난 오빠를 존경해요. 그러나 그 분은 어딘가 좋으며 가련한 생각이 들곤 해요. 저보다 나이가 배가 더 많은 어른이라고 남들이 웃을 것이고, 또 저의 아버지와 앙숙지간이라고 성사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결심이 섰다는 것을 오빠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을 마친 양불회는 더 이상 장무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몸을 일으키더니,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장무기는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그는 한참 동안 멍청히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 뒤에 일행을 뒤쫓아오자, 설불득과 위일소는 장무기의 눈가에서 눈물자국을 보고는 양소를 향해 웃었다. 그들의 웃음엔 "축하하네, 양좌사. 교주의 장인이 됐구만." 하는 웃음으로 보였다.

네 사람은 무당산을 내려오자 양소가 말을 했다.

"조 낭자를 앞뒤로 호위할 것이라 절대로 그녀 혼자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네 갈래로 나눠서 그녀를 찾다가, 내일 정오에 곡성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교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곡성은 무당산의 동쪽에 있는 곳이다. 장무기는 제일 먼 방향인 서쪽 방향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당부했다.

"현명이로의 무공이 매우 고강하니, 세 분 중 어느 분이든 그들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피해 버리고 혼자 힘으로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세 사람은 작별을 고하고 각기 자기 방향대로 조민을 찾아 나섰다.

서쪽은 거의 산길이었다. 장무기는 경공을 펼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십안진(十안鎭)에 도착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으며 점원에게 노랑색 비단으로 가려진 작은 가마를 본 적이 있는지 탐문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점원은 본 적이 있다고 알려줬다.

"약 한 시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은 세 사람이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황용진(黃龍鎭)쪽으로 갔습니다."

장무기는 그들이 빨리 가지를 못하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 염려가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을 쫓기로 했다.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한잠 자고 난 후, 일경쯤 되어 황용진을 향해 달렸다.

그는 이경도 되지 않아 황용진에 도착했다. 길옆에 숨어 살펴보니, 길거리엔 한 사람도 다니지를 않았다. 한 객점에만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는 몸을 몇 번 날려 지붕 위로 올라섰다. 사방을 살펴보니, 멀리 개울가 옆 공터에 큰 천막이 쳐져 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경비가 삼엄해 보였다.

그는 내심 생각을 굴려 보았다.

'조 낭자가 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의 용모와 말하는 것은 한인과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호사스럽고 오만한 행세는 오히려 몽고인 같아.'

사실 이때는 이미 몽고인들이 중원을 점령한 지 오래라, 한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몽고풍을 배우고 흉내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창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가볍게 뛰어 내려 창문 옆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 보았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상처가 고통스러운지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두 팔과 두 다리에는 모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저 자의 부러진 팔다리를 자기네들의 영약인 흑옥단속고로 상처를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약을 뺏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심스레 창문을 밀어제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안에 서 있던 한 명이 놀라 주먹을 휘둘렀다. 장무기는 왼손으로 그의 주먹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자의 연마혈(軟痲穴)을 찔렀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을 보니 바로 아이와 방동백이 누워 있었다. 자기에게 혈도를 당한 그 자의 손엔 금침(金針)이 두 개 있었다. 아마 이 세 사람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 침을 놓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탁자 위엔 검은 병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장무기는 검은 병을 들어 뚜껑을 열어 보니, 아주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삼이 외쳐 댔다.

"누구 없느냐? 약을 강탈....."

장무기는 잽싸게 세 사람의 아혈(啞穴)을 봉했다. 그리고 나서

아삼의 붕대를 풀어보니 과연 팔 전체가 검은 색의 고약이 엷게 발라져 있었다. 장무기는 조민이 가짜약을 여기놓고 자기를 유인하려고 간계를 부린 것이 아닌지 두려워, 세 명의 상처를 바른 검은 약을 긁어 붕대에 쌌다. 그는 병속의 약은 가짜라 할지라도, 저들의 팔에 붙인 약은 절대 가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밖에서 경비하고 있던 자가 소리를 듣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장무기는 잽싸게 밖으로 한 명씩 걷어차 냈다.

객점은 어느새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몇 명을 걷어차며 이미 세 사람 상처에 붙인 고약을 반이나 긁어냈다. 더 이상 지체를 하여 현명이로가 달려오면 시간이 지체될 게 뻔했다. 장무기는 긁어낸 고약과 검은 약병을 품속에 감추고 쓰러진 의원을 들어 밖으로 내던졌다. 팡! 의원이 무거운 장풍을 맞고 떨어졌다. 과연 장무기의 예상대로 밖에는 고수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바로 이 틈을 노려 밖으로 몸을 날렸다. 컴컴한 어둠 속에 흰 빛이 번쩍하면서 예리한 단검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장무기는 건곤이위심법을 펼쳐 혼란속을 좌충우돌하며 이내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에 조민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흑옥단속고를 얻었으므로 장무기는 길을 재촉하며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곡성에서 양소, 위일소, 설불득을 만날 여유도 없이 바로 무당으로 달렸다. 홍수기의 사람을 시켜 양소 등에게 산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보냈다. 그 검은 약병은 옥으로 깎아진 것인데, 칠흑같이 검고 만지면 손에 따뜻한 촉감까지 있었다. 병만 따져도 하나의 진귀한 보물임에 틀림없었다.

무당산에 도착한 장무기는 사람을 시켜 은이정을 유대암 방으로 모셔오게 하고 두 사람을 나란히 눕히게 했다.

양불회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장무기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환한 얼굴로 보아 마음 속으로 감사하는 듯

했다. 장무기가 자기를 서역까지 데려다 주고 하태충 집에서 자기 대신 독주를 마신 은혜보다, 지금 은이정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이 더욱 고마운 모양이었다.

"삼사백님의 뼈는 이미 다 굳어서, 지금 치료하려면 이 조카가 다시 삼사백님의 뼈를 부러뜨리고 다시 접골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통스럽더라도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유대암은 사실 이십 년이나 폐인으로 살아온 자신이 다시 치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자신에게 장무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부모의 과실을 갚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말고 마음대로 하라."

장무기는 양불회를 밖으로 내보내고 유대암의 옷을 전부 벗겼다. 곧 뼈마디를 자세히 살핀 후, 유대암의 혼수혈을 봉하고 부러져 이미 굳은 뼈마디를 다시 부러뜨렸다. 유대암은 비록 혈도가 봉해지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다.

장무기는 번개와 같이 빠른 수법으로 다시 부위를 찾아 맞추고 흑옥단속고를 바른 후 목판을 대로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 금침을 놔 주었다. 은이정을 치료하는 일은 매우 쉬었다. 그는 치료를 끝내고 적을 기습을 예방하기 위해 오행기 기사들에게 차례로 경비를 서게 했다.

그 날 오후, 장무기는 저녁을 끝내고 방 안에서 간밤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청했다. 잠시 후 그는 잠결에 가볍게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그러자 소조의 낮은 음성이 밖에서 들려왔다.

"무슨 일이예요? 교주께서 잠이 드셨는데....."

곧이어 후토기 장기사 안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은육협께서는 몹시 고통스러워 벌써 세 번이나 기절하셨었는

데, 교주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무기는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다. 쏜살같이 유대암의 방에 달려가 보니 은이정은 눈이 뒤집혀진채 기절해 있었다. 양불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온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유대암은 이를 빠드득 갈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그는 강인한 성격인지라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본 장무기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은이정의 승읍(承泣), 태양(太陽), 담중(膽中), 세 곳의 혈도를 주물러 그를 깨어나게 하고 유대암에게 물었다.

"삼사백님, 뼈가 부러진 곳이 고통스럽습니까?"

"아픈 것은 고사하고 오장육부가 간질간질해서 미치겠구나. 꼭 무슨 수만 마리의 벌레가 몸 속 사방을 뚫고 들어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장무기도 보통 당황하는 게 아니었다. 유대암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분명 극독에 중독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육숙님은 어떻습니까?"

은이정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홍, 자, 청, 록, 황, 백 색깔이 정말 싱싱하구나. 수많은 구슬들이 춤을 추는데 정말 아름답구나. 너도 좀 와서 봐라....."

장무기는 앗! 하고 외치며 그만 기절할 뻔했다. 그는 곧 바로 왕난고의 독경에 적힌 글자가 떠올랐다.

----- 그것은 칠충칠화고(七蟲七花膏)라는 것이다. 일곱 가지 독충과 일곱 가지의 독화(毒花)를 다져서 끓여낸 것인데, 그 독에 걸린 자는 먼저 오장육부가 벌레에 물린 듯이 간질간질하다. 나중에는 별의별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약을 배합하는 방법을 마흔 아홉 가지가 있고 그 변화는 육십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자체의 독으로 그 독을 풀 수가 있다. -----

장무기의 이마엔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또 조민의 간계에 당한 것이다. 검은 병의 약은 가짜라 할지라도 세 명의 상처에 바른 것도 역시 가짜였다니! 두 명의 고수의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를 속이려고 했다니! 그녀가 이렇게 악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분통이 터져 재빨리 두 사람의 붕대를 풀고 나서 뜨거운 술로 두 사람의 사지를 바른 고약을 닦아 냈다. 양불회는 그 무거운 표정으로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아무 말도 묻지 않은 대, 팔을 걷고 은이정 몸에 바른 고약을 뜨거운 술로 얼른 닦아 냈다. 검은 색이 이미 살 속에 박혀 씻어지지 않았다.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것 같지 않았다.

장무기는 두 사람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난 후, 밖으로 나와 무섭고도 후회스러워 그만 마음이 허탈해져 무릎을 꿇고 쓰러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기 오빠, 무기 오빠!"

하고 양불회가 그를 보고 소리쳤다.

장무기는 목멘 소리로 외쳐 댔다.

"내가 삼사백님과 육숙님을 죽인 거야."

칠충칠화고의 재료가 백여 가지가 넘는데 도대체 어느 일곱 가지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독을 제거하려면 이독치독법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조금만 약을 잘못 써도 즉시 두 사람의 목숨이 끝장나는 것이다.

장무기는 갑자기 자기 부친이 자살을 해야 했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잘못을 이미 저지르고 난 후라 자살로 속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자 양불회가 물었다.

"정말 치료할 약이 없습니까?"

장무기가 고개를 흔들자 양불회는 그저 놀라지도 않고 태연한

자세였다. 장무기는 그녀가 은이정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렇게 되면 자기로 인해 죽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장무기가 망연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오경초가 문 밖에서 보고를 올렸다.

"교주님, 조 낭자가 관문 밖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 마침 그녀를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잘 됐군."

그는 비분을 참지 못하고 양불회의 허리에 찬 장검을 뽑아 들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소조가 자기 머리에 꽂았던 주화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공자, 이것을 조 낭자에게 돌려 주세요."

장무기는 힐끔 그녀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래, 나와 조 낭자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 그녀의 어떤 물건이라도 몸에 지닐 필요가 없지.'

그는 한 손에 꽃을 들고 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관문 밖에는 조민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양볼이 발갛게 물든 석양 노을에 반사되어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십여 장 뒤에는 현명이로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세 필의 말을 잡고 있었으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몸을 날려 그녀 앞에 다가서며 두 손목을 움켜 잡고 검 끝을 그녀의 가슴에다 대고 외쳤다.

"어서 빨리 해독약을 내놓지 못할까?"

조민의 얼굴이 빨개지며 가볍게 핀잔을 줬다.

"픽!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는 것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저보고 같이 죽어 달라는 거예요?"

"너하고 농담할 여유가 없다. 해약을 내놓지 못한다면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조민은 두 손목을 장무기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기의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우 격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순간 조민은 그의 손바닥에 무엇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물었다.

"손바닥의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주화다. 네 것이니 돌려 주겠다."

그가 손을 획! 하고 들자 주화는 벌써 그녀의 머리에 꽂혔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두 손목을 움켜 잡았다. 장무기가 손을 놓아 주화를 꽂고 다시 그녀의 손목을 잡는 동작은 정말 번개와 같았다.

"이것은 제가 준 선물인데, 왜 다시 돌려 줍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골탕 먹였는데, 내가 너의 물건을 뭣하러 갖고 있겠느냐?"

"내 물건을 받지 않는다구요? 그 말 진심입니까? 그렇다면 왜 저에게 해독약을 달라고 합니까?"

장무기는 매번 그녀와의 입씨름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유대암과 은이정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정말 그녀에게 사정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조민이 저지른 악독한 짓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때 양소 등 일행은 소식을 듣고 관문을 뛰쳐 나왔다. 그러나 조민은 이미 장무기에게 잡혀 있고, 현명이로는 멀리 뒤에서 관심이 없는 듯이 서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 모두 옆에 서서 관전만 하고 있었다.

조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명교의 교주이며 무공이 천하를 진동하는데, 어찌 이런 작은 문제에 눈물을 흘립니까? 조금 전에 눈물을 흘렸었죠?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다만 당신이 현명이로에게 맞은 장풍의 상처가 어떤지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람을 못 살게 굴다니, 도대체 이 손목은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겁니까?"

장무기는 조민이 그 틈을 노려 도망은 절대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즉시 그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놔주었다.

조민은 손을 들어 머리에 꽂힌 주화를 만지며 가볍게 웃었다.

"어째 당신은 다치지 않은 것 같군요."

"흥! 겨우 현명패천장으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대력금강지(大力金剛指)나 칠충칠화고(七蟲七花膏)는 어떻습니까?"

장무기는 그 말에 이를 갈았다.

"칠충칠화고가 틀림없군."

조민은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장교주, 당신이 흑옥단속고나 칠충칠화고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의 세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순순히 내놓지, 강압이나 협박을 동원한다면 나를 죽이면 죽였지 해약은 절대로 얻지 못할 겁니다."

장무기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하던 눈에 갑자기 웃음을 나타냈다.

"세 가지 부탁이 무엇이오? 빨리 얘기해 보시오."

장무기의 그런 표정에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울다가 갑자기 또 웃다니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미리 얘기해 드리지만, 지금은 갑자기 무슨 부탁인지 생각이 안 나니 지금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승낙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늘의 별을 따오라든가 정의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보고 죽으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장무기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어려운 부탁이라

도 들어 줄 수 있다고 결심을 했다.

"조 낭자, 만약 당신의 해독약으로 유삼백과 은육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명령만 내리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절대 마다하지 않겠소."

조민은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격장(擊掌)으로 맹세를 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손바닥을 서로 마주쳤다.

조민은 머리에 꽂은 주화를 뽑아들고 건네주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젠 내 선물을 받겠지요?"

장무기는 그녀가 해독약을 주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녀의 의중을 몰라 주화를 손에 쥐었다.

"다시는 계집종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소."

조민은 웃으면서 몸을 돌려 걸어가며 외쳤다.

"해약은 즉시 보내 줄 것이니, 장교주는 어서 돌아가세요!"

현명이로가 말을 끌고 와 그녀를 태웠다.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산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조민 일행이 첫 고개를 돌아가자 왼쪽 끝에있는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신궁팔웅(神弓八雄)중의 전이패(錢二敗)였다.

"우리 주인께서 장교주께 드리는 서신이니 받아 보시오!"

획! 하고 화살이 날아왔다.

장무기가 가볍게 화살을 받아들자 화살 끝에 쪽지가 달려 있었다. <장교주께서 직접 뜯어 보십시오.> 라는 글자가 겉봉에 씌어 있었다. 그가 서둘러 펼쳐 보니 작은 글씨가 몇 줄 적혀 있었다.

----- 금색 상자 틈 사이에 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화 속은 텅비었는데 그 속에 약방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건이 모두 오

래 전에 장교주 옆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인에게 주다니, 어찌 이 미친한 여자의 소망을 저버립니까? -----

장무기는 몇 번이나 그 쪽지를 읽어 보며 놀랍고도 기쁜 한편 참회스럽기도 했다. 그는 잽싸게 주화를 살피고 꼭지를 돌리니, 과연 그녀의 말과 똑같았다.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거기엔 칠충이 어느 일곱 가지 벌레이며 칠화는 어느 일곱 가지 꽃이고, 중독되면 어떻게 해독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사실 장무기는 어떤 일곱 가지라는 것만 알면 해독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그는 해독법이 틀림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안마당으로 뛰어가 해독약을 만들어 치료했다. 과연 한 시간도 채 못 지나 두 사람의 병세는 크게 호전됐다. 간질간질한 느낌이 사라지고 어른거리는 색채도 사라졌다.

그는 다시 조민이 준 주화를 담았던 금색 상자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틈 사이가 보였다. 그 속엔 검은 고약이 가득 차 있었다. 냄새는 오히려 매우 향기롭고 시원한 감을 줬다.

이번에 그는 다시는 경솔을 범하지 않기 위해 개 한 마리를 잡아와 다리를 부러뜨리고 난 후, 다시 약을 발라 붕대를 감아 주었다. 다음날 살펴보니, 과연 개의 상처는 크게 호전 되어 있었다.

삼일 째 되는 날 유, 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해독된 것을 확인한 장무기는, 진짜 고약을 그들의 뼈 마디에 발랐다. 이번에는 조금도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흑옥단속고의 약효는 대단했다. 두 달이 넘자 은이정은 이미 두 손을 움직일 수 있었다. 치유만 된다면 수족을 움직일 수 있겠고 무공도 별로 잃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만 유대암은 폐인이 된 지 너무 오래라 다시 정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반 년 후면 적어도 두 팔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

어다닐 수는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장무기가 무당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가 보냈던 오행기 교도들이 모두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 모두는 그만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었다. 아미, 화산, 공동, 곤륜 각파에서 광명정에 원정갔던 소문이 퍼지기를 마교의 세력이 강해 서역으로 갔던 고수들을 모조리 섬멸하고 그 뒤로 각 문파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림사 스님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에 대해 공전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번에 오행기 장기사들이 장삼봉의 신표를 지니고 가기를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각 문파에게 당할 뻔했었다. 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강호에는 각 문파나 각 방회, 그리고 표국, 산채, 부두 어디나 명교에서 습격해올까 두려워 경비가 삼엄하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은천정과 은야왕 부자도 무당산으로 돌아왔다. 천응교를 이미 명교로 개편 완료시킨 것이다. 또한 지금 동남지방에서는 군호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원(反元)의 물결이 사방에서 일어나 천하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원군은 아직 막강했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서로 각기 원군과 싸우며 연합 작전을 펴지 못해, 반란을 일으키는 고장마다 곧 원군에 의해 평정 되곤 했었다.

그날 밤, 장삼봉은 후원에다 소연(素筵)을 차리고 은천정 부자의 환영식을 베풀었다. 식사 도중 은천정은 사방에서 거사하여 실패한 이유들을 얘기하며, 명교의 천응교 제자들도 참여를 해서 생포된 자나 살상당한 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군호들은 그의 말에 모두 탄식을 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양소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다.

"지금 천하의 백성들은 갖은 고생에 시달려 인심도 변했고, 모두 몽고놈들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 강산을 되찾기를 바리고 있습

니다. 양교주가 살아계실 때도 밤낮으로 우리의 강산을 다시 찾기만을 일심 고대했지만, 다만 본교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괴이해 백 년 동안 중원 무림의 여러 분파들과 앙숙지간으로 내려와 같이 단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장교주 같은 분이 교주를 맡아 각 파와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씻어 냈으니, 이제 모두 합심 단결하여 몽고놈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칩시다!"

주전이 양소를 비꼬았다.

"양좌사, 당신의 말은 일리가 있긴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하오."

양소는 그의 말에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러시다면 주형의 많은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호에는 지금 명교에서 육대문파 고수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 명교 두 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이를 가는데, 말이야 합심 단결이지 실지로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소?"

"우리가 지금은 그런 누명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겠소? 거기다 지금 장진인께서 우리의 증인이 아니오?"

"만약 우리가 진짜 송원교, 멸절사태, 하태충 등을 죽였다면, 장진인께서 역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소?"

철관도인이 주전을 나무랐다.

"주전, 어찌 장진인과 교주가 있는 좌석에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주전은 그 말에 혀를 내밀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팽영옥이 다시 말했다.

"주형의 말이 전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빈승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회를 열어 명교의 각 지방 수령들이 모였을 때 장교주께서 무림 각파와 우호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각지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송대협, 멸절사태 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대회 기간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전이 다시 말했다.

"송대협 등 그들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요."

"그래, 무슨 방법이오?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았소?"

주전은 득의양양하여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 조 낭자에게 한 마디만 물어 보신다면, 적어도 구성(九成)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 얘기는 조 낭자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가 생포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요."

근래 두 달 동안 위일소, 양소, 팽영옥, 설불득 등은 여러 갈래로 조민의 종적과 내력을 수소문했지만, 그날 관문 밖에서 장무기와 손뼉치며 맹세를 한 후부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수하들마저도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군호들은 모두 그녀가 조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외엔 무슨 단서를 찾아 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전이 그런 말을 하자 모두들 그를 나무랐다.

주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꾸를 했다.

"물론 당신들은 찾지 못할 거요. 그러나 교주께서는 자연히 만나게 되실 거요. 교주께서는 그녀에게 세 가지 약속까지 한 것이 있는데, 악랄한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히! 히! 그녀의 아름다운 그 용모! 그렇지만 나는 생각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바짝 설 정도로 으시으시하며 겁이 난단 말이야."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모두 그의 말에 수긍이 갔다.

"차라리 그녀가 빨리 세 가지 부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결하고 일을 매듭짓게 말입니다. 요즈음엔 그녀가 무슨 괴상한 부탁을 해올까 하고 그 걱정만 하게 되는군요. 팽대사께서 조금 전에 건의하셨지만, 본교에서 각 지방의 수령들을 소

집해서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무당산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군호들이 모두 그렇게 대답하자 양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교주님의 생각으론 어디서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무기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본인이 명교 교주가 된 것에는 두 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접곡의선 호청우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금화파파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상우춘(常遇春) 형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교의 이번 대회는 괴북 호접곡서 거행할까 합니다."

주전이 손뼉을 치며 찬성했다.

"대찬성입니다. 그 견사불구(見死不救)하던 사람은 나와 만나기만 하면 말다툼을 했었지만, 사람은 별로 나쁘지는 않았지. 좀 괴팍한 데가 있었는데 그건 양좌사와 아주 비슷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해 주지 않았으니,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 그게 바로 인과응보야. 이 주전이 그의 묘 앞에 절이라도 해줘야지."

군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바로 석달 후 팔월 보름에 각 지방의 수령들을 소집하여 접곡에서 대회를 거행하기로 결절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오행기와 천응교의 사자들은 하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교주의 호령을 전달했다. 각 지방의 교인 중에 향주 이상의 계급에 있는 자는 모두 팔월 중추절까지는 호접곡으로 모여 신교주를 알현하게 했다.

아직 추석까지는 시일이 멀었고, 장무기는 유대암과 은이정의 병세가 완전히 낫지 않아 또 무슨 탈이 생길지도 몰라 잠시 더

무당산에 머물러 두 분을 간호하기로 했다. 또한 틈이 날 때마다 장삼봉에게 태극권이나 태극검에 대한 무학을 익혔다. 위일소, 팽영옥, 설불득 등은 여전히 사방으로 조민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양소는 무당산에 남아 있으라는 교주의 명령을 받고 무당산에 남았지만, 은이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는 평상시에 방 안에서 독서를 하며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이렇게 두 달을 지내자, 어느날 오후 장무기가 그의 방으로 찾아와 호접곡 대회에서 교중들에게 알려 줄 일들을 상의했다. 장무기는 나이가 젊고 학식이 비천해 갑자기 교주라는 중임을 맞자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을 잘못 처리해 대사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양소는 교무에 매우 심통하므로, 그를 무당에 남게 해 수시로 자문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잠시 의논을 하고 난 후, 장무기는 무심코 양소앞에 놓인 책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겉봉에는 명교유전중토기(明敎流轉中土記) 일곱 자가 씌어 있었고, 밑에는 작게 제자 광명좌사 양소 공전(弟子光明左使 揚逍恭전)이라 쓴 글자가 씌어 있었다.

"양좌사께서는 정말 문무를 겸비하신 진짜 우리 명교의 기둥이십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장무기가 책을 펼쳐보니, 작은 정자로 씌어져 있었고 옆에는 주석까지 달아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었다.

----- 명교가 발생한 곳은 파사국인데 원명은 마니교다. 당나라 무칙천(武則天) 항후 때 우리 중국에 들어왔는데, 불다탄(拂多誕)이라는 파사국인이 명교의 삼종경을 갖고 당나라에 들어와 중국인들이 그 때부터 명교의 경전을 처음 보게 됐다. 당대력(唐大曆) 때 가서야 대운광명사(大運光明寺)라는 명교 사원을 건축하였다. 그 뒤로 태원(太原), 정주(정州), 양주(揚州), 홍주(洪州)

월주(越州)에도 사원이 생겨났다. 회창 삼년(會昌三年)에서부터 명교 교인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명교의 교세는 크게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명교는 금교로 낙인찍히고 비밀교로 인식됐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항상 관아의 말살 정책에 시달려 온 것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행동이 자연 괴이하고 비밀스러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마니교 마자를 마(魔)자로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교(魔敎)로 부르게 된 것이다. -----

여기까지 읽어내린 장무기는 그만 긴 탄식을 했다.

"양좌사, 본교의 교지는 제악행선(除惡行善)이라 불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어찌 당나라 때부터 조정의 탄압을 받게 된 겁니까?"

"석가에서는 승려들이 출가하여 세속에 신경쓰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겁니다. 도가(道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향민들을 모집하여 누구든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곤란이 닥치면 모두 교인들이 나서서 돕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 어느 고장이고 관아에서 양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고장에 본교 교인들은 반드시 일어나 그들과 맞서왔습니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니 조정에서 괴롭히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이 선량한 자들을 못살게 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명교가 왕성해질 수 있겠군요."

그 말을 들은 양소는 탁자를 치며 일어섰다.

"바로 본교 교지의 관건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좌사,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양소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해야지요. 송나라 때 본교 방렵(舫獵) 교주께서 거사를 한 것도, 바로 관아에서 양민을 괴롭히지 못하

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 속에 방교주가 거사하여 천하를 진동시켰던 사실을 기재한 곳을 펼쳐 보였다. 장무기는 그것을 보면서 무척 흥분을 했다.

"정말 대장부의 할 도리를 하셨군요. 물론 순교를 당하셨지만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상통하여 가슴의 뜨거운 피가 들끓었다.

양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역대를 내려오면서 본교는 계속 탄압을 당해 왔지만, 한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남송 소흥(南宋紹興) 사 년에 왕거정(王居正)이라는 관리가 홍제에게 본교에 대한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주께서 한 번 보십시오."

----- 복견 양절주현(伏見兩浙州縣)에 채식을 하며 마를 섬기는 습속이 있는데, 방립 이전에 법금(法禁)이 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까지는 그 습속이 왕성하지는 않았지만, 방립 이후 법금이 엄해지자 마를 섬기는 습속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신이 알기로는 마를 섬기는 자들은 절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나서서 돕는데 육식을 안 하니 자연히 절약이 되고 절약을 하니 자연히 풍족스러워져 서로 더욱 도울 수 있어..... -----

장무기는 여기까지 읽고 난 후 양소에게 말했다.

"이 왕거정이란 자가 본교를 좋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교의 교인들이 검소하며 서로서로 돕고 지냈다는 것은 알고 있었군요. 그리고 억압이 심할수록 본교는 더욱 왕성해졌다는 애기는 본교가 민심을 얻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잠시 빌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본교의 옛 현인들의 업적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보신 후 교주의 지도를 바랍니다."

"유삼백과 은육숙의 상세도 많이 호전됐으니 우리도 내일 호접곡으로 떠납시다. 그리고 양좌사에게 또 한 가지 상의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회매(不悔妹)에 대한 일입니다."

양소는 장무기가 자기 딸에게 구혼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심 기뻐했다.

"불회의 목숨을 교주께서 살려 주신 겁니다. 저희 부녀는 그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교주께서 어떤 분부를 내리시더라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장무기는 그날 양불회가 자기에게 털어놓은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양소는 정말 크게 놀랐다. 그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딸 자식과 은육협이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양문의 영광이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너무 나고 배분도 틀려 이 일은....."

그러면서 그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은육숙의 나이 아직 사십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건장할 때가 아닙니까? 불회가 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무슨 진짜 혈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맞아 정말 혼인이 성사된다면, 아버지 대의 원한을 풀어 버릴 수도 있으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양소는 매우 활달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기효부의 일로 인해 항상 은이정에게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불회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기의 잘못이 속죄가 되어, 앞으로 명교와 무당파는 아무 원한 관계도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주께서 이렇게 나서서 신경 써 주시니, 제가 먼저 교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이 소문이 나가자, 군호들은 모두 기뻐하며 은이정에게

축하를 보냈다. 양불회는 부끄러워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장삼봉과 유대암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으나, 은이정이 좋아하는 것을 보자 그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혼인 날짜 얘기가 나오자 은이정이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대사형님들께서 산으로 돌아오시고, 여러 형제들이 모인 후에 날짜를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장무기는 양소, 은천정, 은야왕, 철관도인, 주전, 소조 등과 함께 장삼봉과 그의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괴북을 향해 떠났다.

양불회는 계속 무당에 남아 은이정의 시중을 들기로 했다. 당시에는 남녀지간의 규율이 엄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림인들이라 별로 그런 작은 예의 범절에 구애받지 않았다.

일행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야영을 하며 동북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지나오는 고장은 무척 황폐했고, 백성들은 굶주려 있었다. 원래 연해의 몇 성은 무척 풍요로운 지방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매우 어렵고 굶주려 있었다. 군호들은 악랄하게 약탈당한 백성들을 생각하며 개탄을 했다.

이날 그들은 호접곡과 가까운 계패집(界牌集)에 당도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병기가 부딪치며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군호들이 채찍질 하며 말을 달려 나무숲을 빠져 나오자, 천여 명이 좌우 두 열로 나눠 한 산채(山寨)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산채 위엔 빨간색 불길을 그린 큰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명교의 깃발이었다. 인원수가 부족해 전세가 불리해 보였다. 그러나 절대로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몽고군의 화살은 비오듯 했다.

"몽고의 역적들아, 어서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주전이 외쳤다.

"교주, 몽고군을 해치웁시다."

"좋소. 먼저 졸병들을 통솔하는 군관을 처치합시다."

군호들은 모두 뛰쳐나가 적진을 뚫고 장검을 휘둘렀다. 백 명을 통솔하는 백부장(百夫長)이 말에서 떨어지고 곧이어 은야왕의 단칼에 천부장(千夫長)이 쓰러지자, 원병들은 우두머리를 잃고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산채에서는 후원이 생기자 환호성을 질렀다. 산채문이 열리자 검은 옷을 입은 한 대한이 긴 창을 들고 앞장서서 뛰쳐 나왔다. 두목을 잃은 원병들은 도저히 그 예봉을 꺾지 못했다. 사방에서 원병들이 말에서 뜨러져 나가자 그만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군호들은 위풍이 당당하고도 날카롭고 마치 산신과도 같은 대한을 보자 모두 찬사를 보냈다.

"정말 훌륭한 장군이도다!"

이때 장무기는 벌써 그 대한의 모습을 보고 바로 상우춘 형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쌍방의 싸움이 치열해 바로 뛰어가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쪽에서 협공을 받은 원병은 사상자가 오,육 백이나 생기자 나머지는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지기 바빴다.

상우춘이 긴 창을 들고 크게 웃으며 외쳤다.

"어느 파의 형제들이 우리를 도왔는지, 나 상모(常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대형, 바로 소제입니다."

장무기는 그렇게 외치고 나서 뛰쳐나가 상우춘의 손을 잡았다.

상우춘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교주님, 내가 비록 형이지만 교주의 부하가 되다니 정말 기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상우춘은 명교 중에서도 거목기에 속하였었다. 그는 벌써 장기사 문창송에게 장무기가 교주가 된 사연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명

교의 형제들을 이끌고 장무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원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상우춘은 수가 부족한 것을 알고 원군을 산채까지 유인해 일거에 섬멸하려고 하던 찰나에 장무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산채문을 열고 뛰쳐나온 것이다. 그는 명교에서 직책이 높지 않아 양소나 은천정 등 군호들에게 일일이 알현했다. 그들도 상우춘이 교주와 의형제 사이라 직책을 떠나서 그를 따뜻하게 대했다.

상우춘은 구호들을 산채로 모시고 소, 돼지들을 잡아 주연을 크게 베풀었다. 그 동안 상우춘은 형제들을 모아 산적질을 하며 여유있게 지냈다. 그러다 산채에 금은보화가 쌓이면 빈민들에게 금은보화를 나눠 주곤 했다. 원군이 몇 번이나 그들을 공격했었지만, 매번 실패할 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산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상우춘과 함께 다시 북쪽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 후 그들이 호접곡에 당도하자, 먼저 도착한 교도들은 교주가 당도한 것을 알고 길 옆에 나와 그를 환영했다.

이때 거목기 교도들은 미리 와서 계곡에 많은 초가집을 지어 놓고 대회에 참가하는 교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위일소, 팽영옥, 설불득 등도 이미 먼저 와 있었으나 조민의 소식을 알아 내지는 못했다.

장무기는 각 지방의 교도들을 만나본 후, 제수품을 준비하여 호청우 부부와 기효부의 묘에 제사를 올렸다. 당시 자신이 처절하게 이 계곡을 떠났던 일을 회상하니 감개무량했다.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온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격세지감마저 들었다.

삼 일이 지나자 바로 추석이었다. 접곡에는 높은 단을 만들고 가 앞에 큰 불까지 피워 놓았다. 장무기는 단상에 올라 여러 문파와 원한을 씻고 단결하여 반원항호(反元抗胡)하자고 선포했다. 그리고 교규도 선포했다. 교중들은 모두 자기 앞에다 작은 향불

을 피우며 교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맹세를 했다. 불꽃이 하늘을 찌르며 향내가 사방에 퍼져 역대에 없는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연로한 교도들은 이 왕성한 기상을 보며 십여 년 전 명교가 사분오열(四分五裂)했던 생각이 떠올라 그만 기뻐 눈물까지 흘렸다.

오후가 되자 홍수기에서 보고를 올렸다.

"홍수기의 제자 주원장(朱元璋)과 서달(徐達)이 당도했습니다."

장무기는 기뻐하며 직접 나가 그들을 환영했다. 주원장과 서달은 탕화, 등유, 화운, 오랑, 오정을 데리고 밖에서 장무기가 나오자 모두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다. 장무기는 항상 서달이 자기 목숨을 구해 주었던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들의 인사에 답례를 하고 양손으로 서달과 주원장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때 주원장은 이미 환속을 하여 승려 차림을 하지 않았다.

"저희들은 교주의 영지를 받고 일찍 접곡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매우 좋지 않은 자를 만나 그 일을 쫓느라 대회 날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교주님께 용서를 바랍니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었습니까?"

주원장이 대답을 올렸다.

"유월 중순께였습니다. 우리는 교주님의 영지를 받고 다들 기뻐서 형제들이 모여 교주님께 어떤 축하 선물을 갖고 갈까 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괴북 지방은 황량한 곳이라 별로 좋은 물건도 없었고, 다행히 대회 날짜가 아직 멀어 형제들과 산동으로 선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우린 관병의 이목을 피해 마부로 변장하고 제가 마부 두목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남 귀덕부에 도착해 산동으로 가 서쪽 손님을 맞아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칼을 휘두르고 흉악하게 덤벼들더니 마차 속에 있는 손님들을 쫓아내고 자기네 손님을 모시라는 겁니

다. 그 때 화형제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자 서형제가 눈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고 난 후 싸워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마차를 모두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열 몇 대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땅에는 화상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두들 화상들만?"

"그렇습니다. 그 화상들은 모두 풀이 죽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은 태양혈이 불쑥 튀어나오고 몸집도 우람했지요. 서형이 저에게 몰래 알려 주더군요. 이 화상들은 모두 고강한 무공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흉악한 자들은 화상들을 모두 마차 속으로 가둬 놓고 우리를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린 그들의 정체를 알려고 했으나, 그들은 이상하게도 행동이 수상했고 우리 앞에선 절대로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량 형제가 용기를 내어 창가에 가서 엿들었습니다. 사, 오일 밤을 엿듣고 나서야 겨우 이 화상들이 모두 숭산의 소림사 승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무기는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아!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오량 형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님의 신기묘산(神機妙算)에 정말 탄복했습니다. 소림, 무당 육파의 고수들을 모두 수중에 넣었으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큰일을 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자, 또 다른 한 명이 "그것보다도 마교의 여러 마두들을 이 일에 관련시킨 것은 더욱 훌륭했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논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명교와 관련됐다니 꼭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원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북쪽으로 다시 떠나면서 멍청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탕화 형제와 등유 형제는 서로 돈 오푼 때문에 싸우는 등 무공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척하고 연극을 하자, 그들은 깔깔 대고 웃으며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첨을 떨었지요. 처음엔 오정 형제가 마약을 구해와 그들을 마취시키고 소림화상들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들의 무공이 모두 상당한 것이 분명해, 잘못하여 실수라도 한다면 오히려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스러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간부(河間府)에 당도하니 거기에도 여섯 대의 마차가 와 있었는데,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모두 일반 속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한 소림 승려가 새로 온 사람들을 향해 "송대협께서도 여기에 왔군요."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무기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송대협이라고?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했습니까?"

"가냘픈 몸집에 키가 크고 나이는 약 오, 육십 세 정도로 보였고, 세 갈래 수염을 기르고 매우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장무기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묻자, 과연 생각했던 대로 유연주, 장송계, 막성곡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그는 다시 다그쳐 물었다.

"부상을 입었거나 무슨 쇠사슬에 묶인 자는 많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보통사람과 똑같이 보였으나, 다만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도 휘청휘청해 보였습니다. 송대협이라는 사람은 그 소림 승려의 말을 듣자 그저 쓴웃음만 지어 보였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림 승려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한 흉악한 놈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 후로는 두 패가 십여 리나 떨어져 한 번도 같이 숙식을 하지 않아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칠월 삼일에 소림승들을 태우고 대도(大都)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대도에? 내 생각대로 과연 조정의 짓이었구나.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악한 놈들이 우리를 소림 승려들과 모두를 서성(西城)쪽에 있는 한 사원으로 데리고 가, 우리까지 모두 그 절간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절간이오?"

"우리가 들어갈 때 정문을 쳐다보니 만안사(萬安寺)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 놈에게 채찍질을 당했지요. 그날 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일 것이 분명해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 흉악한 놈들이 뒤쫓지 않기를 천만다행이군요."

탕화가 미소를 보이며 입을 열었다.

"주대형께서도 미리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미리 짜 놨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역마행에 가서 마부 일곱 명을 잡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그들을 모두 죽이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온 큰 마차의 마부도 죽이고 은덩어리를 땅에다 버려서, 서로 돈 때문에 싸운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말에 장무기는 놀라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서달은 죄책감이 드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등유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탕화는 득의양양해 하며 설명하는데, 주원장만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 자는 정말 잔인하고도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는 참다못해 말했다.
"주형, 당신의 계책은 훌륭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교주가 훈시를 하자 그들은 모두 일어나 허리 굽혀 명을 받았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주원장, 서달, 등유, 탕화 등은 교주의 훈시대로 싸움터에서나 어디서나 절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 결국 민심을 얻고 일대의 대업을 성공시키게 되었다.
장무기가 다시 물었다.
"여러분께서 소림, 무당의 고수들의 행방을 알아낸 것은 정말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거사할 일을 상의하고 나서 대도에 가서 두 파의 고수들을 구출하겠습니다."
그날 밤 장무기는 교도들을 소집하여 불을 피우고 향을 태우면서, 모두 합심하여 원나라를 쓰러뜨리자고 호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수령들은 사방에서 호응하여 거사를 일으켜 원군이 정신을 못 차리게 혼란하게 만들어야 대사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계획이 짜지자, 장무기는 양소와 위일소에게는 총단을 집행하게 하고, 전교의 총수로 임명했다. 백미응왕 은천정에게는 천응기를 이끌고 강남에서 거사를 하게 하고, 주원장, 서달, 탕화, 등유, 화운, 오량, 오정은 상우춘의 산채인마와 회합하여 손덕애 등과 괴북과 호주에서 거사를 하게 했고, 설불득은 한산동, 유복통, 두존도, 라문소, 성문우, 왕현충, 한교아를 통솔하여 하남 정천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팽영옥은 서수휘, 추보왕 명오 등을 통솔하고 강서성 일대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철관도인은 포삼왕, 맹해마 등을 통솔하여 상(湘), 초(楚), 정(停), 양(襄) 일대에서, 주전은 지마리, 조군을 이끌고 서(徐), 숙(宿)

풍(豊), 패(沛) 일대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냉겸은 서역의 교도들과 서역에서 중원으로 들어오는 몽고병의 원군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오행기는 총단의 명령에 대기하며 어디든 위급한 곳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계책은 거의가 양소나 팽영옥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다. 장무기가 이렇게 선포하자 교도들의 환호성은 천둥과도 같았다.

장무기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일개 본교의 힘으로는 백 년이나 된 원의 뿌리를 뽑기란 힘듭니다. 그러니 천하의 모든 영웅 호걸들과 힘을 합쳐야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중원 무림의 많은 수뇌들은 원나라 조정에 나포되어 있습니다. 총단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출해 낼 것입니다. 내일이면 형제들은 방방곡곡으로 분산되는데, 기회가 생기면 몽고놈들을 해치우십시오. 총단에서도 중원 무림 인물들을 구출하러 빨리 대도로 떠날 겁니다. 내일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오늘은 마음껏 놀고 즐깁시다. 형제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만 대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서로 살상을 하는 그런 의스럽지 못한 일을 저지를 시에는 총단에서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와! 하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때는 팔월 추석이라 밝은 달은 대낮과도 같았다. 모든 교도들은 맨 바닥에 앉아 총단에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채식으로 된 둥근 떡을 받았다. 동그란 원병은 꼭 달과 같은 모양이라 교도들은 모두 그것을 월병(月餠)이라고 불렀다.

후세에 한인들이 팔월 추석에 월병을 나눠 먹으며 몽고병을 죽이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전설을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장무기는 다시 선포를 내렸다.

"본교에서는 역대를 전해 오며 술과 육식을 금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도처가 황패하니 먹을 것이 생기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대사를 앞에 두고 만약 먹을 것을 가린다면, 모든 형제들은 기력이 없어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음식 금기를 해제하지만, 교도들은 더욱 처세를 올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각 지방 교도들은 교주에게 작별을 고했다. 앞으로 거사를 하면 죽을지 살아 남을지 몰라 모두들 이별을 섭섭해 하며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목적지로 떠났다. 떠들썩하던 호접곡은 다시 조용해졌고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주원장 등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장무기는 만안사의 위치와 그 흉악한 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듣고 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주형, 지금 이 호사(濠泗) 일대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으니, 이 좋은 거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대도에 갈 필요없으니, 여기서 그만 작별합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공을 거두기를 빕니다."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은 장무기와 작별을 하고 계곡을 떠났다.

장무기가 다시 양소를 향해 말했다.

"우리도 이제 그만 떠납시다. 소조야, 넌 사슬에 매어 있어서 행동이 불편하니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라."

소조는 억지로 대답을 하고 난 후, 여전히 계곡 밖까지 그들을 배웅나갔다. 몇 리 길을 배웅하고 나서도 그녀는 일행과 떨어지기 싫어했다.

"소조야, 점점 멀리 나오는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장 공자님, 대도에 가시면 그 조 낭자를 만나시겠죠?"

"어쩌면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럼 그녀를 만나면 그녀에게 제 부탁 한 가지만 전해 주세

요."

"그래, 무슨 부탁이냐?"

"조 낭자에게 의천검을 빌려와 나의 이 쇠사슬을 좀 잘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이 매우 가련해 보였다.

"여기까지 빌려 와야 하는데, 그녀가 빌려 줄지 모르겠구나."

"그러시면 저를 그녀 앞까지 데려다 주시면 되잖아요?"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결국은 어도 대도까지 가겠다는 얘기구나. 양좌사, 소조를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양소는 장무기가 이 말을 물어올 때는 마음속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대답했다.

"상관은 없습니다. 또 교주의 차 시중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환자인 척하고 마차 안에 있게 하지요. 평소에는 절대로 나오지 말고."

소조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공자님, 그리고 양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일소를 보고 웃으며 다시 그에게도 감사드렸다.

"위법왕님, 감사합니다."

"하! 하! 하! 나에게 감사해서 뭐하느냐? 조심이나 하거라. 내 병이 발작하면 네 피를 빨아먹을지도 모르니깐!"

그러면서 입을 벌려 흰 이를 드러내 보이고는, 귀신 얼굴을 하며 그녀에게 장난을 쳤다.

소조는 뒤로 물러서며 우물우물 거렸다.

"겁을 주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제 3 장 발가벗은 미녀(美女)

이날 오후 장무기 일행은 마차 세 대에 분승하여 북쪽으로 향했다. 하루도 채 못 되어 이들은 원조(元朝)의 경성(京城)인 대도(大都)에 당도했다. 당시 몽고인의 철기(鐵騎)가 동서양을 거의 다 정복하여 유례없는 광활한 국토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이 경성으로 정한 대도가 바로 훗날의 북경(北京)이다.

황제가 기거하는 경성이니만치 여러 작은 나라와 각 부족에서 파견한 조공사신들이 부지기수였다. 장무기 일행이 성문 안으로 들어서 보니, 가는 곳마다 행인이 북적거리며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지닌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네 사람은 서성(西城)에 당도해 객점을 찾아들었다. 양소는 거상(巨商)을 흉내내기 위해 씀씀이가 컸다. 그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객방 세 칸을 빌려 점원에게도 돈을 넉넉히 뿌렸다. 점원은 자연히 그들을 신주 모시듯 하며 깍듯이 모셨다.

양소는 성 안의 명승고적에 대해 거론하다가 자연스럽게 고찰사원(古刹寺阮)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점원은 가장 먼저 서성 부근에 있는 만안사(萬安寺)를 꼽았다.

"만안사는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주위는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내에 동(銅)으로 만든 불상 세 개가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불상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구경할 만한 곳이지만 어르신네들은 때를 잘못 잡았습니다. 반 년 전부터 서역의 번승(番僧)들이 상주한 후로부터 일반 사람들은 얼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소가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말했다.

"번승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는가?"

점원은 혀를 날름거리며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인이 공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네들은 아마 경성이 초행길인 모양인데 언동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 번승들은

자기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후려패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예쁘장한 여인이 눈에 띄기만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잡아가 갖은 방법으로 욕심을 채운답니다. 그들은 황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불행을 내색할 수 없습니다."

서역의 번승들이 몽고인의 세도를 등에 업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걸 양소 등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점원과 더 이상 긴 얘기를 늘어놓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운공조식을 하며 이경이 될 때를 기다려 창문을 뛰어넘어 만안사를 찾아나섰다.

만안사는 사층 누각으로 되어 있고 뒷편에 십 삼층이나 되는 보탑이 있어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장무기, 양소, 위일소 세 사람은 경공술을 전개해 순식간에 사찰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손짓을 하더니 재빨리 사찰 왼쪽으로 돌아 보탑 위로 오르려 했다. 일단 높은 곳에 서서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답에서 약 이십여장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답 주위에 이 삼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을 뿐 아니라, 매층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순시를 돌고 있는 게 시야에 잡혔다.

장무기 등은 내심 놀라는 한편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탑 주위에 철통 같은 경계망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소림, 무당 등 각 문파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게 분명했다. 이젠 더 이상 그들의 행방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을 취할 입장도 못 되었다. 공문대사, 송원교 등이 제압당한 것을 보면 상대방의 실력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때였다. 보탑 육층에서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열 명 가량이

손에 횃불을 들고 천천히 이동하는 게 보였다. 횃불은 육층에서 오층으로, 다시 사층으로 옮겨지며 결국 맨 아랫층으로 내려와 보탑 정문을 빠져 나오더니 사찰 뒷편으로 직진했다.

양소의 손짓에 따라 세 사람은 측면으로 조심스레 접근해 갔다. 만안사 뒷쪽은 아름드리 고목이 우거져 있어 세 사람에게는 좋은 은폐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워낙 경공술이 뛰어난 세 사람이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에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곤 했다.

그렇게 이십 장 가량 접근해 가자 비로소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황색 창포를 입은 사내들로서 제각기 횃불과 무기를 쥔 채 한 노인을 압송하는 중이었다.

압송당하는 노인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연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장무기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바로 곤륜파의 장문인 철금선생 하태충이 아닌가!

황색 장포를 입은 사내들은 하태충을 앞세워 으슥한 뜨락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 등은 잠시 주위를 살펴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담장을 뛰어넘었다. 뜨락은 제법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곳곳에 불당이 세워져 있어 흡사 소림사를 연상케 했다. 이때 한복판에 위치한 대전(大殿)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하태충이 그곳으로 압송된 게 분명했다.

장무기 등은 대전 앞으로 바짝 접근해 갔다. 양소와 위일소는 좌우로 갈라져 망을 보고, 장무기는 창문 틈새를 통해 대전 안을 엿보았다. 이곳이 용담호혈이니 만치 비록 절정무학을 지니고 있는 세 사람일지라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문 틈이 워낙 좁아 하태충의 하반신만 보일 뿐 장무기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탁자등에 가려서 볼 수 없었다. 곧 하태충의 노기에 찬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들 손에 함락된 이상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

나더러 오랑캐 조정에 협력케 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민족(漢民族)을 위해 이바지 못할 망정 내 어찌 몽고 오랑캐의 앞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장무기는 그의 말을 듣고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 철금선생은 비록 정인군자라 할 수 없지만, 일파의 장문인다운 기개는 지니고 있군.'

곧이어 한 남자의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정녕 옹고집을 부린다면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곳 주인이 정한 규칙을 알고 있으렸다!"

하태충은 냉소를 날렸다.

"흥! 내 열 손가락이 전부 절단된다 해도 결국 투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좋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겠다. 네가 만약 우리 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즉시 풀어주겠다. 그 반대로 네가 패한다면 손가락 하나를 절단시켜 한 달을 더 감금시킨 연후에 투항 여부를 다시 묻겠다."

"난 이미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으니 하나가 더 끊어진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어서 검을 갖고 와라!"

"흐흣.....! 열 손가락이 모조리 없어진 후에는 설령 투항을 한다 해도 폐물이나 다름없으니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 검을 갖다 줘라. 그리고 마가파사(魔訶巴思), 자네가 먼저 그와 몇 수 놀아 보게."

다른 한 굵직한 음성이 대답했다.

"네."

장무기는 손가락 끝에 신공을 운용해 창문 틈을 조금 넓혔다. 시야가 좀전보다 많이 트였다. 하태충의 손에는 한 자루의 목검이 쥐어져 있는데 검끝은 헝겊으로 돌돌 말아 상처를 입힐 수 없게 해 놓았다.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자는 체구가 우람한 번승

으로 손에 시퍼런 광채가 번뜩이는 계도를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이 구태여 겨룰 필요도 없이 무기만으로도 승패를 판가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태충은 위축되는 기색없이 당당하게 목검을 들어 올렸다.

"자, 어서 공격해라!"

그는 말을 내뱉기 무섭게 일검을 떨쳐냈다. 그 검세는 날카롭기 이를데 없었다. 곤륜검법은 과연 독특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번승 마가파사는 우람한 몸집에 비해 행동이 매우 민첩했다. 그는 계도를 종횡무진으로 떨치며 계속 하태충의 급소만 노렸다.

'철금선생의 결음이 왜 저렇게도 맥이 없을까? 내력(內力)을 전부 상실한 것 같기도 하고.....'

하태충의 검법은 정교했지만 내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므로, 그 위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었다.

번승의 무공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보다 두 수 가량 뒤떨어졌다. 그는 거듭 맹공을 펼쳤지만 번번이 하태충의 절묘한 검초에 기선을 빼앗겼다. 약 오십여 초식을 겨루자 하태충의 입에서 짤막한 기합이 터졌다.

"받아라!"

그의 목검이 동쪽으로 떨쳐지는 듯 싶더니 어느새 서쪽으로 방향을 꺾어 전광석화같이 빈승의 옆구리를 찔렀다. 만약 그의 손에 예리한 검이 쥐어져 있었거나 내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번승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됐을 것이다.

즉시 그 냉랭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마가파사는 물러나 온와아(溫臥兒)가 공격해라!"

장무기는 그 냉랭한 음성이 들려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히끗히끗한 수염이 마치 숯칠을 한 듯한 거무죽죽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현명이로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뒷짐을 쥔 채

서서 눈을 게슴츠레 접고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다시 그의 뒤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 비단으로 씌운 앉은뱅이 걸상이 놓여 있고, 그 걸상 위에는 한쌍의 맨발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비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맨발의 발톱을 정성스레 다듬어 주고 있었다. 걸상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비단신에는제각기 붉은 구슬이 박혀 있었다.

장무기는 이내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다. 손아귀에 쏙 들어올 만큼 그 발은 작은데다가 뒤꿈치의 선이 원만하며 상아를 다듬어 놓은 듯 티끌만한 흠도 찾아볼 수 없이 매끄러웠다. 실로 예쁜 맨발이었다.

장무기는 첫눈에 그 맨발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예전에 녹류장에서 자기가 손에 쥐어 보았던 조민의 발이었다. 무당산에서 그녀와 대면했을 때는 서로 적대 감정이었지만, 지금 비단 걸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맨발을 보자 웬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조민은 오른발을 비녀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태충과 온와아가 겨루는 것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경과되었을까. 하태충의 짤막한 기합소리에 이어 조민이 발 끝으로 갑자기 비녀를 밀어 냈다. 온와아마저 패하고 말았다. 얼굴이 시꺼먼 현명노인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온와아는 그만 물러나고 흑림발부(黑林鉢夫)가 실력을 보여 줘라!"

장무기는 하태충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연거푸 두 사람을 상대해 왔으니 몹시 지친게 분명했다. 삽시간에 다시 악투가 벌어졌다. 흑림발부는 육중한 철장(鐵杖)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가 철장을 전개할 때마다 거칠은 바람이 일며 거기에 따라

촛불이 어두워졌다 밝아지며 덩달아 춤을 추었다.
 홀연, 몇 자루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목검이 부러졌다. 하태충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부러진 목검을 바닥에 팽개쳤다. 이번에는 패하고 만 것이다. 현명노인이 으레 그 감정없는 말투로 물었다.
 "철금선생, 그래도 항복하지 않겠나?"
 하태충은 앙연히 대꾸했다.
 "항복할 수도 없거니와 승복할 수도 없다! 내력만 상실하지 않았다면 저런 번승 따위가 어찌 나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
 현명노인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왼손 무명지를 잘라 다시 탑으로 데려가라!"
 장무기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양소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내둘렀다. 지금 대전 안으로 뛰쳐 들어가면 큰일을 망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대전 안에 새로 촛불이 밝혀지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다시 약을 발라 치료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하태충은 신음은 고사하고 눈썹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비녀는 정성스레 조민의 발을 씻어 주고 나서 꽃신을 신겨 주었다. 황의인들은 다시 하태충을 보탑으로 데려갔다.
 장무기 등은 담구석에 몸을 숨긴 채 횃불이 비친 하태충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면서도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행이 떨어져 가자 대전 안에서 조민의 간드러진 음성이 들려왔다.
 "녹장선생(鹿杖先生), 곤륜파의 검법은 과연 대단하더군요. 그가 마가파사를 제압했던 그 초식은 처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떨쳐내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장무기는 궁금하여 다시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조민이 손에 한

자루의 목검을 쥔 채 하태충의 검법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녀가 녹장선생이라 부르는 자는 바로 얼굴이 시커먼 현명노인이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주인의 총명함은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초식은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조민은 계속하여 그 검초를 연습하고 나더니 다시 하태충이 온와아에게 전개했던 절초를 골라 진지하게 모방해 나갔다. 녹장선생은 옆에서 간혹 틀린 데가 있으면 자세히 시정해 주었다.
장무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알고보니, 조민은 각 문파의 고수들을 이곳에 가두어 약물로서 내력을 잃게 한 후 투항하여 조정에 협력하라고 강요했다. 군호가 완강히 거절하자 다시 교활한 수를 써서 각 문파의 절초를 차례로 훔쳐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실로 악랄하고 무서운 음모가 아닐 수 없었다.
이어 조민은 흑림발부를 불러내 그와 대련을 하더니 나중에 이르러 초식이 둔해졌다.
"녹장선생,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녹장객(鹿杖客)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려 한 마디 내뱉었다.
"학형(鶴兄), 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
그러자 대전 왼쪽 구석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보다 고대사(苦大師)가 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걸세."
조민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그의 말을 받았다.
"고대사, 수고스럽지만 가르침을 주시겠어요?"
그러자 대전 오른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소리없이 걸어나왔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두타(頭陀)로서 몸집이 우람하며 얼굴이 온통 칼자국으로 얼룩져 추악하기 이를데 없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붉으스름한 것으로 보아 중원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민의 손에서 목검을 받아 재빨리 흑림발부에게 공격을 전개했다. 바로 하태충이 전개했던 것과 똑같은 곤륜검법이었다.

이 고대사라고 일컬어지는 추하게 생긴 두타는 역시 하태충을 모방하여 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흑림발부는 좀전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다해 첫장을 전개해 나갔다. 막바지에 이르러 그가 철장을 가로쓸자 주위에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하태충은 바로 이 초식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목검으로 철장과 맞부딪치는 바람에 목검이 부러져 패배를 시인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대사는 절묘하게 목검의 방위(方位)를 바꾸어 살짝 떨쳐내자 흡사 바다제비가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듯 철장에 붙은 상태로 베어나갔다. 흑림발부는 철장을 쓸며 미끄러져 오는 목검이 손가락에 닿는 순간, 호구혈(虎口穴)이 마비되며 이내 철장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만약 상대방이 사용한 게 목검이 아니라 철검이었다면 영락없이 손가락이 잘라졌을 것이다. 그는 황급히 몸을 숙여 정중하게 말했다.

"정말 탄복했습니다."

그가 철장을 주워 뒤로 물러나자 고대사는 목검을 조민에게 건네주었다.

조민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고대사, 마지막 초식을 정말 절묘했어요. 그것도 역시 곤륜파의 검법인가요?"

고두타(=고대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조민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하태충이 구사하지 못했군요. 고대사, 그 초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고두타는 손을 검으로 삼아 허공에다 초식을 그려냈다. 조민은 그대로 따라서 했다. 세 번째 연습을 마치자 고두타의 동작이 갑자기 불가사의할 정도로 빨라졌다. 조민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

었다. 그러나 검초가 느릴 뿐 여전히 흉내를 내갔다. 고두타는 갑자기 몸을 젖혀 쌍장을 쭉 밀어내더니 모든 동작이 정지되었다. 장무기는 내심 갈채를 금치 못했다.

'앗! 정말 대단하군!'

조민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고두타의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깨닫고 물었다.

"앗! 고대사, 만약 당신의 손에 철장이 쥐어져 있다면 그 자세로서 필시 내 팔을 적중시켰을 텐데, 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죠?"

고두타는 고정시켰던 자세를 풀며, 새로이 오른손에 검을 쥔 자세를 취하는 동시 왼손으로 허공에 반원을 그려 철장을 나꿔잡으며 왼발을 걷어차 냈다. 그 즉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이미 상대방의 철장을 나꿔채고, 상대방을 걷어차 낸 것이다. 그의 몇 가지 동작은 둔해 보였으나 사실을 절묘한 변화가 담겨져 있는 외문절예(外門絶藝)였다. 조민은 요염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대사, 그 절초를 좀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요염한 웃음은 뭇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장무기는 다시 가슴이 뛰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투덜거렸다.

'내력이 부족한 주제에 그 절초를 어떻게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계속 가르쳐 달라고 졸라 대면 상대방이 매우 난처해질 텐데........"

고두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두 가지 손짓을 해 보였다. 그 뜻은 "당신의 내력이 부족하니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곧 몸을 돌려 물러가며 더 이상 조민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장무기는 고두타의 정체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느껴졌다.

'고두타의 무공은 현명이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손짓만 할 뿐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듣기만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란 말인가? 조 낭자가 예의로서 그를

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내력(內力)을 지닌 인물임에 분명한 데.....'

조민은 고두타가 자기의 청을 거절했는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었다.

"이번엔 공동파의 당문량을 불러오세요."

그녀의 분부에 따라 얼마 후 당문량이 끌려왔다. 녹장객은 다시 세 사람을 시켜 그와 세 판을 겨루게 했다. 당문량은 장풍으로 연거푸 두 사람을 깨었으나 세 번째 상대가 정면으로 내력(內力)을 전개해 오자 속수무책이었다. 그 역시 손가락 하나가 잘려져 나갔다.

이번에는 조민이 공동파의 장법을 그대로 모방해 펼쳤고 녹장객이 옆에서 가르침을 주었다. 장무기는 새삼 깨달은 바가 있었다. 조민은 자신의 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력을 쌓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므로 가가 문파의 절예를 배워 짧은 시간 내에 일류고수 대열에 끼려는 속셈임에 틀림없었다.

조민은 장법을 거듭 연마하고 나서 다음 상대를 골랐다.

"가서 멸절 늙은이를 불러오세요!"

한 황의인이 얼른 대답했다.

"멸절은 단식한 지 이미 닷새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분부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조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생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굶어 죽게끔 내버려 두세요. 참, 아미파의 그 주지약이라는 계집을 불러오면 되겠군요!"

그녀의 부하가 곧 대답을 하고 대전 밖으로 나갔다. 장무기는 주지약이란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황의인이 그녀를 끌고왔다. 장무기의 시선은 조민으로부터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주지약은 예나 변함없이 청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단지 광명정에서 보았을 때보다 다소 초췌해 보였다. 녹장

객은 그녀에게 항복여부를 물었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내둘러 거절했다. 생사 따위를 안중에 두지 않는 초연한 자세였다.

녹장객이 사람을 시켜 그녀와 검법을 겨루게 하려는데 조민이 입을 열었다.

"주 낭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미파의 절학을 익혔으니 정말 부럽군. 물론 이곳의 규칙을 잘 알고 있겠지? 우리중 세 사람만 꺾으면 무사히 보내주겠다는데 영사인 멸절사태는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주지약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스승님께선 목숨을 내놓을 망정 굴복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당당한 아미파의 장문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당신네들과 같은 음독한 소인배와 겨룰 수 있겠습니까?"

조민은 화를 내지 않고 입가에 묘한 웃음을 떠올렸다.

"그럼 주 낭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주지약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어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스승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영사는 대관절 무엇때문에 우리와 싸움을 피하려는 거지?"

"아미파의 검법은 비록 천하 제일의 절학은 아니지만, 중원에 널리 알려진 정통 무학임엔 들림없어요. 그런데 어찌 파렴치한 번승 오랑캐 따위가 그것을 훔쳐 배우게끔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표정은 진지 했으나,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대방의 정곡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조민은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는 여유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멸절사태가 자신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을 줄이야. 그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주지약

이 "음독한 소인배"니, "파렴치한 오랑캐"라고 서슴없이 말하자 은근히 화가 치밀어 대뜸 의천검을 뽑아 쥐었다.

"우리들더러 파렴치하다고 했는데, 그럼 한 가지 묻겠다. 이 의천검은 우리 집안의 가전지보(家傳之寶)인데 어떻게 해서 아미파가 훔쳐가게 되었지?"

주지약은 담담하게 말했다.

"의천검과 도룡도는 처음부터 중원의 신검보도(神劍寶刀)로 알려졌을 뿐 오랑캐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민은 이내 얼굴이 빨개지며 냉소를 날렸다.

"흥! 이제보니 입만 살았구나! 정말 출수하지 않기로 결심했느냐?"

주지약은 고개를 내둘러 대답을 대신했다. 조민의 눈동자에 갑자기 매서운 살기가 번뜩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손가락 하나만으로 충분하겠지만, 너는 그 반질한 얼굴을 믿고 고집을 부리는 모양인데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고두타를 가리켰다.

"저분 대사처럼 얼굴에 칼자국을 그을텐데, 그래도 건방을 떠는지 봐야겠군!"

그녀가 손을 살짝 휘두르자 황의인 둘이 달려와 주지약의 팔을 뒤에서 꺾어 조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조민은 태연하게 웃었다.

"너의 얼굴을 귀신탈바가지처럼 만드는데는 그 무슨 아미 검법이 필요없겠지?"

주지약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눈가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의천검의 검 끝이 바로 코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으니 악마와 같은 상대방이 살짝 손목만 놀려도 영락없이 고두타처럼 추한 모습으

로 변할 것이다. 조민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잠시 지켜보고 나서 퉁명스레 물었다.

"두렵느냐?"

주지약은 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조민이 다시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그럼 항복을 하겠느냐?"

주지약은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항복하지 않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조민은 구석에 몰린 쥐를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여유만만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 단지 너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싶을 뿐이다."

말을 끝내기 무섭게 그녀는 손목을 떨쳤다. 그 순간, 난데없이 대전 밖에서 작은 물체가 날아와 의천검에 적중되었다. 그와 동시에 창문이 박살나며 한 사람이 뛰쳐 들어왔다. 주지약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은 엄청난 회오리에 밀려 좌우로 벌렁 나자빠졌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사람은 재빨리 주지약을 왼팔로 끌어안으며 녹장객과 일장을 교환했다.

펑!

쌍방은 제각기 뒤로 두 걸음씩 물러났다.

대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침입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명교의 교주인 장무기였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장군(天將軍)같았다.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명이로 같은 일류 고수들도 사전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조민의 앞을 가로막고 장무기와 일장을 교환한 것이다. 그가 뒤로 두 걸음 물러난 것은 고사하고 온몸이 갑자기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심 크게 당황해 했다.

한편 주지약은 위기일발의 순간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 자

기를 도와 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장무기의 품안에 안긴 채 남정네의 짙은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장무기임을 확인하자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려 순식간에 온몸이 솜처럼 풀려 까무라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여지껏 남자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상대방은 오매불망해 오던 의중지인(意中之人)이 아닌가! 그녀는 벅찬 기쁨을 무엇으로 형용해야 좋을지 몰랐다. 주위에 비록 많은 강적들이 있지만 그녀는 그저 마음이 든든했다.

양소와 위일소도 교주가 예고없이 대전 안으로 뛰어들자 잇따라 몸을 번뜩여 장무기 뒤편 좌우에 내려섰다.

조민의 수하 고수들은 창졸간에 일어난 변화에 처음엔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포위망을 구축해 장무기 등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한 채 조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조민은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멍하니 장무기를 바라보다가 대전 한쪽 구석에 떨어져있는 금빛 찬란한 물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장무기가 의천검을 막기 위해 창졸간에 던져낸 물건으로서 바로 조민이 주었던 황금합이었다. 그 금합은 의천검의 예리한 날과 맞부딪쳐 이내 두동강이로 변해 있었다. 조민은 잠시 동안 그것을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금합이 그렇데도 싫었나요? 이런 식으로 파괴해야만 속이 시원한가요?"

장무기는 그녀가 성난 음성으로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동자에 울적한 빛이 띄어져 있는 것을 보자 절로 멍해지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몸에 암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품속에 집히는 물건을 꺼내 던진 것뿐이오. 고의가 아니니 양해해 주시오."

조민의 눈동자에 야릇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럼 이 금합을 늘 품 속에 간직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소."

장무기는 별생각 없이 대답했다. 조민이 계속 야릇한 눈길로 장무기를 주시했다. 장무기는 비로소 자기가 계속 왼팔로 주지약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팔을 풀었다.

조민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주 낭자가 당신의..... 친한 친구인 줄은 몰랐어요. 진작 알았다면 그녀를 거칠게 대하지 않았을 거에요. 이제보니 두 사람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했다.

"사실 나는 주 낭자와 별로..... 별로....."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제대로 잇지 못했다. 조민은 두 쪽으로 갈라진 채 버려진 금합을 다시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지약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저 여마두가 혹시 그에게 정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장무기는 그녀만큼 생각이 세세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조민이 준 금합으로 유대암과 은이정의 불치병을 치료했는데, 금합을 파괴했으니 그저 미안한 생각만 앞섰다. 하여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잘라진 금합을 주워 정색을 하고 말했다.

"솜씨 좋은 장인(匠人)을 찾아 이 금합을 원상복귀시키겠소."

조민은 얼굴이 활짝 필 정도로 좋아했다.

"그게 정말인가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내심 투덜거렸다.

'무수한 영웅호걸들을 통솔하고 있는 자가 이런 금합 따위에 집착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역시 여자니까 시시콜콜한 것까

지 공연히 신경을 쓰는군.....'
그가 잘라진 금합을 다시 품 속에 갈무리하자 조민이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젠 떠나도 좋아요."
장무기는 대사백 등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대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쪽 세 사람만으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 낭자, 나의 대사백님 등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오?"
조민은 원래의 여유를 되찾았다.
"나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조정에 협력하여 각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설득했어요. 한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나로서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으니 스스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예요."
장무기는 가볍게 냉소를 날리더니 다시 주지약 곁으로 걸어갔다. 주위에 많은 고수들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행동했다. 그는 주위를 한 번 훑어보고 나서 냉랭하게 말했다.
"정녕 그렇다면 우린 일단 떠나겠소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지약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나가려 했다. 그러자 조민이 대뜸 싸늘하게 외쳤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좋지만 주 낭자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즉시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학필옹(鶴筆翁)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음침하게 말했다.
"장교주, 한 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데려간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소?"
장무기는 학필옹의 음성을 알아듣고 노기가 끓어올랐다.
"내가 어렸을 때 당신에게 잡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내 앞에 나서는지 모르겠군요!"

말을 내뱉기 무섭게 대뜸 학필옹을 향해 일장을 뻗어냈다.

녹장객은 조금 전에 장무기와 직접 일장을 겨룬 바가 있으므로 학필옹 혼자의 힘으로는 그의 적수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앞을 다투어 일장을 격출해 냈다. 장무기는 오른손으로 학필옹을 노렸으므로 왼손을 떨쳐내 녹장객을 맞이했다. 이것은 진력 대 진력의 정면대결이니 만치 중간에서 몸을 피하거나 다른 얕은 수법을 쓸 만한 여지가 없었다.

세 사람의 장심(掌心) 네 개가 맞부딪치는 순간, 제각기 몸이 한 차례씩 휘청거렸다.

그날 무당산에서 현명이로는 쌍장으로 장무기의 쌍장과 맞부딪치며 다른 쌍장으로 그의 몸을 공격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수법을 전개했다. 그러나 장무기는 그날처럼 당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건곤이위신공을 펼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학필옹의 왼손이 녹장객의 오른손과 맞부딪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건곤이위신공의 묘미가 아니던가!

현명이로는 같은 스승 밑에서 무학을 쌓았으므로 장법이 같은데다가 공력도 비등했다. 두 사람 모두 이내 심한 충격을 느끼며 아연실색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비록 무공이 뛰어났지만 어째서 갑자기 자기네끼리 장력을 맞부딪치게 되었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들이 자세히 생각을 굴릴 여유도 없이 이번에는 장무기가 쌍장을 뻗어내 선재공격을 했다. 현명이로는 여전히 쌍장을 격출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펼쳤다. 조금 전에 전개했던 장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장무기가 건곤이위신공의 묘미를 살려 다시 녹장객의 좌장이 학필옹의 우장에 적중되게 만들었다. 이 건곤이위심법의 절묘함은 실로 불가사의했다.

현명이로는 또 한 번 아연실색을 해야만 했다. 장무기의 세 번째 장풍이 뻗쳐오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제각기 한 쪽 손만

뻗어내 맞이했다. 세 사람의 진력이 정면으로 맞부딪쳐지자 현명이로는 상대방의 장력 속에 한 갈래의 순양지기(純陽之氣)가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휘몰어쳐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다.
장무기의 공격은 질풍 노도와 같았다. 어렸을 적에 학필옹의 현명패천장을 맞아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겪어야만 했던가! 하여 녹장객에게는 다소 사정을 보아 주었으나 학필옹에게는 숨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십여 초식이 지나자 학필옹의 푸르스름하던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었다. 상대방의 장력이 다시 앞으로 뻗쳐오자 황급히 왼손으로 원을 그리며 와해시키려 했다. 동시에 오른손을 비스듬히 밀어냈다. 다음 순간, 팍! 팍! 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며 학필옹의 오른손이 엉뚱하게도 녹장객의 어깨쭉지를 강타했고, 장무기의 일장을 끝내 막아내지 못해 가슴에 맞고 말았다. 그 즉시 학필옹은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내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장무기가 그 틈을 타서 다시 일장을 뻗쳐낸다면 영락없이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장무기는 오늘 만큼은 인명 피해를 내고 싶지 않았다. 녹장객도 어깨에 일장을 맞아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현명이로는 조민의 수하 중에 가장 걸출한 인물인데, 이십 여 초식만에 제각기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조민의 수하들은 당연히 대경실색했지만 양소와 위일소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무당산에서는 장무기가 현명이로에게 부상을 입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이다. 실로 경탄할 발전이었다. 양소와 위일소는 이내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장무기가 무당산에 머무는 몇 달 동안 장삼봉의 심오한 가르침을 받아 드디어 구양신공과 건곤이위신공, 무당의 절학인 태극신공 등 이 세가지 무상무학(無上武學)을 혼연일체로 융합시킨 게 분명했다.
양소와 위일소는 장삼봉의 고심막측한 무학 진리에 새삼 경탄을

금치 못했다.

현명이로는 장풍을 겨루어 패하자 즉시 무기를 전개했다. 녹장객의 무기는 한 자루의 짧은 괴장(拐杖)으로 머릿부분이 갈라져 녹각(鹿角)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가무잡잡한 윤기가 흐르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학필옹의 손에는 한 쌍의 붓이 쥐어져 있었다. 붓 끝이 학의 주둥아리처럼 묘하게 생겼으며 한광이 번쩍였다.

현명이로는 조민을 따른 지 오래 되었지만 조민도 그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일단 무기를 전개하자 한 갈래 흑기(黑氣)와 두 줄기의 백광(白光)이 허공을 수놓으며 장무기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장무기는 빈손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했으므로 상황이 다소 불리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무공을 시험해 볼 양으로 좌충우돌 맞서나갔다.

이때 조민이 손뼉을 쳐서 신호를 하자, 대전 곳곳에서 싸늘한 기합이 터지며, 세 사람은 양소를 겨냥해 덮쳐갔고, 네 사람은 위일소를 협공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공력을 잃은 주지약을 제압했다.

양소는 잽싸게 상대방에게서 검을 한 자루 빼앗아 번개같은 검광을 뿌려내자 황의인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물러났다.

위일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공술을 바탕으로 하여 현음면장(玄陰綿掌)을 전개해 삽시간에 두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상대방의 수가 많아 한 사람이 쓰러지면 즉시 두 사람이 덮쳐왔다.

장무기는 현명이로를 상대하느라 좀처럼 그들을 도울 틈이 없었다. 물론 양소와 위일소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지약을 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홀연 조민의 차가운 외침이 터졌다.
"모두 손을 거두세요!"
그녀의 수하들은 일제히 공격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양소는 장검을 바닥에 팽개쳤고, 위일소는 한 자루의 단도를 원래 임자에게 던져주며 광소를 터뜨렸다.
장무기는 한 사나이가 비수로 주지약의 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지약은 그를 쳐다보며 울적하게 말했다.
"장공자, 세 분께선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세 분의 고마운 뜻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조민이 피식 웃으며 그녀의 말을 이어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공자, 저 달덩어리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의 정인(情人)인가요?"
장무기는 그녀의 노골적인 물음에 오히려 쑥스러워졌다.
"주 낭자는 나하고 소시적부터 아는 사이였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학필옹을 힐끗 노려보고 나서 다음 말을 이었다.
"내가 현명패천장을 당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주 낭자는 나를 보살펴 주었소. 난 아직도 그 은덕을 잊을 수 없소."
"그렇다면 죽마고우였겠군요. 혹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게 아닌가요?"
장무기는 웬지 당황해졌다. 그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다.
"산하(山河)를 되찾기 전에 내 어찌 한 몸 편하고자 가정을 이루겠소!"
조민은 이내 얼굴에 냉기가 감돌았다.
"끝까지 나하고 맞서 나를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뜻이군요?"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나는 아직도 낭자의 진정한 신분을 모르고 있소. 비록 몇 번 다툼이 있었지만 언제나 낭자가 나 장무기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었지 내가 낭자에게 트집을 잡은 적은 없소. 지금이라도 낭자가 나의 대사백님을 비롯한 각 문파의 협의지사들을 풀어준다면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오. 더군다나 낭자의 분부에 따라 세 가지 일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소."

조민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매우 만족해 하며 활짝 웃었다.

"아직 잊지 않고 있었군요."

이어 주지약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저 주 낭자가 당신의 정인도 아니고 사매도 아니니, 내가 그의 얼굴을 추하게 만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군요?"

그녀는 즉시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녹장객과 학필옹은 그녀의 눈짓에 따라 주지약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다른 사나이가 예리한 칼날로 주지약의 얼굴을 겨냥했다. 장무기가 그녀를 구하려면 우선 현명이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민이 다시 냉랭하게 말했다.

"장공자, 내가 사전에 말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날 원망하지 않겠죠?"

이때 위일소가 갑자기 손에다 침을 뱉더니 그 손으로 신발 밑창을 쓱쓱 문질렀다.

"으하하핫.....!"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도 이상했지만 난데없이 광소를 터뜨리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돌연 청색 그림자가 번뜩였다. 그 순간, 조민은 양쪽 뺨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흠칫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위일

소는 이내 제자리에 서 있었다. 단지 종전과는 달리 그의 손에 두 자루의 단도가 쥐어져 있었다. 누구의 허리춤에서 빼앗아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민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그녀는 감히 손으로 뺨을 만지지 못하고 얼른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과연 그녀의 불길한 느낌이 적중했다. 수건에 시커먼 때가 묻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위일소의 침과 신발 밑창의 흙이라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위일소의 퉁명스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조 낭자, 정녕 주 낭자의 얼굴을 못쓰게 만들겠다면 맘대로 해보시지! 그대신 나도 조 낭자의 얼굴을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주 낭자 얼굴에 칼자국을 하나 내면 난 두 배로 갚아줄 것이고,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면 나 역시 조 낭자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까지 싹둑 잘라 보답을 해야지."

여기까지 말한 그는 두 자루의 단도를 한 번 맞부딪치고 나서 느긋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물어보면 잘 알겠지만 나 위일소는 한 번 한다면 꼭 하는 사람이야. 여지껏 내가 장담을 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이 없지. 물론 석 달 열흘쯤은 용케도 피해 다니겠지. 그러나 삼, 사년 혹은 십 년 넘게 내 칼을 피하진 못할걸. 미리 선수를 쳐서 고수를 시켜 날 죽이려고도 하겠지만 내가 도망치겠다고 작심한 이상 아무도 날 쫓아오지 못할 거야.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

말을 끝내는 순간 그림자가 번뜩이는가 싶더니, 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단지 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쥐고 있던 단도가 나란히 천장 대들보에 꽂혔다. 그뿐만 아니었다. 잇따라 두 마디의 짤막한 비명이 들리며 대전 문쪽에 서 있던 두 번승이 천천히 쓰러졌다. 그들이 쥐고 있던 장검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고, 모두 혈도가 찍힌 것이다.

위일소는 느긋하게 말을 내뱉었지만, 결코 형식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조민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위일소가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순간 손에 비수가 쥐어져 있었다면, 지금쯤 양쪽 뺨에 칼자국이 나 있을 게 분명했다. 위일소의 귀신 같은 신법에는 실로 따를 자가 없었다. 설령 장무기라 할지라도 장시간 동안 경합을 벌인다면 모를까, 순간적으로 전개하는 신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는 정중히 공수의 예를 취했다.

"조 낭자, 오늘은 실례가 많았소. 이만 작별을 고할까 하오."

그는 양소와 함께 태연히 대전 밖으로 걸아 나갔다. 위일소가 간담이 싸늘할 정도로 위협을 주었으니, 조민은 더 이상 주지약을 가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민은 분노와 수치로 이글거리는 시선을 그의 뒤통수에 꽂을 뿐 감히 앞을 가로막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장무기와 양소가 객점으로 돌아와 보니, 위일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밤 세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동이 틀 무렵, 장무기는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순간 창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며 빤히 그를 쳐다보았다. 장무기는 흠칫하여 침상의 휘장을 젖히고 유심히 살펴보니, 상대방은 다름아닌 그 추하게 생긴 고두타였다. 그를 확인하자 놀라움이 더욱 컸다. 장무기는 벌떡 침상에서 일어났으나 고두타는 여전히 귀신 탈바가지같은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추한 얼굴이 갑자기 창 밖에서 사라졌다.

장무기는 즉시 창문을 뚫고 나갔다. 고두타가 성큼성큼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보였다. 이때 양소와 위일소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달려왔다. 세 사람이 주위를 살펴보니 고두타 외에

다른 적은 보이지 않자, 곧 고두타의 뒤를 쫓아갔다.

고두타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북쪽을 향해 신법을 전개했다. 장무기 등도 눈빛을 교환하며 신법을 펼쳤다.

동이 텄지만 서편 하늘에는 여전히 조각달이 떠 있고 주위는 어슴푸레했다. 이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신법을 전개해 얼마 후에 북문을 벗어났다. 고두타는 쉬지 않고 황량한 산길을 택해 다시 칠, 팔 리 가량 달려 으슥한 돌산으로 접어들자 비로소 신법을 멈추었다.

장무기는 예리하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날이 이마 완전히 밝았고 시야가 확 트여 적이 매복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두타가 무엇 때문에 우릴 이곳까지 데려온 것일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우리 셋을 상대하기엔 불리할텐데..... 보아하니 악의는 없는 것 같군.....'

그가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고두타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가슴 앞에 세워 불길 모양을 만들고 장무기에게 큰절을 올렸다.

"소인 광명우사(光明右使) 범요(范遙)가 교주께 인사를 올립니다."

벙어리로만 알았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자 모두는 놀랐다. 더욱 놀란 것은 그가 스스로 광명우사라고 밝힌 일이었다.

장무기는 놀라움에 이미 어리둥절하며 얼른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정녕 그대가 본교의 광명우사라면 이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사실 그보다 더욱 놀란 것은 양소와 위일소였다. 양소는 그의 얼굴을 잠시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다.

"자네가.....자네가 정말 범형제란 말인가? 이게 대관절.....!"

범요는 무너지듯 양소의 몸을 끌어안았다.

"형님! 이제 교주께서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존의 보살핌입니다. 훌륭한 교주가 탄생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양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런데 자네의 얼굴이 어찌 이 모양으로 변했나?"

범요의 일그러진 입가에 한 가닥의 쓴웃음이 띄어졌다.

"내가 스스로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벽력수 성곤, 그 간교한 놈의 눈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세 사람은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적진에 잠입하기 위해 스스로 얼굴을 난도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소는 더 가슴이 아팠다.

"범형제,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양소와 범요는 왕년에 강호에서 소요이선(逍遙二仙)이라 일컬어질 만큼 모두 영준한 미남자였다. 그런데 범요가 대의(大義)를 위해 스스로 얼굴을 목불인견의 흉한 꼴로 만들 줄이야! 위일소는 예전에 범요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 그에게 심히 감동되어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범우사, 나 위일소는 오늘 진심으로 당신에게 탄복했소."

범요도 무릎을 꿇고 답례했다.

"위복왕이 경공은 변함없이 독보천하이며, 명확한 상황판단은 전보다 훨씬 고명해졌다는 걸 어젯밤에 새삼스레 느꼈소이다."

양소는 주위를 한 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곳은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 자리를 옮겨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네 사람은 다시 십 리 밖으로 벗어나 어느 토산 위로 올랐다. 이곳에선 몇 리 밖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으므로 누가 엿듣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멀리선 이곳을 자세히 볼 수

없는 잇점도 있어 넷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범요가 먼저 얘기 보따리를 풀었다.

왕년에 명교의 교주였던 양정천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자, 명교의 고수들은 서로 교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웅다웅하다가 사분오열되는 결과를 맞았다.

당시 범요는 교주가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혼자 강호로 나와 방방곡곡을 모두 다니며 교주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 흘렀고, 결국 교주를 찾아내지 못한 범요는 개방을 의심하게 되어 암암리에 개방의 여러 중요 인물들을 잡아 고문을 했으나, 여전히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단지 적지 않은 개방고수들만 억울하게 살상을 당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양교주 부인의 사형인 성곤을 보게 되었다. 당시 무림은 살인자 혼원벽력수로 인해 발칵 뒤집혀져 있을 때였다. 범요는 그 일의 진상을 캐고 또한 성곤을 통해 어쩌면 양교주의 행방을 알아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멀찌감치 떨어져 성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성곤은 어느 주루로 들어갔다. 주루에는 두 명의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현명이로였다. 범요는 성곤의 무공이 고강하다는 것을 알고 멀찌감치 떨어져 술만 마시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명교를 멸망시키고 광명정을 파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범요는 이 사실을 안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다시 암암리에 그들의 뒤를 미행했다. 뜻밖에도 그들은 여양왕부(汝陽王府)로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명이로는 여양왕이 고용한 무사중에 핵심인물이었다.

여양왕 찰한특목이(察罕特穆爾)는 태위(太慰)라는 벼슬에 앉아 천하의 병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그는 지용(智勇)을 겸비한

인물로서 현재 조정에서 첫손을 꼽는 실력자였다. 그 동안 천하 방방곡곡에서 의병(義兵)들이 궐기했지만 번번이 그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장무기 등도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을 들어왔는데, 지금 범요의 입을 통해 녹장객과 학필옹이 그의 부하라는 것을 알자 모두 멍해졌다. 양소가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조 낭자는 누구인가?"

범요가 대답했다.

"바로 여양왕의 딸입니다. 여양왕에게 아들 하나와 딸이 있는데, 이들은 고고특목이(庫庫特穆爾)라고 하며, 조민은 그의 딸로서 몽고 이름은 민민특목이(敏敏特穆爾)라고 합니다. 고고특목이는 여양왕 세자이니 장차 왕작(王爵)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 조민은 소민군주(紹敏郡主)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두 젊은이는 모두 상당한 무공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인(漢人)차림을 즐겨하며 한인의 말도 유창할 뿐 아니라 제각기 이름도 한인처럼 지어 고고특목이는 왕보보(王保保), 소민군주는 조민이라 합니다."

위일소가 피식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정말 맹랑한 오누이구료. 한 사람은 성이 왕이고 한 사람은 조이니, 만약 우리 한인이라면 그보다 더 망신스러운 웃음거리가 또 어디 있겠소?"

범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그들의 성은 모두 특목이죠. 단지 몽고 오랑캐족은 풍습에 따라 이름을 성(性) 앞쪽에 놓은 것뿐이오. 그 여양왕 찰한특목이도 한인 성을 갖고 있는데 이(李)라 하던가.....?"

여기까지 말하자 네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 註 : [新元史] 제 이백 이십 권 [찰한특목이전(察罕特穆爾傳)]에 의하면 찰한특목이의 증조부는 활활대(闊闊台)라 하고

조부는 만대(蠻坮), 부친은 아노온(阿魯溫)으로서 나중에 성을 이(李)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고특목이는 비록 세자(世子)로 봉해졌지만 사실은 찰한특목이의 조카라고 한다. 이는 본 소설의 내용과 관계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

양소가 한 마디 했다.

"그 조민이란 계집은 생김새가 한인 같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오랑캐의 거칠은 야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역시 피는 속을 수 없는 모양일세."

장무기는 비로소 조민의 진정한 신분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가 조정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천하의 병권을 거머쥐고 있는 여양왕의 딸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범요가 다음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았다.

그가 계속 암암리에 알아본 결과 여양왕이 강호의 모든 문파를 없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명교였다. 그것은 성곤의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다.

범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교내에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적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므로 이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양왕부로 잠입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곤이 버티고 있는 한 변장을 하여 잠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궁리 끝에 범요는 남들이 상상을 못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얼굴을 난도질하고 약물로 머리카락마저 염색했다. 그리고 서역에 위치한 화자자모(花剌子摸)라는 작은 나라로 들어갔다. 그가 여양왕부와 만 리 길이 떨어진 화자자모국으로 건너간 것은 계획의 치밀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화자자모국에서 적당한 기회를 잡아 무공을 과시하자 그곳의 몽고 왕공(王公)이 즉시 그를 보아서 받아들였다. 당시 여양

왕은 방방곡곡에서 무사들을 초빙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화자자모국의 왕공은 여양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범요를 왕부로 보냈다.

범요의 치밀한 계획은 척척 들어맞아 갔다. 그는 서역 하자자모국에서 바쳐온 무사인데다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한 벙어리 흉내를 내므로 성곤이 제아무리 하늘을 날으는 재간이 있다해도 그의 정체를 간파할 수 없었다. 여양왕부로 잠입한 범요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곤을 암암리에 죽이려 했다. 그러나 그 때 성곤은 이미 왕부에 없었다.

범요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성곤이 교주 부인의 사형이면서 무엇 때문에 여양왕을 등에 업고 명교를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들은 양소는 곧 성곤이 어떻게 하여 명교와 원한을 맺게 되었으며 어떻게 광명정을 기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무기가 그 위기를 맞은 경위와 은야왕이 장력을 겨루어 성곤을 죽인 상황을 얘기해 주었다.

범요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입이 딱 벌어졌다. 그는 비로소 많은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는 심한 격동을 느끼는 동시에 장무기에 대한 존경이 더욱 깊어져 곧 몸을 일으켜 장무기를 향해 공손하게 말했다.

"교주, 한 가지 사죄할 것이 있습니다."

"범우사,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양왕부에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친히 본교의 향주 세 명을 죽였으니, 그 죄 값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갑자기 양소의 장검을 뽑아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잘라 버렸다. 장무기 등이 말릴 새도 없었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았다.

"범우사, 이게.....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겠소?"

범요는 진지하게 말했다.

"본교의 무고한 형제들을 죽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을 겁니다. 응당 목숨을 내놓아야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남아 있어 우선 손가락 두 개 잘라 죄 값을 대신합니다. 차후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나의 목을 바치겠습니다."

장무기는 그의 과격한 성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과격한 행동을 취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는 얼른 약을 꺼내 발라 주고 옷자락을 찢어 손가락을 동여 매 주었다.

"범우사가 본교 형제들을 죽인 것은 바로 본교의 존망을 고려하여 취한 부득이한 행위였거늘, 내 어찌 나무랄 수가 있겠소? 정녕 범우사가 다시 자신의 몸을 상대한다면 나의 무덕무능(無德無能)으로 간주해 나 역시 똑 같은 죄값을 치룰 생각이오!"

양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범요의 손을 잡았다.

"소림사의 나한상들을 돌려놓은 것이 혹시 자네의 짓이 아니었나?"

범요는 히쭉 웃었다.

"군주가 나한상 등에다 본교에게 화를 전가시키는 말을 남기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소림으로 잠입해 슬쩍 나한상을 돌려 버렸소. 형님, 그 때는 차마 내가 한 짓이라곤 생각지 못했겠죠?"

"물론일세. 적진의 어느 고수가 암암리에 우릴 돕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게 바로 나의 단짝이었던 자네였을 줄이야 죽었다 깨어난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네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양소는 명교가 이미 육대문파와 손을 잡고 몽고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일을 설명해 주었다. 각 문파의 고수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네 사람의 힘만으론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십향연근산의 해약을 구해 그들에게 복용시켜 공력이 회복된 후 함께 함을 합쳐야만 합니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범우사의 말에 찬성하지만, 해약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소?"

범요도 난처해 했다.

"나는 벙어리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군주는 비록 나를 깍듯이 대해 왔지만 중요한 일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죠. 단지 현명이로 중 한 사람이 해약을, 또 한 사람이 독약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장무기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그렇다면 그들 두 사람 중에 누가 해약을 갖고 있는가 부터 알아내야 할 텐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군요."

잠자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양소가 불쑥 끼어들었다.

"범형제, 현명이로가 평상시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

범요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녹장객은 여색을 즐기고 학필옹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죠."

양소가 이번에는 장무기에게 물었다.

"교주, 십향연근산과 비슷한 약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장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비슷한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 약은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약효가 반 시진밖에 유지되지 않을 것이오."

양소는 매우 만족해 했다.

"반 시진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과연 효과를 거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범형제가 우선 학필옹에게 술을 청해 암암리에 술에다 교주께서 만든 약을 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형제가 학

필옹에게 십향연근산에 당했다고 생트집을 잡으면 해약이 누구 손에 있는지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해 그 해약을 빼앗아오면 되잖겠습니까?"

장무기는 신중을 기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학필옹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오. 범우사의 생각은 어떻소?"

범요는 지그시 눈을 감고 앞뒤를 한번 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으로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학필옹은 성질이 악랄하지만 녹장객처럼 음흉하지 못해 만약 해약이 학필옹 몸에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소가 한 마디 물었다.

"만약 녹장객이 해약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요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일이 한결 어려울 겁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뒷짐을 준 채 토산 위에서 한참동안 왔다갔다 서성거리더니 문득 좋은 수가 떠올랐는지 손뼉을 치며 입을 열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녹장객의 결정적인 약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굴복시키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양소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 늙은이가 자네에게 잡힐 만한 약점을 갖고 있나?"

"금년 봄에 여양왕이 새로 애첩을 얻게 되어 주연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녹장객이 천하일색인 그 여양왕의 애첩에게 군침을 흘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허허..... 단순히 군침을 삼켰다고 해서 그게 약점이 될 순 없잖는가?"

"약점이 아닌 것을 약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일은 위형께서 수고를 해 줘야겠습니다. 그 뛰어난 경공술을 이용해 여양왕의 애첩을 납치하여 녹장객의 침상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늙은이는 틀림없이 음욕이 발동해 한바탕 일을 벌일 겁니다. 설령 그가 욕정을 억제한다 해도 내가 적시에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변명할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버릴 테니, 그쯤 되면 해약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틸 겁니다."

양소와 위일소는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녹장객 그 늙은이는 덩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맛보게 되었군. 하핫.....!"

장무기는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다. 자기로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부하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이독공독(以毒攻毒)이라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그 여양왕의 애첩이 죄없이 당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군요."

범요가 즉시 그의 말을 받았다.

"큰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선 아니됩니다."

네 사람은 다시 자세한 계획에 대해 상의했다. 일단 해약을 탈취하면 범요가 직접 탑에 올라 소림, 무당 등 각 문파의 고수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

장무기와 위일소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요가 만안사에다 불을 지르면 즉시 사찰 주위 곳곳에 불을 질러 군호들이 달아나기 편리하게끔 혼란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소는 서문 밖에 여러 대의 마차를 대기시켜 군호들이 마차에 나누어 타고 놈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창평(昌平)에서 다시 회합하도록 돕는 임무를 맡았다.

네 사람은 결정을 하고나서 제각기 흩어졌다. 양소는 마차를 구

하러 갔고, 장무기는 약을 만들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했으며, 위일소는 커다란 포대를 구해 여양왕부로 잠입해 애첩을 납치해 오기 위해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

범요와 현명이로는 육대문파의 고수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만안사에 상주하고 있었다. 조민은 황부에서 기거를 하며 매일 밤 무공을 배우기 위해 마차를 타고 사찰로 올 뿐이었다.

범요는 장무기가 만들어 준 약을 갖고 만안사로 돌아왔다. 이십여 년 동안 사분오열되었던 명교가 이제 중흥의 길로 접어들게 된 데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그 동안 숱한 고생을 겪어온 것이 지금에서야 보람을 갖게 되었다. 장교주는 비단 무공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인후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났다. 단지 수단이 악랄하지 못하고 매사에 정도만 취하려는 게 옥의 티였다.

범요는 서쪽 상방(廂房)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현명이로는 뒷뜰 보상정사(寶相精舍)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평상시 범요는 행여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들과 별로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져 방을 정한 것이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는데, 학필옹을 불러내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문제였다.

창문을 통해 뒤뜰을 바라보니, 해가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기우는 가운데 조용하기만 했다. 십 삼층 보탑도 나른한 햇살에 잠겨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범요는 적당한 구실이 떠오르지 않아 방 안에서 서성거리다가 일단 뒤뜰로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어디선가 고기 삶는 향내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범요는 코를 벌름거리며 그 향내의 출처를 찾았다. 알고보니 바로 현명이로가 머물고 있는 보상정사 맞은편 상방에서 풍겨오는 냄새였다. 그곳에는 신전팔웅 중에 손삼훼와 이사최가 기거하고 있음을 범요는 잘 알고 있었

다.

범요는 문득 묘안이 떠올라 성큼성큼 상방으로 걸어가 무턱대고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예측했던 대로 이사최가 화로에 고기를 삶고 있었다. 손삼훼는 한쪽에서 젓가락과 술잔을 탁자에 올려놓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두타가 예고없이 나타난 것을 보자 모두 멍해졌다. 동시에 고두타의 냉랭한 표정에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늘 행길에서 황견 한 마리를 잡아와 몰래 방안에서 삶고 있는 중이었다. 만안사는 어쨌든 사실이니 만치 개고기를 삶아 먹는다는 것이 떳떳한 일이 못 되었다. 게다가 고두타는 명색이 불문의 제자이니, 만약 그가 성질을 부린다면 자기네들로선 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데 고두타는 곧장 화로 앞으로 걸어가 솥뚜껑을 열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숨을 길게 들이키는 게 아닌가? 고기의 향기를 음미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끓는 물에 불쑥 손을 넣어 개고기 한 덩어리를 집어 게걸스럽게 뜯어 먹었다. 게눈 감추듯 고기 한 덩어리를 씹어 삼키고 나서 입언저리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쓱 문지르며 입맛을 쩝쩝 다셨다.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은 이내 얼굴을 활짝 펴며 굽신거렸다.

"고대사,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개고기를 좋아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고두타는 권하는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다시 개고기를 집어 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굶어 죽은 귀신처럼 게걸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손삼훼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발에다 술을 가득 따루어 대령했다. 고두타는 사양 않고 술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갑자기 바닥에다 전부 뱉어냈다. 이미 왼손으로 코를 움켜쥐며 오만상을

찡그린 채 고개를 내둘렀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손삼훼와 이사최는 그가 화를 내며 나가 버리자 다시 불안해졌다. 그런데 고두타는 곧 큼직한 술호로를 갖고 나타나자 얼른 반색을 했다.
 "맞습니다. 우리의 술은 질이 좋지 않아 고대사의 입에 맞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얼른 고두타를 상석에 모시고 개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아왔다. 고두타는 무공이 고강하여 군주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평상시 신전팔웅은 그를 우러러 보아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술좌석을 함께 하게 되니 손삼훼와 이사최는 그저 황송하기만 했다.
 고두타는 호로병의 마개를 열어 세 사발을 따루었다. 끈적끈적한 술이 사발에 가득 차자 그 향기가 코를 찔렀다. 손삼훼와 이사최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새어나왔다.
 "왓! 정말 좋은 술이군요!"
 범요는 내심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현명이로가 방 안에 있는지 모르겠군. 만약에 외출했다면 내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는 술이 담긴 사발을 펄펄 끓는 솥에다 띄웠다. 술을 뜨끈하게 데워 마시기 위해서였다. 술이 데워지자 그 향기가 더욱 짙어졌다. 손삼훼와 이사최는 군침을 삼키며 술을 마시려 하자 범요가 손짓으로 만류하며 뜨겁게 데워서 마시라 했다.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술을 데우자 그 향기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갔다. 학필옹이 맞은편 정사에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틀림없이 주항을 맡고 달려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 보상정사의 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학필옹의 음성이 들려왔다.
 "카, 거 술냄새 좋다!"
 그는 주저함도 없이 성큼 한걸음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들어왔

다. 그는 고두타가 손삼훼, 이사최와 더불어 푸짐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멍해지더니, 곧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고대사, 당신도 이런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을 줄이야 실로 뜻밖이오."

손, 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공공, 어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고대사께서 직접 갖고 온 미주(美酒)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학필옹은 고두타의 맞은편에 앉아 거침없이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손과 이는 부지런히 개고기를 대령하며 그들의 시중을 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쯤되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네 사람이 흥이 나서 마시다 보니 곧 거나하게 술기운이 올랐다. 범요는 내심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사발에다 술을 찰랑하게 따르고 나서 마개를 막더니, 태연히 술호로를 거꾸로 세워놓았다. 알고보니 그는 마개 한복판에 공간을 뚫어 장무기가 만들어준 미약을 쑤셔넣고는 마개를 헝겊으로 쌌다. 술호로를 바로 세워 놓을 시에는 약가루가 쏟아지지 않지만, 일단 거꾸로 세우면 술이 헝겊을 침투해 가루약이 용해되면서 남은 술이 이내 독주(毒酒)로 변한다.

호로병은 원래 중간 허리 부분이 잘록하고 위 아래가 균등하게 볼록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 한 거꾸로 세워놓아도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학필옹 등 세 사람은 이미 기분 좋은 상태로 술기운이 올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범요는 학필옹이 술사발을 비우자 곧 마개를 열어 호로병을 건네주자 학필옹이 스스로 술을 가득 따랐다. 그리고는 손과 이에게도 넘실거릴 정도로 따라 주었다. 그 범요의 사발에 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호로병을 내려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사발을 들어올려 꿀꺽꿀꺽 들이켰다. 범요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독주를 마신 셈이었다. 손삼훼와 이사최는

내력이 비교적 약해 독주를 마시자마자 손발이 흐물흐물해지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손삼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사최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아우, 뱃속이 좀 이상한데......?"

이사최도 낮빛이 변했다.

"나.....나도..... 중독된 것 같은데......"

이때 학필옹 역시 체내의 진기가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절로 안색이 크게 변했다. 범요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는 다짜고짜 학필옹의 멱살을 잡으며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냈다. 손삼훼는 그의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고대사, 왜 그러십니까?"

범요는 손가락으로 술찌꺼기를 찍어 탁자에다 다섯 글자를 썼다.

----- 십향연근산(十香軟筋散) -----

손삼훼와 이사최는 현명이로가 십향연근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고두타와 자기 형제들은 모두 십향연근산에 당한 게 분명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학필옹에게 몸을 숙였다.

"학필옹, 우리 형제는 어르신네께 잘못한 점이 없으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형제는 학필옹이 고두타를 겨냥해 십향연근산을 전개한 것인데 자기네들이 공연히 덩달아 화를 당한 것이라 간주했다.

사실, 가장 놀란 것은 학필옹 자신이었다. 십향연근산은 자기가 갖고 있으며, 분명 왼손으로 사용하는 붓 속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그는 항시 그 붓을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 누가 그 십향연근산을 훔쳐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대사, 노여워 마시오. 우린 서로 형제나 다를 바 없는데 내가 왜 고대사를 해치려 하겠소. 사실 나도 온몸이 나른해져 도저

히 힘을 쓸 수 없소. 누가 이 따위 짓을 했는지 나도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오."

범요는 다시 술찌꺼기를 찍어 탁자에다 두 글자를 썼다.

----- 해약(解藥)! -----

학필옹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우선 해약을 복용하고 나서 우리에게 수작을 부린 놈을 찾아 냅시다. 해약은 녹사형이 갖고 있으니 우리 함께 갑시다."

범요는 내심 기뻐했다. 양소의 계책이 바라던 대로 효과를 거든 것이다. 그는 왼손으로 학필옹의 손목을 움켜쥐고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와 함께 뜨락을 가로질러 보상정사로 갔다.

정사는 모두 두 칸으로 나뉘어졌는데, 녹장객은 북쪽 상방을 사용했다. 그런데 북쪽 상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학필옹이 소리 높여 외쳤다.

녹장객은 분명 방 안에서 대답을 했는데 좀처럼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사형, 어서 문을 열어 주시오! 아주 괴이한 일이 생겼소!"

녹장객은 다소 당황하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무슨 일인가! 난 지금 무공을 연마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학필옹은 녹장객과 동문 사형제로서 무공은 막상막하지만, 녹장객이 늘 사형으로 자처하며 또한 심계가 깊어 학필옹은 그의 말을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범요였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어깨로 힘껏 문을 밀어부쳤다. 그러자 안에서 걸어 잠그었던 문빗장이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녹장객은 침상 앞에 엉거주춤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있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어색함이 역력했다. 범요는 침상에 반나(半裸)의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여인의 몸은 이불에 똘똘 말려져 묶여 있었지만 백옥처럼 흰 목덜미와 원만한 곡선을 이룬 어깨가 이불 위쪽에 노출돼 있고, 종아리에서부터 하얀 맨발이 이불 아래쪽에 드러나 있었다. 이불에 싸여진 그녀의 몸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구름처럼 늘어뜨린 여인은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여양왕의 애첩인 한(韓)씨였다. 범요는 내심 혀를 내둘렀다.

'위복왕의 솜씨는 정말 놀랍군. 단신 홀몸으로 왕부로 잠입해 저 계집을 이곳까지 납치해 오다니.....'

사실 여양왕부의 경비는 매우 삼엄했다. 그러나 위사들은 왕야와 세자, 군주를 호위하는데 전력을 기할 뿐, 여양왕은 애첩이 많으므로 그녀들에 대한 경호는 다소 소홀했다. 게다가 위일소의 경공술이 신출귀몰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 올 수 있었다.

오히려 납치해 온 계집은 녹장객의 방 안에다 갖다 놓는 것이 어려웠다. 그는 한참동안 기다려 녹장객이 뒷간에 가는 틈을 타서 잽싸게 일을 해치우고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녹장객은 방으로 돌아와 웬 여인이 이불에 싸인 채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지붕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녹장객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예전에 여양왕부에서 한씨를 보고 순간 넋을 잃고 강한 욕정을 느꼈었다. 그는 워낙 여색을 좋아하여 여지껏 그의 손에 몸을 망친 양가의 부녀자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여양왕의 애첩 한씨이니 당시 그는 군침만 삼켰을 뿐 감히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

었다. 한데 한씨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인 양 자신의 침상에 알몸인 채로 누워 있으니, 그는 놀라는 한편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잠시 생각을 굴린 녹장객은 틀림없이 자기의 수제자인 오왕아보(烏旺阿普)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씨를 납치해 온 것이라 간주했다. 그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

이불 밖에 노출돼 있는 목덜미와 백설보다 더 흰 어깨, 그리고 야들야들한 종아리와 맨발이 그를 욕정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게다가 이불 속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을 상상하자 단전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한씨의 발을 가만히 움켜쥐며 고개를 묻으려는 순간 학필옹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당황해 했다. 그리고 범요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이 뜻밖의 변화에 녹장객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가 한씨를 숨기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는 왕부에서 한씨가 납치된 것을 발견해 고두타를 시켜 자기를 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는 게 상수라고 판단해 즉시 녹각을 뽑아쥐고 왼손으로 한씨를 안아 창문으로 달아나려 했다.

학필옹이 적시에 소리쳤다.

"사형, 어서 해약을 내놓으시오!"

녹장객은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해약이라니?"

"소제와 고두타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십향연근산의 독을 당했소!"

"뭐라고?"

학필옹이 다시 한 번 얘기하자 녹장객은 만면에 의아한 표정을 띄우고 말했다.

"십향연근산을 자네가 갖고 있지 않나?"

"글쎄, 소재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멍청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중독되었소. 우선 해약을 복용해야 하니, 어서 해약을 주시오."

녹장객은 여기까지 듣자 일단 안심이 되는지 한씨를 다시 침상에 내려놓았다. 학필옹은 사형의 침상에서 여인을 본 적이 많으므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씨를 알아 보지도 못했다. 녹장객은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을 생각으로,

"고대사, 우선 나의 학사제 방으로 가서 좀 기다려 주시오. 내가 곧 해약을 갖고 가겠소."

하고 말하며 두 사람을 살짝 밖으로 밀었다. 그러자 학필옹은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범요도 역시 비틀거리며 일부러 내력을 상실한 척했지만, 원래 내력이 심후하여 외부의 힘이 몸에 와 닿으면 자연적으로 저항력이 생긴다.

녹장객은 두 사람을 밀어내면서 학필옹의 내력은 전부 상실되었지만, 고두타는 일부러 위장하고 있다는 걸 이내 알아차렸다. 그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밀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워낙 심계가 깊은 녹장객인지라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고대사,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이렇게 말하며 범요를 부축하는 동시에 손목 부위 회종(會宗), 외관(外關) 두 혈도를 노렸다. 그 순간 고두타는 자신의 위장이 탄로난 것을 알고 잽싸게 왼손을 떨쳐 학필옹의 등심 혼문혈(魂門穴)을 강타했다. 학필옹은 그 즉시 온몸이 솜처럼 풀려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일단 학필옹을 제압했으니 최악의 경우 녹장객만 상대하면 되므로 범요는 대담하게 냉소를 날렸다.

"흥! 죽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군. 감히 왕야의 애첩을 납치해

와 욕심을 채우다니!"

그가 갑자기 입을 열자 현명이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은 고두타와 십 오, 육 년간 알고 지내왔지만, 줄곧 벙어리인 줄만 알았다. 녹장객은 고두타가 무슨 속셈으로 그 동안 벙어리 흉내를 해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필시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란 예감이 퍼뜩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보니 고대사는 벙어리가 아니었군. 그 동안 노심초사 우리를 속여온 이유가 무엇이오?"

범요는 잽싸게 생각을 굴리며 낭랑하게 말했다.

"왕야께선 당신이 언제 배반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벙어리 흉내를 내게 하여 당신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소."

이 말은 사실 이치에 닿지도 않았다. 그러나 녹장객은 한씨와 함께 침상에 있는 것이 발각되었으므로 캥기는 게 있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여양왕이 부하들에게 가끔 엉뚱한 수단을 부린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녹장객인지라, 범요의 말을 듣자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그럼 왕야의 명령에 따라 날 잡으러 왔단 말이오? 흐흐..... 날 이대로 잡아가기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말하며 녹각장을 들어올려 공격 자세를 취했다. 범요가 음침하게 웃었다.

"녹형, 막상 싸움이 벌어지면 설령 내가 패한다 해도 일, 이백 초식을 능히 버틸 것이오. 한데 녹형은 왕야의 애첩을 보살피랴 사제도 구해야 할 입장이니 신중히 생각한 연후에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할 거외다."

녹장객은 사제를 힐끗 쳐다보았다. 고두타의 말이 형식적인 위협만은 아니었다. 그들 사형제는 어릴 적부터 무예를 같이 익혀오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헤어진 날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처

자식이 없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한데 이런 상태에서 어찌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날 수 있단 말인가?

범요는 그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손삼훼와 이사최를 소리쳐 불러들이더니, 방문을 닫았다.

"녹형, 이번 일은 아직 외부에 누설되지 않았소. 원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덮어 주겠소."

녹장객은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덮어 주겠다는 거요?"

범요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와 손의 아혈(啞穴)과 연마혈(軟麻穴)을 찍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 수법의 정확함과 신속함은 녹장객마저도 감탄할 정도였다. 고두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스스로 입방아를 찧지 않으면 사제는 자연히 입을 다물 것이고, 나는 여지껏 벙어리였듯이 앞으로도 말 못하는 벙어리일 뿐이요. 저 두 녀석은 아혈을 찍어 영원히 입을 봉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게 아니겠소?"

손과 이는 대경실색했다. 개고기를 먹으려다 이런 화를 당하게 될 줄이야 어찌 죽어도 생각이나 했겠는가?

범요는 다시 한씨를 가리켰다.

"저 여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소.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 버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오. 물론 두 번째 방법은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 녹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밀이 지켜질 것이오."

녹장객은 한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한씨는 비록 혈도가 찍혀 꼼짝 할 수 없는 신세지만, 지각은 살아 있었다. 그녀는 녹장객에게 애원의 눈빛을 던지며 두 번째 방법을 택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다. 녹장객은 솔직히 말해 단칼에 그녀를 죽이기가 아까왔다. 그는 절로 마음이 흔들렸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날 도와주진 않을 텐데....."

그는 고두타가 틀림없이 조건을 내세우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범요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며 댔다.

"아주 간단한 조건이오. 아미파의 장문인 멸절사태는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 왔소. 그 주씨 성을 가진 젊은 계집은 바로 나와 멸절사태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요. 부탁컨대 해약을 주어 그들을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오. 군주에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명하겠소. 만약 녹형에게 눈꼽만치라도 누를 끼친다면 이 고두타와 멸절사태는 날벼락을 맞아 비명횡사할 것이오!"

그는 녹장객이 풍류를 즐기므로 일부러 남녀 관계에 얽힌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다. 게다가 양소로부터 명교의 형제들이 멸절사태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녀의 명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거짓말을 꾸며 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매사에 편법을 써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짓말쯤은 예사로 생각했다.

녹장객은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멍해졌으나, 곧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음..... 네놈이 이런 일을 꾸며 날 위협하는 것은, 이제보니 늙은 정인과 친딸을 구하기 위함이었군. 그야 인지상정이지. 이번 일은 좀 위험스럽지만 절세가인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으니 전혀 댓가가 없는 것도 아니지.....'

그는 고두타가 오히려 자기에게 사정투로 나오자 마음이 느긋해졌다.

"그렇다면 왕야의 애첩을 이곳으로 납치해 온 것도 바로 고대사의 걸작이겠구료?"

"이런 중요한 부탁을 어찌 빈손으로 할 수 있겠소?"

녹장객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얼른

물었다.

"그런데 나의 사제는 어떻게 해서 십향연근산의 독을 당하게 됐소?"

범요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야 간단한 일이 아니겠소? 그가 독약을 관리하고 있으니 그가 거나하게 취한 틈을 타서 훔쳐내는 것 쯤이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소?"

녹장객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았다.

"좋소. 고대사, 앞으로 당신을 친구로 생각할 것이며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겠소. 다시는 날 이런 식으로 골탕먹이지나 마시오."

범요는 한씨를 가리키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럼, 녹형이 기회를 봐서 나에게 이런 골탕을 먹여 주었으면 고맙겠소. 나도 굴러들어온 호박 맛이 어떤 건지 직접 음미해 보고 싶소이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제각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 녹장객은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두타를 없앨 생각이었다. 범요 역시 속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현명이로는 한씨 일을 마무리지은 뒤에 틀림없이 자기에게 출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쯤이면 육대문파의 고수들이 모두 구출될 것이다. 자기는 엉덩이를 털고 떠나가면 그뿐일 것이다.

범요는 녹장객이 해약을 빨리 내주지 않자 내심 조급했지만, 겉으로는 느긋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녹형, 한씨의 혈도를 풀고, 우리 같이 한 잔 마시는 게 어떻겠소? 미인과 더불어 한 잔 마시는 것도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소?"

녹장객은 그처럼 여유를 보일 수 없었다. 자기는 왕야의 애첩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한시도 더 지체하고 싶지않았다. 그는 녹각장을 꺼내 한쪽 녹각을 돌려 작은 잔에다 가루약을 조금 쏟아넣었다.

"고대사, 이것이 해약이니 어서 갖고 가시오."

범요는 고개를 내둘렀다.

"이 정도 소량의 해약을 갖고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정도면 두 사람이 아니라 대여섯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인색하지 말고 좀더 줄 수 없겠소? 솔직히 말해 녹형은 워낙 심계가 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당할까봐 이러는 거요."

녹장객은 그가 많은 해약을 요구하자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

"고대사, 혹시 구하려는 사람이 멸절사태와 딸 말고 또 있는 게 아니오?"

범요가 변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뜨락 밖에서 요란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칠, 팔 명이 뛰쳐들어왔다. 곧 그 중에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발자국이 여기까지 연결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녹장객은 이내 안색이 변하며 해약을 쏟아넣은 잔을 얼른 품 속에 갈무리했다. 범요는 그에게 침착하라는 손짓을 하며 우선 홑이불로 한씨의 몸을 덮었다. 그러자 문 밖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녹선생, 집에 계십니까?"

범요는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자기는 벙어리이니 녹장객더러 대답하라는 뜻이었다. 녹장객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가?"

"왕부에서 한씨 부인이 누구에게 납치되었는데, 발자국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녹장객은 범요를 한 차례 노려보았다. 그의 솜씨로는 발자국을 남길 리가 없는데, 일부러 그런게 아니냐는 뜻이었다. 범요는 히

죽 웃으며 어서 상대방을 따돌리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속으로 위일소가 이곳까지 발자국을 남긴 처사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녹장객은 냉소를 날렸다.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의 지위와 무공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곧 대답을 하고 물러갔다. 그들은 만안사를 샅샅이 뒤질게 뻔했다. 그렇게 되면 녹장객이 한씨를 숨기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는 절로 눈살을 찌푸리며 고두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그러자 범요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녹형, 당신의 계집을 숨길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소."

"그게 어디란 말이오?"

"바로 저기요."

범요는 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보탑을 가리켰다.

녹장객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므로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료."

보탑에는 육대문파의 고수들이 감금돼 있고, 녹장객의 수제자인 오왕아보가 경비를 총책임지고 있었다. 다른 곳이라면 혹시 의심을 품을지 모르지만, 왕야의 애첩을 경계가 가장 삼엄한 보탑으로 납치해 갔으리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범요가 재촉을 했다.

"지금 뜨락에 아무도 없으니 어서 행동을 취하시오."

그는 한씨를 싼 홑이불의 네 귀퉁이를 묶어 큰 봇짐으로 만들어 녹장객에게 건네주었다.

녹장객은 주저했다. 만약 자기가 한씨를 둘러메고 나가다가 고두타가 엉뚱한 마음을 먹고 소리라도 치는 날에는 물증이 뚜렷하므로, 영락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순간까

지도 고두타를 믿지 않았다. 고두타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았다.

"삼 년 상까지 봐주라는 말이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녹형을 도와 호화사자(護花使者)가 되어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더니 봇짐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며 나직이 말했다.

"녹형이 앞장서 줘야겠소. 만약 누가 앞을 가로막고 봇짐보자고 하면 그 자리에서 없애 버리시오."

녹장객은 몸을 번뜩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행여나 범요가 기습해 올까 봐 등을 노출시키지는 않았다. 범요는 문을 닫고 보탑으로 향했다.

이때는 날이 어두워져 탑 밖에는 경비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비병들은 녹장객과 범요가 나타난 것을 보자 일제히 몸을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두 사람이 탑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오왕아보가 전갈을 받고 달려나왔다.

"스승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은 탑을 한 바퀴 돌아보실 생각입니까?"

녹장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범요와 함께 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홀연 보탑 동쪽 월동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뜻밖에도 조민이었다.

녹장객은 캥기는 게 있으므로 조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고두타 등과 함께 앞으로 나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젯밤 장무기 등이 나타나는 바람에 조민은 명교가 대거 진격해 올 것을 대비하여 친히 순시를 나온 것이다. 그녀는 범요를 보자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고대사, 그렇지 않아도 대사를 찾고 있었어요."

범요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민이 다시 말했다.

"나하고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범요는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간신히 녹장객을 보탑까지 유인해 와 이제 해약만 빼앗아내면 계획이 성공리에 끝날 텐데, 대관절 조민이 이런 판국에 자기와 어디를 같이 가자는 것일까?

범요는 핑계를 대어 빠지고 싶었지만, 적당한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므로 입을 뻥긋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녹장객에게 방법을 강구하라고 떠맡겨야지!'

그는 곧 봇짐을 한 번 흔들어 보이며 턱으로 녹장객을 가리켰다. 녹장객은 흠칫 놀라며,

'이런 죽일놈 좀 보게!'

하고 내심 욕설을 터뜨렸다.

조민은 영문을 몰라 녹장객에게 물었다.

"녹선생, 고대사가 들고 있는 봇짐을 무엇이죠?"

녹장객은 얼른 얼버무렸다.

"저..... 고대사의 이불보따리요."

조민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이불보따리라뇨? 왜 갑자기 이불을 쌌죠?"

이렇게 묻고 난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스스로 다음 말을 이었다.

"고대사는 내가 너무 우둔해, 무공을 가르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떠날 작정으로 이불보따리를 싼 건가요?"

범요는 고개를 내두르며 한쪽 손으로 아무렇게나 몇 가지 손짓을 했다.

'녹장객이 알아서 거짓말을 하겠지. 이런 때는 벙어리가 더 유리하단 말야.'

조민은 그의 손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녹장객을 쳐다보았다.

녹장객은 재빨리 생각을 굴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젯밤 몇몇 마두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우리 형제와 고대사가 상의하여 이곳으로 옮겨와 기거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은 크게 기뻐했다.
"나도 역시 녹선생과 학선생이 직접 탑을 지켜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어요. 단지 너무 수고를 끼치는 것 같아 차마 청을 드리지 못했는데, 세 분이 이렇게 자청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이젠 마두들이 감히 보탑 부근에 얼씬도 하지 못할 거예요. 고대사, 우린 어서 가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서슴없이 범요의 손을 잡았다.
범요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녹장객을 곤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가 봇짐을 넘겨 주자 녹장객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다.
"고대사, 난 탑에서 기다리겠소."
이때 오왕아보가 얼른 나섰다.
"스승님, 그 이불봇짐을 저에게 주십시오."
녹장객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이건 고대사의 이불이니 내가 직접 갖고 가겠다."
범요는 히쭉 웃으며 봇짐을 살짝 내리쳤다. 정확하게 한씨의 엉덩이를 후려친 것이다. 한씨는 혈도가 찍혀 비명을 지를 수 없었지만, 녹장객은 놀란 나머지 안색이 변했다. 그래도 그는 감히 주춤할 수 없어 얼른 조민에게 인사를 올리고 탑 안으로 들어갔다.

제 4 장 보도(寶刀)에 숨겨진 비밀(秘密)

범요는 조민에게 손이 잡힌 채 곧장 만안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초조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대관절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일까? 드디어 조민이 스스로 입을 열었다.

"고대사, 우리 그 장무기라는 작자를 만나러 가요."

범요는 다시 놀라야만 했다. 조심스레 조민의 표정을 살펴보니 눈동자에 생기가 감돌고 양볼이 불그스름한 것이 수줍음과 희열이 엇갈려 있었다. 절대 자기의 계략을 간파한 눈치가 아니었다.

범요는 일단 안심을 했다. 아울러 야릇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혹시 군주가 우리 교주에게 은근히 흠모의 정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한데 왜 나더러 함께 가자는 거지? 자신의 심복인 현명이로를 부르지 않고..... 맞아 이런 일은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으므로 벙어리인 내가 적격이겠지.'

앞장선 조민은 얼마 후 장무기가 유숙하고 있는 객점 앞에 당도했다. 범요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주가 머물러 있는 곳을 즉시 알아내다니,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야.....'

범요는 그녀를 따라 객점 안으로 들어갔다. 조민은 주인장에게 대뜸 <증아우>를 찾았다. 장무기는 객점에 투숙하면서 증아우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점원이 곧 가서 알렸다.

장무기는 운공조식을 하며 만안사에서 불길이 치솟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는 전갈에 멍해졌다. 그는 객당으로 나와 방문객이 범요와 조민이라는 것을 보자,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틀림없이 조민이 범요의 정체를 알아차려 자기에게 따지러 온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는 일단 공수의 예를 취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조 낭자, 무슨 일로 이곳까지 날 찾아왔소?"

"이곳에선 얘기하기가 불편하니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가서 한 잔 하시지 않겠어요?"

장무기로선 거절할 수 없었다.

"좋소."

조민이 앞장서 객점에서 다섯 집 건너에 위치한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 안에는 드문드문 몇 개의 식탁이 놓여 있을 뿐 초라했다. 밤이 깊은 탓인지 손님이 전혀 없었다. 조민과 장무기는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범요는 손짓으로서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민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단한 요리 두 접시와 백주(白酒) 두 병을 시켰다.

술이 세 순배 돌자 조민은 나직하게 물었다.

"장공자, 당신은 내가 누군지 이젠 알고 있겠죠?"

장무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양왕부의 군주라는 것을 알았소."

"당신은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겠죠?"

"내가 낭자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함께 앉아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오.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혼원벽력수 성곤을 가장 미워했는데, 그가 죽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며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램도 없지 않소."

조민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건방지고 흉악한 계집이 죽었다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겠죠?"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음성을 높이고 힘주어 말했다.

"아니오! 난 절대 낭자가 죽는 걸 바라지 않소. 위복왕이 낭자의 얼굴에 칼자국을 내겠다고 위협했을 때 난 속으로 은근히 걱정을 했었소."

조민은 생긋이 웃으며 양볼이 불그스름해졌다.

장무기는 진지하게 말했다.

"조 낭자, 다시는 우리와 맞서지 말고 육대문파의 사람들을 모두 풀어 주시오. 모두 화기애애하게 친구로 지내면 얼마나 좋겠

소."
 조민은 활짝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맞아요. 내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예요. 당신은 명교의 교주이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항복하여 조정에 협력하라고 전해 주세요. 모두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장무기는 천천히 고개를 내둘렀다.
 "우리 한인은 누구나 똑같은 염원을 갖고 있소. 그것은 당신네 몽고인이 물러가 조길 바라는 마음이오!"
 조민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그런 대역무도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조민은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얼굴에 띄어졌던 분노의 표정이 차츰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코 우리는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울적하게 변했다. 장무기는 웬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려 했으나,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 침묵을 지켰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장무기였다.
 "조 낭자, 밤이 깊었으니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나와 함께 이곳에 앉아있는 게 싫은가요?"
 "아니오. 낭자만 괜찮다면 난 상관없소."
 조민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 몽고인도 아니고 군주도 아닌 그저 주 낭자처럼 평범한 여자라면, 당신과 좀더 가까와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장공자, 솔직히 말해 보세요. 내가 예쁜가요? 아니면 주 낭자가 더 예쁜가요?"
 장무기는 그녀가 노골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해 오리라곤 뜻밖이

었다. 희불그레한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실로 요염하면서도 아름다왔다. 그는 느낀 그대로를 털어놓았다.

"물론 낭자가 더 아름답소."

조민은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 위에 얹으며 눈동자에 기쁨이 넘실거렸다.

"장공자, 나하고 가끔 만나지 않겠어요? 만약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청하면, 응해 주겠어요?"

장무기는 손등을 통해 그녀의 따사로운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소. 며칠 후면 남쪽으로 다시 가야 하오."

조민의 표정은 다시 시무룩하게 변했다. 그녀는 창 밖에 걸려 있는 초승달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 세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 잊지 않았겠죠?"

"물론이오. 낭자의 분부가 있으면, 전력을 다해 이바지할 것이오."

조민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첫 번째 부탁을 드리겠어요. 나는 도룡도를 원해요."

장무기는 그녀의 세 가지 요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부터 난제를 내놓을 줄은 실로 뜻밖이었다.

조민은 그가 난처해 하는 것을 보자 눈꼬리를 살짝 치켜올렸다.

"어때요? 설마 거절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번 일은 협의도에 위배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의부께서 도룡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강호인이 알고 있으니, 구태여 숨길 필요는 없겠지.....'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도룡도는 나의 의부이신 금모사왕의 소유이거늘, 내 어찌 의부를 배반하고 그 보도를 낭자에게 갖다 줄 수 있겠소?"

"당신더러 그 보도를 훔쳐오거나 빼앗아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보도를 갖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단지 그 보도를 한 시진 동안만 빌리자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협의도에 어긋나나요?"

"그 보도는 비록 강호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별로 구경할 만한 것이 못 되오. 단지 다른 칼에 비해 무겁고 예리할 뿐이오."

"나 역시 다른 뜻은 없어요. 의천검이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쌍벽을 이루는 도룡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만약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보도를 살필 때 곁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당신의 실력으로 내가 그 보도를 가로채게 하겠어요?"

그녀의 말에 장무기는 다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육대문파의 고수들을 구출한 후, 어차피 의부를 중원으로 모셔와 교주의 직책을 넘겨드려야 한다. 조 낭자가 보도를 한 시진만 빌려 달라는데는 물론 어떤 흉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한 그 보도를 가로채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장무기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의부의 말을 빌리면, 도룡도에 무림절학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의부는 실명하기 전에 그 보도를 수중에 넣어 오랜 세월동안 노심초사했지만,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 혹시 이 조 낭자는 짧은 한 시진 동안에 그 비밀을 캐내는 게 아닐까?

'조 낭자가 제아무리 영특하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의부와 헤어진 지 벌써 십 년이 되었으니, 그 동안 의부께

서 홀로 고도에 남아 이미 보도의 비결을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조민은 그가 대답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자,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다시 말했다.
"싫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부탁을 하는 수 밖에요. 하지만 훨씬 어려운 부탁이 될 거예요."
장무기는 상대방이 심계가 깊고 매우 엉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른 어려운 문제를 내놓는다면 자기로선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내 낭자의 요구대로 도룡보도를 빌리러 가리다. 하지만 사전에 말을 분명히 해 두겠소. 단 한 시진만 빌려 주는 것뿐이오. 만약 보도를 강점할 생각을 한다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조민은 매우 기뻐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염려 마세요. 나는 칼을 사용하는 초식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거운 칼을 빼앗아서 무엇에 쓰겠어요. 틀림없이 공손하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하겠어요. 언제쯤 출발할 생각인가요?"
"며칠 후에 바로 출발하겠소."
"나도 빠를수록 좋아요. 나는 돌아가는 즉시 모든 떠날 채비를 갖추어 놓겠어요. 당신이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주세요."
장무기는 안색이 변했다.
"낭자도 함께 가겠단 말이오?"
"물론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의 의부께선 고도에서 한사코 중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는데, 이번에도 고집을 부리신다면 당신이 불원천리 고도로 가서 보도를 갖고 와 나에게 한 시진 동안 보여준 후, 다시 그 먼길을 무릅쓰고 보도를 돌려 주기 위해 다시 떠나야 하잖아요?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다. 북해(北海)는 파도가 거세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망망대해에서

과연 빙화도를 다시 찾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왕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더군다나 의부께서 끝까지 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고집하시면, 자기가 보도만 갖고 중원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았다.

"낭자, 바다에는 풍랑이 거세고 언제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구태여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소?"

조민은 입을 삐쭉거렸다.

"당신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나 역시 못할 게 없죠."

장무기는 다소 망설여졌다.

"영존께서 과연 허락하시겠소?"

"아버님은 나더러 강호의 호객들을 통솔하라고 하셨어요. 요 몇 년 동안 내가 어디를 가도 한번도 참견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창 밖에 붉은 불빛이 비치며 멀리서부터 왁자지껄한 고함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맙소사! 만안사 보탑에 불이 났어요. 고대사! 고대사! 어서 이리 와 보세요!"

그녀는 연방 불렀으나 고대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혼자서 떠난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불길이 거센 것을 보고, 공력이 회복되지 않은 송사백 등의 안위가 염려되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낭자, 난 먼저 실례해야겠소!"

말을 내뱉기 무섭게 밖으로 몸을 날렸다.

조민이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잠깐만! 함께 가요!"

그녀는 주막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장무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녹장객은 고두타가 군주와 함께 떠난 후, 즉시 보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곳은 불상과 경전, 사리 등 귀중한 물건을 모셔놓은 성역인지라, 아무나 함부로 들락거릴 수 없었다. 그는 제자인 오왕아보에게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해 놓고 나서 문을 잠그어 걸고 봇짐을 풀어 한씨를 내려놓았다. 한씨는 겁에 질려 안색이 창백했다. 녹장객은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다. 앞으로 넌 좋으나 싫으나 내 시중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나 역시 너를 섭섭하게 대하진 않을 거야."

그는 한씨의 몸을 감싼 이불을 풀었다. 웬지 모르게 손이 떨렸다. 여지껏 숱한 계집을 데리고 놀았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다.

한씨는 혈도가 찍혀 소리를 지를 수도 몸부림을 칠 수도 없었다. 이 마두에게 걸려든 이상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예 눈을 감아 버렸다.

이불이 벗겨지자 예상했던 대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동신(胴身)이 드러났다. 녹장객의 입에서 절로 나직한 신음이 새어 나왔다. 백옥을 다듬어 놓은 듯한 완벽한 나신이었다. 나신 위로 녹장객의 뜨거운 눈길이 훑고 지나갔다. 녹장객의 눈에서 급기야 원시적인 불길이 피어올라, 한씨의 나신을 불태우듯 이글거렸다. 한씨는 눈을 감은 채 상대방의 거칠은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곧이어 뱀에게 물린 듯 그녀의 알몸이 한 차례 움찔했다. 녹장객의 손길이 금단의 문을 여는 첫 신호를 울렸다.

서늘한 느낌이 한씨의 목덜미에 잠시 머물다가, 둥그스름한 어깨로 흘러내렸다. 한씨의 귓전에 뜨거운 입김이 와 닿았다. 그 입김은 그림자처럼 손길을 좇았다. 그러나 탐닉의 손길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녹장객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씨의 몸에 이불을 덮어 주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제자에게 다시 한 번 아무도 얼

씬 못하게 일러두고 나서 보탑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는 일을 뒤로 미룬 것이다.
'이번 일은 고두타가 비밀을 지켜줘야 하니, 그가 원하는 일을 마무리지어야겠다. 어젯밤에도 그 마교의 교주 녀석이 주 낭자를 구해 가려 했으니, 멸절사태와 그 계집이 함께 사라지면 군주는 우선 그 녀석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녀석의 무공이 워낙 고강하니, 군주도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했다고 나무라진 못할 거다.'
아미파의 여제자들은 모두 보탑 칠층에 갇혀 있었다. 멸절사태는 일파의 장문인이니 만치 따로 작은 독실에 감금돼 있었다. 녹장객은 문을 열게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멸절사태는 여러 날 동안 단식을 해왔기 때문에, 모습이 매우 초췌하여 더욱 꼬장꼬장해 보였다. 녹장객이 점잔을 빼고 입을 열었다.
"멸절사태, 기분이 어떻소?"
멸절사태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냉랭하게 대꾸했다.
"기분이 어떻다고 대답하길 원하느냐?"
녹장객은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어떻게 살아남길 원할 수 있겠소? 정말 딱하구료."
"여러 소리할 필요없다. 아마 날 죽이러 온 모양인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 비수를 갖다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다. 나의 제자인 주지약을 불러줬으면 고맙겠다. 그 애한테 몇 마디 당부할 말이 있다."
녹장객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시켜 주지약을 데려오게 했다.
'음..... 역시 모녀의 정은 피만큼이나 짙군.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상황에서 수제자를 부르지 않고 주지약을 부르니.....'
주지약은 스승님을 보자마자 품안으로 뛰어들며 흐느꼈다. 멸절사태는 정색을 하고 녹장객에게 말했다.

"이 애와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 잠깐 자리를 비켜 주겠소?"

녹장객이 밖으로 나가자 멸절사태는 주지약의 고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나 이내 엄숙한 표정을 회복했다.

주지약은 어젯밤 장무기가 나타나 자기를 구해 주려 했던 일을 대충 얘기해 주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멸절사태는 눈살을 찌푸린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그가 왜 유독 너만 구하려고 했을까? 그날 너는 광명정안에서 그에게 일검을 찔렀는데, 무엇 때문에 오히려 너를 구하려고 했지?"

주지약은 양볼이 약간 붉어지며 고개를 떨군 채 나직이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멸절사태는 냉소를 날렸다.

"흥! 그 녀석은 너무 음험하고 독랄해. 틀림없이 무슨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주지약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흉계가 없는 것 같아요."

멸절사태는 버럭 화를 냈다.

"닥쳐라! 너도 기효부와 마찬가지로 마교의 음도(淫徒)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냐!"

주지약은 놀란 나머지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아니에요. 제자가 어찌 감히....."

멸절사태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엄숙했다.

"정녕 너의 마음이 바위처럼 확고하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해라."

주지약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어떻게 맹세를 해야 좋을

지 몰랐다. 그러자 멸절사태가 한 자 한 자 뚜렷하게 내뱉었다.
"이렇게 맹세를 해라. 나 주지약은 하늘에 두고 맹세컨데, 앞으로 만약 마교의 교주인 장무기 음도에게 마음을 주거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구천에 계신 부모님의 시신이 편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나의 스승인 멸절사태도 필시 죽어 귀신이 되어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저주할 것입니다."
주지약은 크게 놀랐다. 그녀는 천성이 온순하여 이런 독랄한 저주가 담긴 맹세 따위는 아예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그러나 스승님이 형형한 눈빛으로 무섭게 자기를 노려보자, 절로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그대로 맹세를 따라 했다.
멸절사태는 맹세를 마치자 무섭게 굳어졌던 안색이 풀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내가 일부러 너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기효부의 전철을 밟는다면, 내 어찌 구천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나는 너에게 본파를 중흥시킬 중임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왼손 식지에 끼고 있는 구리반지를 빼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숙연하게 말했다.
"아미파 여제자 주지약은 무릎을 꿇고 문중의 유시를 받들라."
이렇게 말한 그녀는 반지를 높이 쳐들고 힘주어 다음 말을 이었다.
"아미파 제 사대 장문 제자 멸절이, 본교 장문인의 직책을 제 사대 여제자인 주지약에게 전승시키는 바입니다."
주지약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어지러웠던 차에 자기에게 장문인의 자리를 전승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넋을 잃고 말았다.
멸절사태는 뚜렷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주지약은 본문 장문인을 상징하는 아미철지환(峨嵋鐵指環)을 받도록 해라. 어서 왼손을 내밀어라."

주지약은 얼이 빠진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왼손을 내밀자, 멸절사태가 반지를 그녀의 식지에 끼워 주었다.

주지약은 비로소 제정신을 되찾아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스승님, 제자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입문도 늦거늘, 어떻게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선 필시 이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스승님의 다리를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녹장객은 밖에서 기다리다 못해 짜증이 났다. 게다가 울음소리가 들리자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봐요! 얘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소?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시오."

멸절사태는 대뜸 호통을 쳤다.

"입 좀 다물지 못하겠느냐?"

이어 주지약에게 무섭게 눈을 부라렸다.

"네가 감히 스승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주지약은 스승님의 악에 받친 모습을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제자는 절대.....!"

멸절사태의 표정은 더욱무섭게 변해 눈에 핏발이 곤두섰다.

"네가 내 말을 거역하다면, 그것은 문규에서 가장 큰 금기인 기사멸조(欺師滅祖)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지약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멸절사태는 그녀의 가냘픈 모습에서 연민의 정을 느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온순하고 연약한 애가 어떻게 문중의 중임을 이끌어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를 제외하고 아미파 제자 중에 장문인의 자리를 계승할 만한 인물이 없었

다. 주지약은 오성(悟性)이 가장 높아 자신도 터득 못한 문중비학을 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였다. 그러나 그 위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멸절사태는 웬지 콧등이 시큰해지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품안에 껴안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지약아, 내가 너에게 장문 자리를 물려 주는 것은 여러 사저들보다 너를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중 제자들 중에서 너만이 무림 군웅을 능가하는 절세무학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약은 고개를 세차게 내둘렀다.

"제자가 앞으로 열심히 무공을 연마한들, 어찌 사저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멸절사태의 입가에 한 가닥의 교연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들의 자질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미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의 진전을 바라보기가 어렵다. 반면 너는 비록 현재로선 그들과 비교해 뒤떨어지지만, 앞날이 무궁무진하다. 그래! 무궁무진하고 말고!"

주지약은 이해가 가지 않아 그저 망연히 스승님을 쳐다보았다.

멸절사태는 갑자기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본문의 장문인이니, 내가 본문의 한가지 커다란 비밀을 얘기해 주마. 본문의 창파시조이신 곽여협은, 바로 왕년의 천하제일 대협이라 일컬어지던 곽정의 작은 따님이었다. 곽정대협이 당시 천하에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두 가지 병법(兵法)이며, 또 하나가 무공이었다. 곽대협의 부인이신 황용여협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 원병(元兵)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 양양(襄陽)을 고수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으로서 보국(報國)하기로 뜻을 굳혔단다. 그러나 곽대협의 절예가 실전되는 게 아까와 천하에서 으뜸가는 장인(庄人)을 모셔와 양과(楊過) 양대협이 본문

사조께 주신 한 자루의 현철중검(玄鐵重劍)을 녹여, 다시 십방정금(十方精金)을 혼합해 도룡도와 의천검을 만들었단다."

주지약은 도룡도와 의천검의 소문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서야 그 한 쌍의 도검이 바로 본문 사조이신 곽양여협의 생모께서 만든 신병이기(神兵利器)임을 알았다.

멸절사태의 말이 계속됐다.

"황여협은 도검을 만들기 앞서, 곽대협과 심혈을 기울여 병법과 무공의 정요(精要)를 각각 도검 속에다 숨겨 두었다. 도룡도에 병법이 숨겨져 있으며 그 이름을 도룡(屠龍)이라 명명했던 것도 용(龍), 즉 황제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훗날 그 속에 숨겨진 병법을 수중에 넣는 자가 몽고 오랑캐의 황제를 죽여 천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천검에 숨겨진 무학 중에 가장 걸출한 것은 구음신경(九陰身經)과 항마십팔장(降魔十八掌)의 장법으로서, 후인이 그 무학을 터득하면 천하 무림을 호령할 수 있다고 하셨다.

주지약은 들을수록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멸절사태의 입에서 계속 엄청난 비밀이 이어졌다.

"곽대협 부부는 한 쌍의 도검을 완성한 후 보도를 아들인 곽공(郭公) 파로(破虜)에게 주었고, 보검을 본파의 곽조사께 주었다. 물론 곽사조께선 부모님으로부터 무공을 전수받은 바 있었고, 곽공도 역시 병법을 전수받았다. 그런데 곽대협 부부와 곽공 파로는 양양성이 무너지는 날 함께 순국을 하셨다. 곽사조의 성품은 부친의 무학과 맞지 않아 나름대로 많이 변형시켰기 때문에, 본문의 무학이 왕년 곽대협의 무학과 같지 않는 것이다."

주지약은 그저 스승님의 얘기에 넋을 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멸절사태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백 년 동안 무림에 많은 풍파가 생겨 그 한 쌍의 도검의 주인

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후진들은 단지 도룡도가 무림지존이며 의천검만이 필적할 수 있다는 것만 알 뿐, 어째서 무림지존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곽공 파로께서 순국하실 당시 나이가 젊어 전인이 없었다. 그래서 도검의 비밀은 단지 본문의 곽사조를 통하여 전해져 내려왔을 뿐이다. 그 어르신네는 생전에 도룡도의 행방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를 거두지 못하셨다. 세상을 떠나기 앞서 그 비밀을 나의 은사이셨던 풍릉사태(風陵師太)께만 비밀리에 구전해 주었으며, 나의 은사 역시 곽사조의 유명에 따라 백방으로 도룡도의 행방을 찾았으니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은사가 돌아가시자 내가 그 유지를 이어받게 되었다. 내가 장문직을 맡은 지 얼마 후에, 너의 사백이신 고홍자가 마교의 젊은 고수와 원한을 맺게 되어 쌍방이 단둘이서 생사결단을 내기로 약정했다. 너의 사백은 상대방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무공이 고강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서 의천검을 빌려 갔었다....."

주지약은 마교의 젊은 고수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장무기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멸절사태는 쉬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녹장객도 재촉을 하지 않았다.

"당시 그 싸움에서 너의 사백은 상대방의 간계에 걸려들어 가슴에 일장을 맞고, 의천검을 뽑기도 전에 그 마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네 사백의 말을 빌리면, 그 마두는 광소를 터뜨리면서 의천검 따위는 자기 눈에 한낱 녹슬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면서 땅에 팽개치고 유유히 떠나갔다는 거다. 너의 사백은 검을 주워 문중으로 돌아와 나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워낙 자존심이 강한 위인이라 생각할수록 분이 끓어올라 사흘 뒤에 그만 중병을 알아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의천검은 그 고을 관리에 의해 조정에 바쳐지게 되었다. 너의 사백이신 고홍자를 개죽음 당하게 한

그 마교의 악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모릅니다."

"바로 그 나중에 너의 기효부 사저를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은 대마두 양소란다! 그 놈만 아니었더라면....."

멸절사태는 이를 갈아부치며 다음 말을 이었다.

"나중에 오랑캐 황제가 그 의천검을 여양왕에게 시사한 것을 내가 여양부로 가서 빼앗아 왔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간계에 걸려들어 다시 마교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주지약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게 아니라 여양왕부의 조 낭자가 빼앗아간 거예요."

멸절사태는 대뜸 눈을 부라렸다.

"그 계집이 바로 마교의 교주와 한 패거리다. 너는 지금까지도 이 스승의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주지약은 믿기 어려웠으나 감히 스승님께 말을 할 수 없었다. 멸절사태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내가 너에게 장문직을 계승시킨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난 아무래도 살아서 이 탑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장무기라는 음도는 너에게 엉뚱한 속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거짓으로 정을 주는 척하면서 의천검을 빼앗아 와라. 그 도룡도도 그놈 의부 손에 있으므로, 네가 미색으로 유혹하면 수중에 넣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협의도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지만,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도리밖에 없다. 너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조민이란 계집이 의천검을 갖고 있으며 도룡도는 아직 사손의 손에 있으니, 그들이 의기투합하여 손을 잡는 날에는 곽대협이 남긴 병법과 무공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될 것인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군다나 몽고 오랑캐를 중원에서 몰아내는 대업은 영영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약아, 나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기필코 이 일을 성사시켜야만 한다. 지약아, 내가 천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너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여기까지 말한 멸절사태는 갑자기 주지약에게 무릎을 꿇었다. 주지약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스승님, 이러시면.....!"

"조용히 해라. 밖에 있는 악적이 들으면 큰일난다.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냐?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지약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장무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더니, 다시 자기더러 장문직을 맡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미색으로 장무기를 유혹해 도룡도와 의천검을 빼앗아오라고 하지 않는가! 주지약은 한꺼번에 쏟아진 부담을 도저히 견뎌 낼 수 없어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갑자기 그녀는 인중혈에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눈을 번쩍 떴다. 스승님이 여전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주지약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멸절사태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그치듯 물었다.

"그럼 나의 부탁을 승락하겠다는 거냐?"

주지약은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으나 다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멸절사태는 대뜸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도룡도와 의천검을 수중에 넣은 후, 은밀한 장소를 찾아 한 손

에 보도를 한 손에 보검을 쥐고 내력을 끌어올려 도검을 맞부딪치면 도검이 동시에 부러질 것이다. 그럼 도신과 검신 속에 숨겨져 있는 비급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이 비급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도와 보검은 그로서 파괴되어 다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겠느냐?"

그녀의 음성은 비록 나직했으니, 지극한 위엄이 담겨 있어 주지약은 고개를 끄덕여야만 했다.

멸절사태가 다시 말했다.

"이것은 본문의 가장 큰 비밀이다. 앞으로도 너의 뒤를 이을 본문의 장문인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도룡도와 의천검은 모두가 탐내는 신병이기이니 만치, 설령 누가 동시에 수중에 넣었다 해도 파괴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병법을 얻은 후, 천성이 착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투철한 지사(志士)를 선택해 병법을 전수해 주어 그로 하여금 몽고 오랑캐를 몰아내는 위업을 달성토록 하여라. 그리고 무공비급을 네가 연마해라. 항룡십팔장은 순양강맹(純陽剛盟)한 무공이니 네가 연마하기엔 어렵겠지만, 구음진경은 충분히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곽사조께서 나의 은사께 남긴 유언에 의하면, 구음진경의 무학은 심오하고 광대무변하여 원래는 속성할 수 없지만, 황여협께서 몇 가지 속성의 방법을 적어 놓았다고 한다. 물론 그 속성책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며 진정 천하무적의 무학을 이룩하려면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한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라."

주지약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멸절사태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평생 두 가지 소원밖에 없었다. 첫째는 몽고 오랑캐를 몰아내 우리 한인의 산하(山河)를 되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미파의 무학이 소림, 무당을 능가해 중원 무림의 제일 문파가 되는 것이다. 나의 소원은 달성하기 어렵지만, 이제 한 가지 길이 뚫

렸다. 네가 나의 분부에 따라 움직여만 준다면 언젠가는 그 두가지 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쯤 나는 구천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감사를 할 것이다."

그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멸절사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했다.

"이젠 들어와도 좋다."

곧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여왔는데 녹장객이 아닌 고두타였다. 멸절사태는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므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서 이 애를 데려가라."

그녀는 주지약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결하고 싶지 않았다. 주지약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고두타는 가까이 걸어와 나직하게 말했다.

"이것은 해약이니 어서 복용하시오. 잠시 후 밖에서 소리치면 모두들 일제히 달려나와 생사결단을 냅시다."

멸절사태는 비로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귀하는 대관절 누군데 나에게 해약을 주는 거요?"

고두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명교의 광명우사 범요라 하오. 놈들에게서 해약을 훔쳐왔으니 어서 복용하시오."

멸절사태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성난 음성으로 호통을 쳤다.

"마교의 악도! 끝까지 나를 희롱하려 하느냐!"

범요는 히죽 웃었다.

"좋소. 내가 희롱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독약이니 배짱이 있다면 당장 복용해 보시오. 한 시진 이내에 오장육부가 토막토막 끊어져 비참하게 죽을 테니!"

멸절사태는 아무 말 없이 가루약을 받아 입 안에 털어넣었다.

주지약은 소리쳤다.

"스승님!"

범요는 황급히 그녀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라. 자, 너도 어서 독약을 복용해라."

주지약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겨를도 없이 범요는 그녀의 양쪽 아관혈을 눌러 입을 강제로 벌리게 만들더니, 가루약을 쏟아넣고는 옆에 있는 물병을 집어 다시 물을 몇 모금 마시게 만들었다. 실로 눈깜짝할 사이에 억지로 약을 복용시키고 말았다.

멸절사태는 화들짝 놀랐다. 주지약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사력을 다해 범요에게 덮쳐가며 일장을 후려쳐 냈다. 그러나 공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무모한 행동에 불과했다. 범요가 살짝 밀자 그녀는 담벽에 쿵 하고 등을 부딪치며 쓰러졌다.

범요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림과 무당의 제자들도 모두 내가 준 독약을 복용했으니, 결과가 흉인지 복인지는 잠시 후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껄껄 웃으며 밖으로 나가더니 문을 닫았다.

범요는 주막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장 만안사로 달려온 것이다. 그가 보탑 꼭대기에 오르자 문 밖에 서 있던 오왕아보가 공손하게 그를 맞이했다.

"고대사, 이제 돌아오십니까?"

범요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웃음이 나왔다.

'빌어먹을, 제자더러 망을 보라 하고 늙은 것은 방 안에서 왕야의 애첩과 한창 운우지락을 즐기고 있겠군. 이 틈을 이용해 방안으로 뚫고 들어가 불의의 기습을 가해야지만 해약을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곧 구부정한 자세로 오왕아보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지풍을 날려 그의 아랫배 혈도를 찍었다. 불의의 기습이었다. 설령

오왕아보가 경계를 하고 있었다 해도, 그의 지풍을 피하진 못했다. 혈도가 찍힌 오왕아보는 이내 몸이 굳어지며 크게 의아해 했다.

그 순간 범요는 문을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침상을 향해 쌍장을 떨쳐냈다. 그는 녹장객의 무공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일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일격에 십성의 공력을 주입시켰다.

팍!

그의 쌍장이 적중된 곳에 이불이 파열돼 솜이 흩날리며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그는 얼른 이불을 젖혔다. 그러자 한씨만 알몸인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을 뿐 녹장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범요는 잽싸게 오왕아보를 끌고 와 침상 밑에 쑤셔넣고 문을 닫자마자, 밖에서 녹장객의 성난 음성이 들려왔다.

"아보! 아보! 녀석이 대관절 어디로 갔지?"

녹장객은 멸절사태가 감금돼 있는 방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약이 나오지 않자 짜증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고두타를 생각해 감히 거칠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한씨가 염려되고 또한 그녀를 빨리 품안에 안고 싶은 욕심에 다시 보탑위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오왕아보가 보이지 않자 혼자 투덜거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가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씨는 여전히 이불을 덮은 채 침상에 누워 있었다.

녹장객은 우선 방문을 안에서 잠그어 걸고 침상 앞으로 다가와 음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것아, 이젠 혈도를 풀어 줄 테니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한데 그의 손이 한씨의 등에 닿자마자 돌연 손목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전신

에 힘이 쭉 빠졌다. 다음 순간 이불이 젖혀지며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한 자가 불쑥 일어났다. 바로 고두타였다.

범요는 녹장객의 맥문을 이미 나꿔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지풍을 날려 연거푸 열 아홉 군데의 혈도를 찍었다.

녹장객은 뼈마디가 녹아내리듯 흐물흐물 그 자리에 쓰러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이글거렸다.

범요는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밝혔다.

"노부는 명교의 광명우사 범요다. 오늘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너를 제압했으니, 죽이지는 않겠다. 억울하면 나중에 날 찾아와라, 언제든지 너의 도전을 받아 주겠다."

그는 곧 녹장객의 옷을 벗겨 한씨의 시체 위에 포개놓고 짖궂게 웃으며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어 해약을 갖고 각 감옥으로 찾아가 공문대사, 송원교, 유연주 등에게 복용시켰다. 맨 마지막으로 멸절사태의 방에 들려 상대방이 해약임을 믿으려 하지 않자 아예 독약이라고 위협을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약을 나누어 주고 스스로 득의해 있는데, 갑자기 보탑 아래서 왁자지껄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고함은 학필옹이었다.

"저 두타는 첩자다. 어서 놈을 잡아라!"

범요는 내심 산통이 깨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젠장, 누가 저 녀석을 구해 줬지?'

보탑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미 무사들이 새까맣게 깔려 탑 주위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다. 그 중에는 손삼훼와 이사최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욕설을 터뜨렸다.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두타야! 이젠 네 놈이 당할 차례다!"

혈도가 찍힌 그들 세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봐야만 했다. 여양왕부에서 보내온 병사들은 만안사를 모두 뒤졌으나 한씨를 찾아

내지 못하자, 한 사람이 문득 녹장객의 엽색행각이 상기되어 다시 그가 기거하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감히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한 졸개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다. 혹시 군주가 들리지 않았느냐는 핑계를 떨 심산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학필옹 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학필옹은 혈도가 풀리자마자 고두타의 행방을 물어 즉시 무사들을 이끌고 보탑을 포위한 것이다.

'빌어먹을! 화상 등이 해약을 복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공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지금으로선 시간을 끄는 도리밖에 없군.'

그는 곧 녹장객과 한씨를 함께 이불에 싸서 들고와 높이 쳐들며 소리를 질렀다.

"학필 늙은이야! 네가 탑 안으로 발을 들여 놓는다면 당장 이 년놈들을 아래로 던져 버리겠다!"

무사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으므로, 주위가 대낮처럼 밝았다. 물론 보탑 꼭대기까지 그 불빛이 미치지 못했으나 학필옹은 녹장객과 한씨의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학필옹은 질겁을 하며 소리쳤다.

"사형! 사형! 별고 없소?"

그가 몇 번 외쳤지만, 녹장객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고두타의 손에 죽은 걸로 생각했다.

"고두타! 네놈이 나의 사형을 죽였다면, 목숨을 걸고 네놈과 생사결단을 내겠다!"

범요는 동시에 녹장객의 아혈을 풀어 주었다. 그러자 녹장객은 대뜸 욕설을 터뜨렸다.

"학필, 늙은이, 너의 사형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왕야의 애첩을 납치해 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놀아나는 현장

을 덮쳐 모두 사로잡은 것이다. 그래도 네놈은 사형을 두둔할 작정이냐? 총관대인, 어서 저 늙은이를 체포하시오! 그들 사형제는 반모를 꾀하려 했으니, 체포하면 왕야께서 후한 상을 내릴 것이오!"

총관은 곁눈질로 학필옹을 쳐다보았다. 고두타가 갑자기 입을 연 것에 대해 이상하게 느껴졌으나, 녹장객과 한씨가 알몸인 채 같이 이불에 싸여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학필옹에게 출수를 할 순 없었다. 그는 엉거주춤하다가 탑 위를 향해 소리쳤다.

"고대사, 어서 내려오시오. 우리 함께 왕야에게 가서 시비를 가립시다!"

범요는 원래 겁이 없었다. 지금 함총관, 학필옹 등과 왕부로 가서 시비를 가린다면 그 동안 군호들의 공력이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다.

"좋소이다. 이번 기회에 나도 왕야께 후한 상을 받아야겠소. 총관대인, 그 늙은이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 주시오."

바로 이때였다. 홀연 요란한 말굽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인마가 질풍처럼 보탑 앞으로 달려왔다. 주위에 있는 무사들은 일제히 양쪽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며 공손히 몸을 꺾었다.

"소왕야!"

뜻밖에도 여양왕의 세자인 고고특목이가 고수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고고특목이, 즉 왕보보는 냉랭하게 다그쳤다.

"납치자는 대관절 누구냐? 부왕께서 노발대발하시기에 내가 친히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달려왔다."

총관이 얼른 앞으로 다가가 아뢰었다.

"녹장객이 한 부인을 납치해 왔는데, 지금 고대사께서 사로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학필옹이 황급히 변명을 했다.

"소왕야!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고두타는 적의 첩자로서 사형은 그의 음모에 걸려....."

왕보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소리쳤다.

"고대사와 녹장객더러 모두 내려와 진상을 밝히라고 해라!"

범요는 왕부에서 오랫 동안 머물며 왕보보의 영특함이 부친에 못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탑 아래로 내려가면 자신의 모든 모략이 금방 탄로날 게 뻔했다.

"소왕야, 제가 녹장객의 음계를 파헤쳤기 때문에, 만약 아래로 내려가면 학필옹이 틀림없이 날 죽이려 할 겁니다!"

범요는 여전히 시간을 끄는 원칙을 고수했다. 군호들이 공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왕보보는 막무가내였다.

"어서 내려오시오! 학필옹이 절대 당신에게 공격을 취하지 못할 것이오!"

범요는 고개를 내두르며 다시 소리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이곳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소왕야, 나는 여지껏 벙어리 행세를 해 왔지만 오늘 왕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득이 입을 열게 되었소! 내 말을 정녕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아래로 뛰어내려 죽음으로서 진심으로 증명해 드리겠소!"

왕보보는 그의 허황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가 일부러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도 눈치챘다. 왕보보는 곧 나직이 총관에게 물었다.

"저 자가 무슨 속셈으로 시간을 끄는지 알고 있소?"

총관은 망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둘렀다.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학필옹이 얼른 끼어들었다.

"소왕야, 놈은 나의 사형에게서 해약을 빼앗아 탑에 갇혀 있는 역도들을 구해 주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왕보보는 이내 짚이는 바가 있어 시치미를 떼고 보탑 위를 향해 소리쳤다.

"고대사, 당신의 공로를 잘 알고 있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후한 상을 내리겠소."

범요는 그의 말을 따를 리가 만무했다.

"소왕야, 나는 녹장객과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졌소.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운공료상을 한 후에 내려가겠소."

왕보보는 즉시 총관에게 명령했다.

"총관, 어서 사람을 탑 위로 올려 보내 고대사를 업고 내려오라 하시오!"

범요는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누가 내 몸을 건드리기만 하면 다리를 영원히 못 쓰게 될 겁니다!"

왕보보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한씨와 녹장객이 함께 이불에 싸여 있는 것을 보자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부왕께서 더 이상 한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곧 결단을 내렸다.

"총관, 탑에다 불을 지르시오. 그리고 궁수들을 대비시키고 누구를 막론하고 탑에서 뛰어내리면 사살토록 하시오."

총관은 대답을 하고 즉시 명령을 내리자, 궁수들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탑을 포위하고 일부 무사들은 불을 지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자 놀란 것은 학필옹이었다.

"소왕야, 나의 사형이 탑 위에 살아 있습니다."

왕보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고두타는 저 위에서 평생을 머물 수 없으니 불을 지르면 자연히 내려올 것이오."

"그가 만약 나의 사형을 아래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왕야, 절대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왕보보는 냉소를 날리며 그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았다.

삽시간에 무사들이 마른 장작과 짚단을 탑 주위에 잔뜩 쌓아올려 기름을 붓고 불을 지폈다. 학필옹은 다급해져 이내 몸을 날려 불을 지피려는 무사들을 공격했다. 그러자 왕보보가 싸늘하게 외쳤다.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놈을 잡아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섯 명의 홍의빈승이 일제히 계도(戒刀)를 뽑아들고 학필옹을 포위했다.

학필옹은 사형의 안위가 염려되고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왼쪽에 있는 빈승의 계도를 나꿔채 갔다. 그 빈승은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잽싸게 계도를 떨치며 오히려 학필옹의 어깨를 베어갔다. 그와 동시에 다른 빈승들도 일제히 공격을 전개했다. 이때 탑 주위에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왕보보의 부하들 중에 열 여덟 명의 무공 고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십팔금강(十八金剛)이라 일컬어지며 오도(五刀), 오검(五劍), 사장(四杖), 사발(四拔)로 나누어졌다.

이 다섯 명의 빈승은 오도금강(五刀金剛)이었다. 그들 개개인의 무공은 학필옹에 비해 차이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합세하면 그 위력이 대단했다. 학필옹은 비록 무공이 고강하지만 하루 전에 장무기에 의해 각혈을 하는 부상을 입어 내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더군다나 불길이 거세질수록 사형의 안위가 염려되어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왕보보의 부하들은 계속 마른 장작을 던져 넣었다. 불길은 갈수

록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범요는 녹장객을 버려두고 무당파의 제자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지금 탑이 불타고 있소! 여러분들은 공력이 회복되었소?"
그가 소리쳤으나 송원교, 유연주 등은 제각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공조식을 할 뿐,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공력이 회복될 긴박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모양이었다.
군협들을 지키고 있던 몇몇 무사들이 달려와 공격을 시도했으나, 범요에 의해 모두 탑 아래로 내던져져 죽음을 당하거나 불길을 뚫고 아래로 달아나 버렸다.
얼마 후 불길이 사층으로 번졌다. 사층에 감금돼 있는 화산파의 고수들은 공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허겁지겁 오층으로 달아났다. 불길은 계속 위로 번져갔다. 오층에 있는 공동파의 사람들도 피신해야만 했다.
범요가 속수무책일 때 홀연 한 사람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범우사, 받으시오!"
바로 위일소의 음성이었다. 범요는 크게 기뻐하며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위일소가 만안사 후전 지붕위에 서서 기다란 밧줄을 던져 주었다. 범요는 잽싸게 그것을 받았다. 위일소가 다시 외쳤다.
"어서 밧줄을 난간에 묶어 구름다리로 삼으시오!"
범요가 그의 말대로 밧줄을 묶자마자, 신전팔웅 중에 조일상이 화살을 날려 정확하게 밧줄을 끊어 버렸다. 범요와 위일소는 동시에 욕을 터뜨렸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구름다리를 놓으려면 우선 신전팔웅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꼈다.
위일소는 즉시 장검을 뽑아쥐고 몸을 날렸다. 그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다섯 명의 청의빈승이 검을 들고 포위해 왔다. 그들은 바로 왕보보의 부하 중에 오도금강이었다. 다섯 명은 날카롭게 장

검을 떨치며 위일소를 협공했다.
 학필옹은 고전을 하며 다시 소리쳤다.
 "소왕야, 어서 불을 끄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나도 마지막 수단을 쓰는 도리밖에 없소!"
 왕보보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손에 선장을 쥔 네 명의 빈승이 즉시 왕보보를 에워쌌다.
 학필옹은 초조해졌다. 그는 쌍방을 떨쳐 앞쪽에 있는 빈승 셋을 물리치더니, 진기를 끌어올려 담 앞으로 몸을 날렸다. 다섯 명의 빈승이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왔다. 학필옹은 지체하지 않고 재차 몸을 솟구쳐 보탑 일층 지붕 위로 올랐다. 다섯 명의 빈승은 불길이 너무 거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학필옹은 단숨에 보탑 사층까지 올라갔다. 그 순간 범요가 칠층에서 빠끔히 고개를 내밀어 그를 확인하더니 녹장객의 몸을 다시 번쩍 들어올렸다.
 "학필 늙은이, 더 이상 접근해 오면 한 사람이 핏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학필옹은 과연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고대사, 우린 당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소. 정녕 당신의 정인 멸절사태와 딸 주 낭자를 구할 생각에서 그런다면 마음놓고 가서 구하시오. 난 절대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오!"
 멸절사태는 고두타가 준 해약이 정말 독약인 줄 알고, 주지약마저 죽게 됐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고두타와 학필옹이 입씨름을 벌리고, 왕보보가 탑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하는 것을 똑똑히 듣고는 내심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귀신같이 생긴 두타가 정말로 나를 구하려 왔단 말인가?'
 그녀는 공력을 끌어올려 보니, 즉시 단전으로부터 한 갈래의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레동안 단식을 해 왔기 때문에, 뱃속이 텅텅 비어 약

력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흡수되었다. 게다가 원래 송원교, 하태충 등보다 공력이 심후해 그 사이에 공력이 절반 이상 회복되었다.

그녀가 운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홀연 학필옹이 자기가 고두타의 정인이고 주지약이 딸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대뜸 밖으로 뛰쳐나가 호통을 쳤다.

"이런 천벌을 받을 악적아,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거냐?"

학필옹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므로 한 술 더 떠 멸절사태에게 통사정을 했다.

"노사태, 제발 당신의 옛 정인을 설득해 우선 나의 사형을 놓아주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네 세 식구가 무사히 이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약속을 하리다."

멸절사태는 더욱 오장육부가 터질 것 같았다.

"뭐.....뭣이라고? 세 식구.....?"

범요는 비록 위경에 처해 있었지만, 멸절사태가 발끈하여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자 매우 통쾌해 하며 광소를 날렸다.

"노사태, 학필 늙은이는 당신이 나의 옛 정인이며 주 낭자가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라고 하니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오?"

멸절사태는 안색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그녀가 다시 호통을 치려는데, 갑자기 탑 아래서 고함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순간 불길 속에서 한 줄기의 인영이 종횡무진으로 번뜩이는 가운데 요란한 금속성과 함께 빈승이나 무사나 할 것이 없이 분분히 무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밀러났다. 명교의 교주 장무기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장무기가 출수하자 위일소를 협공하던 오도금강의 장검이, 일제히 허공으로 날았다. 위일소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무기의 곁으로 몸을 번뜩여 나직이 말했다.

"내가 여양왕부로 가서 불을 지르겠소."

장무기는 그의 뜻을 이내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부에 불이 나면 무사들은 왕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왕부로 달려갈 것이다. 실로 절묘한 조호이산지계(調虎離山之計)였다.

위일소는 즉시 한 줄기의 바람으로 화해 높은 담장을 뛰어 넘어 사라졌다.

장무기는 주위의 상황을 한 번 훑어보며 낭랑한 음성으로 물었다.

"범우사, 어떻소?"

범요가 소리쳐 대답했다.

"큰일났습니다. 출로가 불길에 싸여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왕보보의 부하 중에 열 네 명이 장무기를 포위했다. 장무기는 그들을 제압해도 보탑이 잿더미로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불길을 잡으려면 우선 왕보보를 제압해야만 했다. 그는 곧장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왕보보에게 접근해 갔다.

이때 왼쪽에서 한 갈래의 싸늘한 검기가 뻗쳐와 장무기는 얼른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여인의 앙칼진 음성이 들려왔다.

"장공자, 저의 오빠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바로 조민이었다. 그녀는 손에 의천검을 쥔 채 장무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장무기보다 한 발 늦게 당도한 것이다.

장무기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서 불을 끄라고 명령을 내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조민은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십팔금강은 들으세요. 이 자의 무공은 대단하니 금강진을 펼치

세요!"

 십팔빈승은 즉시 왕보보와 조민을 중심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 돌았다. 동시에 사발금강이 양 손에 쥐고 있는 동방(銅방)을 맞닥뜨려 요란한 음향을 터뜨렸다. 그들은 장무기가 왕보보와 조민에게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철저한 보호벽을 구축한 것이다.

 장무기는 그들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보법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열 여덟 명이 구성한 인의 장벽에는 많은 변화가 숨겨져 있었다.

 장무기는 금강진을 파괴해 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보탑의 굵은 기둥 하나가 무너져 버렸다.

 장무기가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불길이 이미 칠 층까지 번졌다. 화마에 휩싸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로 멸절사태와 학필옹이었다. 소림, 무당 등 무림의 군호들은 모두 십 층으로 피신해 있었다. 그들은 아직 공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설령 공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지면에서 십여 장이나 떨어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뇌리로 생각을 굴리더니, 갑자기 전광석화같이 신법을 전래해 좌충우돌하며 신전팔웅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뿐만 아니라 손에 활을 갖고 있는 무사라면 모두 혈도가 찍혔다. 실로 신속무비한 공격이었다.

 삽시간에 그들을 제압한 장무기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러분들, 내가 아래서 받아줄 테니 어서 차례로 뛰어내리시오!"

 탑 위에 있는 군호들은 모두 멍해졌다. 십여 장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몸의 무게가 가속되어 그 힘이 천 근이 넘을 텐데,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일까?

 곤륜파와 공동파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소리쳤다.

"저 녀석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분신쇄골 시킬 속셈입니다!"

장무기는 안타까왔다. 더 이상 지체하면 군호들이 모두 화마에 휩싸여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게 뻔했다.

"유백부님! 백부님도 소질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백부님이 먼저 뛰어내리십시오!"

유연주는 비록 장무기를 믿어왔으나 이번만큼은 회의를 갖고 있었다. 장무기의 무공이 제아무리 고강하다 해도 절대 자기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불타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차라리 뛰어내려 죽겠다는 생각에 소리쳤다.

"좋아!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

그는 서슴없이 보탑 아래로 몸을 던졌다.

장무기는 그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면에 가까와지는 순간 허리를 향해 살짝 일장을 뻗어냈다. 이 일장은 바로 건곤이위신공의 절정무공으로서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막강한 힘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했다.

유연주의 몸은 장무기의 일장으로 인해 방향을 꺾으며 일장(丈) 남짓 날아갔다. 그는 공력이 칠, 팔 성 가량 회복되었으므로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시키며 사뿐히 땅에 내려설 수 있었다. 그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가까이 있는 몽고 무사에게 일장을 떨쳐 쓰러뜨리며 탑 위를 향해 소리쳤다.

"대사형, 사제, 어서 뛰어 내리시오!"

탑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연주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송원교는 아들에 대한 정이 깊어 그로 하여금 먼저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청서야,네가 먼저 뛰어내려라!"

송청서는 감방에서 나온 후 줄곧 주지약 곁에 서 있었다.

"주 낭자, 낭자가 먼저 뛰어내리시오."

주지약은 공력이 회복되지 않아 한창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스승님을 도와줄 수 없었다. 물론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 송청서에게 고개를 내둘렀다.

"저는 스승님을 기다리겠어요."

이때 하태충과 반숙한이 이미 선후로 뛰어내렸다.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그들이 모두 무사히 착지하게끔 도와주었다.

하태충 부부는 비록 공력이 오, 육성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정도만으로 능히 빈승, 무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들은 유연주와 합세해 장무기의 주위를 호위해 주었다.

탑 위에선 계속 사람들이 뛰어내렸다. 군호들은 그 동안 갖은 수모를 겪었으므로 땅에 내려서자마자 모두 목숨을 도외시하고 살수를 펼쳤다. 그 바람에 삽시간에 이십여 명의 무사가 죽음을 당했다.

왕보보는 상황이 갈수록 불리해지자 명령을 내렸다.

"속히 가서 나의 친위대를 불러와라!"

총관이 대답을 하고 막 떠나려는데 돌연 왕부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총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소왕야! 왕부에 불이 났습니다. 속히 달려가 왕야를 보호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왕보보는 부친의 안위가 중요하므로 반도들의 일을 일단 뒤로 미루어야만 했다.

"동생, 난 왕부로 달려가 봐야 하니 이곳은 네가 맡아라."

그는 조민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곧장 왕부를 향해 달려갔다. 십팔금강도 그의 뒤를 따랐고, 무사도 거의 태반이 떠나갔다. 그들은 왕부의 실화가 단지 위일소 한 사람의 짓이었다

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 틀림없이 반도들이 대거 진격해 온 것이라 간주해서 허겁지겁 달려간 것이다.

이때 송원교, 송청서, 장송계, 막성곡 등도 뛰어내렸다. 쌍방의 강약지세는 더욱 역전되었다. 이어 공문대사, 공지대사 등이 뛰어내리자 조민의 부하들은 도저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민은 대세가 기운 것으로 판단했다. 자칫 꾸물대다가 오히려 자기가 포로로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

"모두들 철수해라!"

그녀는 명령을 내리고 나서 장무기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일 황혼 무렵에 다시 술을 대접할 테니, 그 장소로 나오세요."

장무기가 멍해지며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조민은 생긋이 웃어 보이며 만안사 후원으로 물러갔다.

이때 탑 위에서 범요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주 낭자, 어서 뛰어내려! 꾸물대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주지약은 고집을 부렸다.

"스승님과 함께 있겠어요!"

멸절사태는 학필옹과 계속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불길을 피해 위로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보탑 꼭대기 구석까지 옮겨 오게 되었다. 그녀의 공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죽음을 도외시한 상태이므로 수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직 맹렬한 공격만 퍼부었다.

한편, 학필옹은 사형의 안위가 염려되어 좀처럼 기선을 잡지 못했다.

멸절사태는 주지약의 말을 듣자 호통을 치듯 외쳤다.

"지약아, 어서 뛰어내려라! 난 이미 이 음적과 죽음을 같이 하기로 작심했다."

학필옹은 내심 초조해졌다.

'이 할망구는 죽으려고 환장했지만 난 사형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멸절사태, 그 말을 고두타가 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멸절사태는 공격을 거두고 대뜸 범요에게 몸을 돌렸다.

"두타, 당신이 그 따위 미친 소리를 했소?"

범요는 능글맞게 웃으며 반문했다.

"미친 소리라니, 무슨 말을 했다는 거요?"

그는 일부러 반문을 한 것이다. 멸절사태의 입을 통해 자기가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끔 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러나 멸절사태가 어찌 '옛정인'이니 '사생아' 같은 말을 직접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인가? 멸절사태는 범요의 언동에서 학필옹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울화가 치밀어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학필옹은 멸절사태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자 기습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때마침 시꺼먼 연기가 바람에 실려 오자 멸절사태의 등을 향해 쌍장을 떨쳐냈다.

주지약과 범요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소리쳤다.

"스승님, 조심하세요!"

"늙은이, 조심하시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가 재빨리 몸을 돌려 반격을 하려는 순간 학필옹의 쌍장이 등심에 적중되었다. 현명패천장의 위력은 대단했다. 멸절사태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려는 것을 주지약이 황급히 부축했다.

범요는 대노하여 호통을 쳤다.

"이런 비겁한 놈!"

그는 녹장객과 한씨를 싼 이불보따리를 냅다 탑 아래로 던져 버렸다.

학필옹은 짤막한 비명을 지르며 자세히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이불보따리를 나꿔채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었다. 그의 손이 이불 귀퉁이를 잡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함께 탑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한편, 장무기는 탑 아래 서서 시꺼먼 연기를 뚫고 육중한 물체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자 본능적으로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었다. 육중한 물체가 지면에서 가까이 떨어져 내리자 장무기는 비로소 학필옹 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가 그들로 인해 숱한 고생을 겪었고, 또한 부모의 죽음마저 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차마 그들이 분신쇄골 되게끔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쌍장을 떨쳐내 이불보다리와 학필옹을 제각기 좌우 이 장 밖으로 밀어냈다.

학필옹은 허공에서 몸을 한 번 회전시켜 사뿐히 땅에 내려 설 수가 있었다. 비록 무사히 목숨을 건졌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울러 장무기가 원한을 덕으로 갚은 행동에 대해 크게 의아해 했다.

다음 순간, 그는 사형이 떨어진 곳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무기가 일장을 전개하는 바람에 이불 보따리가 풀어져, 그 속에서 굴러나온 두 개의 알몸이 공교롭게도 불더미에 휩싸여 있었다. 녹장객은 혈도가 찍여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므로 이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학필옹은 질겁을 하며,

"사형!"

하고 소스라치는 동시에 불더미 속으로 달려가 녹장객을 구출했다.

이때 유연주가 싸늘하게 외쳤다.

"일장을 받아라!"

그는 왼손으로 학필옹의 어깨를 강타해 갔다. 학필옹은 알몸인 사형을 안고 있으므로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옆으로 미끄러지며 피했으나 유연주의 일장도 도중에서 방향을 꺾으며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학필옹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이마에 구슬땀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녹장객을 안은 채 몸을 날려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이 무렵, 탑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기둥이 무너지며 벽돌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 이젠 탑 전체가 흔들거리며 언제라도 폭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불길 속에서 멸절사태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약아! 어서 뛰어내려라!"

"스승님! 스승님께서 먼저 뛰어내리셔야만 저도 뛰어내리겠어요!"

이때, 범요의 장소가 들리며 탑 아래도 뛰어내렸다. 장무기가 일장을 격출해 그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범우사, 성공이오! 정말 수고가 많았소."

범요는 몸을 바로 세우고 그의 말을 받았다.

"교주의 절세신공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모두 탑 속에서 개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멸절사태는 갑자기 주지약을 껴안더니 아래로 뛰어내렸다. 지면이 가까와지자 그녀는 양팔에 공력을 끌어올려 힘껏 주지약을 위로 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자 주지약은 몇 장 높이 허공에서 떨어지는 격이 되었다. 그 반면, 멸절사태의 떨어지는 기세는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었다. 장무기는 얼른 앞으로 달려가 건곤이위신공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향해 장풍을 뻗쳐냈다.

그런데 멸절사태는 이미 죽을 결심을 굳혔고, 또한 명교의 은혜를 눈꼽만치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에 장무기의 장풍이 뻗쳐오자

전신에 남은 여력을 모두 일장에 실어 떨쳐냈다.

순간, 쌍방의 장풍이 허공에서 격돌되며 펑! 하는 굉음이 터졌다. 장무기의 장풍은 그녀의 일장에 의해 방향을 바꾸었으며 멸절사태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그녀의 칠공(七孔)에서 이내 피가 쏟아져 나왔다.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신의 뼈마디가 분쇄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멸절사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지약은 스승에게 달려가며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나머지 아미파의 제자들도 스승님의 주위를 에워쌌다.

멸절사태는 힘없이 눈을 떴다.

"지약아, 오늘부터 너는 본문의 장문인이다. 내가 당부한 일을..... 명심하겠지?"

주지약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스승님!"

멸절사태의 피로 얼룩진 입가에 한 가닥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다....."

장무기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맥을 짚었다. 순간, 멸절사태는 갑자기 손목을 젖혀 장무기의 손을 갈퀴처럼 나꿔잡으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마교의 음도야! 네가 만약 내 제자의 청백을 더럽힌다면,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

그녀는 마지막 한 자를 내뱉지 못한 채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했다. 그녀의 손톱이 장무기의 손목 살갗 속으로 파고 들어 피가 배어 나오게 했다.

범요가 얼른 소리쳤다.

"모두들 나를 따르시오! 서문 밖에서 회합해야 하니 더 이상 지

체하면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장무기는 멸절사태의 시신을 안고 나직이 말했다.

"갑시다."

주지약은 그에게서 스승님의 시신을 받아 장무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앞장서 사찰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때 곤륜, 공동, 화산파의 제자들도 벌떼처럼 밖으로 뛰어갔다. 단지 소림의 공문, 공지 두 고승만이 선배고인의 풍도를 잃지 않고 장무기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으로 육파 고수들을 구하느라고 내력이 많이 소비되었다. 그는 공문 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역시 걸음을 옮겨갔다.

날이 밝을 무렵, 군호들은 서문에 당도해 성문을 지키는 관병들을 쫓아 버리고 곧장 서북쪽으로 몇 리쯤 달려가자 양소가 마차의 행렬을 준비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소는 중인에게 일일이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다.

공문대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오늘 명교의 교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중원 육파의 운명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오. 그 은혜는 나중에 갚기로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교주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바이오."

장무기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견식이 미천하니, 역시 소림방장께서 진로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문대사는 한사코 사양을 했다. 그러자 장송계가 나섰다.

"이곳은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 왕부의 불길을 잡은 후에 많은 병마가 쫓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멀리 벗어나 차근차근 대책을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태충이 즉시 그의 말을 받았다.

"놈들이 쫓아오면 한바탕 싸움을 벌여 그 동안 당했던 수모를 갚읍시다."

장송계는 고개를 내둘렀다.

"모든 분의 공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정면 대결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문대사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장대협의 말일 맞습니다. 오늘 설령 많은 적을 살상하다해도 우리 역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루게 될 겁니다. 일단 이곳을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소."

소림 장문인의 말을 역시 비중이 컸다. 더 이상 이의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자 공문대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장대협,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당분간 어디로 피했으면 좋겠소?"

장송계는 이미 생각해 놓은 바가 있었다.

"몽고 오랑캐들은 우리가 남쪽, 혹은 동남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반대 방향을 택해 서북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인은 모두 멍해졌다. 그러나 양소는 손뼉을 치며 찬성했다.

"역시 장대협의 생각은 깊소. 서북지방은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 아무 황산(荒山)을 찾아들어가도 당분간 피신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들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할 것이오."

중인은 장송계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곧 북쪽으로 출발했다. 약 오십 리쯤 벗어나자 군호들은 어느 골짜기로 접어들어 휴식을 취했다. 양소는 이미 각종 물품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군호들이 요기를 채우는 데는 불편이 없었다. 중인은 그간의 경과를 얘기하며 장무기와 범요의 도움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한편, 주지약을 비롯한 아미파의 제자들은 멸절사태의 시신을 화장했다. 공문, 공지, 송원교, 장무기 등은 일일이 큰절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멸절사태는 비록 성품이 괴팍하지만 평생 협의도에 서서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온 일대여협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아미파의 제자들은 방성통곡을 했고 군호들도 기분이 울적했다.
공문대사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죽은 자는 다시 소생할 수 없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오랑캐를 몰아내는 것만이 멸절사태를 위한 복수가 될 것이오."
공지대사도 한 마디 했다.
"중원 육대문파는 원래 명교와 적대시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쌍방이 모든 원한을 말끔하게 씻어 버립시다. 앞으로 오직 오랑캐를 섬멸하는데 협심동력합시다!"
군호들은 모두 그러자고 호응했다. 그러나 복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공문대사가 다시 나섰다.
"이 일은 서둘러서 성사되는 게 아닌 만큼, 우선 며칠간 휴식을 취한 연후에 대책을 상의하도록 합시다."
중인은 모두 찬성했다.
장무기는 정색을 하고 늠름하게 말했다.
"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다시 대도로 들어가야 하니, 여러분과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오랑캐와 생사결전을 치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군호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다.
"오랑캐를 몰아 냅시다!"
그들의 함성은 산골짜기를 진동시키며 멀리 메아리쳐 퍼졌다.
장무기는 작별을 고했다. 양소가 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교주, 교주는 천하영웅들의 희망이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장무기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소."
그는 곧 말을 몰고 남쪽으로 질주해 갔다.

제 5 장 금화파파의 은단의절(恩斷義絶)

대도(大都)가 눈 앞에 이르자 장무기는 어젯밤 만안사에서의 일전 때문에 여양왕 수하의 많은 무사들이 자기 얼굴을 식별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는 한 농가에서 농사꾼이 입는 옷가지와 죽립(竹笠)을 구하여 갈아입고 나서, 탄재로 얼굴과 손을 까맣게 칠한 다음에야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성(西城)의 객점 밖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전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자 즉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조는 마침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으나 바로 알아보았다. 이윽고 만면에 희색을 띄우고 웃으며 말했다.
"공자님, 전 어떤 농사꾼이 방을 잘못 들어왔는 줄만 알았어요."
"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소조는 얼굴을 붉히며 수중에 있는 바느질감을 등 뒤로 숨기고 부자연스럽게 말했다.
"바느질을 해 보았으나 솜씨가 너무나 형편 없습니다."
옷가지를 베개 밑으로 숨기고 나서 장무기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그의 까만 얼굴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세수하실 겁니까?"
장무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일부러 칠한 것이니 씻을 필요없다."
찻잔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낭자는 나보고 도룡도(屠龍刀)를 빌리러 갈 때 동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 절대로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나의 본래의 계획은 의부를 중토에 돌아오시게 하려 했었다. 그러나 의부께서는 중원에 적을 많이 두고 있고, 눈까지 멀었으니 그들을 대적하기 힘들다고 걱정을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무림의 군호들이 한 마음으로 몽고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원한 관계는 모두 화해될 것이다. 내가 의부를 모시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감히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바다는 바람과 파도가 험악하기 때문에, 소조는 함께 데려갈 수 없다. 음, 그렇지, 조낭자에게 부탁해서 소조를 왕부(王府)안에 있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는 다른 곳보다 훨씬 편안할 것이다.'

소조는 그가 갑자기 미소짓는 것을 보자 연유를 물어 보았다.

"공자님, 뭘 생각하셨어요?"

"아주 먼 곳에 가야하는데 널 데리고 가면 몹시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기거할 만한 곳을 생각해 냈다."

"공자님, 전 당신을 꼭 따라가서 날마다 이렇게 시중들 것 입니다."

"난 널 위해서다. 내가 가야할 곳은 아주 멀면서도 위험하다. 더구나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광명정의 그 동굴 안에서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는 저도 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절 죽여야만 뿌리칠 수 있을 겁니다. 공자님은 제가 보기 싫어서 꺼려하는 겁니까?"

"아니다, 아냐. 넌 내가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단지 내가 무의미한 모험을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널 찾겠다."

소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공자님만 곁에 있어주면 어떠한 위험도 겁나지 않아요. 공자

님, 절 데리고 가주세요."

장무기는 소조의 손을 쥐고 말했다.

"소조, 솔직히 너에게 말해 주겠다. 나는 조낭자의 부탁으로 그녀와 함께 해외를 한 번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할수 없이 가더라도 넌 꼭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자님과 조낭자가 함께 간다면 전 더욱 따라가야 합니다."

소조는 얼굴을 잔뜩 붉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뭣 때문에 더욱 따라가야 하느냐?"

"그 조낭자의 마음이 독해서 그녀가 공자님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제가 따라가면 당신을 보살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장무기는 마음이 동요되었다.

'이 작은 낭자가 나에게 정을 느끼고 있단 말인가?'

"좋다. 함께 가기로 하자. 하지만 배멀미하더라도 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자님을 귀찮게 하게 되면 바다에 던져서 고기밥이 되게 하세요."

"그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으나 소조는 한숨을 쉬며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러자 장무기가 소조에게 물었다.

"웬 한숨이냐?"

"공자님은 진정으로 아까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미파의 주낭자며 여양왕부의 군주낭자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찌 저 같은 종년을 걱정하겠습니까?"

장무기는 그녀의 면전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소조, 네가 항상 따스하게 대해준 걸 내 어찌 모르겠냐? 그것도 모른다면 난 은혜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사람과 다를게 뭐가 있느냐?"

그러자 소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했다.

"전 공자님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영원히 공자님을 모실 수 있는 몸종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으니 피곤하실 겁니다. 빨리 침대에 올라가셔서 좀 쉬시지요."

말을 하더니 이불을 들춰서 그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다음, 자기는 창가로 가서 앉더니 다시 바느질을 했다.

장무기는 해질무렵에야 깨어났다.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 말했다.

"소조, 널 데리고 조낭자를 만나 보러 갈 것이다. 그녀의 의천검을 빌려서 너의 수족을 묶고 있는 사슬을 잘라 주겠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 보니, 몽고의 병졸들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하며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어젯밤에 여양왕부의 화재와 만안사에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말굽소리를 듣자 얼른 처마 뒤로 몸을 숨겼다. 얼마 후 바로 그 작은 주점에 도착했다.

장무기는 소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조민은 이미 어젯밤 술 마셨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을 보더니 웃으면서 일어섰다.

"장공자는 정말로 신용이 있으시군요."

그러자 장무기는 포권을 하며 말했다.

"조낭자,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했소. 용서해 주기 바라오."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의 그 애첩은 요사스러워서 난 몹시 싫어했는데, 장공자가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살해해 주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장공자를 매우 칭찬하시더군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이러한 결과가 될 줄을 실로 뜻밖이었

다. 이윽고 조민이 다시 말했다.

"그 사람들도 장공자가 구해 주길 잘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귀항(歸降)하지 않으니 내가 남겨 둔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장공자, 내가 당신에게 한 잔 권하지요."

바로 이때 문 안으로 범요가 들어왔다. 그는 먼저 장무기에게 인사하고 나서, 다시 공손하게 조민한테 읍을 하면서 말했다.

"군주님, 고두타가 작별하러 왔습니다."

조민은 답례하지 않고 냉랭하게 말했다.

"고대사, 당신은 날 너무나 기만했소. 덕분에 당신의 군주는 많은 수모를 당했소."

그러자 범요가 일어나서 앙연히 말했다.

"고두타의 성은 범이고 이름은 요라고 하며, 명교의 광명우사(光明右使)입니다. 조정과 명교가 적대 관계이기에 본인이 여양왕부에 잠입한 건 자연히 임무수행차 온 것입니다. 군주님의 많은 보살핌을 받았기에 오늘 특별히 작별하러 온 것입니다."

조민은 여전히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구태여 인사하러 올 것 까지 없지 않소?"

"대장부는 끊고 맺음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군주님과 적대관계가 되는 것인데, 만약 분명히 일러두지 않으면 군주님이 평소에 제게 잘 대해 준 것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조민은 장무기를 한 번 쳐다보면서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기에 수하들을 모두 당신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인협을 위해, 의기를 위함입니다. 범우사와 나는 평소에 서로 알지 못하고 지냈소. 그러나 만나자 마자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간담상조(肝膽相照)하게 되었소."

그러자 범요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교주의 말씀은 바로 속하(屬下)의 생각과 같습니다. 교주, 부디 몸조심 하십시오. 군주낭낭, 이분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심한수랄(心限手辣)한 건 보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양심이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소.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조민은 웃으며 말했다.

"고대사의 칭찬,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요는 몸을 돌려 주점 밖으로 향했다. 소조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얼굴 표정은 경악하면서도 괴상했다. 마치 갑자기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쳤다.

"넌..... 넌....."

그러자 소조는 이상하다며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범요는 멍청히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정말 닮았다, 정말 닮았어....."

조민과 장무기는 서로 한 번씩 쳐다보았으나 그가 소조를 누구와 닮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먼 곳에서는 호루라기 소리가 세 번 길게, 두 번 짧게 들려왔다. 장무기는 순간 멈칫했다. 이는 아미파가 동문을 소집하는 신호다. 그날 서역에서 멸절사태 등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러한 신호로 서로 연락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어째서 아미파가 대도로 돌아왔을까? 혹 적을 만난게 아닐까?"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저건 아미파입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을 당한 것 같군요. 우

리가 한 번 가 보는 게 어떻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죠?"

"내가 서역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녀들을 사흘 동안 밤낮으로 뒤쫓아가서 겨우 멸절사태를 잡았는데, 어찌 모르겠어요."

"좋소, 가 봅시다. 조낭자, 우선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천검을 빌려 주시겠소?"

"당신은 도룡도를 미처 빌려 주기도 전에 먼저 나에게 의천검을 빌리는구료."

조민은 웃으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검을 풀러서 건네 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검을 뽑더니 소조에게 말했다.

"소조, 이리 오너라."

소조는 그에게 다가갔다. 장무기는 장검을 몇 번 휘둘러서 그녀의 손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을 일제히 잘라 주었다. 그러자 소조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공자님, 군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낭자구료. 당신의 교주는 필시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할 거예요."

소조는 얼굴을 붉히며 눈에는 즐거운 빛이 번쩍거렸다.

장무기는 검을 거둔 다음, 조민에게 돌려주자, 아미파의 호루라기소리가 바로 동북방 쪽으로 가는 게 들렸다.

"자, 그럼 갑시다."

조민은 은 한냥을 탁자 위에 던져 놓고 재빠르게 주점을 나섰다.

장무기는 소조가 따라오지 못할까봐,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 안고, 조민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십 여장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소조의 몸이 몹시 가볍게 느껴졌고, 발걸음을 이동하는 것도 몹시 신속해졌다. 그는

약간 이상하게 여겼다. 손에 도와주는 힘을 거두어 들였지만 소조는 여전히 자기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비록 그는 상승경공을 전개하지 않았으나 발놀림은 몹시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조민은 이미 한적한 작은 모퉁이를 몇개 지나서 반쯤 무너진 담벽 밖에 당도했다.

장무기는 담 안에서 여자들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자 아미파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소조의 손을 잡고 월장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조민도 뒤따라 들어왔다. 세 사람은 우거진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폐원의 북쪽 모퉁이에는 허름한 정자가 하나 있었고, 정자 안에는 이 십여명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본문에서 제일 젊은 제자다. 자질이나 무공을 따져봐도 넌 본파의 장문이 될 차례가 되지....."

장무기는 정민군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 숲 속에서 포복하여 정자의 수 장쯤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다. 이때 별빛이 어두워 매우 몽롱하게 보였다. 그는 안력을 모아서 주시하자, 정자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아미파의 제자였다. 정민군 외에는 멸절사태 좌하의 나머지 큰 제자들이 모두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왼쪽에 몸매가 가냘프고 청치마를 땅에 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지약이었다.

이윽고 정민군이 매우 엄준한 말투로 다그쳤다.

"말해라, 말해.....!"

그러자 주지약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사저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부님께서 이 대임을 소매에게 명하실 때 소매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선사께서는 무서운 말투로 책망하시더니 소매가 맹세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부님의 분부를 저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미의 대제자 정현이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영명하시기 때문에 주사매가 장문을 승계하라는 명은 필시 깊은 저의가 있을 것이오. 우리는 모두 사부님의 대은을 입었기에 당연히 그 어르신네의 유지를 받들어 주사매를 보좌해서 본파의 무덕을 빛내야 하오."

그러자 정민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필시 깊은 저의가 있다는 말은 정말 잘 하셨소. 우리가 고탑(高塔)위와 아래 있을 때 모두 고두타와 학필옹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걸 직접 듣지 못했습니까? 주사매의 부모가 누굽니까? 사부님이 뭣 때문에 그녀를 달리 보는 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고두타는 녹장객에게, 멸절사태가 자기의 옛 연인이라고 말했으며, 주지약은 그들 두 사람의 사생아라고 했다. 그러나 학필옹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소리치게 되면 물론 남들은 전부 믿은 수는 없어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일은 통상 믿는 쪽이 많았다. 각자는 정민군의 이 같은 말을 듣자 모두 묵묵부답하였다.

그러자 주지약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정사저, 당신은 제가 장문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불복한다면 얼마든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당신이 허튼소리로 사부님이 평생 이룬 청예(淸譽)를 더럽히게 되면 무슨 죄를 범하는 줄 아세요? 소매의 선친께서는 성이 주(周)고, 한수에서 배를 모는 뱃사공이었고, 무공을 전혀 할 줄 모르오. 선모(先母)께서는 설(薛)씨고 조상은 세가(世家)이며, 본시 양양(襄陽) 사람인데 양양성이 함락된 후 남쪽으로 피난하러 내려갔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선친에게 출가한 것이오. 소매는 무당파 장진인의 추천으로 아미의 문하로 들어오게 된 것이오. 그 전에는 사부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부님의 대은을 입고 있으면서 사부님이 돌아가시니깐 바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건....."

그녀는 목이 메어 그만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민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본문의 장문이 되고 싶겠지만 아직 동문의 공인을 얻지 못했다. 자기의 신분도 표명되지 않았는데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슨 사부님의 청예를 더럽히느니 하면서 주제넘게 떠들고 있는 것이냐? 넌 나에게 벌을 주려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에게 묻겠다. 넌 사부님의 분부로 장문으로 승계했으면 당일로 아미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사부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본파의 수많은 사무가 모두 장문인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넌 혼자서 소리없이 대도에 되돌아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부님께서는 매우 무거운 짐을 소매에게 안겨 주었소. 그러기 때문에 소매는 대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곳에는 본파의 동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말해 보아라."

"이건 본파의 최대 기밀이라 본파의 장문인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오."

그러자 정민군은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흥, 흥! 넌 모든 걸 <장문인> 이 세 글자에 미는구나. 하지만 날 속이지는 못한다. 너에게 묻겠다. 본파와 마교는 불공천하(不共天下)의 원수지간이다. 본파는 마교의 사손에 수 많은 동문이 희생되었고 마교의 교중도 사부님의 의천검 아래 부지기수로 죽었다. 사부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마교 교주의 일탁(一托)을 받기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사부님의 시신이 미처 굳기도 전에 넌 마교의 그 장이란 소음적(小淫賊)을 살며시 찾으러 돌아올 수 있겠느냐?"

장무기는 마지막 이 몇 마디를 듣자 그만 몸이 휘청거렸다.

'주낭자가 진정으로 날 찾으러 왔단 말인가?'

이윽고 주지약이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당신..... 당신은 또 허튼소리로......"

그러자 정민군은 큰 소리로 말했다.

"발뺌하려는 거냐? 넌 사람들을 아미로 먼저 돌려 보냈다. 우리가 너에게 대도에 돌아온 이유를 묻는데 뭣 때문에 꾸물거리고 있는 거냐? 여러 동문들은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너의 뒤를 밟은 것이다. 네가 너의 부친인 고두타에게 소음적의 행방을 물어본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네가 객점에 가서 그 소음적을 찾아간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녀는 말끝마다 소음적, 소음적 하였다. 아무리 장무기의 성격이 좋다 해도 어찌 울화가 치밀지 않겠는가? 이때 조민은 웃으면서 그를 놀려 주었다.

정민군이 다시 말했다.

"네가 누굴 찾든지, 누굴 좋아하든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장이란 소음적은 본파의 철천지 원수다. 어젯밤 우리가 대도를 빠져나올 때 넌 도중에서 뭣 때문에 정이 서린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냐? 그의 발길이 옮기는 대로 너의 눈빛도 따라 옮겼다. 이건 절대로 널 모함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동문들도 모두 목격했었다. 그날 광명정에 있을 때도 그러했다. 의천검 같은 예리한 검으로 왜 그를 죽이지 못 했느냐? 그 안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주지약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뭣 때문에 듣기 싫은 말만 해서 날 모욕하는 것이오?"

그러자 정민군은 냉소로 한 번 웃더니 말했다.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너의 소행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냐? 흥! 방금 넌 그 객점의 주인에게 어떻게 물었느냐?"

그녀는 주지약의 흉내를 내며 말을 했다.

아미파의 대다수 제자들은 모두 사부의 유명대로 주지약을 장문

인으로 받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민군의 그럴싸한 말을 듣게 되자 모두 마음이 동요되었다.

'사부와 마교는 깊은 원한관계에 있다. 그런데 주사매와 마교의 교주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만약에 그녀가 본파를 마교에게 팔아 버리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이윽고 정민군의 말소리가 다시 들렸다.

"주사매, 넌 무당파의 장진인이 사부님 문하에 인입(引入)시켰지만, 그 마교의 소음적은 바로 무당 장오협의 아들이다. 이 중간에는 도대체 무슨 괴이한 음모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말했다.

"사형, 사저, 사제, 사매 여러분. 비록 사부님의 유명은 주사매를 장문에 접임(接任)시켰소. 그러나 그 어르신네가 원적(圓寂)한 후 시신도 미처 굳기 전에 본파의 장문인이 즉시 그 마교 교주를 찾아가서 서로 정을 나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오. 이 일은 본파의 존망흥쇠에 달려 있습니다. 선사께서 만약에 오늘 밤의 일을 알게 되면 그 어르신네는 필시 다른 장문인을 선택할 것이오. 소매가 보기에는 우리가 필히 선사의 유지를 승계하여 주사매의 장문 표시인 철지환(鐵指環)을 받아내서 우리가 본파의 장문을 다시 추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동문 중에 이미 육, 칠 명은 그녀의 뜻을 호응했다.

그러자 주지약이 말했다.

"전 선사의 명을 받들고 본파의 장문을 접임한 것이오. 이 철지환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소! 전 이 장문의 자리를 정말로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부님에게 맹세를 하였기에 절대로..... 절대로 그 어르신네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장문 철지환은 내놓기 싫어도 내놓아야 한다. 본파의 문규에는 기사멸조(欺師滅祖), 음사무치(淫邪無恥)를 엄히 금하고 있

다. 넌 이 두 가지의 대계(大戒)를 범했는데 어떻게 문호를 손에 쥐고 있겠느냐?"

조민은 입술을 장무기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주낭자가 몹시 난처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착한 누님이라고 한 마디 부르면, 내가 즉시 나가서 그녀의 처지를 구해 주겠어요."

장무기는 이 낭자가 족지다모(足智多謀)한 줄 알기 때문에 필시 주낭자의 곤경을 벗겨줄 묘책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는 자기보다 많이 적었다. 그런데 누나라는 말이 실로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침 주저하고 있을 때 조민이 다시 말했다.

"부르기 싫으면 난 이만 가겠어요."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불렀다.

"착한 누님."

그러자 조민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 막 몸을 일어서려는 찰나 정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발각되고 말았다. 이윽고 정민군이 소리쳤다.

"누가 거기서 엿듣고 있는 것이냐?"

갑자기 담 밖에는 기침소리가 몇 번 들려오더니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밤도 깊은데 아미파는 여기서 서성거리며 뭐 하는 것이냐?"

한 차례의 옷자락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자 밖에는 이미 두 사람이 많아졌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달빛을 향하고 있었기에 장무기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등이 앞으로 꼬부라진 늙은 부인이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바로 금화파파였다. 다른 한 사람은 몸매가 가냘픈 소녀였는데 용모는 괴이하게 추악했다. 바로 은야왕의 딸이자 장무기의 사촌 누이인 주아(珠兒) 아리(阿離)였다.

장무기는 그녀와 헤어지게 된 후부터 자주 그녀를 생각했었다. 뜻밖에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걸 보게 되자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하마터면 소리를 내어 부를 뻔했다.

정민군은 쌀쌀하게 말했다.

"금화파파, 당신은 뭣 때문에 오셨습니까?"

"너의 사부는 여기 있느냐?"

"선사께서 어제 이미 원적하셨소. 당신은 원(圓) 밖에서 이미 들었으면서 뭣 때문에 또 묻는 것입니까?"

"아니 멸절사태가 이미 원적했다구? 어떻게 죽은 것이냐? 뭣 때문에 날 기다리지 않는 것이냐? 아유, 아유, 안타깝다, 안타까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허리를 굽히고 몹시 기침했다. 주아는 살며시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정민군에게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누가 너희들 말을 엿들었다고 하는 것이냐? 나와 파파가 여기를 지나는데 네가 재잘재잘하고 말하는 걸 들었다. 난 너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것이다. 파파가 너에게 묻지 않느냐? 너의 사부는 어떻게 죽은 것이냐?"

"그게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뭣 때문에 너에게 말하겠느냐?"

금화파파는 길게 숨을 한모금 들여마신 후 천천히 말했다.

"난 평생 사람들과 싸웠지만 유독 너의 사부에게 한 번 패했다. 그러나 그건 무공의 초수가 뒤진 게 아니라, 의천검의 예리함을 막아내지 못한 것 뿐이다. 요 몇 년 동안 난 예리한 검을 찾아서 다시 너의 사부와 고하(高下)를 겨루려 벼르고 있었다. 내가 온 세상을 헤매는 바람에 한 분의 고인(故人)이 보도를 나에게 한 번 빌려 주기로 승낙했다. 내가 듣기로는 아미파의 사람들을 조정에서 만안사에 감금하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난 너의 사부를

구출해 내어 그녀와 진정한 재주를 겨루려 하였다. 그런데 오늘 만안사에 가 보니 이미 초토가 되어 버렸더군. 아유, 멸절사태, 멸절사태, 하루라도 늦게 죽을 수 없는 것이었냐?"

그러자 정민군이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 만약 아직도 살아 계셨다면 당신은 또 한 번 패배의 쓰라림을 보았을 것이오!"

갑자기 팍팍팍팍! 네 번의 경쾌한 소리가 지나가자, 정민군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얼굴에 이미 금화파파의 사 장을 연거푸 얻어맞은 것이다. 그녀와 정민군의 거리는 이 장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다가가서 사 장을 후려치고 다시 물러나온 것은 마치 귀신같은 행동이었다.

정민군은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즉시 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다가가서 금화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거렁뱅이 같은 늙은이가 정말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금화파파는 마치 그녀의 욕설을 듣지 못한양 그녀의 수중에 있는 장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너의 사부는 도대체 어떻게 죽게 된 것이냐?"

말투가 소침되어 있는 것이 마치 몹시 안타까운 것 같았다. 정민군의 검 끝과 그녀의 흉구와의 거리는 불과 세치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시종 찌르지는 못했다.

"거렁뱅이 같은 할망구야, 내가 뭣 때문에 말해 줘야 하는 것이냐?"

금화파파는 긴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멸절사태, 너는 일세(一世)의 영웅이며 무림에서는 뛰어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죽게 되니 제자 중에는 접장문호(接掌門戶)할 인제는 하나도 없구나!"

이윽고 정현사태가 한 발 다가가더니 합장을 하며 말했다.

"빈니 정현, 파파를 참견합니다. 선사께서 원적하실 때 주지약

주사매가 장문에 접임하라는 유명을 남기셨소. 그러나 본파에는 약간의 동문들이 불복하고 있습니다. 선사께서 이미 원적하셨으니 파파의 소원도 이루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본파의 장문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에 파파와는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미는 무림의 대파라서 절대로 선사의 위명(威名)에 먹칠할 수 없습니다. 파파께서 무슨 분부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나중에 분파의 장문이 무림의 규칙대로 당신과 일단락을 짓게 될 것이오."

"존사가 원적할 때 이미 유명을 전해서 계임(繼任)할 장문인을 정해 놓았구나. 그것 참 잘됐다. 어느 분이지?"

말투는 정민군과 말할 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자 주지약이 다가가서 인사하며 말했다.

"아미파의 제 사대 장문인 주지약, 파파에게 인사 드립니다."

정민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본파의 제 사대 장문인이라고 자칭하는구나!"

주아가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이분 주 언니는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서역에 있을 때 주언니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장문이 될 자격이 없다면 너는 자격이 있단 말이냐? 또다시 파파의 면전에서 방자하게 굴면 너의 따귀를 몇 번 더 때려줄 것이다!"

정민군은 대노하였다. 휙 하고 일검을 주아의 분심(分心)으로 찔러 댔다. 주아는 몸을 비틀어서 피하며 장을 내밀어 정민군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녀의 이 신법은 금화파파와 똑같았으나 출수하는 신속성은 한참 뒤떨어졌다. 정민군은 얼른 고개를 숙여서 피했다. 그녀의 일검도 주아를 적중하지 못했다.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주아야,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이 쉬운

일초를 터득하지 못했느냐. 자세히 보거라."

오른손을 휘둘러서 정민군의 왼빰에 일장을 후려치고, 다시 손을 되돌려서 그녀의 오른빰을 후려쳤다. 바로 또 왼빰을 후려치고 나서, 손을 되돌려 오른빰을 후려쳤다. 이 사장의 단락(段落)이 분명하여 사람들도 모두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민군의 온몸은 큰 힘이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 금화파파의 손에는 경력을 운용하지 않아서 그녀는 중상을 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주아는 웃으며 말했다.

"파파, 이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같은 내경(內勁)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민군은 여전히 금화파파의 내력에 눌려 있었다. 주아의 일장이 다시 얼굴을 후려쳐 오는 걸 보자, 화가 치밀어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갑자기 주지약이 재빨리 다가가더니 왼손을 뻗어서 주아의 일장을 막아내며 말했다.

"언니, 멈추시오!"

이윽고 고개를 돌려서 금화파파에게 말했다.

"본파 문호의 일은 외부인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소녀는 선사의 유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비록 재주는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외부인이 본파 문인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좋다, 좋다!"

갑자기 쌍장을 일제히 출수했다. 일장은 주지약의 앞가슴을 눌렀고, 일장은 그녀의 후심(後心)을 누르고 있었다. 쌍장이 누르고 있는 곳은 모두 치명적이 대혈(大穴)이었다.

이윽고 금화파파는 엄숙하게 말했다.

"주낭자, 당신 같은 장문인은 정말 드물고 보잘것도 없구료. 어째서 존사는 아미파의 장문이란 중임을 당신 같은 연약한 작은

낭자에게 넘겨 주었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허튼소리 하고 있는 것 같구료."

주지약은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의 손에서 내경만 토해 내면 내 심맥은 바로 진단(震斷)되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어찌 사부님의 위명에 먹칠할 수 있겠느냐?'

막상 사부를 생각하지 즉시 용기가 났다. 이윽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건 선사께서 친히 나의 손에 끼어 준 아미파 장문의 철지환이요. 그런데 어찌 거짓이 있겠소?"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방금 너의 사저가, 아미는 무림대파라고 한 말은 옳은 것 같다. 그러나 네가 지니고 있는 재주로 어떻게 무림대파의 장문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얌전히 내 분부를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금화파파, 비록 선사께서는 원적하셨지만 아미파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주지약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여자지만 중임을 맡고 있는 이상 생사 같은 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무기는 몹시 안절부절했다. 금화파파가 노해서 그녀의 생명을 다칠까봐 막 나가서 구출해 내려는 찰나, 조민은 그의 속셈을 간파했다. 얼른 그의 오른팔을 잡고 살짝 한 번 흔들었다. 서두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다.

이윽고 금화파파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역시 멸절사태가 사람을 잘 골랐구나. 넌 비록 무공은 약하나 성격은 완강하구나. 음, 됐다. 됐어! 무공의 부족함은 연마해서 보충할 수 있다. 강산은 쉽게 바꿀 수 있어도 본성은 고치기 힘든 법이니까."

사실 주지약은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다. 단지 사부가 죽기 직전에 중임을 부탁한 걸 생각해서 억지로 굴복하지 않은 것이다.

아미파의 동문들은 주지약을 모두 멸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행동을 보게 되자 모두 탄복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때 정현이 장검을 한 번 휘두르며 호루라기를 몇 번 불자, 아미파의 제자들은 갑자기 흩어지면서 각자 병기를 뽑아 들고 정자를 겹겹으로 포위했다.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왜 그러느냐?"

정현이 말했다.

"파파는 아미의 장문을 위협하는 저의가 무엇이오?"

금화파파는 기침을 몇 번 하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떼거지로 덤벼들 작정이냐? 내가 보기에는 열배가 더 많아도 아무 소용없게 느껴지는구나."

갑자기 주지약을 놓아주고 신형을 흔들더니 곧바로 정현앞에 다가왔다. 그러더니 두 손가락을 뻗어서 그녀의 두 눈을 공격했다. 그러자 정현은 감히 검을 돌려서 그녀의 양 팔을 베려 했다. 순간 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옆에 있던 동문사매 하나가 쓰러졌다. 금화파파는 정현을 공격하면서 왼발로 아미의 여제자 한 명의 허리에 있는 혈도를 걷어 찬 것이다.

그녀는 정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큰 소매자락을 펄럭이면서 간간히 기침소리가 몇 번 들리곤 했다. 아미파 문인들은 일제히 장검을 휘둘렀으나 그녀의 옷자락도 스치지 못했다. 그러나 남녀 제자는 이미 일곱명이나 혈도에 적중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타혈수법(打穴手法)이 몹시 괴이해서 적중된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일시에 폐원에는 비명소리가 여기 저기 나면서 듣기에 소름이 끼쳤다.

금화파파는 손뼉을 한 번 치더니 정자 안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주낭자, 너희 아미파의 무공이 금화파파와 비교하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본파의 무공이 당연히 파파보다는 높지요. 왕년에 파파는 선사의 검 아래 패한 걸 잊으셨습니까?"

금화파파는 노하여 말했다.

"멸절 늙은이에게 패한 건 단지 보검이 예리했기 때문이다!"

"파파는 솔직히 말해 주세요. 만약에 선사와 파파가 맨손으로 겨루었다면 승부는 어떻게 됐을 겁니까?"

금화파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다. 나와 존사 두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걸 알기 위해서 오늘 대도에 온 것이다. 아하, 멸절사태가 원적하였으니 무림에는 고인을 한 분 잃은 것이다. 아미파도 지금부터는 덩달아 쇠약해졌군."

일곱명의 아미 제자들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정현 등 나이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힘껏 추혈과궁(推穴過宮)했으나 전혀 효력이 없었다. 아마 금화파파 본인만이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왕년에 금화파파에게 상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준 적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파의 악랄한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나가서 구해 주고 싶지만 마음을 고쳐 먹었다.

'내가 주낭자를 도와주면, 주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사촌누이는 나에게 잘 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골육지친(骨肉之親)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윽고 금화파파의 말소리가 들렸다.

"주낭자, 굴복 하겠느냐?"

"본파의 무공은 바다처럼 깊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파파의 무공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중

에 진전하게 되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아주 묘하다. 아주 묘해. 금화파파는 이만 작별하겠다. 나중에 너의 무공이 진전되거든 다시 와서 그들의 혈도를 풀어 주겠다."

말을 하면서 주아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서 떠나려 했다.

주지약은, 이 동문들의 고통이 잠시도 참기 어려운데 금화파파가 가 버리면 아마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급히 말했다.

"파파, 잠깐 멈추시오. 저의 동문 사저, 사형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렵지 않다. 지금부터 금화파파와 나의 이 제자가 가는 곳에는 아미 문인들은 우리를 피해서 다녀라!"

주지약은 잠시 생각을 굴렸다.

'내가 장문직을 맡자마자 바로 강적을 만났구나. 만약에 이 일을 승낙하게 되면 아미파는 어떻게 무림에서 발디딜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아미 일파는 바로 내 손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금화파파는 그녀가 망설이고 있는 것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넌 아미파의 위명을 먹칠하기 싫으면 그만 두거라. 대신 너의 의천검을 나에게 한 번 빌려주면, 너의 동문들을 풀어줄 것이다."

"본파의 사도들은 조정을 간계에 빠져서 고탑에 감금 되었는데, 어찌 의천검이 아직도 우리의 수중에 있겠습니까?"

금화파파는 주지약의 이같은 말을 듣자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쳐갔다. 갑자기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미파의 명성을 보전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한다.....!"

말을 하면서 품안에서 환약 한 알을 꺼내더니 다시 말했다.

"이건 단장렬심(斷腸裂心)하는 독약이다. 네가 먹는다면 내가 사람을 구하겠다."

주지약은 떨리는 손으로 독약을 받아 들였다. 그러자 정현이 소리쳤다.

"주사매, 절대로 먹지 마라!"

장무기는 정세가 위급한 것을 보자 다시 나가려 하는데, 조민이 그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바보, 가짜다. 독약이 아니다."

장무기가 멈칫하는 순간 주지약은 환약을 이미 삼켜 버렸다.

정현 등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치며 다시 금화파파와 싸우려 했다.

"좋았어. 의지는 강하구나. 이 독약의 약성은 금방 발작하지 않는다. 주낭자, 날 따라라! 얌전하게 말 잘 들으면 이 늙은이가 기분 좋아서 너에게 해독약을 주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윽고 그 혈도를 찍힌 아미 문인들에게 다가가서 번갈아가며 몇 번 두드렸다. 그 사람들의 통증은 즉시 멈추었으나 사지가 저리고 마비되어서 여전히 금방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주지약이 독약을 복용하면서 자기들을 구해주는 걸 보게 되자 몹시 감격하였다.

금화파파는 주지약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네가 날 따라오면 파파는 너에게 잘 대해 줄 것이다."

주지약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한 줄기 거대한 힘이 자기를 끌어대는 것 같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위로 솟구쳤다. 그러자 정현이 소리쳤다.

"주사매!"

다가가서 저지하려 했으나 한 줄기 지풍(指風)이 비스듬히 공격해 왔다. 이는 주아가 옆에서 발지(發指)하여 기습한 것이다. 정현은 좌장을 휘둘러서 막았으나 주아의 이 일초는 뜻밖에도 허초

였다. 팍 하고 소리가 나더니 정민군의 얼굴에 일장이 후려쳐졌다. 이 지동타서(指東打西)의 수법은 바로 금화파파의 무학이다. 이윽고 주아의 깔깔거리는 교소(嬌笑)가 들리면서 이미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장무기가 말했다.

"빨리 쫓아가자."

한 손은 주민을 끌고, 한 손은 소조를 데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월장하였다. 정현 등은 갑자기 풀밭에 세 사람이 숨어 있던 것을 알게 되자 한결같이 경악했다. 금화파파와 장무기의 경공은 얼마나 고묘(高妙)한지, 아미의 제자들이 담을 넘어오자 여섯 사람은 벌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무기 등이 십여 장을 쫓아갔으나 금화파파의 걸음은 전혀 정지하지 않으면서 소리쳤다.

"아미파의 제자에 감히 금화파파를 쫓아올 담력을 가진 자가 있다니, 흐흐, 대단하구나."

조민이 말했다.

"본파의 장문을 남겨 놓아라!"

조민의 몸이 한 번 휘청거리더니 수장 앞으로 다가갔다. 의천검의 검 끝은 이미 금화파파의 등 뒤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일초는 금정불광(金頂佛光)이며 바로 아미파 전통 검법의 하나였다. 그녀가 만안사에 있을 때 아미파의 여제자 수중에서 배운 것이다. 단지 멸절사태에게 배운 게 아니라서 정묘한 것은 부족했다.

금화파파는 등 뒤에서 금도(金刀)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주지약을 놓아주고 급히 몸을 돌렸다. 조민은 손목을 한 번 흔들더니 다시 천봉경수(千峯競秀) 일초를 전개했다. 금화파파는 그녀의 수중에 있는 병기가 바로 의천검이란 것을 알아채자,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다. 즉시 손을 뻗어서 뺏으려 했다.

몇 초가 지나자 금화파파는 이미 조민의 몸 앞으로 접근했다.

손가락이 그녀가 검을 쥐고 있는 손목에 닿으려는 찰나, 뜻밖에 조민은 장검을 급회전시키며 곤륜파의 검초인 신타준족(神駝駿足) 일초를 전개했다.

금화파파는 그녀가 나이가 젊은 여자며 손에는 의천검을 쥐고 있고, 검법 또한 아미파의 검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자, 그녀가 아미파의 제자인 줄 알았다. 금화파파는 멸절사태와 겨루기 위해서 아미파의 검법을 수년 간 연구했었다. 그러나 이 젊은 낭자가 갑자기 곤륜파의 검법을 전개하자, 금화파파는 하는 수 없이 얼른땅에서 한 번 뒹굴어야만 그녀의 일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왼손의 옷자락은 예리한 검날에 스쳐서 큰 조각이 베이고 말았다.

금화파파는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즉시 다시 덮여갔다. 조민은 자기의 무공이 그녀보다는 훨씬 못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의천검을 휘둘러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갑자기 공동파 검법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산파 검법을 사용하고, 갑자기 곤륜파의 대막비사(大漠飛沙) 일초를 전개하더니 바로 소림파 달마검법의 금침도겁(金針渡劫) 일초를 전개했다. 매초마다 모두가 각파의 검법 중에 뛰어나게 우수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매 초마다 매우 거대한 위력을 지녔다. 더구나 의천검의 예리함을 가미하면 금화파파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했다. 주아는 옆에서 보다못해 허리춤에 있는 장검을 풀어서 금화파파에게 던져 주었다. 조민은 연거푸 칠, 팔 검을 빠르게 공격했다. 제 구검째가 되자 금화파파는 하는 수 없이 병기로 막아야 했다. 싹! 하고 소리가 나더니 장검은 두 토막으로 잘라졌다.

금화파파의 안색이 몹시 변하더니 얼른 몸을 옆으로 튕겨서 피하며 소리쳤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조민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도룡도를 뽑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도룡도가 있다면 네가 어찌 나의 십초를 막아내겠냐? 날 따라와서 시험해 보겠느냐?"

"당신이 도룡도를 얻게 되면 오히려 잘된 일이오. 난 대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칼을 얻은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오!"

"고개를 나에게 돌려라. 그래야만 널 똑똑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 조민은 몸을 비스듬히 돌려서 혀를 내밀고 왼쪽 눈을 감고, 얼굴의 근육을 실룩거리면서 그녀에게 괴상한 얼굴을 해 보였다. 금화파파는 몹시 화를 냈다. 이윽고 땅에다 침을 한 번 뱉더니 단검을 버리고 주아와 주지약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그러자 장무기가 조민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쫓아갑시다."

"서둘지 말고 날 따라 오세요. 당신의 주낭자는 무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도룡도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오?"

"아까 그 할머니가 폐원에서 말하길, 그녀는 온 세상을 헤매다가 결국 한 분의 고인에게 보도를 빌려서 멸절사태의 의천검과 겨루게 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천불출, 수여쟁봉> 즉, 의천검과 예리함을 겨루려면 오직 도룡도밖에 없소. 그렇다면 그녀는 당신의 의부인 사 노선배에게 도룡도를 빌리게 되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보도가 없어서 나보고 그녀를 따라와 시험하라 했어요. 마치 그녀는 이미 도룡도의 소재를 알았는데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 이상한 일이군....."

"내 생각으로는 그녀가 바다로 나가서 칼을 찾으러 갈 것 같소.

우리는 필히 한 발 앞서야 하오. 그래야만 두 눈이 이미 장님이 되고 마음이 착하신 사 노선배님이 이 악독한 할머니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오!"

장무기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듣자, 가슴의 뜨거운 피가 위로 솟구쳤다. 그러자 급히 말했다.

"그렇소, 그렇소!"

장무기가 조민이 도룡도를 빌리러 가자고 할 때 승낙한 것은, 단지 대장부가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금화파파가 의부를 찾아가서 농락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날개라도 있으면 얼른 날아가서 구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윽고 조민은 두 사람을 데리고 왕부의 앞으로 왔다. 부문(府門) 앞에 있는 위사(衛士)에게 한참 동안 뭔가 분부했다. 그 위사는 연거푸 대답했다. 얼마 후 아홉 필의 준마를 끌고 나오면서 금은이 담긴 큰 보따리 하나를 갖고 나왔다. 조민과 장무기, 소조 세 사람은 세 필의 말을 타고, 나머지 여섯 필은 뒤에 따라오게 하더니 교대로 갈아타면서 동쪽으로 질주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홉 필의 말은 모두 지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자 조민은 지방관(地方官)에게 여양왕 이 천하의 병마를 부릴 수 있는 금패를 보이면서 다시 아홉 필의 말을 교환했다. 당일 심야가 되자 해변가에 당도했다.

조민은 말을 몰아서 현성(顯城)으로 바로 들어갔다. 현관에게는 최고로 견고한 큰배 한 척을 속히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선상에는 타공(舵工), 수수(水手), 양식, 식수, 병기, 겨울옷 등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해선을 즉시 남쪽으로 몰라고 하고, 해변 오십 리 안에는 다른 선박이 정박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여양왕 금패가 가는 곳에 말단 현관들이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는가. 조민과 장무기, 소조 세 사람은 현에 있는 관아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렸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 완료하고 현관이 보고했다.

세 사람은 해변으로 갔다. 배를 보더니, 조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큰일이에요!"

해변에 정박해 있는 해선의 선채는 매우 컸다. 배의 높이는 이층으로 되어 있고, 뱃머리의 갑판과 왼쪽, 오른쪽 뱃전에는 모두 철포(鐵砲)가 장치되어 있었다. 이는 몽고 해군의 포선이었다. 왕년에 몽고의 대군이 일본을 원정하러 갈 때 뜻밖에 태풍을 만나서 몽고 해군이 엉망으로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동정(東征)하는 일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함의 모양은 그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때 배 안에는 양식, 식수 등이 모두 준비되었고, 더구나 해변에 있는 나머지 배들은 이미 여양왕 금패의 전령에 따라 벌써 남쪽 수십 리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조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는 수 없이 대포 위에다 고기 그물을 여러 개 걸쳐 놓고 배 위에는 십 여 단의 신선한 생선을 갖다 놓으라고 뱃사공들에게 분부했다. 이는 포선이 오래 되어서 쓸모없게 되자 어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장한 것이다.

조민과 장무기, 소조, 세 사람은 뱃사공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서 유채(油彩)로 얼굴을 노랗게 칠한 다음, 다시 쥐같은 수염 두 개를 그렸다. 세 사람은 배 안에 앉아서 금화파파가 오기만 기다렸다.

조민 군주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과연 해질 무렵이 되자 큰 수레 한 대가 해변으로 다가왔다. 금화파파가 주아와 주지약을 데리고 배를 구하러 다가왔다. 선상에 있는 사공들은 이미 조민의 당부를 받아서 여러 번 사양하면서 말하길, 이건 오래된 포선이 어선으로 개장(改裝)한 것이라 고기만 전문적으로 잡는다며 절대로 손님을 태우지 않는다고 했다. 나중에 금화파파가 두 덩어리

나 되는 황금을 꺼내서 뱃삯이라고 하자, 선장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승낙했다. 금화파파는 주아, 주지약을 대동하여 배에 올라가더니, 즉시 돛을 내려서 동쪽으로 가자고 명하였다.

배가 이틀쯤 가자, 장무기와 조민은 배의 밑창에 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해와 달은 항상 왼쪽의 뱃전에서 떠올랐다. 이는 배가 남쪽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그 때는 이미 초겨울 날씨라서 북풍이 몰아쳤다. 돛에 잔뜩 바람을 먹게 되자 배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장무기와 조민은 여러 번 상의했었다.

"우리 의부는 북극의 빙화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으려면 필히 북쪽으로 가야하는데, 어찌 반대로 남쪽으로 가는 것이오?"

조민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하였다.

"금화파파에게 필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계절에는 남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려 해도 갈 수 없어요."

사흘째 되던 오후였다. 키잡이가 내려와서 조민에게 보고하길, 금화파파는 이 일대의 사정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똑똑히 알고 있다고 했다.

장무기는 갑자기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아 그렇다! 그녀는 영사도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조민이 물었다.

"영사도라니?!"

"금화파파의 옛집은 영사도에 있소. 그녀의 별세한 남편 이름은 은엽선생이오. 영사도의 금화은엽(金花銀葉)을 당신은 들어보지 못했소?"

그러자 조민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겨우 몇 살 위인데 강호에 있는 일을 정말 많이 알고 있군요."

"명교는 사마외도라 군주 낭자보다야 강호의 일을 많이 알 수밖에 없죠."

키잡이는 보고한 후 금화파파에게 발각될까봐 얼른 배 뒤쪽으로 돌아갔다.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장교주, 귀찮겠지만 당신은 영사도의 금화은엽이 강호에서 위세를 떨친 이야기를 이 계집에게 해 주겠습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얘기하자면 부끄러운 일이요. 은엽선생이 어떠한 인물인지 난 전혀 아는 바가 없소. 그러나 그 금화파파란 분은 나와 한 번 적대관계가 된 적이 있소."

이윽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호접곡에서 접곡의선 호청우에게 의술을 배운 것하며, 어떻게 해서 각파의 사람들이 금화파파에게 당해서 접곡으로 온 일하며, 호청우가 자기를 지적해 줘서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일과, 금화파파가 어떻게 해서 멸절사태에게 패한 일하며, 호청우, 왕난고 부부가 결국은 금화파파의 손에 다시 죽게 되었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얘기해 주었다.

그는 호청우의 성격이 몹시 괴팍하였으나 자기에게는 실로 잘 대해 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 부부의 시체가 나뭇 가지에 높이 걸려 있는 광경을 생각하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는 주아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영사도로 데려가서 그녀의 동무가 되어 달라는 일과, 자기가 그녀의 손등을 한 입 물었다는 일은 생략했다. 뭣 때문에 생략했는지 자기도 그 영문을 몰랐다.

조민은 소리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이윽고 점잖은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난 이 할머니가 단지 무공이 뛰어난 고수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할머니는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군주 낭자는 문무쌍전하시고, 수하에는 많은 기재이능지사(奇才異能之士)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금화파파 하나쯤이야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그러자 조민은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망망대해에서는 나의 수하에 있는 무사들을 소환하지 못해요."

"밥을 짓는 부엌떼기들과 돛을 끄는 사공들은 강호의 일류 고수라고 할 순 없어도 이류는 될 게 아니오?"

그러자 조민은 멈칫거렸다. 이윽고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정말 탄복했어요. 장교주의 안력은 정말 놀랍군요."

그녀는 왕부에 돌아가서 금은과 말을 끌고 올 때, 몰래 위사(衛士)에게 분부해서 한패의 부하들을 해변으로 이동시켜 놓았다. 이 사람들은 쾌마(快馬)로 달려가서 장무기와 소조보다는 반나절이나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녀가 이동시킨 사람들은 모두 반안사의 일전에 참가하지 않아서 장무기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조민은 그의 말을 듣자 이미 그에게 간파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 금화파파의 눈은 더욱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자기편에는 사람이 많고 세력 또한 막강했다. 더구나 무공이 고강한 장무기도 있다. 그녀가 설사 간파해서 싸우게 되더라도 별로 겁날 것은 없었다. 그녀가 가만히 있는 한 계속 모른 체하기로 했다.

요 며칠 동안 장무기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지약이 금화파파의 그 환약을 복용했기에 독성이 발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다. 조민은 그가 이마를 찌푸리고 있는 걸 보자 그의 속셈을 눈치챘다. 그러자 사람을 상창(上艙)에 파견해서 차와 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가장해서 동정을 살피라고 하였다. 매번 들

어와서 보고할 때는 주낭자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이처럼 몇 번 지나자 장무기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선면(船面) 위에서 한 차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바로 사공이 내려와서 보고했다.

"앞에 육지가 보이는데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조민과 장무기는 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수 리 밖에는 나무가 우거진 큰 섬이 있었다. 배는 바람을 잔뜩 먹었기에 곧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잠시 후 섬에 당도했다.

전선(戰船)이 미처 정박하기 전에 갑자기 산등성이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이 외치는 소리가 몹시 귀에 익기 때문이다. 바로 의부인 금모사왕 사손의 음성이었다. 십여 년을 헤어졌지만 의부의 웅풍(雄風)이 옛과 다름없는 것을 보자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얼른 사다리로 올라가서 선미(船尾) 쪽으로 가더니 소리를 발출한 산등성을 바라보았다.

이때 네 명의 남자가 병기를 손에 쥐고, 체격이 거대한 사람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맨 손으로 적을 맞이하였다. 바로 금모사왕 사손이었다. 장무기가 의부를 보니 비록 눈은 장님이고 일 대 사로 싸우고 있었으나 전혀 그들에게 놀리는 감은 없었다. 그는 의부가 남하고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 몇 초를 보았지만 매우 기뻤다.

'왕년에 금모사왕이 위진천하한 건 과연 헛소문이 아니구나. 의부의 무공은 청익복왕보다 한 수 위라서 나의 외할아버지와 비슷한 것이다.'

그 네 사람의 무공도 보통내기는 아니었다. 선미에서 산등성을 올려다보니, 네 사람의 얼굴은 똑똑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누더기 옷하며 등에 포대(布袋)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개

방의 인물인 것 같았다. 옆에는 다른 세 사람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윽고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도룡도를 내놓아라..... 널 살려주마..... 보도와 너의 목숨을 바꾸는 것이다....."

산간의 가벼운 바람이 그의 말소리를 간간이 끊으면서 전해 왔다. 이 사람들의 저의는 도룡보도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윽고 사손이 큰 소리로 웃어대며 말했다.

"도룡도는 나의 신변에 있다. 개방의 더러운 도적들아, 재주가 있으면 뺏어 보아라!"

그는 말을 하면서도 손발의 초수는 전혀 늦추지 않았다.

금화파파의 몸이 한 번 휘청거리더니 이미 물가의 언덕에 올라갔다. 기침을 몇 번 하면서 말했다.

"개방의 군협(群俠)이 영사도에 광림했으면 나하고 말을 해야지, 뭣 때문에 영사도의 귀빈에게 귀찮게 구는 것이냐?"

그러자 장무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섬은 과연 영사도구나. 금화파파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나의 의부는 그녀가 모셔온 손님 같구나. 나의 의부는 왕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빙화도를 떠나 중원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금화파파의 부탁을 받고 그가 바로 돌아왔을까? 금화파파는 또 어떻게 의부, 그 어르신네의 소재를 알게 되었을까?'

마음속에는 삽시간에 수많은 의문이 생겼다.

산등성이에 있는 네 사람은 이 섬의 주인이 당도한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져서 사손에게 더욱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곧 무학 중의 큰 금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사손은 장님이기 때문에 적의 병기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아서 적을 응대하는 것이다. 이 네 사람의 출수가 빨라

지자 바람소리가 더욱 커졌다. 사손은 길게 한 번 웃더니 평 하고 일권을 한 사람의 앞 가슴에 적중했다. 그 사람은 길게 비명을 지르며 산등성이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두개골이 깨지면서 뇌장이 낭자했다.

옆에서 진을 치고 있던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소리쳤다.

"물러서라!"

가볍게 나부끼는 일권을 후려쳤다. 권력은 약유약무(若有若無)하였다. 이는 사손이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과연 주먹이 사손의 몸 앞에 가까이 똑바로 다가가자 그는 그제서야 발각되면서 급히 응초(應招)했다. 이미 수족이 양난되어 매우 낭패하였다. 먼저 싸웠던 세 사람은 물러나고 옆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 노자가 다시 전단(戰團)으로 가입했다. 이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타법과 똑같았다. 그 역시 출장이 가볍고 유연했다. 수초가 지나자 사손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졌다.

금화파파가 소리쳤다.

"계장노(系長老), 정장노(鄭長老), 금모사왕이 눈이 불편한 줄 알면서 그처럼 비겁한 수단을 쓰다니, 강호에 이름있는 영웅이라 할 수 없겠군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녀의 엉성한 걸음을 보면 마치 산바람이 불기만 하면 밑으로 내동댕이쳐질 것 같지만, 몸의 이동은 매우 신속했다. 주아가 뒤에 바짝 다가갔으나 오히려 한참 낙후되었다.

장무기만 의부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조민도 따라 올라오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 노파가 있는 한 사왕에게는 위험이 없을 거예요. 당신은 출수할 필요 없으니 숨는 게 시급해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아의 뒤를 따라갔다.

네 사람은 잠깐 사이에 산마루에 도착했다. 사손의 양손 출초는

매우 짧으면서 수비만 하고 공격하지 않았다. 적의 권각(拳脚)이 가까이 공격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소금나수(小擒拿手)로 막아냈다. 이러한 타법은 일시적으론 염려할 것 없지만,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으려면 몹시 힘들었다.

장무기가 한 그루의 큰 소나무 밑에서 의부를 바라보니, 얼굴은 주름 투성이고 머리도 거의 모두 하얗게 되었다. 그날 헤어질 때보다는 훨씬 더 늙었다. 아마 이십여 년 동안 혼자서 황도(荒島)에 살아서 몹시 고생한 것 같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마음이 몹시 아팠다. 참다 못해서 그를 대신하여 적을 처치할 생각이 굴뚝 같았다. 조민은 그의 마음을 알았다.

이윽고 금화파파의 말소리가 들렸다.

"계장노, 당신의 음산장대구식(陰山掌大九式)은 강호에 펼쳤는데, 뭣 때문에 슬며시 연장초식으로 바꾸는 것이오? 정장노는 더욱 형편 없구료! 당신은 회풍불류권(廻風拂柳拳)을 몰래 팔궤권중에 숨겼으니 금모사왕 사대협은 알 도리가 없죠..... 콜록 콜록....."

사손은 적의 초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는 몹시 손해였다. 더구나 그 계, 정 두 장노는 몹시 교활해서 출초할 때 일부러 변식하여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금화파파가 이처럼 허를 일러주게 되자 그는 짐작하게 되었다.

사손은 정장노의 권법이 미처 바뀌기 전에 몸을 타서 훅! 하고 일권을 후려쳐서 마침 정장노가 공격한 일권을 막아냈다. 정장노는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서야 몸을 똑바로 가눌수가 있었다. 계장노는 옆에서 장풍을 휘두르면서 보호했다. 이는 사손이 추격(追擊)할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장무기가 개방의 두 장노를 바라보니, 그 계장노는 키가 작았고 뚱뚱했다. 얼굴이 블그스름한 것이 마치 도살장의 백정같았다. 그 정장노는 비쩍 말랐으며 얼굴에 채색이 있는 것이 영낙없는

개방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등에는 모두 여덟개의 포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멀리 서 있는 삼십 세 정도의 청년도 개방의 복장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옷가지는 매우 청결하였다. 등에는 역시 여덟개의 포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나이에 개방의 팔대(袋)장노가 되었다는 것은 꽤 드문 일이다. 갑자기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금화파파, 당신은 옳게 사손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구두(口頭)로 도와주는 건 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금화파파는 냉랭하게 말했다.

"각하도 개방 중의 장논가요? 노파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 뵈었소."

"소인은 새로 개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파파는 의당 모를 것이오. 소인의 성은 진(陣)이고, 이름은 우량(友諒)이라고 합니다."

금화파파는 혼자 중얼거렸다.

"진우량, 진우량, 진우량, 못 들어봤다!"

갑자기 크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장노의 왼팔에 사손의 일권이 다시 적중되었다. 그러자 옆에서 관전하는 세 명의 개방 제자들은 다시 병기를 빼앗아 다가가면서 위공(圍攻)하였다. 이 세 사람의 무공은 계, 정 두장노보다는 못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다. 그러나 사손은 장님된 후 한번도 남하고 싸우지 않아서 경험이 없었다. 오늘 처음 강적을 만난 것이다. 적들은 권각에다 병기까지 쓰고 있으니 소리가 혼란되어 방향을 분별하지 못했다. 잠깐 사이 어깨에 일권이 적중되었다.

장무기는 정세가 다급해진 것을 보고 막 출수하려는데 조민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금화파파가 구해줄 거예요."

장무기는 잠깐 주춤했다. 금화파파를 바라보니 그녀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으며 살짝 냉소를 보일 뿐, 다가가서 구해주지는 않았다. 바로 이때 사손의 왼쪽 다리가 다시 정장노에게 무섭게 걷어채였다. 사손은 휘청하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장무기의 수중에는 벌써 일곱개의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때 참지 못해서 오른손을 일진(一振)하여 일곱개의 작은 돌을 다섯 사람에게 나누어서 공격했다. 돌이 미처 그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갑자기 검은 빛이 번뜩거리더니 지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세 가지 병기는 즉시 잘라졌고, 다섯 사람 중 네 사람은 일제히 몸통이 잘라지면서 여덟 토막으로 되었다. 여덟 토막의 몸뚱이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산기슭 밑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정장노만 왼팔이 잘라지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등에는 장무기가 격출한 돌 두 개가 박혀 있었다. 그 네 개의 잘려진 몸에도 모두 돌이 박혀 있었다. 다만 칼에 먼저 베였고 돌은 나중에 박힌 것이다.

이 갑작스런 변고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사손의 수중에는 거므스름한 대도가 한 자루 쥐어져 있었다. 바로 <무림지존>이라고 부르는 도룡보도였다. 그는 칼을 들고 산마루에 서 있었다. 위풍당당한 것이 마치 전신(戰神) 같았다.

장무기는 어려서부터 이 대도(大刀)를 보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예리하고 위맹(威猛)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금화파파가 수다스럽게 말했다.

"무림지존 보도도룡, 무림지존 보도도룡!"

정장노는 팔이 잘리자 아파서 마치 돼지 멱따는 소리로 크게 소리지르고 있었다.

진우량은 창백한 얼굴을 하며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사대협의 개세무공(蓋世武功)엔 정말 탄복했소이다. 이분 정장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인의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사대협은 손을 쓰시오."

이러한 말이 나오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이 사람의 의기가

이처럼 심중(深重)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장무기도 그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손이 말했다.

"진우량, 음, 그래도 넌 호한(好漢)이구나. 좋다! 이 정가란 자를 데려 가거라."

"소인은 우선 불살지은(不殺之恩)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방에는 이미 다섯 사람이 사대협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인이 십 년 안에 무공의 진전이 있게 되면 다시 와서 오늘의 원한을 갚을 것이오."

"노부가 십 년을 더 살 수 있으면 꼭 기다려 주마."

진우량은 포권을 하며 금화파파에게 인사하면서 말했다.

"개방이 귀도(貴島)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윽고 정장노를 끌어안고 산 밑으로 내려갔다.

금화파파는 장무기에게 눈을 부릅뜨고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의 타혈수법(打穴手法)은 대단히 정확했소. 당신은 뭣 때문에 모두 일곱 개의 돌을 발사했소. 하나는 진우량을, 또 하나는 날 때리려는 것이오?"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의 저의를 간파한 것을 보고 그저 살짝 웃기만 했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사나운 소리로 말했다.

"노인장, 당신의 존함은 뭡니까? 사공으로 가장하여 이 노파를 뭣 때문에 따라왔소? 금화파파의 면전에서 잔꾀를 부리다니 그래도 살고 싶은 것이오?"

장무기는 거짓말하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다. 그녀의 물음을 듣더니 멈칫하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조민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거경방은 항상 바다에서 밥을 찾아 먹고 본전없는 장사를 하고 있소. 노파파께서 많은 금을 내놓으셔서 여기까지 모셔온 것 뿐인데 뭐가 잘못 되었소? 이분 형제는 개방이 자기편 사람이

많다는 걸 믿고 남을 못살게 구는 걸 보다 못해서 출수하여 도운 것인데, 뜻밖에도 사대협의 무공이 이처럼 대단한 줄 정말 몰랐소. 우리가 괜한 일을 한 것 같구료."

그녀는 남자의 음성을 흉내냈으나 듣기에 몹시 귀가 거슬렸다. 그러나 그녀의 화장이 정묘해서 금화파파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사손은 손을 한 번 휘두르며 말했다.

"정말 고맙소. 아하, 금모사왕이 호락평양(虎落平陽)하니까, 오늘은 반대로 거경방의 도움을 받게 되었구료. 강호와 작별한 지 이십 년이 되니까 무림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구료. 내가 구태여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구료."

마지막 몇 마디 할 때는 음성이 의기소침하였다. 이윽고 금화파파가 말했다.

"사삼가(謝三哥), 난 당신이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출수하지 않았소.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죠?"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의 의부에게 <세째 오라버니>라는 말을 하자 약간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의부의 항렬이 세째인 줄 몰랐다. 더구나 금화파파는 그의 의부보다도 더 늙었다. 이윽고 사손이 말했다.

"뭘 이상하게 보고 자시고 하겠소. 당신은 이번에 중원으로 돌아가서 무기의 소식을 들은 적이있소?"

순간 장무기의 가슴은 찡했다. 이윽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손을 힘껏 쥐고 있었다. 이는 조민이 지금 자기가 나가서 상인(相認)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자 금화파파가 말했다.

"없소."

사손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한부인(韓夫人), 그 무기는 확실히 살아 있는 거요?"

그러자 금화파파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주아가 갑자기

말했다.
"사대협....."
금화파파는 왼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힘껏 잡으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았다. 그러자 주아는 더 이상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사손이 다그쳤다.
"은 낭자, 어서 말해 보아라. 너의 파파가 날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주아의 얼굴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금화파파는 우장을 들어 올려서 그녀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았다. 주아가 한 말이 그녀의 비위를 거슬리기만 하면 내력을 토해내서 즉시 그녀의 목숨을 앗을 심산이다.
"사대협, 우리 파파는 당신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원에 갔지만 장무기의 소식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금화파파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자, 우장을 즉시 들어 그녀의 뇌문(腦門)에서 떼었다. 그러나 왼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사손이 말했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소식을 알아 보았느냐? 명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옛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소. 강호의 일은 알아보지도 않았소. 난 단지 내 남편을 해친 두타(頭陀)를 찾아서 복수하려 했소, 또 아미파의 멸절 늙은이를 찾아서 그 일검을 복수를 하려 했소. 나머지 일은 이 할망구의 안중에도 없소."
사손은 화를 내며 말했다.
"잘하는구나. 한부인, 당신은 그날 빙화도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했소? 당신은 나의 장오제(張五弟)부부가 내 은신처를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산에서 사람들에게 강압당해서 자진했다고 하지 않았소? 내 그 무기 아이는 돌봐줄 사람도 없는 고아가 되

어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남에게 설움을 당할 게 아니오? 얼마나 비참하겠소. 안 그렇소?"

"맞습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에게 현명패천장 일장을 얻어맞고 밤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은 호접곡에서 직접 목격했다며, 그가 영사도로 오기를 바랬지만 그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틀림없는 일이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속인다면 하늘이 꾸짖고 땅이 꺼질 것이오. 죽은 내 남편도 지하에서 편치 못할 것이오."

사손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은 낭자, 너의 얘기는 어떠하냐?"

"그 당시 전 그에게 영사도로 가자고 권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손등을 물었습니다. 저의 손등에는 아직도 이빨자국이 남아 있으니 절대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전..... 전 그가 몹시 걱정됩니다."

조민은 장무기의 손을 갑자기 힘껏 끌더니 눈을 부라리고 그를 주시했다. 눈빛에는 비웃기도 하고 원망하는 뜻이 서려 있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얼굴을 붉히며 주아가 자기에게 비상한 정의로 대해준 것이 생각났다. 순간 가슴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갑자기 조민은 장무기의 손을 입가에 끌어가서 그의 손등을 사납게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의 손등은 즉시 선혈을 내뿜었다. 체내의 구양신공이 자동적으로 저항하는 힘이 생겨나자, 조민의 입가는 모두 진파(震破)되어서 덩달아 피를 흘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아픔을 참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장무기는 조민을 쳐다보았으나 그녀가 뭣 때문에 자기를 갑자기 물었는지는 몰랐다. 그녀의 눈은 웃음을 머금고 있으며, 얼굴은 약간 붉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입술 위에는 두 가닥의 가짜 수염을 붙였지만 아리따운 얼굴을 가릴 수는 없었다.

사손이 말했다.

"한부인, 난 무기가 혼자서 떠돌아다니며 고생할까 봐 걱정되어서, 만리 길을 불사하고 빙화도를 떠나 중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오. 당신은 나에게 무기를 탐방하러 간다고 응답하였는데,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오?"

장무기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의부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중원에 돌아온 것이 모두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 장무기를 찾아준다면 당신은 도룡도를 나에게 빌려준다고 했소. 사삼가, 노파의 말은 산처럼 무겁소. 당신이 나에게 칼을 빌려 준다면, 당연히 당신을 위해 그 아이의 확실한 소식을 탐방할 것이오."

사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무기를 먼저 데려오시오. 그럼 칼은 자연히 빌려 줄 것이오."

"날 믿지 못하는 거요?"

"세상의 일은 예측하기 매우 힘드오. 부모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도 어떤 때는 믿지 못할 때가 있소!"

"그렇다면, 칼을 먼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개방의 진우량을 놓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영사도는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오. 게다가 무림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날 찾으러 오게 될 것이오. 금모사왕은 벌써부터 옛날과는 다르오. 이 도룡도 외에는 의지할 게 없소이다. 흐흐흐....."

그는 갑자기 냉소를 몇 번 터뜨렸다.

"한부인, 아까 그 다섯 사람이 날 포위해서 공격할 때 거경방의 호한 그분까지 미리 알고 수중에 돌을 일곱개 쥐고 있었던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날 해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소? 당신이 바라는 건 내가 개방에게 죽어서 보도를 어부지리로 얻으려는 것

이죠? 비록 사손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은 멀지 않았소. 한부인,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소. 사손이 영사도에 온 일은 몹시 은밀한데 개방이 어찌 알게 되었소?"

"나도 자세히 알아볼 참이오."

사손은 손가락으로 도룡도를 한 번 튕기더니 장포(長袍)안으로 집어 넣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기를 탐방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손은 오직 강호로 다시 들어가서 모두 엎어 버리는 수밖에 없겠구료."

말이 끝나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몸을 위로 솟구쳐 어느새 서쪽 산비탈로 걸어 내려갔다. 그는 매우 신속하고 민첩한 걸음으로 섬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 곧바로 갔다.

그 산정(山頂)에는 오두막집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아마 그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금화파파는 사손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개를 돌려 장무기와 조민에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썩 꺼져라!"

조민은 장무기의 손을 잡고 즉시 하산하여 배로 돌아갔다. 이윽고 장무기가 말했다.

"난 의부를 만나러 가겠소!"

"당신 의부가 떠날 때 금화파파의 눈에는 흉악한 빛이 번뜩거렸는데, 당신은 보지 못했나요?"

"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소!"

"내가 보기엔 이 섬에는 많은 간사하고 비밀스런 일이 숨겨 있는 것 같아요. 개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사도에 오게 되었죠? 금화파파는 어떻게 빙화도를 찾아 갔을까요? 이 중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이 가서 금화파파를 일장에 죽

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난 금화파파를 죽일 생각은 없소. 단지 의부께서 날 너무나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오. 난 즉시 그를 만나러 가겠소."

조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십여 년도 헤어져 있었는데 하루 이틀은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장공자, 우리는 금화파파를 방어해야 되겠지만 진우량도 방어해야 해요."

"그 진우량 말이오? 그 사람은 의리를 중요시하는 대장부가 아니오?"

"당신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날 속이는 게 아니죠?"

장무기는 이상히 여기며 말했다.

"뭣 때문에 당신을 속이겠소? 그 진우량은 정장노의 죽음을 대신 자처하지 않았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오."

그러자 조민은 그를 주시하며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장공자, 당신은 명교의 교주이며 사납고 교만하고 불순한 수많은 영웅호걸을 통솔해야 하며, 수많은 대사를 도모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쉽게 사람에게 기만당하면 정말 큰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기만당하다니?"

"그 진우량은 분명히 사대협을 기만했어요. 당신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알아채지 못했어요?"

장무기는 펄쩍 뛰었다.

"그가 나의 의부를 기만했단 말이오?"

"당시 사대협께서 도룡도를 한 번 휘둘러 대자 개방의 고수는 네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은 부상당했소. 그 진우량의 무공이 제아무리 높아도 도룡도의 일할(一割)은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처지에 놓여있을 땐 무릎꿇고 비는 수밖에 없소.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사대협께서는 자기의 행적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니, 설령 진우량이 절을 삼백번 하더라도 사대협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소. 그러니 인협중의(仁俠重義) 말고 더 좋은 위장 방법이 있겠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장무기 손등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자기의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아주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진우량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보니, 과연 틀린 곳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 진우량의 전혀 거짓없는 표정을 회상하더니 여전히 반신반의(半信半疑)하였다. 이윽고 조민이 다시 말했다.

"좋아요. 내 당신에게 다시 묻겠소. 그 진우량이 사대협에게 말을 할 때 그의 양손과 양발은 어떠했어요?"

장무기는 그 때 진우량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과 의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기에 진우량의 손, 발에는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온몸 자세는 눈에 선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역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조민이 자기에게 묻자 당시의 정경이 다시 뇌해(腦海)에 새로 펼쳐졌다.

"음, 그 진우량의 오른손은 약간 들어올리고 왼손은 가로 흔들었다. 그건 <사자박토(獅子搏兎)> 일초다. 그의 양 다리는 음, 맞다 이건 <강마탕두식(降魔湯斗式)>이다. 그건 모두 소림파의 권법이다. 하지만 별로 대단한 초수라 할 수 없소. 그렇다면 그는 의부에게 사정하는 척하면서 도습하려는 것이란 말이오?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오. 그 두 가지 초식은 별로 쓸모가 없소."

그러자 조민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공자, 당신은 세상의 민심이 얼마나 험악한지 도무지 아는게 없구료. 그 진우량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대협을 도습한다는 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총명함과 기경

(機驚)함은 실로 일류급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가장한 의기심중한 잔재주가 사대협에게 간파되어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당시 그의 서 있는 위치로 봐서 강마탕두식은 누구를 걷어차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박토 일초는 누구를 잡으려 하는 것이죠?"

장무기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우량의 계략은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막상 조민이 일침을 놓자, 뇌리에는 뭔가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이윽고 식은땀이 나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 그의 일각(一脚)은 땅에 누워있는 정장노를 차려했고, 출수하여 잡으려 하는 건 은 낭자였소."

그러자 조민은 생긋 웃으며 말했다.

"틀림없어요. 그는 정장노를 발로 걷어차서 사대협 몸 앞으로 날아가게 한 다음, 다시 그 은 낭자를 잡아서 사대협 몸 앞으로 미는 것이오. 이처럼 시간을 약간 벌면 그는 기회가 생겨서 혹 도피해서 목숨은 부지할 줄 모르지 않아요? 비록 사대협이 무공이 뛰어나고 보도도 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은 성공률이 높아요. 난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어요. 그 자는 잠깐 사이에 그처럼 임기웅변하다니 실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칭찬을 금치 못했다.

장무기는 생각할수록 섬찝한 느낌이 들었다. 한참 지나서야 말했다.

"조 낭자, 당신은 한눈에 그의 속셈을 바로 꿰뚫었으니 당신은 그보다 더 대단하구료."

조민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날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만약 나의 마음 씀씀이가 험악하여 겁난다면 차라리 날 멀

찌감치 피해 있는 게 상책이라 생각해요."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소. 당신이 나에게 많은 계략을 행했기에 난 모든 일에 방어하고 있소."

조민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손등에 독약을 발라주었는데 어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과연 상처 부위는 약간 마비되고 간지러운 것 같으면서 몹시 이상했다. 얼른 손수건을 찢어 버리고 코에 대고 맡아보더니 그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장무기는 얼른 선미(船尾) 쪽으로 달려가서 깨끗한 물로 상처난 곳을 씻었다. 조민은 뒤를 따라가서 웃음을 띄우며 그가 씻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그녀의 어깨를 밀면서 괴로워하며 말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오! 뭣 때문에 이처럼 고약한 장난을 하는 거죠? 남은 아프지 않는 줄 아오?"

조민은 깔깔 대며 웃었다.

"난 당신이 고통당할까 봐 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장무기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식거리며 선창 안으로 돌아가면서 두 눈을 감았다. 조민이 따라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장공자!"

장무기는 자는 척했다. 조민은 다시 두 번을 불렀으나 그는 아예 코를 골았다. 그러자 조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독약을 발라서 그의 개같은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게 훨씬 좋았을걸."

장무기는 눈을 뜨더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의 손등을 한 번 물어서 평생 날 잊지 못하게 할 것

이오."

 이윽고 그녀의 왼손을 잡고 입에 가져다 대었다.

 조민은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갔다. 하마터면 소조와 정면 충돌할 뻔했다. 조민은 깜짝 놀랐다.

 '아차, 나와 그의 대화를 이 계집이 다 들었을 것이다. 아유, 창피해!'

 그만 얼굴을 붉히며 갑판으로 뛰어갔다. 소조는 장무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공자님, 금화파파와 그 못생긴 낭자는 저쪽으로 지나갔는데, 두 사람은 모두 큰 자루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섬 북쪽에 있는 그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느냐?"

 "아닙니다. 그들 두 사람은 줄곧 북쪽으로 갔으나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다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금화파파는 몹시 화가 나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무기는 선미 쪽으로 다가갔다. 멀리 조민이 뱃머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 몸을 뒤로 돌리지 않았다. 한참 후 태양이 서쪽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선창으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저녁을 먹고 나서 조민과 소조에게 말했다.

 "난 의부를 살펴보고 올 것이니 당신들은 배에 남아 있으시오. 사람이 많으면 금화파파에게 발각될지 모르니까."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예 일경(一更)을 더 기다렸다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그 때 가세요."

 "알겠소."

 그는 의부를 걱정하고 있기에 심혈이 마치 부글부글 끓는 것 같

았다. 이 일경은 정말 기다리기 힘들었다. 마침내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지자, 그는 일어서더니 조민과 소조에게 살짝 웃으며 창문쪽으로 갔다. 그러자 조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의천검을 풀면서 말했다.

"장공자, 이 검을 지니면서 몸을 방어하세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오. 웬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료."

"뭘 걱정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소. 금화파파의 계략은 예측할 수 없고, 진우량 또한 귀계다단(鬼計多端)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신 의부마저 당신이 그 <무기 아이>란 걸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지 않아요..... 이 섬은 영사(靈蛇)라 칭하니, 혹 섬에 무슨 무서운 독물(毒物)이 있을지 모르죠. 더구나....."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장무기가 물었다.

"더구나 뭡니까?"

조민은 자기 손을 들어올리더니 무는 시늉을 하면서 호호 하고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의 사촌누이인 주아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이윽고 손을 흔들면서 선창문을 나섰다. 그러자 조민이 소리쳤다.

"받으세요!"

의천검을 던져준 것이다. 장무기는 검을 받아 들면서 가슴이 찡했다.

'그녀는 의천검까지도 나에게 빌려주면서 날 믿는구나.'

그는 검을 등 뒤에다 꽂은 다음 기를 끌어올리더니 섬 북쪽에 있는 그 산봉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조민의 말을 기억하면서 풀속에 독사와 독충이 숨어 있을까 봐 매끄러운 바위만 골라서 발

을 디뎠다. 잠시 후 산봉우리 밑까지 달려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산봉우리 위에 있는 그 오두막집은 깜깜하니 전혀 등불이 없었다.

'의부께서 이미 주무셨을까? 아니다. 그 어르신네는 장님이니깐 등불이 필요없을 게다.'

바로 이때, 왼편의 산기슭 쪽에서 말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는 몸을 구부려서 소리나는 쪽으로 갔으나 소리는 또 들리지 않았다.

이때 한차례 삭풍(朔風)이 북쪽에서 불어오자 초목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냈다. 그는 바람소리를 타고 질주해 갔다. 그러자 사, 오 장 밖에서 금화파파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아직도 하지 않느냐? 왜 꾸물대는 것이냐!"

주아가 말했다.

"파파,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옛 친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사대협과 당신은 수십 년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빙화도에서 중원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까?"

금화파파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가 날 믿는다구? 정말 우스운 얘기군. 그가 날 믿는다면 뭣 때문에 나에게 도룡도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냐? 그가 중원에 돌아온 건 오로지 의자(義子)를 찾기 위함이다. 나와 무슨 상관 있느냐?"

어둠 속에서 금화파파의 꼬부라진 몸이 어렴풋이 보였다. 갑자기 땡 하고 그녀의 몸 앞에서 쇠붙이와 바위가 부딪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다시 이러한 소리가 났다. 장무기는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발각될까 봐 앞으로 다가가서 보지는 못했다. 이윽고 주아의 말소리가 들렸다.

"파파, 그의 보도를 뺏으려면 정정당당하게 교전(交戰)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소문이라도 나면 천하의 호한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 멸절사태는 이미 죽었는데 도룡도는 또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금화파파는 대단히 화가 났다. 몸을 꼿꼿이 세우면서 사나운 소리로 말했다.

"이년아! 왕년에 누가 네 부친 창 밑에서 너의 목숨을 구해 주었느냐? 지금 어른이 됐다고 파파의 분부를 듣지 않는 것이냐? 그 사손은 너와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닌데 뭣 때문에 그를 감싸주려 하는 것이냐? 어디 그 연유를 파파에게 말해 보아라!"

그녀의 말은 비록 엄준했으나 목소리는 몹시 낮추었다. 마치 산정(山頂)에 있는 사손에게 들킬까 봐 겁내는 것 같았다.

주아가 손에 들고 있는 자루를 땅에다 팽개치자 찰랑찰랑한 차례 소리가 났다. 뒤로 세 걸음을 물러섰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사나운 소리로 말했다.

"꽤 깃털이 많아지니깐 날으려 하는구나, 그렇지?"

"파파, 전 절대로 제 목숨을 구해준 것과 무예를 가르쳐 주신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대협께서는 그..... 는 그의 의부잖아요."

"세상에 너처럼 어리석은 계집도 있구나. 그 장가란 녀석은 서역에 있는 만장심곡(萬丈深谷) 아래로 떨어졌다는 말을 넌 무열, 무청영에게 직접 듣지 않았느냐? 지금쯤 그 장가란 녀석의 시신은 모두 재로 화했을 것이다. 넌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파파, 전 도저히 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무슨..... 무슨 전세의 원(寃) 뭐가 아닙니까?"

그러자 금화파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왕년에 그 애는 우리를 따라서 영사도로 오려 하지 않았다. 설

령 너와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었으면 그만 아니냐? 그가 일찍 죽은 건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 너의 이러한 생김새를 보게 되면 어찌 널 사랑하겠느냐? 넌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몇 마디의 말투는 매우 부드러워졌다. 주아는 묵묵부답 하였다. 아마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다시 말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다. 우리가 잡아온 그 아미파의 주낭자만 해도 그처럼 아름다운데, 그 장가란 녀석이 보게 되면 어찌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녀석을 죽일 것이냐? 흥! 흥! 만약에 네가 그 천주만독수를 연마하지 않았다면 너도 절세가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는 이미 죽었고, 제 얼굴도 훼손되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대협은 여전히 그의 의부입니다. 파파, 우린 그의 솜털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파파, 전 이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은 모두 파파의 말을 듣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주아는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장무기는 혼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명교의 교주로 신임(新任)한 일은 벌써 무림을 진동했는데 어찌 그녀들은 모르고 있을까? 음, 그렇다 그들 두 사람은 먼 빙화도까지 가서 의부를 맞이해 왔으니 왕복 시일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이번에 대도에 왔으나 오자마자 바로 돌아갔으며, 또 사람들과 내왕이 없으니 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못했을 것이다.'

금화파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좋다, 일어나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파파."

"단 그의 목숨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도룡도만은 꼭 탈취해야....."

"그러나....."

금화파파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쳤다.

"다시 또 이러쿵저러쿵하면 파파는 화낼 것이다!"

손을 휘두르자 땡 하는 소리가 다시 났다. 그녀는 양손을 연거푸 휘두르며 점점 멀어졌다. 땡땡..... 소리는 끊임없었다. 주아는 머리를 부둥켜 안고 바위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자기에게 일편단심인 걸 보게 되자 몹시 감동되었다. 잠시 후 금화파파는 십여 장 밖에서 소리쳤다.

"갖고 와!"

주아는 하는 수 없이 자루 두 개를 들고 금화파파가 있는 쪽으로 갔다.

장무기가 앞으로 몇 걸음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바라보니, 정말 너무나 놀라웠다. 세 치 간격으로 칠, 팔촌 길이의 강침(鋼針)이 바위에 꽂혀 있었다.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빛이 번쩍번쩍 났다. 그는 생각할수록 섬찝했고 울화가 치밀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강침을 뽑아 그녀의 음모를 분쇄하려 했지만 마음을 달리 먹었다.

'이 악파(惡婆)가 나의 의부를 사삼가라고 부르는걸 보면, 옛날에 두 사람의 사이는 보통이 아닌 것이다. 우선 그녀가 의부에게 등을 돌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녀의 음모를 격파해야겠다. 오늘 하느님이 장무기를 여기에 있게 했으니, 절대로 의부가 손상을 입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윽고 무릎을 꿇고 바위 뒤에 앉아서 변화를 조용히 관망하기로 했다. 갑자기 바람소리에 마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경공이 고강한 사람이 살며시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한 사람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가왔다. 바로 그 개방의

장노인 진우량이었다. 손에는 만도(灣刀)를 쥐고 있었으나 포대로 칼 빛을 가렸다. 그는 조민이 예상한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 자는 과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윽고 금화파파가 길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 당신을 찾아왔소!"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자기의 행적이 금화파파에게 발각됐는 줄만 생각하였다. 이때 진우량은 길 풀숲 속에 엎드려서 더욱 꼼짝하지 않았다. 이윽고 장무기는 몸을 몇 번 튕겨서 다시 수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의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야만 금화파파가 갑자기 간계를 쓰더라도 얼른 구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쯤 지나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산정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걸어나왔다. 바로 사손이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하산하더니 금화파파와 수장 떨어진 곳에 다가섰다.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화파파가 말했다.

"흐흐! 사삼가, 당신은 옛 친구를 경계하면서 외인에게는 경신(輕信)하는구료. 당신이 낮에 놓아준 그 진우량이 지금 당신을 다시 찾아왔군요."

그러자 사손은 냉랭하게 말했다.

"사손의 일생은 오직 자기 사람들에게 손해보았소. 그 진우량이 날 또 찾아왔다고? 뭣 때문에 왔을까?"

"그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소인을 뭣하러 상대하려 하는 것이죠? 낮에 그의 목숨을 살려줄 때 그의 손발이 어떤 초식을 취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소? 그의 두 손은 사자박토의 초식을 취했고, 발에는 강마탕우식 일초를 취했소. 하하하하!"

사손은 놀랐으나 금화파파의 말일 거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자기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진우량에게 당했다는 것도 알았다. 이윽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손이 사람에게 기만당한 건 이미 처음 있는 일이 아니오. 그런 소인배는 강호에 얼마든지 있소. 하나 더 죽이든 덜 죽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소. 한부인, 당신은 나의 친한 친구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말해 주지 않고 지금 말해 주는 것은 날 약올리는 건가요?"

여기까지 얘기하더니 갑자기 몸을 솟구쳐서 번개처럼 신속하게 진우량의 몸 앞으로 덮쳐갔다. 진우량은 크게 놀라며 칼을 휘두르며 후려쳤다. 사손은 왼손을 비틀어서 그의 수중에 있는 만도를 낚아채면서 팍팍팍! 연거푸 그의 뺨을 세 번 후려쳤다. 오른손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아서 들어올리며 말했다.

"지금 내가 널 죽이는 건 마치 닭 잡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사손은 너에게 미리 말해 둔 게 있다. 그러니 넌 십 년 후에 다시 날 찾아오너라. 만약에 이 섬에서 나와 다시 부딪치게 되면 당장 네 놈의 목숨을 끊어줄 것이다!"

사손은 손을 휘둘러서 그를 던져 버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진우량의 몸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뾰족한 침을 잔뜩 꽂아 놓은 곳이었다. 그의 몸이 떨어져서 침에 찔리기만 하면 금화파파가 밤새도록 설치한 간계가 즉시 발각되는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날려 다가가더니 지팡이를 뻗어 그의 허리쪽을 한 번 받쳐 그를 다시 수장 밖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호통을 쳤다.

"나의 영사도에 한 발자국만 더 밟게 되면 내 너의 개방거지를 백 명을 죽일 것이다. 금화파파가 한 말은 항상 지켜왔다. 오늘 너에게 우선 금화(金花) 한 송이를 하사하겠다!"

왼손을 한 번 올리자 노란 빛이 살짝 번뜩거리더니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진우량 왼뺨의 협차혈에 적중되었다. 그가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야만 기밀 누설을 막을 수 있었다. 진우량은 왼뺨을 누르며 급히 산 밑으로 뛰어갔다.

이때 사손과 침진(針陣)의 거리는 불과 수장 정도밖에 안 되어

장무기는 오히려 그의 등 뒤에 있었다. 장무기는 진우량보다 내공이 훨씬 강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손과 금화파파는 그가 옆에 엎드려 있는 줄도 알아채지 못했다. 금화파파는 몸을 돌리며 칭찬했다.

"사삼가, 당신은 귀로 눈을 대신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군요. 앞으로 중진웅풍(重振雄風)하면 다시 강호에서 이십 년이나 종횡무진할 수 있겠소."

"무기, 그 아이의 확실한 소식만 알게 되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사손에게는 산처럼 많은 혈채(血債)가 있어서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 당연한 것이오. 그런데 강호를 종횡무진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그러자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명교의 호교법왕이 사람 몇을 죽인 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삼가, 당신의 도룡도를 나에게 한 번만 빌려 주시죠?"

사손은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다시 말했다.

"이곳의 행적은 이미 폭로되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소. 내 다른 은밀한 곳을 찾아줄 것이오. 당신은 거기서 몇 달 동안 기거하고 있으면, 내 도룡도로 아미파의 적을 물리치고 나서 당신을 위해 장공자의 행방을 전력을 다해서 알아볼 것이오. 나의 재주로 장공자를 당신 면전에 데려오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오."

사손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사삼가, 당신은 아직도 <사대법왕 자백금청(四大法王 紫白金靑)>, 이 여덟 자를 기억하고 있소? 왕년에 우리가 양교주 수하에 있을 때 응왕 은이가(殷二哥), 복왕 위사가(韋四哥),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보태서 천하를 누비고 다닐 때 누가 감히 우리를 막았소? 오늘날 몸은 비록 늙었지만 웅심(雄心)은 아직 존재하

오. 당신은 자삼노매(紫衫老妹)가 남에게 설움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장무기는 몹시 놀랐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정녕 그녀가 본교 사대법왕의 우두머리인 자삼용왕(紫衫龍王)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처럼 이상한 일도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찌 그녀는 위복왕도 <사가(四哥)>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윽고 사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지나간 일이오. 다시 얘기해야 무슨 소용 있겠소. 늙었소, 여러분은 모두 늙었소!"

"사삼가, 이 십년 동안에 당신의 무공이 크게 진전된 걸 모르고 있었소. 뭣 때문에 또 겸손해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내가 보기에는 명교의 사대법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다시 손을 잡고 후세에 남길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오."

그러자 사손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은 둘째 형님과 위 네째 아우는 지금쯤 모두 살아있지 않을 것이오. 더구나 위 네째 아우의 몸에 있는 한독은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오."

금화파파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오. 솔직히 당신에게 말하는데, 백미응왕과 청익복왕은 지금 모두 광명정 위에 있소."

"그들이 뭣 때문에 다시 광명정에 돌아갔소?"

"이건 주아가 직접 목격한 것이오. 주아는 바로 은이가 오빠의 친손녀죠. 그녀는 부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녀의 부친이 그를 죽이려 했소. 첫 번째는 내가 구해줬지만, 두 번째는 위사가 오빠가 구한 것이오. 위사가 오빠가 광명정으로 데려갔지만, 도중에서 내가 살며시 다시 훔쳐온 것이오. 주아야, 네가 육대문파가 어떻게 광명정을 위공했는지 사삼가에게 얘기해 드려라."

주아는 서역에서 본 일들을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광명정에 올라가기 전에 금화파파가 데려왔기에 나중에 광명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몰랐다. 사손은 들을수록 초조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연거푸 물어보더니 결국은 화를 내며 말했다.

"한부인, 당신은 비록 혼인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불화했으나, 본교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당신은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소? 양교주는 당신의 의부가 아니오? 그가 왕년에 어떻게 당신을 대해 주었는지 모두 잊고 있는 거요? 당신도 보시오. 은 둘째 형님과 위 네째 아우, 오산인과 오행기 등 사람들은 모두 광명정에 가서 협력하지 않았소!"

그러자 금화파파는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도룡도를 얻을 수 없으면 끝내는 아미파의 멸절 늙은이의 수하대장이오. 설령 광명정에 가더라도 그녀와 싸울 면목이 없는 것이오. 그러니 가봤자 헛걸음밖에 더 하겠소?

두 사람은 묵묵히 마주하고 있었다. 잠시 후 사손이 금화파파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날 나의 소재를 어떻게 알았소? 뭣 때문에 숨기려 하는 거요? 무당파 사람이 얘기해 준 거요?"

"무당파 사람들이 어찌 압니까? 장취산 부부는 자결을 하면서도 당신의 은신처를 말하지 않았는데 무당 문하가 어찌 알겠소? 좋소, 오늘 모든 걸 다 털어놓겠소. 내가 서역에서 이름이 무열이란 자와 부딪쳤소. 그는 무삼통의 자손이오. 난 그와 딸아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들에게 지독한 형벌을 가해서 입을 열게 했죠."

사손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무가란 자가 나의 무기 아이를 만났었습니까? 아마, 그는 어린애를 속여가며 비밀을 알아냈을 것이오."

장무기는 이 말을 듣자 몹시 부끄러웠다. 왕년에 자기가 주가장에서 농락당한 일이 생각났다. 만약에 의부가 그 일로 인해서 간인(奸人)의 수중에 떨어졌다면, 자기는 만 번 죽더라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의부의 눈은 멀었지만 그 일을 추리하기는 마치 직접 목격한 듯 했다. 이윽고 사손이 다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육대파가 명교를 위공했다면 보통 일은 아니오. 우리 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명교의 흥쇠존망(興衰存亡)은 이 늙은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 지 오래 되었소. 왕년에 광명정에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를 몰아세운 일은 당신은 전부 잊었지만, 이 늙은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소. 그 당시 양교주와 당신만이 나에게 잘 대해 주었죠. 나도 잊지 않고 있소이다."

"아하, 사사로운 원한은 작은 일이고 교를 보호하는 게 큰 일이오. 한부인, 당신의 속도 몹시 좁구료."

"당신은 남자 대장부지만 난 도량이 좁고 작은 아녀자예요. 왕년에 내가 파문출교(破門出敎)할 때 맹세코 명교와는 인연을 끊기로 했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 호청우가 어떻게 날 외인으로 취급하겠소. 호청우는 내가 살해했소. 자삼용왕은 벌써부터 명교의 대계(大戒)를 범했소. 그러니 나와 명교는 무슨 관계가 있겠소?"

사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부인, 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소. 당신이 도룡도를 빌리려 하는 건 말로는 아미파를 상대한다지만, 실상은 양소와 범요를 상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오? 당신이 줄곧 잊지 못한 건 광명정의 비도(秘道)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난 더욱 빌려 줄 수 없소!"

그러자 금화파파는 기침을 몇 번 하면서 말했다.

"사삼가, 왕년에 당신과 나의 무공 고하(高下)는 어떠했소?"

"사대법왕은 각자 특기가 있소."

"오늘날 당신은 두 눈을 못 쓰게 되었소. 다시 이 늙은이하고 겨룬다면....."

그러자 사손은 앙연히 외쳤다.

"당신은 무력으로 칼을 빼앗으려는 거요? 사손은 도룡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 눈 몫은 할 것이오!"

그는 숨을 한 모금 길게 마시더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실명된 한 쌍의 눈동자를 금화파파에게 조준했다. 위풍당당하였다.

주아는 겁을 먹어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금화파파는 몸을 구부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간간이 한, 두 번의 기침을 하였다. 마치 사손이 손을 뻗기만 하면 당장 그녀를 일도에 두 동강이 낼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사손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그녀의 배명(排名)이 자기 외조부, 의부와 위복왕보다 높으니 무공도 당연히 한 수 위라는 생각을 하자, 은근히 사손을 걱정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서 있는 거리는 불과 일장 정도였으나, 누구도 먼저 출수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난 후 사손이 갑자기 말했다.

"한부인, 오늘 당신이 날 억압하여 꼭 출수하게 하는 건, 우리 사대법왕이 옛날에 결의를 맺은 언약을 위배하는 일이라 사손은 몹시 괴롭소."

"사삼가, 당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걸 난 예전에 미처 몰랐소. 무림에 있는 그 수많은 영웅호걸들은 모두 당신이 손수 살해했잖소!"

그러자 사손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난 부모처자와 원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소. 내 평생 최대의 실수는 바로 칠상권 십삼초를 연발하여 소림파의 공견신승을 격패한 일이오."

금화파파는 깜짝 놀랐다.

"진정 공견신승이 당신 손에 죽었소? 당신은 언제 그처럼 무서운 무공을 연성했죠?"

그녀는 사손에게 퍽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겁낼 것 없소! 공견신승은 맞기만 했지 저항은 하지 않았소. 그가 끝없는 불법을 전개했더라면 나 같은 사마외도는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이오."

금화파파는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다.

"그럼 그렇지. 이 늙은이는 공견신승보다 못하니 구, 십 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늙은이를 요리하게 되겠군요."

사손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갑자기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한부인, 옛날 광명정에서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잘 대해 주었소. 그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필이면 안사람도 산후 허약하여 거동이 불편했는데, 당신이 한 달 넘도록 날 정성스럽게 보살펴 준 것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소."

그러자 금화파파는 처량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옛날 일들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료."

사손은 앙천대소하더니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무기는 의부가 자기 때문에 상심하는 것을 보게 되자 참다 못해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금화파파의 말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삼가, 당신의 그 의자 장무기는 이미 죽었는데. 뭣 때문에 그 도룡보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차라리 나에게 빌려 주시죠?"

사손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날 너무나도 기만하였소. 보도를 탈취하고 싶으면 먼저 날 죽이시오!"

이윽고 지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장포의 앞깃을 찢어내서 금화파파에게 던져 주었다. 이것은 할포단의(割袍斷義)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나가서 진상을 설명할 때가 됐구나. 그래야만 두 사람의 의기(義氣)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장무기는 이처럼 생각을 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왼쪽 멀리 떨어진 긴 풀숲 사이에서 경미한 숨소리가 몇 번 전해 왔다. 비록 거리가 멀고 숨소리도 몹시 가벼웠으나, 장무기의 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뇌리에 번뜩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금화파파가 몰래 매복시켜 놓은 자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아직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윽고 도풍(刀風)이 휙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손과 금화파파의 격전이 시작되었다.

사손은 보도를 휘두르며 마치 흑룡처럼 그녀의 몸 주위를 맴돌았다. 갑자기 빠르게, 갑자기 느리게 초수를 변화시키는데 마치 귀신 같았다. 금화파파는 보도가 예리한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멀찌감치 그의 몸 옆을 돌기만 했다. 사손에게 간간이 빈틈이 보일 때마다 금화파파는 서슴없이 공격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보도를 돌려서 후려치면 금화파파는 얼른 교묘하게 피하곤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무공을 잘 알기 때문에 일, 이 백 초안에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자기들의 유리한 점을 십분 발휘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만 했지 초수와 내력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

갑자기 휙휙 두 번의 소리와 함께 노란 빛이 번뜩거리더니, 금화파파의 두 송이 금화가 발출되었다. 사손이 도룡도를 한 번 돌

리자 두 송이 금화는 모두 보도에 붙어 버렸다. 금화는 순강(純鋼)으로 주조했고, 겉에는 황금으로 도금한 자성(磁性)을 지녔다. 그러기에 쇠붙이를 만나는 즉시 붙어 버리는 것이다. 뜻밖에도 이 도룡도는 다른 모든 암기의 극성(剋星)이었다. 금화파파는 좌우로 여덟 송이 금화를 연발했으나 모두 도룡도에 붙어 버렸다. 갑자기 금화파파는 기침을 한 번 하더니 한 주먹의 금화를 뿌렸다. 모두 열여섯, 열일곱 송이나 되었다. 그러자 사손은 소매자락으로 일곱, 여덟 송이를 말아 버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도룡도에 붙었다.

"한부인, 당신의 호칭이 자삼용왕이기에 이름 자체가 이 보도의 기위(忌緯)를 범한 것이오. 만약 다시 연전(戀전)하게 되면 그대에게는 불리할 것이오."

그러자 금화파파는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나의 이 살사장(殺獅掌)이 눈먼 사자(獅子)를 먼저 죽여 버릴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즉시 훗 하며 일장을 후려쳤다. 사손은 어깨를 재빨리 피했으나 발 밑이 갑자기 휘청하였다. 순간 아!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일장은 그의 왼쪽 어깨에 적중되었다. 비록 힘이 반이상은 감소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볍지는 않았다.

장무기는 사손이 일부러 피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일장을 얻어맞는 것을 보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의부는 왼쪽 소매자락에 있는 금화를 뿌리고 다시 도룡도로 천산만수(千山萬水) 일초만 전개하면, 금화파파는 보도의 예리한 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필시 왼쪽으로 더 물러날 것이다. 연거푸 두 번 물러날 때 의부가 내력으로 도룡도에 있는 금화를 발사하면 금화파파는 막을 힘이 없어서 멀리 피하며 중상을 입을 것이다.'

과연 노란 빛이 번득거리더니, 사손은 왼쪽 소매자락에 말려 있

는 금화를 뿌렸고 금화파파가 얼른 왼쪽으로 후퇴하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는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이구, 큰일났다. 금화파파는 장계취계(將計就計)하는구나!'

사손은 대갈일성(大喝一聲)하며 보도에 붙어 있는 십여 송이의 금화를 재빨리 앞으로 발사했다. 그러자 금화파파는 아이구! 하며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다리가 한 번 휘청하면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사손은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이미 할포단의한 사이라 전혀 봐주지 않았다. 이윽고 몸을 솟구치더니 보도를 휘두르며 금화파파에게 후려치며 갔다. 갑자기 주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심하시오. 발 밑에는 뾰족한 침이 있소!"

사손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으나 자세를 거두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윽고 획획! 하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십여 송이의 금화가 일제하 날아왔다. 금화파파는 그의 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끔 해서 양발이 뾰족한 침에 떨어지도록 할 속셈이다. 사손은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휘두르며 금화를 막았다. 갑자기 발 밑에서 탱탱 하는 소리가 몇 번 들리면서 그의 양발을 착지했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굽히고 더듬어보니 사방에 있는 바위에는 모두 칠, 팔 촌(寸) 길이의 강침이 이미 사람이 돌을 던져서 부러뜨려 놓았다. 그 돌을 던져 강침을 부러뜨린 경세(勁勢)를 들어보니, 바로 낮에 일곱 개의 돌을 던졌던 그 거경방의 소년이었다. 그 자는 옆에서 몰래 보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발 밑에 이미 중상을 입고 금화파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손은 뇌리에 이러한 생각이 스치자 등에는 식은땀이 한 차례 흘렀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사용했다. 사손은 어깨에 일장을 얻어 맞았고, 금화파파 몸에도 두 송이 금화가 꽂

혀 있었다. 비록 급소에는 모두 맞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경력으로도 그리 가벼운 상처는 아니었다. 금화파파는 심하게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장무기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서 말했다.

"거경방의 녀석아! 넌 뭣 때문에 늙은이의 대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냐? 어서 이름을 대라!"

장무기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노란 빛이 번뜩거리더니 주아가 윽!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가슴에는 세송이 금화가 꽂혀 있었다. 금화파파는 장무기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자, 자기가 주아에게 출수하게 되면 그가 필히 막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는 척 하며 손을 되돌려서 금화를 발출한 것이다. 장무기는 몹시 놀랐다. 얼른 몸을 위로 솟구치더니 허공에서 금화파파가 발사한 두 송이 금화를 받아 버렸다. 착지하자마자 주아를 품안에 끌어안았다. 주아는 아직 정신이 혼미하지 않았다. 수염달린 남자가 자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얼른 손을 내밀어서 반항했다. 그러나 힘을 쓰게 되자 입에서는 몇 모금의 선혈이 연거푸 쏟아졌다. 그러자 장무기는 손으로 자기 얼굴을 힘껏 몇 번 문지르면서 화장한 것을 지우니 본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자 주아는 멈칫하면서 소리쳤다.

"아우 오빠! 오빠가....."

"그렇소, 나예요."

장무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더니, 즉시 그녀의 신봉, 영허, 보랑, 통곡 등 여러 곳의 혈도를 찍어서 그녀의 심맥을 보호해주었다.

이윽고 사손이 낭랑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각하께서 두 번씩이나 출수하여 구해주셔서, 사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무기는 목이 메이며 말했다.

"의.....의..... 당신께서 구태여....."

제 6 장 한 배에 탄 네 여인(女人)

바로 이때 갑자기 뒤에서 땡! 땡!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세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 백포를 들러 입고 있었고, 중간에서 달려오고 있는 자의 키는 매우 컸고 한 편은 여자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백포에는 모두 불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명교 사람임에 틀림 없었다.

세 사람은 모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그들의 손에는 모두 두 자가 넘는 흑패(黑牌)를 들고 있었다. 그들 중에 키가 큰 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명교의 성화령이다. 호교법왕, 사손은 빨리 나와 무릎을 꿇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

그의 발음은 정확치 못하고 매우 딱딱하게 들렸다.

장무기는 내심 깜짝 놀랐다.

양교주의 유언에 본교의 성화령은 삼십 일 대 석교주 때부터 이미 잃어 버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손에 들어 갔으며, 진짜 성화령인지 아닌지, 또 이들이 본교의 제자들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자 금화파파가 그들의 말에 대답을 했다.

"본인은 이미 파교를 한 지 오래니, 호교법왕이란 네 자는 다시 거론하지 마시오. 당신네들은 누구요? 당신네들은 어디서 왔소?"

"이미 파교를 했다면 어째서 그렇게 꼬치 꼬치 캐묻는 거냐?"

"나 금화파파는 평생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또한 양교주께서 살아 있을 때도 나한테 존대를 했었는데, 너희들은 명교에서 무슨 신분이기에 감히 나 금화파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자 별안간 세 사람의 몸이 움직이면서 금화파파에게 접근하

여 동시에 그들의 왼손이 금화파파를 내리찍는 것이었다.
 금화파파는 재빨리 세 사람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어느새 세 사람은 몸을 움직여 신형(身形)을 변화시켰다. 금화파파의 지팡이는 허공을 휘두르고 목덜미를 똑같이 세 사람의 오른손에 붙잡혀 멀리 내팽개쳐졌다.
 금화파파의 무공에는 천하에 제일 무서운 세 고수가 위공을 한다 해도, 단 일초식에 그의 뒷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칠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 세 백포인들의 보법은 매우 교묘하고 배합도 오묘하여 꼭 한 사람이 팔 여섯 개를 달고 있는 듯했다.
 장무기는 자기도 모르게 엇! 하고 외쳤다. 그러나 세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키가 제일 큰 사람은 파란 눈에 털보였고, 또 한 사람은 노란 수염에 코가 매부리코였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카락은 화인(華人)과 똑같은 검은 색이었으나, 얼굴색은 매우 하얀 것이 거의 백지장과도 같았다. 나이는 약 삼십 세 안팎으로 보였다. 어딘가 괴이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음,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호인(胡人)들이었구나. 그래서 말하는 것도 책 읽듯이 딱딱하게 들렸었구나.'
 털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성화령은 바로 교주나 다름없는데, 사손은 어찌 빨리 나와 무릎을 꿇지 아니 하는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본교의 제자들이라면 나 사손이 당신네들을 알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교의 제자가 아닌 것이니, 성화령과 당신네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오!"
 털보가 다시 외쳤다.
 "명교의 발상지가 도대체 어딘가? 파사국(페르시아)이 아닌가? 그렇지? 내가 바로 파사국의 명교 총단의 유운사(流雲使)이고, 이 두 사람은 묘풍사(妙風使)와 휘월사(輝月使)다. 우리는 총교

주의 명을 받도 파사국에서 중토에 왔네."

사손과 장무기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무기는 양소가 지은 명교유전중토기(明敎流轉中土記)를 본적이 있어서 명교가 파사국에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두 호인임엔 틀림 없고, 거기다 무공과 신법이 모두 이렇게 훌륭하니 거짓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

노란 수염의 묘풍사가 말했다.

"우리 교주께서 중토의 지파 교주가 실종하여 제자들이 서로 잔혹한살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교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운(雲), 풍(風), 월(月) 세 특사를 보내 중토의 교무를 정돈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분의 호령에 따라 조금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장무기는 크게 기뻤다.

'총교주의 호령이라면 정말 잘 됐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 중책을 맡을 필요가 없게 됐으니.'

그러자 사손이 입을 열었다.

"우리 중토의 명교가 파사국에서 전해 온 것은 틀림없으나, 이미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독립된 하나의 명교가 된 지 오래고 또한 파사국 총교의 관할을 받아 온 적이 없소. 세 분이 멀리 우리 이 중토에까지 오신 것을 나 사손은 크게 환영하나, 무릎을 꿇으라 하는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소!"

유운사 직책의 털보가 갑자기 두 손의 흑패를 서로 부딪치자 쨍!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로 보아 흑패는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닌 매우 이상한 물체였다.

"이것은 바로 중토 명교의 성화령이다. 전임 서교주가 칠칠맞게 밖에서 잃어버려 우리가 찾아 왔다. 예로부터 성화령을 보면 교주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손은 이래도 명령을 받지 않겠는가?"

사손이 명교에 입교할 사기엔 성화령을 잃은지 벌써 오래라 그는 한 번도 성화령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화령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많았다. 또한 경전에도 성화령에 대해 많은 소개가 있었다. 또 금화파파를 단번에 내팽개친 그들의 무공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았다.

"소인 존가(尊駕)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

유운사가 왼손으로 손짓을 하자 묘풍사, 휘월사 셋은 동시에 몸을 날려 금화파파 옆으로 접근했다. 그러자 금화파파의 금화가 세 사람을 향해 날아왔다. 세 사람은 가볍게 몸을 움직여 피하며, 휘월사가 재빨리 금화파파의 목을 찌르자 금화파파는 당황하여 지팡이로 그의 손가락을 막으려고 하는 동시에 갑자기 그의 몸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어느새 유운사와 묘풍사에게 뒤를 잡혀 공중으로 틀린 것이다. 휘월사가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연속으로 삼 장을 내리쳤다. 그의 삼 장은 별로 무겁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금화파파는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내심 이 세 사람의 신법이 별로 특출한 점은 발하지 못했지만, 세 사람의 신법 배합은 매우 오묘하다고 느꼈다. 휘월사가 앞에서 적을 유인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어느새 신출귀몰하게 금화파파의 뒤를 잡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공으로 따지면 금화파파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보였다. 휘월사가 내려친 삼 장은 혈도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중토의 점혈 수법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았다.

유운사는 금화파파를 사손 앞으로 내던지고 입을 열었다.

"사왕(獅王), 본교의 교규에 누구든 한 번 입교하면 절대로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자는 파교를 했으니 본교의 반도가 된 것이니, 당신이 이 여자의 머리를 먼저 잘라라."

사손은 크게 놀라며 당황했다.

"중토 명교에는 그런 교규가 없습니다."

유운사가 냉랭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지금부터 중토 명교는 파사국 총교의 호령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파교한 배반자는 언젠가는 화근이 될 것이니 빨리 그녀를 처치하라!"

"명교 법왕이라면 친 남매와 다름없는데, 오늘 금화파파가 아무리 나한테 무정하게 했기로서니 나 사손은 절대로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없소!"

"하! 하! 하!"

묘풍사가 크게 웃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이리 시시콜콜하지? 파교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다니 이게 무슨 교리야. 정말 이상하군!"

"나 사손은 눈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지만, 절대로 동교의 친구를 살해하진 않소!"

휘월사가 입을 열었다.

"꼭 당신이 이 배반자를 처치해아겠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먼저 죽일 것이다."

"세 분이 중토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금모사왕으로 하여금 자삼용왕을 죽이라고 하다니..... 겁을 주기 위해 위엄을 세우려는 겁니까?"

휘월사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네가 두 눈이 멀었어도 머리는 아직 살아 있구나. 그렇다면 빨리 이 배반자를 처치해라!"

사손은 목청 높여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계곡을 진동하는 듯했다.

"나 금모사왕은 같은 교의 친구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철천지 원수라 해도 이미 당신네들한테 붙잡혀 조금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소!"
 장무기는 의부의 이 호통한 말에 내심 갈채를 보내며 앞의 세 사람에게 점점 반감이 우러났다.
 그러자 묘풍사가 말했다.
 "명교 교도라면 그 누구도 성화령을 교주와 마찬가지로 대하는데, 네가 감히 명령을 어기려고 하느냐?"
 "나 사손은 절대로 명교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 명교의 교지는 어디까지나 행선제악하며, 의를 제일 중하게 여기는 교요. 나 사손의 머리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런 졸장부 짓은 하지 않겠소!"
 금화파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손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듣고 있었다.
 장무기는 의부의 생사가 바로 눈앞에 걸린 것을 알고, 주아를 가볍게 땅에 내려놓았다.
 이윽고 유운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명교 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성화령에 불복하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호교법왕이오. 교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먼저 교단을 열어 죄를 공표하고 집행할 수 있소."
 묘풍사가 히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명교가 파사국에서는 아무 탈도 없이 조용했는데, 중토에 들어오자 이렇게 귀찮은 규칙이 많이 생겨 나다니....."
 세 사람은 동시에 휘파람을 불며 사손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사손이 도룡도를 휘두르자 그들은 쉽게 사손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휘월사는 재빨리 달려들어 왼손에 들고 있던 흑패로 사손의 천령혈을 내리치자, 사손의 도룡도와 부딪치며 떵! 하는 매우 괴이한 소리가 들렸다. 도룡도라 하면 그 어떤 물체도 자를 수 있는데, 이 성화령은 조금도 파손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유운사는 왼쪽으로 몸을 굴려 그의 흑패로 사손의 다리를 내리쳤다. 사손이 휘청거리는 사이 묘풍사가 그의 뒤에 서서 흑패를 내리치려는 찰나, 갑자기 손마디가 풀리며 누구에겐가 흑패를 빼앗겼다. 그는 크게 놀라 뒤돌아 보니, 한 소년의 손에 그 성화령이 쥐어져 있는 것이었다. 장무기가 이 성화령을 빼앗은 신법은 정말 쾌속하고도 오묘의 극치였다.

유운사와 휘월사는 그 광경에 격노하여 장무기를 향해 몸을 날려 협공했다. 장무기는 몸을 돌려 왼쪽으로 피하는 사이에 그만 등에 휘월사의 흑패에 적중당하고 말했다. 그 성화령은 매우 견고한 괴이한 물질이라, 그것을 맞은 장무기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으나, 다행히 몸을 보호해 주는 구양신공이 위력을 발휘하여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삼 보를 뛰쳐 나갔다.

그러자 셋은 재빨리 그를 포위하였다. 장무기는 오른손에 흑패를 들고 유운사를 향해 공격하는 척하며 신속히 왼손을 뻗어 휘월사의 성화령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뜻밖에도 휘월사가 갑자기 손을 놓자 성화령이 밑에 튕겨지며 장무기의 손목을 내리쳤다. 장무기는 갑자기 손이 마비되어 들고 있던 성화령마저 떨어뜨리자, 휘월사가 재빨리 채갔다.

장무기는 이미 건곤이위심법을 익히고 거기다 장삼봉에게 태극권의 오묘함까지 전수받아 지금까지 적수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휘월사라는 여자에게 연속으로 당했다. 두 번째는 다행히 구양신공의 힘으로 상대를 막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손목이 벌써 부러졌을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크게 놀라 다시는 적과 정면 대결을 못하고, 그의 초식을 살피기 위해 가만히 서서 그들을 주시했다. 파사국 특사들도 장무기가 두 번이나 적중당하고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자 크게 놀라고 있었다.

묘풍사는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장무기를 향해 부딪쳐 왔다. 이런 타법은 사실 무학의 금기였다. 자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상대에게 들이대는 것이다. 장무기는 필시 무슨 함정이 있을 것을 알고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리가 자기와 가까워질 때 살짝 옆으로 피하자 갑자기 유운사가 몸을 날려 그의 엉덩이로 장무기의 머리를 향해 내려앉는 것이었다. 실로 괴이한 초식이 아닐 수 없었다. 천하의 무학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이런 둔탁한 초식은 본 적이 없었다. 장무기는 다시 재빨리 옆으로 피했는데, 그만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묘풍사의 팔꿈치에 맞은 것이었다. 그러나 묘풍사는 구양신공의 탄력에 뒤로 세 발짝 휘청거리더니 다시 뒤로 세 걸음 물러서서 몸을 가누려고 하다가 다시 뒤로 세 걸음 휘청거리며 물러섰다.

파사국의 세 특사는 그만 모두 놀라 안색이 크게 변했다.

휘월사가 다시 두 손에 성화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유운사는 갑자기 공중에서 세 번이나 제비넘기를 하며 공격해 왔다. 장무기는 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몰라 일단은 피하는 것이 묘수라 생각하고 왼쪽으로 한 발 비켜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렸는가 싶더니, 그만 어깨에 유운사의 성화령을 적중당하고 말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식이었다. 조금도 빈틈이 보이지를 않았다. 분명 유운사의 몸은 공중에서 제비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손을 뻗어 자기를 적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일격에 장무기는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 통증은 구양신공으로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기가 뒤로 물러서면 의부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 그는 숨을 몰아쉬고 나서, 이를 악물고 몸을 날려 유운사의 가슴을 향해 장력을 뻗었다.

유운사도 동시에 몸을 날려 성화령으로 막았다. 장무기의 두 손이 부딪치자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뜬 장무기의 몸이 밀

으로 곤두박질하며 겨드랑이에 통증이 왔다. 이미 묘풍사에게 한 발 차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묘풍사의 몸은 뒤로 튕겨져 나가고, 휘월사의 성화령은 또다시 장무기의 오른팔을 적중하고 말았다.

사손은 옆에서 듣고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 소년이 연속으로 당하며 겨우 지탱하고 있는 데도, 원망스럽게도 자기는 눈이 멀어 그를 도울 수가 없어서 마음만 조급해 하고 있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적과 싸운다면 소리를 들어 상대의 검이나 칼을 피하고 막아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데에는 어떻게 적과 자기편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그는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까워 큰 소리로 외쳤다.

"소협, 이 일은 명교의 일이라 소협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 사손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오!"

"나는..... 나는..... 당신이나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어서 빨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유운사의 성화령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장무기가 자기 성화령으로 그와 부딪치자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유운사는 그 진동에 견디지 못하고 성화령이 손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날렸다. 장무기는 몸을 날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찰나, 찍! 소리와 함께 그의 장심이 찢겨져 나가며 등을 휘월사의 손톱에 할퀴고 말았다. 통증이 스며들며, 그 사이 성화령은 다시 유운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한 사람씩 비교하면 그들의 무공은 장무기에 비해 보잘것 없지만, 세 사람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장무기가 한 사람이라도 중상을 입히지 않는 한 그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사손이 대갈일성하며 도룡도를 안고 뛰어들었다.

"소협, 이 도룡도를 쓰시오."

그리고는 뒤로 다시 물러나는 사이에 그만 묘풍사의 일장이 사손의 등을 적중했다. 그의 장풍은 무형무영하며 소리도 없어 사손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장무기가 도룡도를 휘두르자 세 사람은 다섯 개의 성화령으로 맞서며 서로 엉켜 도룡도를 빼앗으려고 했다. 세 사람의 성화령은 도룡도에 걸려 서로 내공으로 대치했다. 장무기는 가벼운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조금도 그들에게 눌리지 않았다. 내력으로 싸운다면 오히려 파사국의 세 특사는 자기네 약점으로 장무기의 장점을 공격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장무기는 지금 정세로 보아 자신이 세 사람을 제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는 외쳐댔다.

"사대협님, 이 파사국 삼사의 무공이 아무리 괴이하다 해도 소인이 이 자리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서 먼저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 도룡도는 나중에 꼭 돌려 드릴 것입니다."

파사국 삼사는 그가 진력을 다해 내력을 쏟으면서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말을 하는 것에 내심 크게 놀라고 있었다.

"소협의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장무기는 지금 절대로 사손에게 사실도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손은 장무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파사국 삼사와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 분명했다.

"소인은 증아우라 합니다. 사대협께서는 왜 아직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 도룡도를 돌려 드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되어서 그러십니까?"

"하하하! 증소협, 그런 말씀 마시오. 이 늙은 나이에 소협과 같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소협, 나의 칠상권으로 저 여자를 칠 것이니, 내가 힘을 쓰려고 할 때 빨리 도룡도를 버리시오."

장무기는 의부의 칠상권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자기가 도룡도를 손에서 놓는다면 일권에 휘월사를 즉사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파사국 총교와 깊은 원한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사손이 누누이 얘기하기를, 동교의 친구를 살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자기는 총교의 사자를 죽이다니, 그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다.

"잠깐!"

하고 외치고 나서 유운사를 향해 말했다.

"잠깐 휴전하는 게 어떻소? 세 분에게 자세히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유운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무기는 다시 말을 건넸다.

"소인은 사실 명교와 매우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분께서 성화령을 갖고 계시니 나의 손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 동시에 내력을 거두고 싸움을 중지합시다."

유운사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장무기는 기뻐하며 내력을 거두고 도룡도를 거두자, 파사국 삼사도 동시에 내력을 거두었다. 그러나 갑자기 장무기는 가슴에 칼날과 같은 한기가 스며드는 충격을 받았다. 장무기는 재빨리 호흡을 멈추었으나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죽다니. 내가 죽으면 의부께서도 이들의 손아귀를 빠져 나가지 못해. 주아 동생, 주낭자, 조낭자, 소조, 그리고 원나라를 무너뜨릴 대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유운사의 성화령이 자기의 천령혈을 향해 내리치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급하게 내력을 모아 조금 전에 기습당한 옥당혈을 뚫으려고 했으나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여자의 외침이 들렸다.

"중토 명교의 사람들이 달려온다!"

그 소리에 유운사는 놀라 쳐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 회색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와 장무기 허리에 찬 의천검을 뽑아 유운사의 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바로 조민이라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조민의 이 초식을 바로 곤륜파의 살초인 옥쇄금강이었다. 그것은 적과 같이 죽겠다는 타법이었다.

유운사는 이 날카로운 일격에 세 사람이 연합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이 당장 위급한 것을 알고, 황급하게 성화령을 쳐들어 검을 막으며 뒤로 나뒹굴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일어나, 왼쪽 빰을 만져 보니 피가 흐르며 반쪽 수염이 살점과 함께 달아나 있었다. 성화령이 기괴한 물질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의천검에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장무기가 사손을 만나러 갈 때, 조민은 금화파파의 행동이 괴이하고 진우량의 행동은 더욱 의심할 점이 많아 몰래 뒤를 미행했던 것이다.

조민의 의천검이 유운사의 성화령에 부딪쳐 튕겨 나와 자기가 쓴 모자 한쪽이 잘려 나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날려 묘풍사를 향해 공격했다. 그녀의 이번 초식은 공동파의 절초인 인귀동도였다.

이 초식 또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적과 같이 옥석구분(玉石俱焚)하자는 것이다. 이런 타법은 매우 잔혹하여 소림이나 아미와 같은 불문무공에는 이런 초식이 없었다.

묘풍사는 그녀의 무서운 이 공격에 그만 온몸이 싸늘해지며 멍청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로 이 찰나 유운사가 쏜살같이 조민을 뒤에서 끌어 안았다. 조민은 상대에게 붙잡히자 어쩔 줄 몰라 그만 검을 거꾸로 하고 자기의 아랫배를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초식은 정말 더욱 잔혹한 것이었다. 이것은 무당의 천지동수(天地同壽)라는 초식인데, 장삼봉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은

이정이 기효부가 죽고 난 후 그녀를 위해 복수하기 위해서 양소의 무공을 자신이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와 같이 죽기 위해 정성을 쏟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 초식은 바로 자신의 뒤에 바싹 붙은 적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아랫배를 관통한 후 적의 몸을 찌르는 살법이다.

바로 의천검이 조민의 아랫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장무기는 혈도를 뚫고 재빨리 손을 뻗어 의천검을 낚아채었다. 그 순간 조민은 힘껏 뿌리쳐 유운사 품에서 벗어나 재빨리 장무기 손에 있는 성화령을 빼앗아 금화파파가 포진한 바늘진으로 던져 버렸다.

성화령은 파사국 삼사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유운사와 휘월사는 장무기나 조민과 더 이상 싸울 여유도 없었고, 심지어 묘풍사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는지 알 바도 없이 조민이 던진 쪽을 향해 달려가 줏으려고 했다.

그들은 몇 장을 달려가자 그만 바늘진(針陣)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앗! 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휘월사가 그만 예리한 강침을 밟았다. 날은 어둡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들은 어디에 강침이 있고 성화령이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땅을 더듬으며 성화령을 찾고 있었다. 그제서야 묘풍사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정신을 차리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조민은 조금 전에 장무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덤볐지만, 지금 정신이 들자 그만 겁에 질려 응! 하고 소리내며 장무기의 품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장무기는 그녀를 안으며 내심 말을 수 없이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파사국 삼사가 성화령을 찾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자 그는 마음이 조급했다.

"자, 이제 그만 빨리 여기를 피합시다."

그러면서 도룡도를 사손에게 돌려 주고 중상을 입은 주아를 끌어안았다.

"사대협님, 지금은 잠시 저들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손은 허리를 굽혀 금화파파의 혈도를 풀어 주었다. 장무기는 내심 금화파파가 오늘 이 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손의 덕택이므로, 그녀가 사손에게 크게 감사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사손이 대갈일성하며 금화파파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금화파파는 재빨리 피하며 주아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장무기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크게 놀라 그들 앞으로 달려갔다.

"한부인, 왜 또 은 낭자를 해치려고 하는 거요?"

하고 사손이 외쳤다.

금화파파는 냉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신 마음이지만, 내가 이 애를 죽이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그러니 상관 마시오!"

장무기가 그들의 말에 끼어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누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존가(尊駕)께서 오늘 남의 일에 너무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닐 거요. 파사국 삼사가 곧 뒤따라올 텐데, 어서 빨리 여기를 피하지 않고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흥! 하고 금화파파는 서쪽으로 달아나며, 갑자기 뒤에다 세 개의 금화를 주아의 뒤통수를 향해 날리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손가락을 뻗어 금화를 튕기자 화살보다 더 위력 있고 날카롭게 다시 금화파파를 향해 날아갔다.

처음에 장무기가 주아를 안을 때 그만 얼굴에 그렸던 수염이 지워져 금화파파는 그 때 이미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아 내심 이 젊은 소년에게 어찌 이런 무서운 내력이 있을까 하고 놀란 터라,

그는 다시 날아오는 금화를 감히 받지 못하고 재빨리 땅에 엎드려 피했다. 찍! 하는 소리와 금화파파의 옷이 세 군데나 찢겨지며 금화가 날아가자 금화파파는 가슴이 섬찝하여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만 쏜살같이 달아났다.

장무기가 주아를 끌어안는데, 갑자기 조민이 윽! 하고 외치며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움켜 쥐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깜짝 놀라 물었다.

"조소저, 왜 그러시오?"

조민의 손에는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천지동수의 초식을 사용할 때 끝내 자기의 아랫배를 조금 찌르게 되었던 것이다.

"많이 다쳤소?"

그러자 묘풍사의 함성이 들려왔다.

"성화령이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민은 마음이 조급하여 재촉했다.

"저는 상관 말고 빨리 여기를 피하세요."

장무기는 한쪽에 주아를 안고 한쪽에는 조민을 안고 쏜살같이 산 밑으로 달렸다. 사손은 그의 뒤를 따르며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소년은 정말 대단하구나! 두 사람을 안고도 여전히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장무기는 자기 품의 두 소녀 중에 누구 하나가 생명을 잃는다 해도 평생의 한을 남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는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다. 그러나 다행히도 두 소녀의 체온은 따뜻하였다.

파사국 삼사는 성화령을 찾아내자 곧바로 장무기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들의 경공은 장무기나 사손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장무기는 물가에 당도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조민 군주의 명령이다! 빨리 배를 띄워라!"

파사국 삼사가 바닷가에 당도할 즈음엔 배는 이미 수십 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장무기는 조민과 주아를 나란히 선창 안에 눕혔다. 소조는 옆에서 그를 도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펴보니, 조민은 아랫배를 약간 찔려 피를 많이 흘렸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주아는 금화 세 개를 모두 급소에 맞아 살려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장무기는 두 사람에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다.

주아는 이미 오래 전에 기절하여 혼미상태에 인사불성이었다. 조민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아무리 조민에게 병세를 물어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손이 입을 열었다.

"증소협, 나 사손은 세상과 떨어져 살다가 이번에 중토에 다시 돌아와 소협과 같은 의리가 갚은 친구를 사귀어 정말 뜻밖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장무기는 사손을 일으켜 선창의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며 울면서 인사를 올렸다.

"의부! 제가 바로 무기입니다. 좀더 일찍 의부를 모시러 오지 못해 의부께서 고생을 더 하시게 했습니다."

사손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바로 장무기입니다."

사손은 할 말을 잊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장무기는 어렸을 때 사손이 자기에게 전수하던 무결을 외웠다. 그것은 모두 빙화도에서 자기가 직접 장무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무학의 요결이라, 사손은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여 말을 더듬었다.

"네가..... 정말..... 무기가 틀림없느냐?"

장무기는 일어나 사손을 끌어안으며 그 동안 겪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명교의 교주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면 사손이 명교의 직책을 따져 오히려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

사손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

"하느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사공이 외쳤다.

"적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장무기는 재빨리 뒤로 돌아가 보니, 멀리 한 척의 큰 배가 다섯 개의 돛을 달고 바람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적선은 돛을 많이 날아 쏜살같이 달려오며 점점 접근해 오자, 장무기는 조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별 수 없어 파사국 삼사가 이 배로 올라와 그들과 선창에서 싸울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선창 안이 좁으니 세 사람이 합동 작전을 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장무기는 조민과 주아를 한쪽으로 옮겨 놓고 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선채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공이 황급히 외쳤다.

"포격입니다, 포격!"

그러나 다행히 배에 적중하지는 않았다. 조민은 장무기에게 손을 흔들며 낮은 소리로 일러주었다.

"우리 배에도 포가 있어요."

그 말에 장무기는 정신을 차리고 갑판으로 뛰어나가 포를 끌어내게 하고 폭약을 넣고 반격을 개시했다. 조민의 부하들은 비록 무공은 뛰어났지만, 바다에서 포격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해 대포알은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지며 바닷물만 출렁거렸을 뿐 적선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적선에서는 상대에게도 대포가 있다는 것을 알자 겁을 먹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다. 얼마 지나자 적선은 다시 포를 쏘아, 이번에는 뱃머리에 적중하여 곧 큰 불이 붙었다.

장무기가 불을 끄도록 명령하고 나자, 또 위에 있는 선창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 장무기는 큰 물통으로 물을 끼얹고 들어가니, 안에는 주지약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물통을 버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주 낭자, 별일 없습니까?"

주지약은 온 몸이 물에 젖어 매우 조급해 하고 있는 순간 장무기를 발견하자 무척 반가워했다.

그녀가 움직이자 땡그랑! 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모두 금화파파가 쇠사슬을 채워 두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아래로 내려가 의천검을 갖고 와 그것을 모두 잘라 버렸다.

"장교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장무기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선체가 기우뚱하자 그녀는 발을 헛짚으며 그만 장무기의 품 속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발갛게 홍조를 띄었다.

장무기와 주지약이 갑판으로 나오자 배에는 이미 큰 불이 붙어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장무기는 조급하여 사방을 둘러보니, 배 왼쪽에 작은 배 하나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주낭자, 어서 빨리 저 작은 배로 뛰어 내리시오."

이때 소조는 주아를 안고, 사손은 조민을 안고 밑의 선창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작은 배로 뛰어내렸다.

이때 그 배에는 이미 불이 완전히 타올라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장무기는 힘껏 노를 저어 적선이 이 작은 배를 발견하기 전에 빨리 큰 배의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썼다. 그러면 모두 배가 가라앉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다. 한참 노를 저어 큰 배와 멀리 떨어지자 갑자기 큰 배에서 요란한 굉음과 배에 있던 화약들이 터져 배가 가라앉고 말았다. 파사국 전함은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 조민의 부하들 중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부하들은 모두 살기 위해 적선을 향해 수영해 갔으나 모두 적선에서 화살을 쏘아 죽이고 있었다.

장무기와 사손은 조금도 지체하지 못하고 노를 저었다. 육지라면 몰라도 바다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적선의 대포에 적중당하지 않는다 해도 파도가 높이 출렁거리기만 해도 그들의 작은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내력이 심후해 별로 피로를 느끼지는 않았다.

날이 밝자 사방이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장무기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 안개가 우리를 살려 주는군요.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적선은 절대로 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광풍이 몰아부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작은 배는 그만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참 추운 겨울이라 옷이 모두 젖어 장무기와 사손은 내력이 심후해 참을 수 있으나, 주지약과 소조는 추워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신발을 벗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퍼냈다.

"무기야, 내가 네 부모와 당시 배를 타고 나올 때는 지금보다 날씨가 더 험악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는 하! 하! 하!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년에는 네 부모와 같이 갔었지만, 오늘은 네가 혼자

여자 넷을 데리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하! 하! 하!"
 주지약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소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자약했다.
 "할아버지, 저는 도련님의 시중을 들어 주는 시녀에요."
 조민은 상처를 입고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또 다시 그런 엉터리 말씀을 하시면, 내 상처가 다 나은 후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하! 하! 소녀가 매우 무섭구나. 그런데 네가 어젯밤 모인 세 초식 중에 하나는 곤륜파의 옥쇄금강이고, 하나는 공동파의 인귀동도였는데, 세 번째는 무슨 초식인지 이 노인네가 들은 것이 별로 없어 모르겠구나."
 조민은 내심 탄복했다.
 '과연 금모사왕이군! 그의 이름이 왕년에 세상을 진동했다는 것이 헛소리는 아니야.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바람소리로 그 두 절초를 알 수 있다니.....'

 "세 번째는 무당파의 천지동수라는 초식입니다. 그것은 근래에 만든 초식이라 영감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음! 그런데 어찌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한 거지?"
 "그.....그건....."
 조민은 쑥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으나 끝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가 계속 주아를 안고 있어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녀가 자기 심정을 솔직히 말하자 모두 깜짝 놀랐다. 조민은 몽고 여자이기에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솔직한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생사를 모르는 위험 중에서도 솔직히 자기 심정을 털어놓은 것이다. 장무기는 내심 조민이 원래 자기의 적이

였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자 크게 감격했다.
비가 그치자 파도도 조용해지고, 그들은 모두 잠이 들어 버렸다. 약 세 시간이 지나자 사손이 먼저 깨었다. 그는 다섯 명의 청년 남녀의 숨소리와 파도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민과 주아는 상처를 입어 숨소리가 매우 빨랐다. 장무기의 숨소리는 매우 뚜렷해, 사손은 내심 자기 평생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력이 심후한 소년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조의 숨소리는 잠시 빨랐다가 잠시 느려서, 이 소녀가 배운 무공은 매우 기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손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그렇다면 이 소녀가 바로....."
그러자 갑자기 주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야, 왜 나와 영사도로 가지 않는 거지?"
이 외침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또 계속 외쳤다.
"나 혼자 섬에서 얼마나 고독했는데, 왜 나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죽어 지하에서 이런 내 마음을 아세요?"
장무기는 그녀의 이마를 만져보니 무척 뜨거웠다. 상처를 입고 열이 올라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배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장무기는 그저 옷자락을 찢어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를 적셔 주었다.
주아는 잠꼬대를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지 마세요. 새 엄마는 내가 죽인 것이니 나만 죽이세요."
"주아야, 주아야, 네 아버지가 여기 없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으면 됐지, 왜 둘째, 세째까지 얻어요? 그런 남자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예

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조금 전 꿈 속에서 마침 자기가 조민과 결혼한 후 또다시 주지약을 맞아들이고, 나중에 주아와, 소조까지도 얻게 된 꿈을 꾸었던 것이다.

"무기를 찾아다니다 당신이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증아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무공이 매우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시집가겠다고 맹세했어요."

조민, 주지약, 소조 세 사람은 모두 주아가 잠꼬대하면서 증아우라는 이름을 부르자, 그가 바로 장무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을 몰랐다. 세 소녀의 각기 다른 시선이 자기를 주시하자, 장무기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아는 계속 잠꼬대를 했다.

"그 아우 오빠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낭자, 내 진실로 당신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것이니,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오. 지금부터 누구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오. 내 전력을 다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오.' 무기 오빠, 이 아우 오빠의 인품은 당신보다 더 훌륭해요. 무기 오빠, 당시 당신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으세요?"

장무기는 처음에 그녀가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매우 난처하고 쑥스러웠으나, 듣고 나니 그만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때 안개가 모두 걷혀 옆으로 누운 주아의 몸매가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낮은 소리로 잠꼬대를 했다.

"무기 오빠, 당신은 지금 유명(幽冥)에서 고독하지 않으세요?

나는 파파와 같이 빙화도로 가서 당신의 의부를 모셔오고, 다시 무당산으로 돌아가 당신 부모의 묘에 제사드리고 난 후, 당신이 떨어져 죽은 절벽으로 가서 나도 떨어져 죽어 당신 곁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파파가 백살이 지난 후라야 됩니다. 지금은 당신곁으로 갈 수 없어요. 파파 혼자 외롭게 이 세상에 남겨 둘 수 없어요. 파파께서 나를 살려 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내 아버지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당신의 의부를 위해 파파를 배반했지만, 파파는 나를 무척 미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파파를 좋아하고 위해 드릴 거예요."

그의 이번 잠꼬대는 장무기와 상의하는 말투였다. 그녀는 장무기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연신 헛소리를 하며 잠꼬대를 했다.

다섯 사람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모두 바다를 바라보며 각기 자기들의 심사를 생각하며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매우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바다로 퍼져 나갔다.

----- 오늘을 넘겼으나 내일을 피할 수 없구나. 백세광음에 칠십고래희라.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유수와 같구나. -----

이것은 주아가 잠결에 부른 것이었다.

장무기는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노래는 광명정에서 성곤(成崑)에게 길일 막혀 위험에 처해 옴쭉달쭉 할 수 없을 때 소조가 부른 노래였다. 장무기는 그만 소조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소조도 자기를 멍청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7 장 십이(十二) 보수왕(寶樹王)과 성화령(聖火令)

주아는 다시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완전히 중토의 곡조와는 달랐다. 자세히 들으니, 뜻은 여전히 소조가 부르던 노래와 비슷했다.

----- 유수와 같이 흘러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어디서 왔다

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

그녀의 음성은 점점 가늘어지며 끝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사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 파사국 노래는 한부인이 가르쳐 준 것이야. 이십여 년 전 광명정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 한부인이 이렇게 매정하게 이런 독수를 내리다니....."

조민이 사손에게 물었다.

"영감님, 한부인이 어떻게 파사국 노래를 부를 줄 알지요? 이 노래는 명교의 노래입니까?"

"명교가 전해 온 곳이 파사국이지. 명교와는 많은 인연이 있지만, 명교의 노래는 아니야. 이 곡은 이백 년 전 파사국의 유명한 시인 아묵(峨默)이 만든 것인데, 듣자 하니 파사국에서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군. 당시 내가 한부인이 부르는 것을 듣고 내력을 묻자,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더군. 당시 파사국이 대철야망(大哲野芒)이라는 사람이 천막을 치고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하에 걸출한 세 제자가 있었는데, 아묵이라는 제자는 문학에 능통했고, 니약모는 정사에 밝고, 곽산은 무공이 절강했지. 세 사람은 의기가 투합하여 맹세하기를, 나중에 세 사람 모두 같이 부귀를 누리기를 약속했는데, 결국 뒤에 니약모는 교왕의 수상 자리까지 올랐지. 두 친구가 찾아오자 니약모는 교왕에게 청탁하여 곽산에게 벼슬을 내리게 해주었지. 아묵은 벼슬에 관심이 없어 다만 거액의 연금만 타고 문학 연구에만 전념했지. 그런데 곽산은 야심이 커 정변을 일으켰지.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자, 그는 부하를 결당하여 한 고장을 점령하고, 위세가 당당한 한 종파의 수령이 된 거야. 의사미량파(依斯美良派)라고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종파야. 십자군 시절에 서역의 산중노인 곽산(山中老人 霍山)이란 이름만 들어도 겁을 집어 먹었었지. 사실 서역의 많은

군왕들이 이 산중노인에게 죽음을 당했었지. 그런데 그 곽산이 왕년의 은혜를 잊고 니약모까지 암살한 거야. 바로 그 니약모가 죽으면서 부른 노래가 지금 이 주아가 부른 노래야. 그런데 그 뒤 산중노인 일파의 무공을 파사국 명교에서 습득한 거야. 파사국 삼사의 무공이 괴이한 것도 바로 이 산중노인의 무공일 거야."

"영감님, 한부인의 성격이 그 산중노인을 많이 닮았군요. 당신이 그녀를 그렇게 의리있게 대했는데도, 영감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희귀한 일이냐?"

조민은 고개 숙여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한부인이 명교 사왕(四王) 중에서 서열은 제일 높지만, 무공은 영감님보다 더 높지 못하던데, 어젯밤 파사국 삼사와 싸울 때 그녀는 왜 천주만독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천주만독수? 한부인은 그런 무공을 할 줄 몰라. 그녀와 같은 절세 미인은 얼굴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데, 감히 그런 무공을 익히겠느냐?"

장무기, 조민, 주지약은 그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들의 마음속엔 지금의 금화파파의 모습으로는 삼, 사 십년 더 젊어진다 해도, 절세미인이라는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조민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영감님, 제가 보기엔 금화파파가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은데요?"

"뭐라고? 자삼용왕은 이십여 년 전 무림의 제일가는 미인이었지.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해도 왕년의 미색은 남아 있을 거야. 나야 지금 볼 수 없지만....."

사손의 말에 조민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추악하게 생긴 노파가 왕년에 무림의 절세미인이었다니,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믿을 수 없었다.

"영감님의 명성은 천하가 다 알고, 또한 무공이 심후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백미응왕도 자신이 교파를 창립하고 육대문파와 맞섰고, 청익복왕 또한 신출귀몰하여 전에 만안사에서 내 얼굴을 훼손시키겠다고 겁주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섬찝합니다. 금화파파의 무공이 높다 하지만 서열이 세분 위라 하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이 양보한 거야."

"어째서죠?"

사손은 갑자기 껄껄 웃고 나더니 입을 열었다.

"영웅이란 미인관(美人關)을 빠져 나갈 수 없는 거야. 사실 대기사(黛綺絲) 미색에 매료됐던 사람이 어디 세 사람뿐이었겠느냐? 아마 교내 교외 해서 백 명은 넘었을 것이야."

"대기사라니요? 그게 바로 한부인의 이름입니까? 어딘가 좀 이상한데요?"

"그녀는 파사국 사람이라 파사국 이름이지."

장무기, 주지약, 조민은 모두 크게 놀랐다.

"네? 그녀가 파사국 사람이라니?"

사손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녀의 생김새를 보면 모르겠느냐? 그녀는 원래 중국과 파사국의 혼혈이야. 머리카락과 눈은 모두 검은 색이나 눈이 움푹 파였고, 코가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피부도 백설과 같이 하얗고, 우리 중토 여자와는 달라."

"아닙니다. 그녀는 코가 납작하고 눈도 좁쌀만하고, 영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장 공자, 그렇지 않습니까?"

"맞어. 그렇다면 그녀도 고두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훼손시켰단 말인가요?"

사손이 다시 물었다.

"고두타라니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명교의 광명우사 범요입니다."

그리고는 범요가 자기의 얼굴을 훼손하여, 모습을 바꿔 여양왕부에 들어갔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사손은 긴 탄식을 뿜었다.

"범형의 그런 행동은 정말 본교에 큰 공을 세운 것이야. 그것도 반 이상은 한부인의 자극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야."

"영감님, 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사손은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한참을 있더니,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십여 년 전 당시 명교는 양교주의 통솔 아래 교세가 무척 흥왕했었지.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세 명의 파사국 사람들이 파사국 명교 교주의 친서를 들고 와 양교주를 직접 만나겠다는 거야. 친서에 쓴 것을 보니, 파사국 총교에 정선사자(淨善使者)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중국인이라는군. 그는 파사국에 들어가 오래 살다 명교에 입교했는데, 공을 많이 세워 파사국 여자를 얻어 결혼을 하고 딸아이 하나를 낳았지. 이 정선사자는 그 뒤 일 년 후에 죽고 말았는데, 죽기 전에 고향을 생각하고 유언에 딸 자식을 중국에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양교주께서 승낙을 하자 그녀가 대청으로 들어왔지. 그녀가 들어오자 대청 안은 금방 환하게 밝아오는 분위기였지. 정말 뭐라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 그녀가 양교주에게 절을 하자 대청에 있던 좌우 광명사. 삼법왕, 오산인, 오행기사 어느 누구 하나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 데리고 왔던 세 명의 파사국 사람들은 다음날 파사국으로 떠나 버리고, 그 대기사라는 아름다운 소녀는 그 후 광명정에서 살게 된 것이야."

조민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영감님께서도 그 때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었군요? 사실대로 말

씀하세요."

사손은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나는 그 때 신혼이라 내 처와 매우 사랑을 했었지. 또 임신까지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마음을 품었겠나?"

그 말에 조민은 자기의 그런 물음에 매우 후회를 했다. 조민도 사손의 부인이 성곤에게 피살된 것을 알고 있었다. 공연히 사손의 슬픈 곳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조민은 다시 물었다.

"고두타 범요는 젊었을 때 무척 미남이었다는데, 대기사를 무척 좋아했었겠군요?"

이번엔 사손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말 첫눈에 반했었지.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했지. 그녀의 미색에 반한 총각들이 무척 많았지만, 대기사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지. 한번은 양교주 부인이 범요와 맺어 주려고 했는데, 대기사가 일언에 거절해 버렸어. 그건 무척이나 범요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 그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시집을 안 간다는 거야. 그후 누구도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된 거야. 그런데 그후 반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다 건너 영사도에서 한천엽(韓千葉)이라는 젊은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양교주를 찾아온 거야. 우리는 모두 그 대단치 않게 생긴 젊은이가 홀로 광명정에 복수하겠다고 나타나자 모두 비웃었지. 그러나 양교주는 큰 주연까지 베풀어 주었어. 연회가 끝나자 양교주는 그런 일이 생긴 연유를 털어 놓았지. 알고 보니 양교주는 그 젊은이의 부친과 사소한 말로 인해, 그만 대구천수(大九天手)라는 일장으로 그의 부친에게 중상을 입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불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때 그의 부친은 꼭 복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거야. 다만 자기의 무공으로는 상대가 되지 못해, 훗날 자기의 아들이 아니면 딸이라도 시켜 복수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때 양교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를 찾아올 땐 꼭 먼저 삼초(三招)를 양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초식을 양보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어떻게 무술을 겨룰 것인지 자기 자식에게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 양교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십여 년이 지나자 양교주는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아들을 보낸 거야.

모두는 생각하기를 혼자서 찾아올 땐 절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 그렇지만 양교주의 무공하면 천하 무적 아닌가! 아마 무당파의 장삼봉 진인 외엔 어느 누구도 그의 일초 반 식을 받아 낼 자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젊은이가 어떤 어려운 요구를 할지 그게 걱정스러웠지. 이튿날 그 한천엽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옛날의 약속을 공표하며 양교주가 다른 말을 못하게 하고 대결 방법을 말하더군. 그 자는 양교주와 광명정에 있는 벽수한담(碧水寒潭) 연못 속에서 겨루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정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 그 연못의 물은 얼음처럼 차가와 뼈를 깎는 것과 같았지. 아무리 더운 여름일지라도 누구 하나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지. 더우기 그 때는 한참 제일 추운 겨울이었거든. 양교주의 무공이 아무리 심후하지만, 그분은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 무술은 둘째치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이 아닌가?"

장무기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양교주께서 한 번 약속했으니 대장부 일언 중천금이라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민은 그 말에 장무기의 손을 움켜잡고 살짝 꼬집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대장부 일언 중천금인데, 명교의 교주 신분으로 어떻게 식언을 합니까?"

사실 그녀의 말뜻은, 장무기를 다시 깨우치는 것이었다. 사손이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바로 그것이야. 자기는 강호에 무명 소졸이라, 명교에서 자기를 무슨 방법을 써서 죽여도 강호에 누구도 알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를 죽이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자기를 죽이라는 거야. 양교주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지."

"한형제, 당시 영존과 맹세한 것이라 다른 소리하지 않겠네. 그러니 이번 싸움은 졌다고 인정하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맘대로 조치하게."

그러자 한천엽은 품 속에서 작은 비수 하나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지.

"이 비수는 선친의 것인데, 조치는 없고 다만 이 비수에 무릎을 꿇고 세 번 절을 하시오."

군웅들은 그 말에 모두 크게 놀랐지. 당당한 명교의 교주신분으로 어찌 그런 굴욕을 당한다는 건가? 그러나 양교주가 이미 졌다고 인정했으니, 강호의 규율로 따지면 그의 말을 안 들어 줄 수 없었지. 그는 양교주의 절을 받고 나서 그 비수로 자신은 자진을 하지, 명교의 손에 죽지 않겠다는 거야. 순간 대청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광명좌우사, 백미응왕, 팽영옥 등은 모두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속수무책이었지. 한천엽의 그런 행동은 양교주 스스로 자살하게 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것이었지. 바로 이 긴박한 상황에 대기사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 나온 거야.

"아버님, 저들에게 훌륭한 아들이 있다면 아버님한테는 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아들을 보냈다면, 이 딸이 아버님 대신 그의 초식을 받아 내겠습니다."

대기사가 양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자 모두는 깜짝 놀랐지. 그러나 그녀가 양교주의 위경을 해결하기 위해 가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즉시 깨달았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모두 대기사가

무슨 무술을 할 줄 아는가 하고 의심했고, 또한 무술을 익혔다 해도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지. 더우기 얼음장과 같은 연못 속인데 더 말할 나위가 없었지. 양교주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한천엽이 먼저 입을 열은 거야.

"딸이 아버지 대신 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딸이 져도 여전히 양교주가 이 비수를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한천엽은 대기사를 보자 연약한 여자라 우습게 본 거야. 그런데 대기사가 다시 한천엽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시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양교주를 향해 절을 하더군. 그 절을 올리면서 대기사는 양교주와 의부녀(義父女)가 된 것이야. 양교주는 대기사가 자기를 위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장포를 벗어던지고 단도를 꺼내들고는 일어서 대기사를 말렸다.

"대기사야, 너의 고마움은 알겠으나, 내가 그와 겨루겠다."

그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했던 거야. 그런데 대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해변에서 자라 물에 대해선 도통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즉시 장검을 뽑아 들고 연못 속으로 몸을 날려 얼음 위에 서서 검 끝으로 둘레에 작은 원을 그리더군. 그러자 얼음은 갈라졌고 그녀는 왼발을 그 둥근 얼음에 딛고 서서히 물 속으로 들어갔지.

그날은 차가운 북풍이 불어와 매우 추웠었지. 그날 그 연못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어제 있었던 일 같아. 대기사는 그날 엷은 자색의 옷을 입었는데, 그녀가 얼음 위에 선 자태는 정말 선녀와 다름없었다. 군웅들은 그녀가 얼음을 깨고 물 속으로 들어

가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 한천엽은 그녀의 신법을 보자 그만 오만한 기색이 금방 사라지고 말았지. 그는 비수를 들고 뒤따라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연못은 너무 깊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볼 수 없었으나, 물이 출렁이는 것은 볼 수 있었지. 잠시 후, 한천엽이 물 속에서 뛰어 올라왔지. 그런데 호흡이 매우 급박했어. 그런데 한천엽의 두 손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어. 그의 비수는 오히려 자기의 오른쪽 가슴에 꽂혀 있었고, 양쪽 뺨에 칼자국까지 나 있었지.

잠시 후 대기사는 물 속에서 몸을 날려 장검으로 방어하며 공중에서 제비넘기를 하며 얼음 위에 살짝 내려앉는 거야. 그의 그 신법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였어. 양교주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정말 기뻐 어쩔 줄 몰랐지. 정말 아무도 그녀가 물에 대해 그렇게 훌륭한 솜씨를 지녔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런데 대기사는 오히려 한천엽을 위해 사정을 했지.

"아버님, 이 사람의 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부친을 위해 복수하러 온 것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 주세요."

양교주는 즉시 승낙을 하고 신의 호청우를 시켜 상처를 치료해 주게 했던 거야. 그날 밤 광명정에는 정말 큰 주연이 베풀어졌지. 모두 대기사가 명교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이 자자했지. 그리하여 양부인이 그녀에게 자삼용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고, 응왕, 사왕, 복왕과 같이 병렬하게 된거야. 그런데 위 셋이 모두 그녀에게 첫째 서열을 양보한 거야.

"그런데 그 벽수한담의 일전이 정말 큰 뜻밖의 결과를 몰고온 거야. 한천엽이 패하긴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대기사의 환심을 얻게 된 거야. 아마 그녀가 매일 문병다니면서 사랑이 싹튼 모양이야. 한천엽의 상처가 다 치료되자 대기사는 갑자기 양교주에게 한천엽에게 시집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모두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하고 실망을 했지. 어떤 자는 본교의 호교법왕이

어떻게 그 자에게 시집갈 수 있냐고 떠들었고, 어떤 자는 한천엽을 모욕하고 인격을 무시했지. 그런데 대기사는 검을 들고 대청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맹세한 거야.

"지금부터 한천엽은 나의 부군이니 누구든 그를 모욕하는 자는 이 장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자 모두 한천엽이 입교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끝내 입교하지 못했지.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교주 부부가 실종된 거야. 광명정의 인심은 매우 어수선했지. 모두 양교주 부부를 찾아 나섰는데, 어느 날 밤 광명우사 범요가 한부인 대기사가 비밀 통로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녀가 비밀 통로에서?"

"그렇다. 명교의 교규가 매우 엄해 이 비밀 통로는 교주 한 사람 외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범요는 격노하여 그를 질책했었지. 그런데 한부인은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었지.

"내가 이미 본교의 교규를 어겼으니,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세요."

그날 밤 군효들은 대회를 열었으나, 한부인은 여전히 그 말밖에 하지 않았지.

사실 교규로 따지자면, 그녀는 자살을 하든가 자기가 스스로 한쪽 팔을 잘라야 했지. 그런데 범요는 자기가 그녀를 사모했던 정을 봐서 그녀를 변호해 주었고, 나 또한 옆에서 거들자 군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죄를 십 년 옥살이로 결정을 내렸지. 그런데 대기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양교주가 여기 없는 한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장무기가 갑자기 사손에게 물었다.

"의부, 한부인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비밀 통로에 들어 갔습니까?"

"그걸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지, 아마 명교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야. 그 당시 군호들은 모두 양교주가 실종한 일과 관련있다고 의심을 했지.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지. 결국 서로 대립이 되자 한부인은 끝내 파문출교(破門出敎)하고 말았지. 그리고 한천엽과 홀연히 광명정에서 내려가 행방을 감추어 버린 거야."

사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후 양교주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자, 서로 교주 자리를 노리고 쟁탈전을 벌이느라 점점 일은 난장판이 되어 버렸지. 그후 백미응왕 은형은 광명정을 떠나 혼자서 천응교라는 것을 창립했지. 내가 그렇게 말려도 듣지를 않아 결국 나하고 불목하게 된 거야. 이십여 년 전 왕반산의 천응교에서 위세를 떨칠 때, 난 그들의 위세를 꺾으려고 갔었지. 한편으로는 도룡도의 위세를 믿었고, 또한 당시 그와의 불목했던 것에 앙갚음을 하려고도 했고, 그가 명교를 떠나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도 싶었기 때문이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때 너무 심술을 부린 것 같다."

사손은 또 긴 탄식을 했다. 그의 탄식엔 무수한 강호의 풍파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모두 잠시 침묵을 지키자 조민이 입을 열었다.

"영감님, 그 뒤 금화와 은엽의 명성은 강호를 진동시켰는데, 명교에서 어찌 그 두 사람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은엽은 분명 한천엽인데 어떻게 독살당했습니까?"

"그 중간 사정은 나도 몰라."

"그런데 자삼용왕이 그렇게 미인이었다면 지금은 어째서 그렇게 추악해졌습니까? 자기 얼굴을 훼손시킨 자국은 없는데."

"내 생각엔 무슨 교묘한 방법으로 변장을 한 것 같아."

"파사국 총교에서 왜 그녀를 그렇게 찾는 겁니까?"

"그것이 한부인의 제일 큰 비밀이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영사도에 가서 그녀를 구출해 주기를 바라고 얘기를 해주지."

조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영사도에 다시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파사국 삼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손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옛일을 회상하며 입을 열었다.

"중토 명교의 교주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꼭 남자가 그 교주 자리를 지켰지만, 파사국 총교의 교주는 꼭 여자라야 교주가 될 수 있지. 그것도 꼭 시집을 안간 쳐녀라야 맡을 수 있지. 총교 경전에 규정되어 있기를 성처녀(聖處女)이어야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명교의 신성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 교주가 된 후엔 교중의 고위직에 있는 인사의 딸 세 명을 지명하여 소위 성녀라고 부르는데, 이 세 성녀는 맹세를 하고 나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명교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야. 교주가 죽고 나면 교중의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 그들의 공덕을 가려 한 성녀가 교주로 임명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이 세 성녀 중에 누구든 정조를 잃은 자는, 분신형(焚身刑)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야.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명교에서 꼭 체포해 죽이고 말았지."

"아! 그렇다면 그 한부인이 바로 그 세 성녀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네. 범요가 그녀가 비밀 통로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난 이미 먼저 발견했었지. 한부인이 나를 믿고 모든 사실을 고백한 거야. 그녀가 연못에서 한천엽과 살을 맞대고 싸운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끝내 그 일로 큰 화를 초래하게 된 거야. 그녀는 총교에서 언젠가는 사신을 보내와 조사를 할 것이 분명해. 그녀는 자기가 큰 공을 세워 그 죄 값을 치루려고 한 거야.

그녀가 비밀 통로에 들어간 것은 건곤이위라는 무공심법을 찾기 위해서였지. 그 심법은 총교에서 이미 잃어 버린 지 오래지만 중토 명교에는 아직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지. 총교에서 그녀를 광명정에 보내온 것도 바로 그게 목적이었지. 어디 갔어도 그 심법을 찾지 못했어. 난 그녀에게 정중하게 경고했지. 그것은 본교의 대규를 범하는 것이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조민이 그의 말을 가로 막았다.

"아, 이제 알았어요. 한부인이 파문출교한 것도 바로 그 비밀 통로에 계속 드나들기 위해서였군요. 명교인이 아니니 그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낭자는 아주 총명하군. 그렇지만 광명정은 본교의 근본적인 요지인데, 어찌 외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겠나? 그때 나도 그녀의 뜻을 알았지. 한부인이 광명정을 떠나자 난 직접 내가 그 비밀 통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후 한부인은 세 번이나 왔었는데, 나를 보자 다시 가 버리곤 했지."

사손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물었다.

"그 파사국 삼사의 복장이 중토 명교의 복장과 다른 점이 없었느냐?"

"그들은 모두 백포를 입었고 옷자락엔 빨간 색의 불길이 그려져 있었고, 옷 끝에 검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그게 중토 명교와 틀린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야. 총교 교주가 죽어 검은 테두리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야. 그들은 신교주를 세우기 위해 천리만리를 불사하고 한부인을 찾아온 것이야."

장무기가 다시 물었다.

"한부인이 파사국에서 왔다면 필시 그 파사국 삼사의 괴이한 무공을 알 텐데, 어찌 상대의 일초 반식에 손도 못 써보고 그들에게 제압당했습니까?"

그말에 조민은 웃으며 말했다.

"아주 둔하군요. 한부인은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마 그 때 영감님이 파사국 삼사의 말에 복종하고 한부인을 죽이려고 했다면, 한부인은 분명 달리 피신할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한부인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그런 것은 맞아. 그렇지만 파사국 삼사에게 봉혈을 당하고 바로 도망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녀는 아마 내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분신형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야."

조민이 다시 말을 꺼냈다.

"중토 명교만 사교인 줄 알았더니, 파사국 총교는 더 사교군요. 왜 꼭 처녀가 교주를 해야 되며, 그리고 정조를 잃으면 분신형을 하다니....."

그 말에 사손이 그녀를 나무랐다.

"어린 소녀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교파마다 다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나 의전이 있는 법이야. 뭣이 사교라는 거냐?"

갑자기 주아가 이를 부딪치며 몸을 달달 떨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이마를 만져 보니 불덩어리였다. 그녀의 병세가 무척 심한 것 같았다.

"의부님, 저도 영사도로 가고 싶습니다. 주 낭자의 상세가 위독해 약을 구해야겠습니다. 설사 한부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주 낭자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 주 낭자가 너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안 살려서야 되겠느냐? 주 낭자, 조 낭자,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떻소?"

조민이 대답을 했다.

"내 상처는 대수롭지 않지만 주 낭자의 상처가 중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주지약도 사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영감님이 가신다면 저희도 따라가겠어요."

그들은 안개가 걷히자 그제서야 방향을 잡아 서북쪽으로 노를 저었다.

장무기와 사손은 파사국 삼사의 연합 무공에 대해 연구했으나, 시종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눈앞에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보기엔 바로 앞인 것 같지만, 바다라 수십 리 길은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다시 반나절이나 노를 저어 불빛과 접근하자 장무기가 외쳤다.

"저기가 바로 영사도입니다."

사손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냈다.

"왜 영사도에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설마 그들이 한부인을 화형하는 것은 아니겠지?"

쿵! 그 말에 소조가 그만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다. 장무기는 재빨리 뛰어가 그녀를 부축하며, 그의 혈도를 눌러 깨우고 그녀에게 물었다.

"소조, 왜 그러는 거야?"

소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부인이 화형을 당한다는 말에 그만 겁이 나서 기절한 거예요."

"그건 의부님의 추측이야."

"장공자, 제발 한부인을 좀 구해 주세요."

"모두 힘껏 노력해야지."

그들은 모두 합심하여 노를 더 빨리 저었다.

조민이 갑자기 장무기에게 물었다.

"장공자, 오랫 동안 생각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 무슨 일이요?"

"전에 녹류산장 밖에서 내가 당신의 외조부와 양좌사 등 여러 사람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소조 낭자가 앞에 나서 지휘를 하며 저항했어요. 그 때 정말 용장 밑에 약물이 없다고, 명교 교주 밑에 있는 한 명의 시녀가 그렇게 훌륭한 재주가 있을 줄은....."

사손이 갑자기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니, 명교의 교주라니?"

"영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이 의자가 바로 당당한 명교의 교주이십니다. 당신이 오히려 그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사손은 반신반의하며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장무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손에게 낱낱이 얘기해 주었다.

사손은 기분이 매우 좋아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금모사왕, 교주께 인사드립니다."

장무기는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의부님, 그러지 마세요. 양교주의 유언에 의부님께서 교주 직위를 잠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런 중책을 감당해 낼까 걱정했었습니다만, 다행히 하늘이 도와 의부께서 아무 탈 없이 돌아오셨으니, 정말 본교의 홍복입니다. 중토에 돌아가면 의부께서 교주의 직책을 맡으세요."

"아무 탈 없다니? 난 이미 두 눈이 멀었는데 명교의 교주를 어찌 장님한테 맡기겠느냐? 조 낭자, 그래 무슨 두 가지 이해 못할 일이 있소?"

"소조 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기문팔괘(氣門八卦),음양오행(陰陽五行)을 누가 가르쳐 주었으며,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런 이상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의 가전무공입니다."

"영존은 누구세요? 딸이 이렇게 대단하니, 부모님은 필시 천하의 일류 고수가 틀림없을 거예요."

"저의 아버님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묻지 마세요. 설마 내 손가락을 자르면서 강제로 캐묻지는 않겠지요?"

소조는 어린 나이지만 조금도 조민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가락 자르는 얘기마저 꺼내는 것은 주지약이 조민을 미워하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조민은 웃으며 다시 장무기에게 물었다.

"장공자, 우리가 그날 밤 두 번째로 주점에서 만날 때, 고두타 범요가 나한테 작별을 고하면서 소조 낭자를 보고 무슨 말인가 두 마디를 했었지요?"

장무기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소조의 모습이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배는 섬에 점점 접근했다. 섬 서쪽에 큰 배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무기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파사국 총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파견했군. 우리는 섬 뒤쪽으로 돌아가 조용한 곳에다 배를 댑시다. 저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그들의 배가 삼사 장 거리밖에 못 가 갑자기 큰 배에서 호각소리가 울리며 펑! 펑! 하고 두 발의 포를 쏘자 그들의 작은 배 양쪽에 떨어졌다. 그러자 두 개의 물기둥이 치솟으며 작은 배는 휘청하며 전복될 뻔했다.

큰 배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배를 이쪽으로 몰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배를 가라앉히겠다!"

그들은 별수없이 큰 배 쪽으로 노를 저었다. 큰 배에 접근하자

큰 배에서 줄사다리를 내렸다.

"기회를 보아 배를 강탈합시다."

사손이 제일 먼저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 뒤엔 주지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아를 안고 올라갔고, 그 뒤엔 소조, 맨 뒤엔 장무기가 조민을 안고 올라갔다. 배 위에 오르니 상대는 모두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고 모두 몸집이 큰 파사국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전에 보았던 파사국 삼사는 안에 없었다.

중국 말을 구사할 줄 아는 한 파사국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누군데 여기에 왔는가?"

조민이 대답을 했다.

"우린 바다에서 표류하여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파사인은 반신반의하여 갑판 중앙 의자에 앉은 수령에게 뭐라고 말을 주고 받더니, 다시 수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 순간 소조가 갑자기 몸을 날려 수령을 향해 장풍을 뻗었다. 그 수령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의자를 집어들고 소조를 향해 내리치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소조가 이렇게 빨리 공격을 취할 줄 모르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자, 그는 재빨리 몸을 날려 수령의 혈도를 찔러 버렸다. 배 안은 금방 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그들의 무공도 모두 높았으나 전의 파사국 삼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배를 강탈하고 점령해 버렸다.

그러자 사방에서 고동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큰 배들이 그들을 향해 접근해왔다.

장무기는 파사국 수령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든 이 배로 올라오면, 당장 이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떠들며 소란을 피웠다. 장무기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저들이 감히 이 배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수령의 직위가 무척 높은 사람일 것

이라고 짐작했다.

장무기는 다시 갑판으로 돌아와 막 잡고 있던 수령을 풀어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탱!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병기가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발로 걷어차자 앞에 다시 한 성화령이 자기를 공격해 왔다. 그러자 곧바로 옆에서도 성화령이 자기를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유운사, 휘월사, 묘풍사 셋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모두 빨리 선창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수령의 목덜미를 잡고 한쪽의 성화령을 막았다. 그러자 그 성화령은 그만 그 수령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다.

그 수령을 때리게 된 묘풍사는 즉시 물러서며, 공손히 그 수령에게 사과를 했다. 갑자기 고동소리가 울리며 한 척의 큰 배가 서서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열 두 개의 금색 깃발을 달고 있었다.

배에는 열 두 개의 호랑이 가죽을 씌운 의자가 있었는데, 모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한 의자만 비어 있었다. 그 배는 가까이 접근해 와 멈추었다. 비어 있는 의자는 여섯 번째에 놓여 있었다.

조민이 장무기에게 말했다.

"우리가 잡은 저 자의 옷이 저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 저 열 두 수령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아마 서열이 여섯 번째쯤 되는 모양이군요."

사손이 입을 열었다.

"음! 총교의 십이 보수왕(寶樹王)이 온 모양이군. 대단하구나."

조민이 그에게 물었다.

"십이 보수왕이라뇨?"

"파사국 총교 교주 밑엔 열 두 명의 대경사(大經師)가 있는데, 십이 보수왕이라고 부르지. 신분으로 따지면 우리의 사대법왕과

같은 직위야. 첫째는 대성(大聖), 둘째는 지혜(智慧), 셋째는 상승(常勝), 넷째는 장화(掌火), 다섯째는 근수(勤修), 여섯째는 평등(平等), 일곱째는 신심(信心), 여덟째는 진악(鎭惡), 아홉째는 정직(正直), 열 번째는 공덕(功德), 얼 한번째는 제심(齊心), 열 두번째는 구명(俱明)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이 십이 보수왕은 모두 교리와 경전에 통달하고 무공은 전혀 할 줄 모른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여섯 번째라면 평등 보수왕이군."

장무기는 한쪽에 앉아 평등왕을 자기 무릎에 눕혔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 남으려면 이 자를 잘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를 쳐다보니, 성화령을 맞은 뺨은 크게 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듯했다. 아마 묘풍사가 내리칠 때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재빨리 힘을 거두어 들인 것 같았다. 또한 이 사람도 상당한 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사방을 둘러보니, 주위에 큰 배들이 자기네들을 완전 포위하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다 쳐들어 올라온다면, 그 천여 명을 모두 당해 낼 능력이 절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한 파사인이 중국말로 크게 외쳤다.

"금모사왕은 듣거라! 총교 십이 보수왕이 모두 여기 계신데, 네가 총교에 저지른 죄 십이 보수왕께서 너그러이 용서해주시니, 어서 우리의 교우를 풀어 주고 다른 데로 떠나거라."

사손은 가볍게 웃었다.

"나 사모(謝某)는 세 살 어린애도 아닌데, 너희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으냐? 우리가 포로를 석방하면 너희는 즉시 포격할 것이 아니냐?"

"네가 포로를 석방 안 한다고 우리가 포를 쏘지 않을 것 같으냐?"

"나한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들어주면 이 포로를 풀어주겠다."

"무슨 조건이냐?"

"첫째, 오늘 이후 총교와 우리 중토 명교는 서로 존경하며 절대 서로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대기사의 정조를 잃은 죄를 다시는 묻지 말고 그녀를 이 배로 오게 해주어야 하고....."

"그 조건은 절대로 승낙할 수 없다. 대기사는 총교의 대규를 어겨 분신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 중토 명교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 셋째는 무엇이냐?"

"둘째 조건을 승낙 못하는데, 세 번째를 말해서 뭘하느냐?"

"그래도 한 번 얘기해 보아라."

"셋째는 아주 쉽지. 우리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보내 우리의 뒤를 오십 리 정도 따라오게 한 후, 그 동안 너희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때 포로들을 모두 작은 배로 석방해 주겠다."

"헛소리 말아라!"

이 자는 바로 십이 보수왕 중의 말석인 구명 보수왕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소조가 앗! 하고 놀라며 외쳤다. 장무기가 그쪽을 보니 유운사가 한 여인을 끌고 십이 보수왕의 좌석앞으로 가고 있었다. 그 여인은 남루한 옷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파파였다. 두 번째 좌석에 앉은 지혜 보수왕이 뭐라고 그녀에게 묻자, 금화파파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인지 난 하나도 모르오."

지혜왕은 냉소를 지으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금화파파의 흰 머리를 낚아챘다. 그러자 그만 검은 색의 머리카락이 나타났다. 금화파파가 얼굴을 다른쪽으로 돌리자, 지혜 보수왕은 다시 그녀의 얼굴에서 한 꺼풀의 껍질을 벗겨 냈다. 그것은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었다. 금화파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대기사는 자기의 진면목이 탄로나자 그녀는 모든것을 포기한 듯, 지팡이를 내팽개치며 가볍게 냉소를 짓고 있었다.

지혜왕이 다시 그녀에게 뭐라고 묻자, 대기사는 파사국 말로 대답했다.

조민이 갑자기 물었다.

"소조 낭자,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총명해요. 그런데 왜 미리 영감님께 두 번째 조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원래 금화파파가 진짜 대기사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영감님께서 앞을 못 봐 금화파파의 가장이 얼마나 진짜 같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가장한 것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조 낭자 당신은 알잖아요."

"소조 낭자,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는 파사국 사람들이 확실히 금화파파가 대기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손은 미안한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심 무슨 수를 쓰든 대기사를 구출해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소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들이 지금 금화파파를 분신형에 처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장무기가 입을 열었다.

"소조, 너무 상심하지 마라. 기회만 생기면 즉시 파파를 구해낼 테니까."

사실 장무기는 평소 파파라고 부르던 것이 습관이 됐지만, 자삼용왕의 지금의 모습은 이미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조민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지약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소조의 큰 언니뻘 되는 것처럼 보였다.

"천만에요. 십일 명의 보수왕, 그리고 풍운 삼사를 합치면 우린 그들의 적수가 못 돼요. 지금 저들은 어떻게 평등왕을 구출해 낼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조민이 말했다.

"흥! 평등왕이 살아 돌아간다 해도 얼굴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정말 꼴볼견이겠군요."

장무기가 물었다.

"아니, 글씨라니?"

"아까 그 노란 수염이 성화령으로 그 자를 잘못 때렸을 때..... 앗!"

조민은 갑자기 무엇이 떠올랐는지 소조에게 물었다.

"소조, 파사국 문자를 아세요?"

"네, 알아요."

"빨리 좀 보세요. 뭐라고 새겨졌는지."

소조는 몸을 일으켜 평등왕을 보니, 그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글씨 자국이 깊이 나 있었다.

소조는 전에 장무기와 광명정의 비밀 통로에 들어가 건곤이위심법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었다. 장무기의 분부가 없어 연마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외쳤다.

"저것은 건곤이위심법입니다."

장무기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건곤이위심법이라니?"

"아! 아니군요. 처음 볼 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아니군요. 그런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응좌측전(應左側前) 수우내후(須右乃後) 삼허칠실(三虛七實) 무중생유(無中生有), 그리고 무슨 천방지원(天方地圓) 밑엔 자세히 보이지 않아요."

장무기는 그 말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 하며, 하늘의 검은 먹구름이 일시에 걷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오리무중에서 하나의 출구를 찾은 기분이 들었다.

"응좌측전 수우내후!"

그는 그것을 건곤이위심법에 배합해서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리송했다.

"장공자, 조심하세요. 저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풍운 삼사는 당신을 공격하고 근수왕과 진악왕, 그리고 공덕왕은 평등왕을 구출해 내려고 그래요."

사손은 평등왕을 자기 앞에 잡아 놓고, 도룡도를 장무기에게 건네 주었다.

"무조건 내휘둘러라."

조민도 의천검을 주지약에게 건네주었다. 자금은 모두 합심해서 적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

근수, 진악, 공덕은 몸을 이쪽으로 날려 사손을 향해 공격을 했다.

그들은 평등왕이 다치게 될까 두려워 병기를 쓰지 않고 주먹이나 장력만 사용했다. 주지약은 의천검을 들고 사손을 도왔다.

한 쪽에선 장무기와 풍운 삼사가 한데 엉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두려워 조금도 감히 쉽게 덤벼들지 못했다.

휘월사가 성화령으로 장무기를 내려쳤다. 그런데 무학의 이치로 보아 그것은 분명히 장무기의 왼쪽 어깨에 와 맞아야 하는데, 웬일인지 중도에 갑자기 괴이하게 원을 그리고 그만 장무기의 뒷덜미에 와 맞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극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그는 갑자기 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풍운 삼사가 쓰고 있는 무공은 건곤이위심법의 제 일층 무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화령에 다른 변화로 사용하는 용법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소조가 읊은 네 구절의 구결을 완전 터득했다. 다만 천방지원인가 뭔가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내심 이 성화령을 뺏어와 거기에 새겨진 글씨를 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삼허칠실의 초식으로 순식간에 휘월사의 두 성화령을 모두 빼앗아왔다. 그리

고 다시 무중생유의 초식으로 유운사의 두 성화령 마저 뺏고 나서, 두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내팽겨쳐 버렸다.

파사국 교도들은 그것을 보자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다. 그 사이 묘풍사는 잽싸게 자기네 배로 달아나려고 했다. 장무기는 어느새 그들의 무공 요점을 모두 파악했다. 묘풍사의 무공은 그의 앞에서는 이미 아무런 신비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어느새 재빨리 그의 발목을 잡아 낚아채며 그의 성화령을 모두 빼어 버리고 혈도를 찌르고 나서 한쪽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갑자기 장무기가 완전히 강세를 보이자, 모두 놀라면서도 기뻐 그 연유를 물었다.

"운이 좋아 평등왕이 성화령을 맞고 글씨 자국이 생겨 우리를 살려 준 겁니다. 자, 소조야, 어서 빨리 이 성화령에 씌어진 글씨를 읽어 보아라."

소조가 성화령을 받아 읽어 내렸다. 장무기가 들으니, 그것은 모두 건곤이위심법의 입문 공부였다.

사실 이 여섯 개의 성화령은 명교와 같이 중토에 들어와 성화령은 중토 명교의 영부(令符)가 됐는데,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중토 명교에는 파사국 문자를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수십 년 전 성화령을 개방에서 강탈해 가 어떤 경로를 거쳐 파사국 거상에게 팔려 다시 파사국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 것이었다. 파사국 총교에서 성화령에 새긴 문자를 수십 년간 연구하여 직분이 좀 높은 사람들의 무공이 많은 진보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 새긴 무공이 너무 정심하여 수양이 제일 깊은 대성보수왕 마저도 그것의 삼, 사성밖에 터득하지 못했다.

건곤이위심법은 사실 파사국 명교의 호교신공이나, 그 오묘한 무공을 보통 사람은 터득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중토 명교에서 완전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파사국 명교에서는 일성 정도 되는 구건곤이위 무공과 이, 삼성의 새로운 성화령의 무

공으로, 이런 괴이한 무공으로 변화시켜 온 것이다.

장무기는 뱃머리에 정좌하고 앉아 소조가 번역해 주는 문자를 자세히 들으며 연구를 했다. 장무기는 소조가 다 읽어 주자 이에 칠, 팔성을 터득했다. 그 정도로도 십이 보수왕이나 풍운 삼사의 무공은 그의 앞에서는 보잘것 없게 되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 대기사의 손발에는 수갑과 쇠사슬이 묶여졌다. 십일 보수왕은 무엇인가 토의를 하더니, 입고 있던 장포를 벗어 버리고 가벼운 갑옷으로 갈아 입더니, 각기 이상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앞뒤로 포위한 배에는 파사인들이 모두 줄을 서서 활을 장무기가 있는 쪽으로 겨냥하고, 열 명의 파사인들은 따로 도끼를 들고 수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이쪽의 배 밑에 구멍을 뚫어 가라앉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중앙에 앉아 있던 대성 보수왕이 대갈일성하자, 사면에서 북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호각소리가 요란했다. 십일 명의 보수왕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이쪽 배로 몸을 날려 건너왔다. 그러나 바로 즉시 접근하지 못하고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다.

지혜왕은 중국말로 말을 건네왔다.

"어서 빨리 우리의 교우를 풀어 주어라. 당신네들이 잡고 있는 포로는 우리한테는 조금도 중요치 않은 인물들이다. 너희들이 용기가 있으면 그들을 즉시 죽여 봐라. 우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조민이 그의 말을 받았다.

"큰소리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평등 보수왕과 묘풍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소. 또한 파사국 명교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네 말대로 죽여드리지. 자, 어서 그 자의 머리를 내리치세요."

"알았소!"

사손이 대답하고 나서 도룡도를 쳐들고 평등왕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머리까지 닿는 순간 바로 그 자의 머리 위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평등왕의 머리카락이 잘려 바다 바람에 사방으로 흩어져 날렸다. 사손은 다시 그 자의 양어깨를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며 검을 휘둘렀다. 휘두를 때마다 꼭 그의 두 팔을 잘라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그 자의 옷 소매자락만 찢어 냈다. 그러나 그의 휘두름은 매우 맹렬하여 장님이 아니라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솜씨를 보일 수 없었다.

평등왕은 겁에 질려 혼이 빠져 기절할 정도였다. 십일명의 보수왕, 그리고 풍운 삼사는, 모두 넋이 빠져 멍청히 쳐다보며 혀를 내둘렀다.

조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중토 명교의 무공 실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까? 이분은 금모사왕이신데, 중토 명교에서 지위가 삼천 번째 되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네들이 인원수가 많다고 우리를 공격하면, 앞으로 중토 명교와 파사국은 원수지간이 되어 중토 명교에서 파사국 총교를 깨끗이 소탕해 버릴 것이오. 그러니 일찌감치 협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지혜왕은 조민의 말을 믿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성 보수왕이 갑자기 파사국 말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소조가 그것을 보고 외쳤다.

"적들이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해요."

만약 저들이 배에 구멍을 내어 가라앉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일이었다. 모두들 수영을 할 줄 모르므로 그들에게 잡힐 수 밖에 없었다. 장무기의 몸이 움직이자 어느새 대성왕 앞에 접근했다. 곧이어 양쪽에 서 있던 공덕왕과 장화왕이 각기 쇠망치와 채찍을 들고 동시에 장무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장무기는 이미 그들의 무공에 대해선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목을 움켜쥐었다. 그러면서 다리를 뻗어 연속으로 걷어차며 제심왕과 진악왕 손에 쥔 큰 칼을 걷어차 떨어뜨리고, 다시 두 발로 근수왕과 구명왕을 바다 속으로 걷어차 떨어뜨렸다.

그러자 보수왕 중에 한 명인 키가 크고 빼빼 마른 한 명이 두 손에 단검을 들고 장무기의 배를 향해 찔렀다. 그의 초식은 매우 영리하고 날카로왔다. 이 자는 바로 보수왕 중의 상승왕이었다. 파사국 총교 십이왕 중에서 무공이 제일가는자였다.

장무기는 공덕왕과 장화왕의 혈도를 봉하고 나서 두 사람을 선창 안으로 던져 버리고, 다시 상승왕과 맞싸웠다. 상승왕의 무공은 다른 왕들과 완전히 달랐다.

장무기는 내심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정말 무공이 훌륭한 파사국 사람이군.'

장무기는 성화령에 적힌 무공을 터득했지만, 그것을 연습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강적을 만나자 그는 하나 하나 생각하며 그와 상대했다.

처음 십여 초식까지는 장무기는 순전히 심후한 내력으로 그와 막상막하를 보였으나, 이십여 초식이 지나자 점점 성화령의 무공과 건곤이위심법이 배합되어 조금씩 우세를 보였다.

상승이라고 호칭이 붙은 그 자도 평생 이런 적수와 만난 적이 없었다. 삼십여 초가 지나자 장무기는 그 자의 다리에 중도(中都), 축빈(築賓) 양혈을 봉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토 무공의 나혈지법(拿穴之法)이었다. 상승왕은 그만 두 디리에 힘이 풀리면서 마비가 되어 탄식을 터뜨리며 장무기에게 순순히 잡히고 말았다.

장무기는 그 자의 재능이 아까워 그 자를 살려 주고 싶었다.

"당신의 무공은 매우 훌륭하오. 당신을 헤치지 않을 것이니 어

서 돌아가시오."
 상승왕은 진정 감격하면서도 한편 창피스럽기도 하여, 재빨리 자기 배로 몸을 날려 돌아갔다.
 조민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어서 빨리 대기사를 우리 쪽으로 넘기고, 금모사왕의 세 조건을 따르시오!"
 남은 보수왕들이 모여 뭐라고 상의를 했다.
 잠시 후 지혜왕이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의 조건을 들어줄 수도 있소. 그러나 이 젊은이의 무공은 분명히 우리 파사파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소?"
 "당신네들은 본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오. 이 청년은 중토 명교의 광명좌사 밑의 여덟 제자 중의 막내요. 잠시 후에 일곱 명의 사형들이 당도하면 당신네들은 살아 남기 힘들 거요."
 지혜왕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좋소. 대기사를 주겠소."
 두 명의 파사 교도가 대기사를 장무기의 뱃머리로 데리고 갔다. 주지약이 검을 휘둘러 대기사의 쇠사슬을 잘라 버리자, 그 두 명은 검의 예리함에 놀라 겁에 질려 재빨리 자기네 배로 돌아갔다. 그런 후 다시 작은배 한 척을 보냈다.
 장무기 일행이 배를 몰고 얼마쯤 가자 날이 어두어졌다. 파사국 배가 뒤따라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장무기는 사손에게 말했다.
 "의부님,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 드리지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자 묘풍사가 말했다.
 "이 여섯 개의 성화령은 제가 장관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잃으면 무거운 죄를 받으니 그것도 함께 돌려 주시지요."
 "이 성화령은 중토 명교 교주가 지니고 있는 영부요. 오늘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려 주겠소?"

공덕왕이 배에 달린 줄을 잘라 버리자, 두 배는 떨어져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순간 갑자기 대기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몸을 바다 속으로 날렸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곧이어 바다 속에서 빨간 피가 스며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대기사가 입에 단검을 물고 한손에 파사인의 머리카락을 쥐고 올라왔다.

그제서야 모두는 파사인들이 간계를 부린 것을 알았다. 그 때 갑자기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배 꼬리에 폭약이 터지며 큰 구멍이 생겼다. 그러자 배 속으로 물이 왈칵 쏟아져 들어오고 타도 온데간데 없이 떨어져 나갔다.

조민은 마음 속으로, 잠시 지나면 페르샤의 큰배가 쫓아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대기사가 소조에게 뭐라고 파사국말로 중얼거렸다. 소조도 파사국 말로 뭐라고 대답을 하며 두 사람의 표정이 수시로 변했다.

한참을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 대기사는 소조를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조민이 장무기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았어요."

장무기가 쳐다보니 두 사람은 정말 흡사하게 생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인가?

대기사가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교주, 걱정 마세요. 그들이 쫓아오면 나와 소조가 해결 하겠습니다. 나 자삼용왕은 여자의 몸이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감당할 겁니다. 장교주의 은혜는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창에 물이 들어와 장무기는 주아를 안고, 주지약은 조민을 안고 모두 돛대 위에 매달렸다.

소조가 갑자기 동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모두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멀리 십여 척의 배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점점 접근한 그들은 배를 멈추고 포구를 그들의 돛대를 향해 조준하고 나서, 지혜왕이 크게 웃으며 으시대며 외쳤다.

"자, 이제 항복하겠느냐?"

장무기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중토의 의사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남한데 항복하지는 않소. 당신네들이 정말 대장부라면 정정당당하게 무공으로 겨룹시다."

"하! 하! 대장부란 머리로 싸우지 힘으로 싸우지는 않아."

대기사가 갑자기 파사국 말로 크게 외쳤다. 그러자 지혜왕은 깜짝 놀라며 역시 뭐라고 대답했다. 몇 차례 일문일답을 하고 나자 저쪽에서 여덟 명이 작은 배로 갈아 타고 이쪽을 향해 접근해 왔다.

"장교주, 나와 소조가 먼저 저 작은 배로 갈 것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손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한부인, 당신이 만약 우리를 팔아 먹는다면 나 사손은 죽어서도 당신을 용서치 못할 것이요!"

대기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 의자만 귀한 줄 아시는 모양인데, 나도 내 딸이 누구보다도 귀중하오."

소조는 과연 그녀의 딸이었다.

대기사는 소조를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의 큰 배로 올라가 여러 보수왕들과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네들의 배는 점점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사손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무기야, 넌 소조를 잘못 본 거야. 나 역시 한부인을 잘못 봤구나."
주지약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조는 절대로 장공자를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조민이 말했다.
"저기 자삼용왕이 연실 소조를 협박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끝내 고개를 끄덕거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십여 척의 배에 있는 파사인들이 큰 배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큰 배의 십이 보수왕도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세히는 볼 수 없었으나 중간 의자에 앉은 사람은 소조인 것 같았다. 그들의 외침으로 무슨 경사가 난 듯이 보였다.
잠시 후, 다시 작은 배 한 척이 장무기가 있는 쪽으로 접근해 왔다. 배에 탄 사람은 바로 소조였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외쳤다.
"장공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저 큰 배로 가세요! 파사국 명교에서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에요."
조민이 물었다.
"어째서죠?"
"저 큰 배로 가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손이 갑자기 외쳤다.
"소조, 네가 총교의 교주가 됐느냐?"
소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간 장무기도 사정을 파악했다.

"소조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였구나."

소조는 고개를 돌리고 장무기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사손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대기사에게 이런 딸이 있었구나. 무기야, 건너가자."

그들 일행이 모두 큰 배로 올라가자 소조는 사람을 시켜 그들에게 젖은 옷을 갈아입게 하고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장무기가 막 젖은 몸을 닦아 내자, 문이 열리며 소조가 새 옷을 들고 들어왔다.

"장공자, 제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겠습니다."

"소조야, 너는 이미 총교의 교주가 아니냐? 말하자면, 난 너의 부하나 다름없는데 어찌해 시중을 들겠느냐?"

"공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조야, 처음엔 네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대해 줄 줄은 정말 몰랐구나."

소조는 머리를 장무기의 넓은 가슴에 기대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공자, 전에는 제가 정말 공자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총교의 세 명의 성처녀 중의 한 명이었고, 후에 아버지를 만나 중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성처녀가 지니고 있는 무지개 색깔의 보석반지를 저에게 물려주시며 저를 광명정으로 보내 건곤이위심법을 훔쳐 내게 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속여 왔던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엔 당신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사국 총교 교주보다 당신의 시녀가 되기를 원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추호도 건곤이위심법에 대해서는 입밖에 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 할 수 없이 그것을 폭로한 것이에요."

"이제 나도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갑자기 밖에서 대기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소조야, 네가 네 감정을 억제 못하고 장공자의 목숨을 잃게 하려고 하느냐?"

소조는 갑자기 몸을 떨며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장공자, 지금부터 나를 잊어 버리고 기억에서 지워 버리세요. 그리고 주아는 수년을 저의 어머니를 따르며 당신을 무척 사모했고, 정말 당신의 좋은 베필감입니다."

장무기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뛰쳐나가 다시 저들의 보수왕 몇 명을 인질로 잡고, 여기서 빠져 나가자."

소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쯤 사대협이나 은낭자 옆엔, 파사인들이 칼을 그들의 목에 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그들은 즉시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러자 대기사가 문 밖에 서 있고, 두 명의 파사인이 장검을 들고 그녀의 뒤에 지켜 서 있었다. 검 끝이 대기사의 등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소조는 당당하게 갑판으로 걸아 나갔다. 장무기도 그녀의 뒤를 따라 갑판으로 올라갔다.

과연 갑판에는 사손 등 여러 사람을 파사국 무사들이 위협하고 있었다.

"장공자, 여기 파사국의 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아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시켜 당신네들을 중토까지 모셔가게 할 테니, 이제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어요. 소조가 비록 멀리 파사국에 있지만, 밤낮으로 장공자가 옥체 안강하시기를 빌 테니, 만사 순조롭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일행은 모두 다른 배로 갈아탔다. 소조는 도룡도와 의천검을 모

두 장무기에게 돌려주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의 인사를 했다.

장무기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느새 소조가 탄 배에서 고동소리가 울리더니, 돛을 올리고 서서히 움직였다. 두 배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